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김지경 · 송현주 · 김일우 ·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저 자 김지경, 송현주, 김일우, 김윤희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송현주(H통계연구소 대표)
_김일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김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보고서를 펴내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가 2020년 사상 첫 통계수치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고, 동시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일명 ‘지방소멸’의 위험은 가속화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절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2021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이제까지 논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수많은 정책 논의에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존재하나,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9세~24세 청소년은 지역 인구 유출의 주된 연령층이고, 이들의 정주 여부가 지역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중앙과 지자체 모두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너무도 쉽게 간과해 왔다. 지방소멸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일본 후쿠이현의 정책사례 중심에 청소년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관심이 없었던 만큼 집적된 기초자료와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인구감소와 관련된 일반 논의 이외 청소년 또는 청소년인구에 초점을 둔 인구감소지역 관련 논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생활 속에서의 지원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청소년인구를 중심으로 5개의 유사 성격의 지역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 정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 욕구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실증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세 가지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늘 그렇듯이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 그리고 연구 인력의 여건하에서 추진된 연구보고서가 갖는 한계는 있겠지만, 본 연구는 그간 국가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 테두리 안으로 포괄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실증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만으로 원하는 정보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이 강화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성장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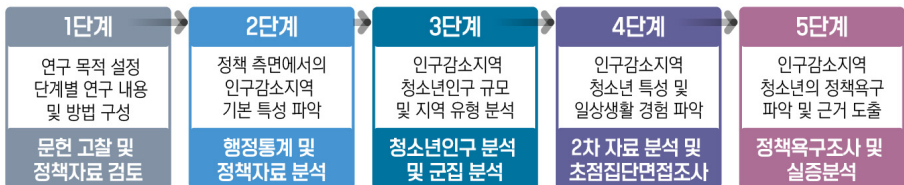
연구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논의에서 청소년이 고려되거나 정책 아젠다에 청소년정책 이슈가 연계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음.
- 단순히 청소년의 정책 소외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구 격차의 완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에 있어 청소년이 지역 인구 유출의 주된 연령층이고, 정주 청소년들이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으니 본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가 시작된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소멸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과 지자체 정책 태두리 안으로 청소년들을 적극 포괄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주민으로서 특성과 지원 욕구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실증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①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각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 인구 규모와 구성을 분석하고, ②청소년인구 규모 및 비율정보를 중심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였으며, ③유형화 결과를 틀(frame)로 하여 인구감소지역 거주 9세~24세 청소년 대상 정책 지원욕구 조사 실시 및 ④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⑤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과제를 발굴·제안하였음.



주요 연구결과

-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5개의 지역 군집으로 나누고, 이를 표본 할당의 틀로 활용하여 표본 배분 후 초·중·고 재학 청소년은 5개 군집 지역의 학교 표본을 통해, 19세~24세 후기청소년은 통신사 DB를 활용하여 표본 확보
- 웹기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1,119명(초·중·고 청소년 681명, 후기청소년 438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①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②생활 경험 및 인식, ③지역 문제 인식 및 이동계획) 응답 내용을 기초통계로 분석하고 차이 검증함.

기초 분석	주요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중·고 청소년이 후기청소년에 비해 거주지역 및 일상생활만족도 수준 높고, 후기청소년은 일상 스트레스, 무기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② 전체의 87.5%가 인구감소체감, 초·중·고 청소년의 28.2% 학교통합 유경험. ③ 지역에 대한 긍정인식 수준(4.05점)이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3.11점)보다 더 높음. ④ 전체의 49.6%가 지역의 문제를 인식, 가장 높은 복수 응답 비율의 문제는 '불편한 대중교통'. 단, 초·중·고 청소년은 '놀이 및 활동공간의 부족' 응답률이 가장 높음. ⑤ 전체의 32.9%, 후기청소년의 54.3% 이사계획 있고, 전체의 54.5% 향후 지역이동 희망함.
----------	----------	--

<전체 및 연령대별 실증분석 결과>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이 인식한 지역 문제 유형(①불편한 대중교통, ②놀이 및 활동 공간 부족, ③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후기청소년 추가) ④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 모델(Multinomial Logit Model)로 분석, 준거집단은 '인식된 지역 문제없음', 설명변수는 세 가지 범주(① 군집 지역, ②사회인구학적 특성, ③일상생활 특성)로 구성

실증 모델 분석 : 다항로짓	주요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체 거주지 만족도가 지역 문제 인식의 완화 요인,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은 강화 요인으로 작용 ② [전체 인구감소 체감은 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후기청소년의 경우는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데 정(+의) 요인으로 작용 ③ [전체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은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상쇄하지 못하고, 연령대 상관없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④ [전체 거주지 출생은 전체 대상에서 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이나, 초·중·고 청소년의 경우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가 아닌,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임. ⑤ [초·중·고 지역 군집이 지역 문제 인식을 높이는 주요 요인 ⑥ [초·중·고 스쿨버스타통학과 학교통합 유경험은 '불편한 대중교통',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인식에 정(+)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⑦ [초·중·고 학교급 및 연령대는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에 부(-) 영향 요인 ⑧ [후기 일상스트레스가 4개 범주의 지역 문제 인식을 모두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⑨ [후기 통학/통근 불편도는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에 정(+의) 영향, 소요 시간은 부(-) 영향 요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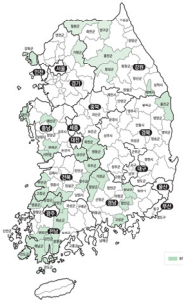
주요 연구결과

-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및 이사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 모델(Binary Logit Model)로 분석
- 설명변수는 네 가지 범주(①군집 지역, ②사회인구학적 특성, ③일상생활 특성, ④인식된 주요 문제)로 구성

실증 모델 분석II: 이항로짓	주요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반적으로 인식된 지역의 문제가 있고, 학교급 및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초·중·고 청소년은 스쿨버스나 자동차 통학의 경우 이사계획 가능성이 높음. → 청소년의 인식된 지역 문제 유무가 지역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에 주의할 필요 있음. ② 거주지 출생, 대문화가정,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이 높고,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 후기청소년은 거주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사계획 가능성 작음.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결국 이사계획 가능성 낮은 정주민. ③ 이사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지역이동 희망에 대문화가정이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대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를 현 거주지에서 자라더라도 향후 지역을 떠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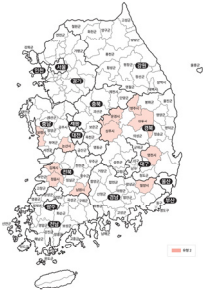
<5개 지역 군집별 실증분석 결과>

- 전체 및 연령대별 분석과 같은 방식 및 분석모델로 5개 지역 군집별 결과
- 군집1 지역


군집1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 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9세-18세 비율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군집 중 가장 높음 - 일상 스트레스 - 통학/통근 불편도 - 인구감소 체감 비율 - 성장환경 부정 인식 - 지역 문제 인식 비율 -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 통학/통근 불편도, 성장환경 부정 인식 (-) 거주지 출생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 학교급 및 연령대, 스쿨버ست통학, 인식된 지역 문제 있음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 다른 지역이동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된 지역 문제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통학/통근 불편도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통학/통근 불편도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군집 중 가장 낮음 - 거주지역 만족도 - 일상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통근 불편도, 지역 긍정 인식 (-) 거주지 만족도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 성장환경 부정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 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 • 이사계획 유무 - 스쿨버ست통학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지역 주된 문제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35개 지자체 	<p>(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양구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영광군, 장성군, 원도군, 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p>			

주요 연구결과

- 군집2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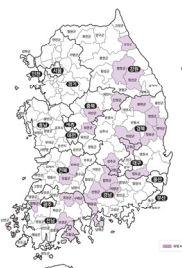
군집2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 9세-18세 비율 높음 	<p>5개 군집 중 가장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무기력감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익숙하고 편안함 •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초·중·고 청소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p>(+) 우물감, 스쿨버스통학, 통학/통근 불편도, 성장환경 부정 인식, 지역 긍정 인식</p> <p>(-) 거주지 만족도, 통학 소요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p>(+) 성장환경 부정 인식</p> <p>(-) 다문화가정, 일상스트레스</p>	<p>인식된 지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스쿨버스통학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거주지역만족도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p>5개 군집 중 가장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경제적으로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p>(-) 거주지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이동 희망 <p>(+) 다문화가정</p> <p>(-) 남성</p>	<p>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유무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다문화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11개 지자체 		<p>(충남) 보령시, 논산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 밀양시</p>		

- 군집3 지역


군집3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19세-24세 비율 높음 	<p>5개 군집 중 가장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받을 수 있는 혜택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p>(+) 성장환경 부정 인식</p> <p>(-) 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p>(+) 학교급 및 연령대</p> <p>(-) 거주지 출생</p>	<p>인식된 지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p>5개 군집 중 가장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통근 불편도 • 스쿨버스통학 비율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익숙하고 편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p>(+) 성장환경 부정 인식, 지역 긍정 인식</p> <p>(-) 거주지 만족도, 학교통학 유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p>(+) 성장환경 부정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이동 희망 <p>(+) 통학/통근 불편도</p>	<p>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유무 • 학교급 및 연령대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통학/통근 불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7개 지자체 		<p>(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강원) 영월군, 화천군, 고성군, (충남) 청양군, (경북) 울릉군</p>		

주요 연구결과

- 군집4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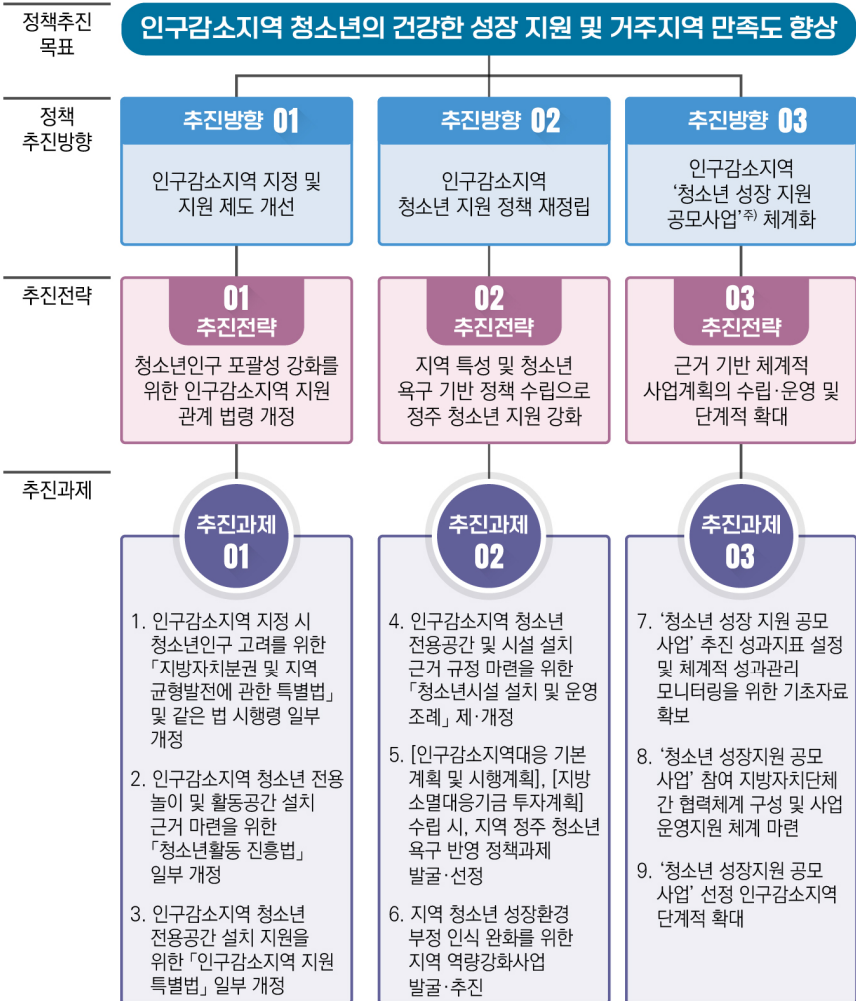
군집4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 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13세~18세 비율 높음 	5개 군집 중 가장 높음 - 일상생활만족도(공동) 우울감 불안감 - 통학/통근 시간 1시간 이상 비율 - 성장환경 부정 인식 - 교육여건 부족, 문화시설 부족, 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공동)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초·중·고 청소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 일상 스트레스 (-) 거주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 거주지 출생, 거주지 만족도, 스쿨버스통학, 학교통합 유경험, 성장환경 부정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 대중교통 통학/통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이동 희망 (+) 대중교통 통학/통근, 자동차 통학/통근 (-) 거주 형태 (가족과 함께)	인식된 지역 문제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일상 스트레스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스쿨버스통학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스쿨버스통학 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 - 이사계획 유무 - 대중교통 통학/통근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거주지 출생
	5개 군집 중 가장 낮음 - 해당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 스쿨버스통학, 성장환경 부정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28개 지자체 	(대구) 군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진안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상주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창군			

- 군집5 지역

군집5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 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 및 도시, 19세~24세 비율 높음 	5개 군집 중 가장 높음 - 거주지 만족도 - 일상생활만족도(공동) - 인구감소 체감 비율 -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 지원 인프라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후기청소년 비율 -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 학교급 및 연령대, 통학/통근 불편도 (-) 거주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 성장환경 부정 인식 (-) 가족 형태(양부모), 거주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 가족 형태(양부모) 대중교통 통학/통근 인식된 지역 문제 있음	인식된 지역 문제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학교급 및 연령대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
	5개 군집 중 가장 낮음 - 일상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 우울 및 불안감 - 인구감소 체감 비율 - 성장환경 부정 인식 6개 항목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편한 이웃과 지인이 많음 - 지역 문제 인식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 거주 형태 (가족과 함께), 학교통합 유경험, 성장환경 부정 인식 (-) 가족 형태(양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이동 희망 (+) 일상 스트레스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 - 이사계획 유무 - 인식된 지역 문제 유무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지역 주된 문제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8개 지자체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핵심 정책제언

-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세 가지 추진 방향, 각 추진 방향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9가지 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주) '청소년 성장지원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놀이 및 활동공간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2025년 신규 정책 사업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24-기본01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8
- 3. 추진체계 및 절차 16

II. 인구감소지역 특성 및 정책 현황

- 1. 인구감소지역 개념 및 특성 21
- 2.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동향 33
- 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현황 38
- 4. 소결 52

III.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 분석

- 1. 청소년 인구 규모 및 연령대별 구성비 비교 57
- 2. 청소년인구 중심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석 :
Cluster Analysis 70
- 3. 소결 77

IV.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 분석

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과 非해당지역 청소년의 특성 비교 :
2차 자료 분석 81
2.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청소년기 성장 경험 : 19세~24세
후기청소년 FGI 93
3. 소결 113

V.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지원 욕구 조사

1. 조사 개요 119
2. 조사 결과 기초분석 131
3. 소결 154

VI.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책욕구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159
2. 전체 및 연령대별 정책 욕구 결정요인 분석 178
3. 지역 군집별 정책 욕구 결정요인 분석 194
4. 소결 213

VII. 종합논의 및 정책 제언

1. 주요 결과의 요약 및 논의 219
2. 주요 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의 방향 239
3.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 242

참고문헌 263

부록 271

표 목차

표 I-1.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	12
표 I-2.	정책욕구 조사 방법의 구성	12
표 I-3.	정책 욕구 설문조사 표본 개요	13
표 I-4.	설문조사 후속 보조적 개별 면접조사 개요	14
표 I-5.	자문회의의 추진 내용	15
표 I-6.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추진 내용	15
표 II-1.	인구감소지수 지표	22
표 II-2.	인구감소지수와 지방소멸위험 지수 비교	23
표 II-3.	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분포	25
표 II-4.	인구감소지역 재정 여건	27
표 II-5.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 비율	30
표 II-6.	2023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총예산 및 자체 사업예산 비중	40
표 II-7.	2023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자체 사업 수 및 내용	43
표 II-8.	인구감소지역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자체 사업 내용 분류	47
표 II-9.	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2023년) 활용 청소년정책 사업 추진 지역	49
표 II-10.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23년) 사업 중 청소년정책 사업	50
표 II-11.	청년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022~2023년)	51
표 III-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인구수 및 비율	59
표 III-2.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인구수 순위 비교	62
표 III-3.	연령대별 청소년인구수 및 비율	65
표 III-4.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 연령대별 인구수 순위 비교	68
표 III-5.	군집분석에 사용한 지역 특성 및 인구 정보	73
표 III-6.	산출된 k별 WSS와 η^2	73
표 III-7.	군집분석 변수의 기초 통계량	74
표 III-8.	군집별 도농 및 인구수 평균	75
표 III-9.	군집별 89개 인구감소지역 배치	76
표 IV-1.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84
표 IV-2.	일상생활 12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85
표 IV-3.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86

표 IV-4. 참여 활동 개수	87
표 IV-5. 경험해 본 진로 교육의 수	88
표 IV-6. 진로체험활동 경험	89
표 IV-7. 자존감	90
표 IV-8. 대인관계역량	91
표 IV-9. 진로성숙도	92
표 IV-10. FGI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섭외 기준	96
표 IV-11. FGI 참여자 구성	97
표 IV-12. FGI 주요 내용 구성	98
표 IV-13. 초점집단면접조사 방법	100
표 V-1. 표본 할당의 기본 틀	121
표 V-2. 초·중·고 청소년 모집단 및 표본 수	122
표 V-3. 후기청소년 모집단 및 표본 수	122
표 V-4. 설문조사 후속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123
표 V-5. 조사 내용의 구성	125
표 V-6.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127
표 V-7.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130
표 V-8. 연령대별 응답자 특성	132
표 V-9. 5개 군집별 응답자 특성	134
표 V-10. 통학/통근 이동 수단 및 소요시간	139
표 V-11.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 및 인근 학교과 통합 경험	141
표 V-12. 지역 문제 인식 및 주요 인식 문제	151
표 V-13. 다른 지역 이사계획 유무 및 이동 희망 여부	153
표 VI-1. 실증모델 분석 변수의 구성	164
표 VI-2.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 전체 및 연령대별	168
표 VI-3.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 군집별	173
표 VI-4. 전체 및 연령대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182
표 VI-5. 다른 지역 이사계획 및 이동 희망 여부 결정요인	189
표 VI-6. 군집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198
표 VI-7. 군집별 다른 지역 이사계획 및 이동 희망 여부 결정요인	207
표 VII-1.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군집1	230
표 VII-2.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 군집2	232
표 VII-3.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 군집3	234
표 VII-4.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 군집4	236
표 VII-5.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군집5	238
표 VII-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246

표 VII-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안)	248
표 VII-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249
표 VII-9.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 제정·운영 현황	251
표 VII-10.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예시	252
표 VII-1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추진 과제 요약	261

그림 목차

그림 I-1. 인구감소지수 구성 8개 지표에 반영 및 미반영 청소년 연령대	5
그림 I-2. 연구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9
그림 I-3. 주-부 패러다임 혼합 순차 설계(dominant-less dominant design)	10
그림 I-4. 단계별 연구 방법의 구성	11
그림 I-5. 정책연구실무협의를 통한 '25년 신규 사업예산 확보 과정	16
그림 I-6. 연구 추진체계	17
그림 I-7. 연구추진 일정 및 절차	18
그림 II-1. 인구감소지역 지정	24
그림 II-2.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발전 동향	36
그림 II-3.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발전 동향	37
그림 III-1. k별 WSS와 η^2 그래프	74
그림 IV-1. 연구 추진 단계에서의 FGI 위치 및 연계 활용	95
그림 IV-2. FGI 주요 질문 내용의 구성 및 진행의 흐름	98
그림 V-1. 정책육구조사 추진 과정	120
그림 V-2. 정책육구조사 설계를 위한 3단계 과정	124
그림 V-3. 조사 문항 개발 과정	126
그림 V-4. 자료 수집 방법 및 과정	129
그림 V-5. 거주지역 만족도	135
그림 V-6. 일상생활만족도	136
그림 V-7. 일상 스트레스	136
그림 V-8. 일상 무기력감	137
그림 V-9. 우울감	137
그림 V-10. 불안감	138
그림 V-11. 통학/통근 불편도	140
그림 V-12.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 6개 항목 비교	142
그림 V-13.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교육여건 부족	143
그림 V-14.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진학정보 부족	143
그림 V-15.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	144
그림 V-16.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직접 체험활동 부족	144

그림 V-17.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문화시설 부족	145
그림 V-18.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 ..	145
그림 V-19.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5개 항목 비교	146
그림 V-20.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익숙하고 편안함	147
그림 V-21.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편한 이웃과 지인이 많음	147
그림 V-22.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경제적으로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이 많음 ..	148
그림 V-23.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공기 맑고 자연환경 좋음	148
그림 V-24.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받을 수 있는 혜택 있음	149
그림 VI-1.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 전체	184
그림 VI-2.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 초·중·고	185
그림 VI-3.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 후기청소년	186
그림 VI-4.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영향력 : 전체	192
그림 VI-5.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영향력 : 초·중·고	193
그림 VI-6.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영향력 : 후기청소년	194
그림 VI-7. 군집별 인식된 지역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불편한 대중교통	202
그림 VI-8. 군집별 인식된 지역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203
그림 VI-9. 군집별 인식된 지역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204
그림 VI-10. 군집별 이사계획 유무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211
그림 VI-11. 군집별 지역이동 희망여부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212
그림 VII-1. 연구추진 과정의 흐름	220
그림 VII-2. 청소년연구 중심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5개 군집으로 유형화	223
그림 VII-3. 실증분석 단계 및 주요 결과 : 전체 및 연령대별	228
그림 VII-4. 정책추진의 3가지 방향 및 전략	243
그림 VII-5. 정책 추진계획의 기본 체계(안)	244
그림 VII-6. 인구감소지역 선정 8개 지표 반영 연령대 및 미포함 청소년 연령대	245
그림 VII-7.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 발굴·추진 체계(안)	256
그림 VII-8. 공모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추진 체계(안)	258
그림 VII-9. 공모사업 참여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성 및 사업 운영지원 체계	259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 3. 추진체계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감소에 진입하였다. 2020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사상 첫 인구감소”가 확인된 이래 4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1.4.; 2024.1.10.). 이는 2020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일어난 후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21.1.4.). 이러한 자연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측되었던 시기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며(전영수, 2022, p.237), 우리 사회를 수축 사회로 빠르게 견인한다.

인구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지역 간 인구분포 및 이동이다. 출생과 사망인구로 산출되는 자연 감소가 인구의 총량 측면에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설명된다면, 더 나은 교육 또는 일자리,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구감소 원인으로 설명된다(이원도·유수동·김영룡, 2023, p.253; 정주원·이아라, 2022, p.65).

2020년 총인구의 양적인 측면에서 자연 감소가 통계수치로 확인된 것보다 이른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1,737명 추월하였고, 그 후 격차는 2020년 24만 7천여 명, 2021년 40만 7천여 명, 2022년 53만 1천여 명, 23년 70만 3천여 명을 초과할 만큼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국민의 절반 이상인 50.7%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최예술, 2022, p.5).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의 확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와 지역 간 격차 확대를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문제와 직결된다(김기홍, 2023, p.26; 최예술, 2022, p.5; 행정안전부, 2024.1.10.).

이와 같은 사회적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위한 지수 개발의 과정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2022년부터 매년 1조씩 10년 간 총 10조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였다. 이어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10.18.; 2022.2.8.; 2022.5.29.; 2023.12.18.; 2024.1.1.).

정부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로 압축되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어떠한 큰 변화로 인하여 저출산율이 증가·회복세로 이어질지라도, 그로 인해 늘어난 인구의 다수가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총량의 인구는 증가해도 인구감소의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기홍, 2023, p.25). 결국 지역 인구의 감소는 출생이나 사망 등 자연 감소보다는 대도시 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김기홍, 2023, p.37; 양희준·박근영·이재준·허준·박상욱, 2022, p.7; 최예술, 2022, p.5; 행정안전부, 2021.1.4.)고 볼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인구감소, 즉 지역의 인구 유출의 주요 연령층은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으로 알려져 있다. 많지는 않으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변화를 분석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20대보다 10대 청소년층의 이동률이 더 높다. 예컨대, 2015년과 202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대의 이동률은 2015년 32.5%, 2020년 36.0%이나, 19세 이하의 경우 2015년에 30.6%, 2020년에 42.4%로 더 높은 수치의 이동률 증가이다(장인수·정찬우, 2022, p.14). 또한 실증 연구는 아니지만, 세계의 인구감소지역(전북 부안, 대구 군위, 충남 청양)의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을 농촌지역 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한 연구에서도 세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읍’에서 ‘인근 도시지역’으로의 이동량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포착된다(양희준 외, 2022, p.ix).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층 못지않게 10대 초·중·고 청소년이 지역 인구 유출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인구감소의

주된 연령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구의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실증 자료의 제공조차도 미진한데, 인구감소와 관련된 주민등록인구 분석자료에서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세가 주요 결과의 하나로 언급된 것도 2021년으로 비교적 최근 일이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논의에서 청소년이 고려되거나 정책 아젠다에 청소년정책 이슈가 밀착 연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논의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책적 접근의 관점과 그 간 청소년정책 과제를 설정하는 기본 틀의 한계, 그리고 근거 기반 정책 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실증자료의 부재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정책적 접근과 관점의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국가정책논의에 청소년정책 이슈가 연계되지 못하는 데에는, 첫 번째,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과 ‘관점 형성 시발점’이 저출산·고령화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초기 정책형성 단계에서 인구의 사회적 감소보다는 자연 감소에 대한 이해가 중심을 이루다 보니,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지수 개발 시에도 청소년인구를 포괄하는 연령대 지표가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8개의 지표²⁾ 중 청소년인구와 관련해서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지표로 반영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지표를 참조 또는 준거로 하는 정책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청소년 인구의 규모나 특성, 그리고 그들의 지역이동에 대한 분석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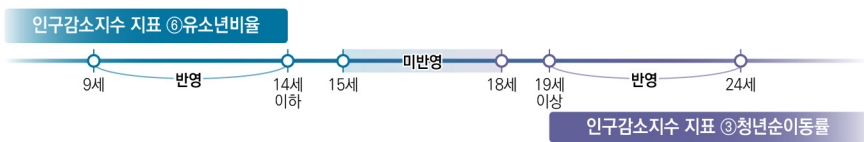


그림 1-1. 인구감소지수 구성 8개 지표에 반영 및 미반영 청소년 연령대

2)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행정안전부, 2021.10.18., p.5): ①연평균인구증감률(20년, 5년간의 인구증감을 변화), ②인구밀도(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 ③청년순이동률(최근 5년간, 청년(19세~34세) 연양인구 대비 청년순이동자수 변화), ④주간인구(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 ⑤고령화비율(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 ⑥유소년비율(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 ⑦조출생률(최근 5년간 연양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 ⑧재정자립도(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 수입 변화)

이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시점'인데, 사회적 감소가 자연 감소보다 지역 인구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들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고시된 후 근래 발표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인구나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정책적 시선과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 세 번째로 생각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국가 청소년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던 기본 틀이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로 빚어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문제들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 2023년에 수립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 과제로 '5-2.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구축'과 이를 실행하는 세부 추진 과제로 '5-2-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이 포함(여성가족부, 2023a, pp. 99-100)되기는 하였으나, 그전까지 지역 청소년을 살피기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거나 지역 발전 정책과 연계된 청소년정책을 기본계획에 담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정책의 접근 관점과 시점, 그리고 기존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본 틀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과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전국의 9세~24세 청소년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표본 수가 적어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표본이 일정 수준 포함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제까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논의와 정책 아젠다에 청소년정책 이슈가 연계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현시점에서 또는 현시점부터라도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청소년의 권리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로 그 존재가 쉽게 가려지고 있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인구감소지역에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엄연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관심의 부족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을 뿐이다.

더 나은 교육 및 일자리, 생활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해당 지역에서 '성장의 시기'를 보낸다. 이미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생애 중요한 시기에 건강하게 자라날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면, 이를 살피는 일이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이자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 측면에서도 사회적 감소의 주요 연령층이 되는 청소년 인구를 지역 주도의 정주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지 않으면, 지역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출은 막을 도리가 없다. 지역의 활력을 높여 인구감소를 완화하거나 회복한 일본 후쿠이현의 사례³⁾를 살펴보면, 지역 특성과 자치 및 참여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전영수, 2022, pp.239-241; 전영수, 2023, pp.226-227;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5, pp.59-62)이 지역소멸에 대응한 정책 성공의 핵심이며, 그 중심에 지역 거주 청소년이 대상이자 주체로서 존재한다.

절대 인구 총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주 인구를 유입하여 늘리는 것은 쉽지 않고,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논의들(McCann, 2023, pp.16-17)에 비추어볼 때, 성장과정에서 자라난 지역에 대한 감각(sense of place)은 지역 활력의 요건이 되는 것은 물론, 개개인에게 하나의 사회적 자본이 되어 다시 성장한 지역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살피는 청소년정책은 하드웨어와 인프라로 상징되는 그 간의 지역 정책의 수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소멸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과 지자체 정책 테두리 안으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포괄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주민으로서 특성과 지원 욕구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실증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각 지역의 청소년 인구 규모와 구성,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고, 청소년인구를 중심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욕구조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3)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극복 성공 사례로, 지역 맞춤형 자치 교육으로 교육 현장과 지역 재생을 신학 연계, 일관된 인재 육성과 고용 환경 조성으로 교육→고용→정주 실현(전영수, 2022, pp.239-240). 후쿠이현 모델의 성공은 사바에시의 교육을 시작점으로 한 지역 활성화로 요약되며, 자연 감소와 사회증가의 결과로 인구 증가구조를 얻었음. 저출산은 못 막아도 사회전출은 되돌린 사례로서 25세-29세 전입인구가 많다는 결과는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왔다는 성공에는 사바에시가 지역 경제 쇠퇴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리는 지역 청소년의 교육 문제에 주목하였고, 진학 또는 취업 시기와 맞물리는 고등학생에 집중하여 지역에 잔류하거나 U턴을 유도하는 기회 제공이 주효했음(전영수, 2023, pp.226-227;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5, pp.59-62).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이 강화되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 되어 온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성장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1) 지역 범위의 설정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2021년 10월 19일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된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제항에 따라 2022년 2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3호에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정의하고, 18개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1호)하였다.

이로써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정한 지역은 총 107개 지역이 된다. 일각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시, 2022년에 추가로 지정된 ‘관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21년에 법률로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만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은 2022년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심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1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계정 금액의 95%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고, 나머지 5%만이 18개 ‘관심지역’으로 배분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심지역’이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정책구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역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기본 설계

(1) 연구 방법의 기본 설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에 대한 집적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실증 기반 청소년정책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주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 방법(Mixed Methodology)’을 기본 틀로 하여 연구를 설계하였고, 시간 측면에서는 ‘순차적 통합방법 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 방법 패러다임 측면에서는 ‘주-부 혼합(dominant-less dominant design)’ 방식의 두 가지를 설계의 두 가지 중심 축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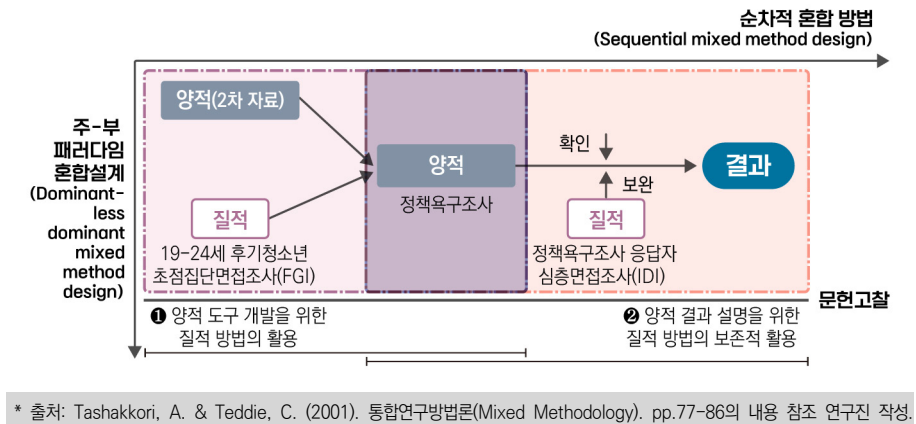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시간 측면에서 ‘순차적 통합방법 설계’를 선택한 것은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자료가 거의 없다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인구감소지역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인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부터 자료화하고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한 단계씩 연구를 추진하면서 앞선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의 과정에서 연계하여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순차적 통합방법 설계’의 목적이자 장점이다(Tashakkori & Teddlie, 2001, pp. 77-78,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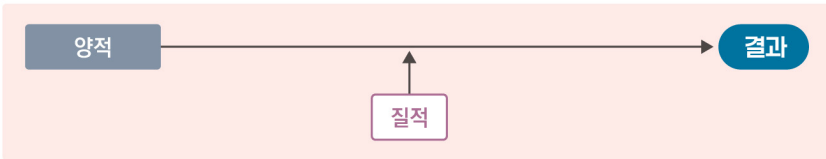
또한 연구 방법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주-부 혼합’ 방식을 선택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적 실증분석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실증분석에 앞선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도구의 개발이나 이후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면접조사와 같은 질적인 방법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혼합 방식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주된 방법으로서 양적인 방법을, 부가적인 방법으로서 질적인 방법을 혼합·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① 양적 도구 개발을 위한 질적 방법의 활용



② 양적 결과 설명을 위한 질적 방법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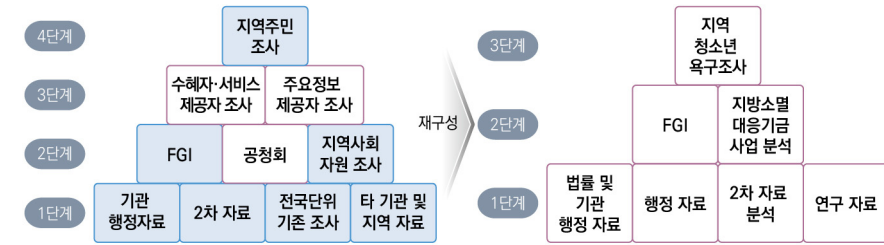


* 출처: Tashakkori, A. & Teddie, C. (2001).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p.78, [박스 3.2 질적·양적 방법 통합을 위한 시나리오 예] 발췌·재구성

그림 I-3. 주-부 패러다임 혼합 순차 설계(dominant-less dominant design)

(2)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성

순차적 통합방법과 주-부 혼합 패러다임 방식으로 설계된 틀(frame)을 기본으로 하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욕구 평가를 위한 정보 피라미드 계획’(Harlow & Turner, 1993, pp. 195-197)을 참조하여 3단계의 연구 방법을 그림 I-4와 같이 구성하였다.



* 자료 : Harlow, K. S. & Turner, M. J. (1993). State units and convergence models_Needs assessment revisited. p.197, Figure 4. Planning information pyramid for needs assessment의 내용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1-4. 단계별 연구 방법의 구성

① 1단계 : 문헌 고찰과 통계정보 자료화,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및 2차 자료 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한 법령과 문헌자료를 고찰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역 특성과 청소년인구 규모에 대한 통계 정보들을 수집하고 자료화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2023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화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이어 자료화된 청소년인구 정보를 활용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후, 도출된 5개의 지역 군집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 5개 군집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비해당 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② 2단계 : 인구감소지역 성장 후기청소년 FGI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고찰한 문헌자료와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경험이 있는 후기청소년(19세~24세)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나 성장 경험에 대한 초점 집단면접조사(FGI)가 이루어졌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 3단계 정책욕구조사의 조사 도구 개발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고찰된 법령 및 정책 동향자료와 연계하여 2022년과 2023년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목록을 중심으로 기금 안에 포함된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의 설정과 전략과제 도출에 활용하였다.

표 1-1.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

구분	내용
대상 및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개 그룹 구성(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19세~24세 후기청소년 11명) -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현재 수도권 거주자 2개 그룹 -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2개 그룹 •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적용
면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공간으로 참여자 내방
면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초점에 맞춘 질문 사항을 섭외 과정에서 미리 제공 • 그룹별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
면담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별 면접조사 시간은 90분 내외
기록 및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외 과정에서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면접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참여에 대한 동의와 면담 내용 녹취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구하고 확인한 후 시작
면담자	연구진

③ 3단계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책욕구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 도출

세 번째 단계에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책욕구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이 이루어졌다. 정책욕구조사는 주된 설문조사와 보조적인 개별면접조사로 구성되는데, 설문조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청소년인구 정보를 중심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5개의 군집으로 도출한 분석 결과가 표본추출 틀이 되었고, 두 번째 단계의 인구감소지역 후기청소년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내용이 조사 도구 작성에 활용되었다. 후속 개별면접조사는 결과 해석을 위한 보조적 장치로서 설문조사 실시 후 응답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별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표 1-2. 정책욕구 조사 방법의 구성

구분		조사 대상	
		9세~18세	19세~24세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	4그룹(11명)
↓ 정책욕구 설문조사	방법	학교 단위 웹기반 조사	통신사 모바일 조사
	표본 배분	600명	400명
		총 1,000명(인구비례 배분)	
↓ 설문조사 후속 보조적 개별면접조사	IDI	10명	-

정책육구 설문조사의 총 표본 수는 1천 명으로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초·중·고 연령대 인 9세에서 18세 청소년과 19세 이상 24세 이하 후기청소년의 표본을 6:4의 비율로 할당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5개의 군집에 표본을 동수 할당하여 9세에서 18세는 각 120명, 19세~24세는 각 80명씩 배분되었다. 또한 9세에서 18세 청소년의 표집은 군집별 지역 내 2023년 4월 기준 학교 목록이 표집 틀이 되었으며, 후기청소년의 경우 표집 틀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SKT 통신사 가입자 목록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웹기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표 1-3. 정책 육구 설문조사 표본 개요

모집단	• 인구감소지역 거주 9세~24세 청소년																																																																																															
표집 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18세) 89개 인구감소지역 군집 유형 5개 지역 및 지역 내 초중고 학교 목록(2023년 4월 기준 교육통계 DB수록) • (19세~24세) 89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중 SKT 통신사 가입자 																																																																																															
총 표본 수	총 1,000명																																																																																															
표본 추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18세) 89개 인구감소지역 군집 5개 지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추출 • (19세~24세) 통신사 조사 응답률 고려하여, 75배수 추출 후 링크 발송 추출 																																																																																															
표본 배분	<p style="text-align: center;">비례 할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18세 청소년인구와 19세~24세 청소년인구 비(6:4) 총 표본수에 적용 • 인구감소지역 군집 유형 5개 지역별 동수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18세 600명(5개 군집×120명), 19세~24세 400명(5개 군집×80명) • 9세~18세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반영하여 5개 군집별 표본수 결정 																																																																																															
표본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수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rowspan="3">19세 ~24세</th> <th colspan="8">9세~18세</th> </tr> <tr> <th colspan="2">초등학생</th> <th colspan="2">중학생</th> <th colspan="2">고등학생</th> <th colspan="2">계</th> </tr> <tr> <th>표본수</th> <th>학급수</th> <th>표본수</th> <th>학급수</th> <th>표본수</th> <th>학급수</th> <th>표본수</th> <th>학급수</th> </tr> </thead> <tbody> <tr> <td>군집1</td> <td>80</td> <td>44</td> <td>6</td> <td>37</td> <td>3</td> <td>39</td> <td>3</td> <td>120</td> <td>12</td> </tr> <tr> <td>군집2</td> <td>80</td> <td>44</td> <td>5</td> <td>36</td> <td>3</td> <td>40</td> <td>3</td> <td>120</td> <td>11</td> </tr> <tr> <td>군집3</td> <td>80</td> <td>49</td> <td>7</td> <td>34</td> <td>4</td> <td>37</td> <td>3</td> <td>120</td> <td>14</td> </tr> <tr> <td>군집4</td> <td>80</td> <td>43</td> <td>7</td> <td>37</td> <td>4</td> <td>40</td> <td>3</td> <td>120</td> <td>14</td> </tr> <tr> <td>군집5</td> <td>80</td> <td>42</td> <td>4</td> <td>33</td> <td>2</td> <td>45</td> <td>3</td> <td>120</td> <td>9</td> </tr> <tr> <td>계</td> <td>400</td> <td>222</td> <td>29</td> <td>177</td> <td>16</td> <td>201</td> <td>15</td> <td>600</td> <td>60</td> </tr> </tbody> </table>										구 분	19세 ~24세	9세~18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표본수	학급수	표본수	학급수	표본수	학급수	표본수	학급수	군집1	80	44	6	37	3	39	3	120	12	군집2	80	44	5	36	3	40	3	120	11	군집3	80	49	7	34	4	37	3	120	14	군집4	80	43	7	37	4	40	3	120	14	군집5	80	42	4	33	2	45	3	120	9	계	400	222	29	177	16	201	15	600	60
구 분	19세 ~24세	9세~18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표본수	학급수	표본수	학급수	표본수	학급수	표본수	학급수																																																																																							
군집1	80	44	6	37	3	39	3	120	12																																																																																							
군집2	80	44	5	36	3	40	3	120	11																																																																																							
군집3	80	49	7	34	4	37	3	120	14																																																																																							
군집4	80	43	7	37	4	40	3	120	14																																																																																							
군집5	80	42	4	33	2	45	3	120	9																																																																																							
계	400	222	29	177	16	201	15	600	60																																																																																							
조사 시기	2024년 7월																																																																																															
자료수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18세) 표본 선정학교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 링크를 배포, 학생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웹기반 조사 • (19세~24세) SKT통신사 가입자 중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대상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 발송하고 거주자 확인 후 조사 응답 진행 																																																																																															

설문조사 후속으로 이루어진 보조적 개별면접조사는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이어지는 면접 조사에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이들 중 5개 군집 및 군집 내 거주 지역, 학교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선정한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 -4. 설문조사 후속 보조적 개별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및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육구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중 10명 내외 - 응답한 정책육구 측정 문항에 대한 의견 청취 - 설문조사 후 이어지는 개별면접조사 참여 희망을 표기한 자 중 5개 군집 및 군집 내 거주 지역, 학교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최종 선정
면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화상 면담
면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질문지 없이, 설문조사 질문 중 정책육구 측정 문항에 대한 질의하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응답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방식
면담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40분 내외
기록 및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시, 참여 의사 및 동의를 서면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참여에 대한 동의와 면담 내용 녹취, 온라인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확인한 후 진행
면담자	연구진

(3) 그 외 연구 방법의 구성

① 자문회의

앞서 설명한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총 여덟 차례 자문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주로 각 단계에서 진행된 내용의 초안이나 결과에 대한 검토 또는 의견 청취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 1-5. 자문회의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참석	개최시기
1차	5가지 조사설계(안) 검토	조사전문가 및 연구자 2인	3/12~3/15
2차	인구감소지역 표본추출틀 및 표집 방법 사례 청취	유관기관 연구자 2인	4/30
3차	정책육구조사 조사표 초안 검토	학계 및 연구자 3인	5/24~5/28
4차	정책육구조사 조사표 수정안 검토	학생-학부모/ 현장전문가 7인	6/3~6/5
5차	청소년인구 집적화 자료 및 정책육구조사 수정안 검토	연구자 1인	6/5
6차	실증분석 결과 검토	학계 및 연구자 3인	9/24
7차	관계 법령 개정 방향의 타당성 논의	법률 전문가 및 연구자 4인	9/30, 10/2
8차	법령 개정 초안 검토	법률 전문가 및 연구자 2인	10/4~10/8

②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가 단계별 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었다면, 유관 정부 부처 등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 밀착도 높은 연구 결과를 산출하고, 정책에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표 1-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1차	실행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2/20(화)
2차	지자체 제출 2023년 시행계획 실적자료 사용 승인 및 활용 협의	여성가족부	4/25(목)
3차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사업예산 관련 진행 사항 공유 및 협업 사항 논의	여성가족부	5/20(월)
4차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현장소통간담회 및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관련 자료 등 협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6/26(수)
5차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현장소통간담회 및 여가부-행안부 업무협약 체결식 후속 추진 사항 논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공주시 외 6개 인구감소 지역(곡성, 영암, 장흥, 청양, 고성, 옥천)	7/5(금)
6차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추진(안) 논의	여성가족부	8/29(목)
7차	실증모델분석 결과 공유 및 결과 활용 방향 논의	여성가족부	9/24(화)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연구 착수 단계부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책육구조사의 실증분석 결과 도출 단계까지 각 단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산출된 자료를 공유하고 도출된 문제 인식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공모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업과 업무협약의 체결, 그리고 신규 예산사업에 대해 쉽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연계 예산 검토가 이루어졌다. 계획만큼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 공모사업’의 예산이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신규 사업예산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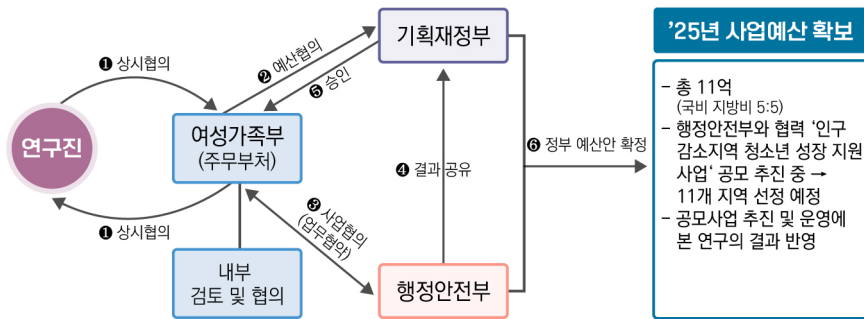


그림 1-5. 정책연구실무협의를 통한 '25년 신규 사업예산 확보 과정

3. 추진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체계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실증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구성된 내용과 방법은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추진의 시간적 측면과 예산 사용 측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그림 I-6]과 같은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연구추진 과정에서의 최종 의사결정을 연구책임자가 하고, 기관 요건으로 구성되는 내부 연구진과 더불어 외부 공동연구자를 연구진으로 구성하였다. 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육구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가 순차적으로 연계·혼합된 조사의 경험이 있는 조사업체를 추진체계에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정된 인력은 아니나, 연구 추진 단계에서 회차 및 이슈별로 이루어진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회의, 그리고 정책실무협의회의 회의체도 연구추진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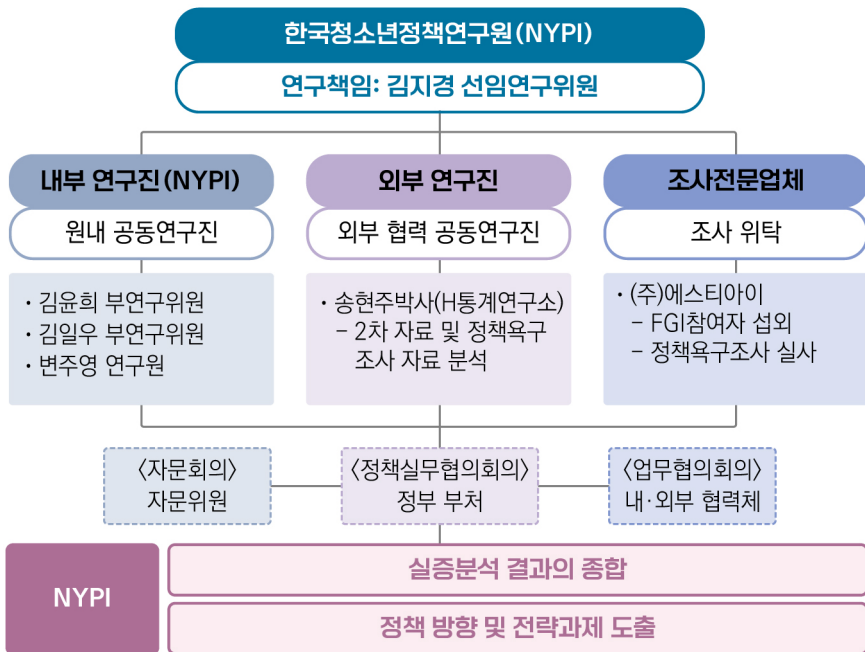


그림 1-6. 연구 추진체계

2) 연구추진 절차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이 단계적·순차적으로 설계된 만큼, 연구의 추진 또한 주어진 일정 하에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이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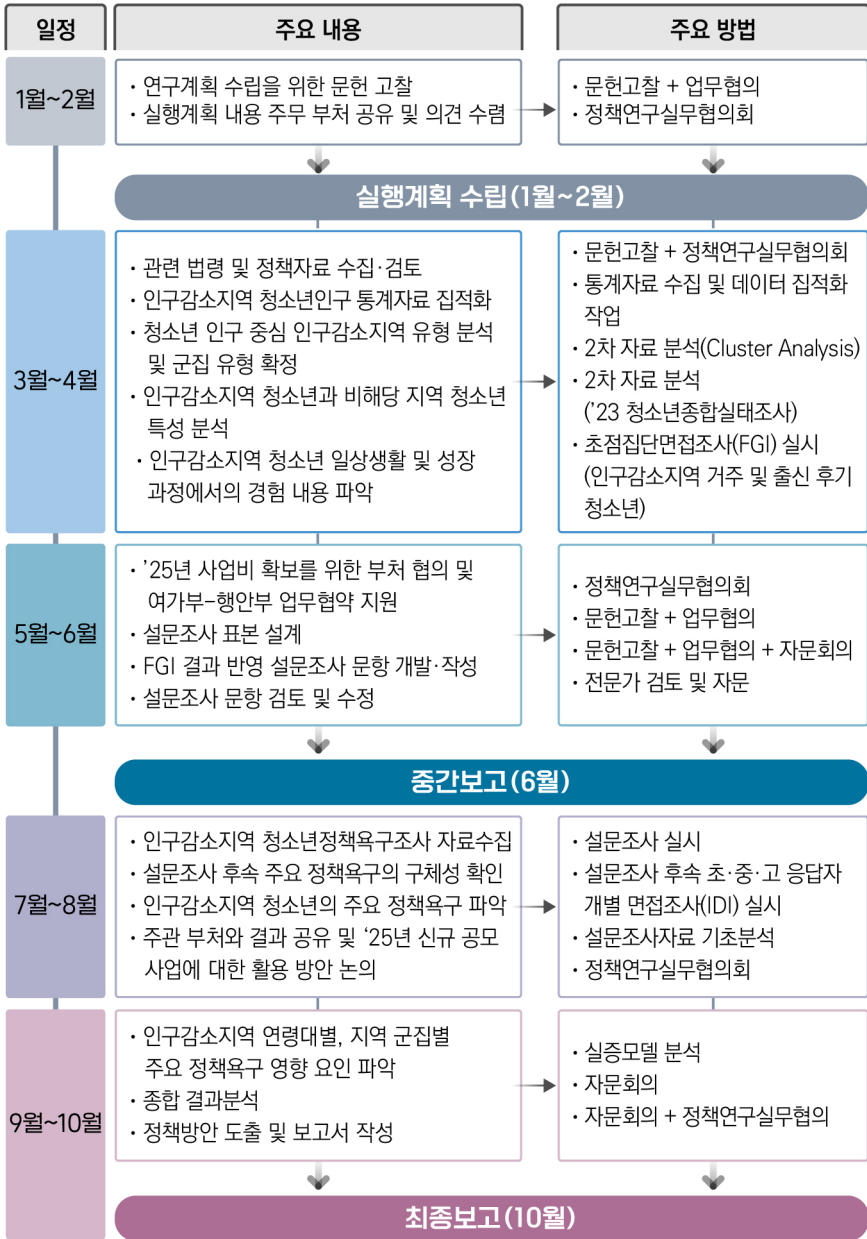


그림 1-7. 연구추진 일정 및 절차



제2장 인구감소지역 특성 및 정책 현황

- 1. 인구감소지역 개념 및 특성
- 2.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동향
- 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현황
- 4. 소결

1. 인구감소지역 개념 및 특성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의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021년 10월 19일에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고시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69개는 농촌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비율이 높으나 재정 여력은 낮은 특성을 보임.
- 광역 단위에서 부산과 대구, 전북지역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비율이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전북은 다문화가구 비율도 높은 특성이 있음. 기초 단위에서는 충남 부여군과 경북 고령군이 세 가지 모두에서 인구감소지역 평균 수준보다 높음.

1) 인구감소지역 개념 및 선정

(1) 인구감소지역 개념 정의

인구감소지역의 법률적 정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9.11. 검색).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은 몇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분석·집필하였음.

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결정 요소들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2) 인구감소지역의 선정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위한 도구로서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하였고, 여기에 8가지 지표(①연평균인구증감률, ②인구밀도, ③청년순이동률, ④주간인구, ⑤고령화비율, ⑥유소년 비율, ⑦조출생률, ⑧재정자립도)가 구성·반영되었다(행정안전부, 2021.10.18.; NAB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2024.10.11. 검색 및 인출).

표 II-1.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 지표명	내용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감소 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 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②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 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19세~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④ 주간인구	2020년 국가교통DB에서 추출된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⑤ 고령화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⑥ 유소년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⑦ 조출생률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재정부문 범용적 지표 활용)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대’. NAB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2022.6.24. 업데이트 자료, <https://www.nabis.go.kr/main.do>(2024.10.11. 검색 및 인출)

인구감소지수는 이들 8개 지표값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지역 간 상대적 인구증감 등을 측정할 상대값의 성격을 가지며,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인구 이동의 영향을 반영한 지수이고, 타 지역과의 상대적 격차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NAB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2024.10.11. 검색 및 인출).

인구감소지수가 개발되기 전까지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 증감에 대한 예측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을 알렸던 ‘지방소멸위험지수’이다. 이 지수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누는 방식으로 처음 산출하였고, 이 방식을 이상호(2016)가 우리나라에 처음 적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학술연구 및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수는 사회적 인구 이동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출산율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자연증가에 초점을 두는 정책적 대응이 아닌, 인구감소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선정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김기홍, 2023, p.32; 장문현, 2023, pp.12-13; NAB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2024.10.11. 검색 및 인출)가 있다. 그러므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고 8개의 지표를 종합한 새로운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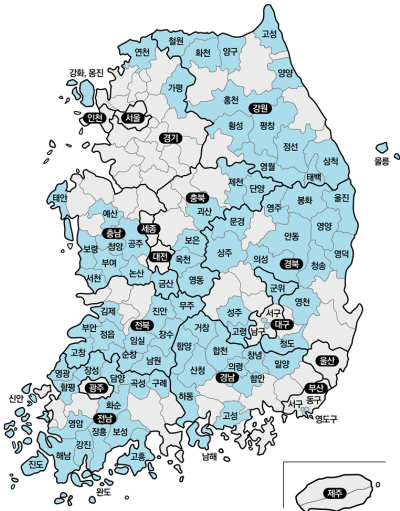
표 II-2. 인구감소지수와 지방소멸위험 지수 비교

구분	인구감소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기준	<p>인구감소지수 = 인구증감율, 인구가동률, 출산율, 재정 여건 등 지표값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수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이상 : 소멸위험지역 ▶ 80~90 미만 : 소멸우려지역 ▶ 70~80 미만 : 관심지역 ▶ 70 미만 : 보통지역 	<p>지방소멸위험지수 = 가임여성인구 (20세~39세) ÷ 고령인구(65세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 미만 : 소멸고위험지역 ▶ 0.2~0.5 미만 : 소멸위험지역 ▶ 0.5~1.0 미만 : 소멸위험주의지역 ▶ 1.0~1.5 미만 : 소멸위험보통지역 ▶ 1.5 이상 : 소멸저위험지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상대적 인구증감 등을 측정된 상대값 · 사회적 인구 이동 등의 영향을 반영 · 타 지역과의 상대적 격차 설명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등에 기반한 ‘절대값’ · 인구의 자연증감을 예측 · 사회적 인구이동 등의 영향 미반영
정책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상대적 격차 완화를 목표로 활용 용이 · 사회적 이동과 인구활력증가 여부에 따른 재정 여건 등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제고를 목표, 자연감소 원인에 대응에 적합 · 사회적 이동에 대한 미고려로, 지방소멸 원인 설명의 한계

* 자료 : NAB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지난해시판 인구감소대응자료 첨부 파일, [https://www.nabis.go.kr/contentsDetailView.do?menucd=258&menuFlag=Y\(2024.10.11. 검색 및 인출\)](https://www.nabis.go.kr/contentsDetailView.do?menucd=258&menuFlag=Y(2024.10.11. 검색 및 인출)) 내용 발췌 및 일부 수정.

이와 같은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해 2021년 10월 19일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지역이고, 이들 지역 중 70곳은 ‘군’, 13곳은

‘시’, 5곳은 광역 자치구에 해당한다.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전남 지역이 16개로 가장 많다. 광역시인 부산과 대구는 자치구 각 3곳이, 인천과 경기도는 접경지역 각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 누리집, 2024.9.23., 검색 및 인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정읍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자료 : 행정안전부 누리집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4.9.23. 검색 및 인출)

그림 11-1. 인구감소지역 지정

2) 인구감소지역의 특성

(1) 지역 성격

앞서 인구감소지수 산출에 활용된 8가지 지표에는 인구증감률이나 출생률과 같은 인구 규모와 관련된 지표뿐만 아니라 고령화비율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역의 공적부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나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들 지역의 특성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지역의 위치를 볼 때,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의 ‘군’ 지역의 분포가 높아 농·어촌 지역이 다수이고, 고령화로 공적부조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 인구수가 적은 만큼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은 인구감소지역을 묶어 냈을 때 비해당 지역과 비교 시 나타날 수 있으나, 89개 지역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들 지역 내에서의 상대적 격차 또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분포와 재정 여건, 그리고 취약계층 비율을 중심으로 89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도시, 도농복합, 농촌으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행정구역의 시·군·구의 분포와 유사하다. ‘군’ 지역 대부분은 69개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고, 행정구역상 대도시로 편입된 군위군 또한 성격상 농촌지역에 해당한다. 기초자치단체 ‘시’ 지역은 도농복합에 해당하고, 광역시 자치구 5곳과 강원도 태백시는 도시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농촌지역이 절대다수임을 확인하였다.

표 II-3. 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분포

구분 ^{주1)}	지역 구분	
도시 (6개 지역)	강원	태백시
	대구	남구, 서구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도농복합시 (14개 지역)	강원	삼척시
	경남	밀양시
	경북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충북	제천시	
농촌 (69개 지역)	강원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경북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 주1 : ‘농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항에 따라,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함.

* 주2 : 도농복합시 기준은 행정안전부(2022.7.7.)를 따름.

* 주3 : 태백시는 분류 기준에 따라 농촌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의 농촌은 ‘주1’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로 분류함.

* 자료 : 행정안전부(2022.7.7.),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https://www.mois.go.kr>에서 2024.3.23. 검색 및 인출

(2) 재정 여건

이어 다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세입에 초점을 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되며,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추가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KOSIS 및 e-나라지표, 2024.10.16. 검색).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자료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0.1%)보다 크게 낮아, 인구감소지역의 세입과 세외수입의 규모가 비 해당지역과 큰 폭의 격차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1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지역이 9개(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 횡성군, 전남 곡성군, 보성군, 함평군, 경북 봉화군, 의성군, 경남 합천군)이고, 이들 지역 중 전남 곡성군(7.7%)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지역도 8개 지역(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정선군, 홍천군, 전남 진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밀양시, 함안군)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세입의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지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많다면,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 재정자주도 비율은 높아진다. 가령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곡성군(7.7%)이나 보성군(7.8%)의 재정자주도는 각각 60.4%, 63.1% 수준으로 전국 평균(74.1%)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다. 또한 강원 철원군도 재정자립도(8.1%)가 낮지만, 재정자주도(73.7%)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5개 지역(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군위군, 남구)은 50%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이들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도' 단위의 '시'나 '군'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4. 인구감소지역 재정 여건

(단위: %)

지역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립도	10% 미만	20% 이상	자주도	50% 미만	70% 이상
부산	동구	19.3			41.6	○	
	서구	16.6			36.8	○	
	영도구	14.8			36.6	○	
대구	군위군	16.6			35.9	○	
	남구	17.2			39.8	○	
	서구	13.9			58.7		
인천	강화군	11.0			57.7		
	옹진군	20.7		○	67.4		
경기	가평군	24.1		○	71.7		○
	연천군	9.8	○		62.4		
강원	고성군	15.6			60.6		
	삼척시	13.5			67.2		
	양구군	18.3			61.0		
	양양군	16.6			71.9		○
	영월군	13.2			69.6		
	정선군	20.4		○	56.5		
	철원군	8.1	○		73.7		○
	태백시	16.1			69.6		
	평창군	12.8			69.7		
	홍천군	21.2		○	71.2		○
	화천군	16.8			71.3		○
	횡성군	9.4	○		60.9		
	충북	괴산군	16.4			67.9	
단양군		13.1			66.0		
보은군		15.3			72.4		○
영동군		15.4			68.9		
옥천군		17.3			65.0		
제천시		18.1			66.6		
충남	공주시	15.2			65.5		
	금산군	14.7			63.5		
	논산시	16.4			64.9		
	보령시	13.0			57.9		
	부여군	11.5			57.3		
	서천군	12.1			57.7		
	예산군	17.9			65.9		
	청양군	16.3			64.3		
전북	태안군	11.7			60.9		
	고창군	13.9			57.9		
	김제시	12.7			66.2		
	남원시	10.3			67.0		
	무주군	13.6			62.2		

지역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립도	10% 미만	20% 이상	자주도	50% 미만	70% 이상
	부안군	13.3		66.7		
	순창군	11.0		64.7		
	임실군	12.6		66.7		
	장수군	14.7		64.0		
	정읍시	10.2		69.0		
	진안군	10.8		64.6		
전남	강진군	10.8		62.5		
	고흥군	14.0		69.1		
	곡성군	7.7	○	60.4		
	구례군	14.2		63.9		
	담양군	10.4		62.4		
	보성군	7.8	○	63.1		
	신안군	12.1		61.7		
	영광군	11.1		63.6		
	영암군	12.3		62.8		
	완도군	14.3		67.9		
	장성군	10.5		56.6		
	장흥군	14.5		66.6		
	진도군	20.3		62.8		
	함평군	9.6	○	60.8		
	해남군	19.4		66.8		
	화순군	19.5		63.0		
경북	고령군	10.4		70.3		○
	문경시	13.0		71.7		○
	봉화군	8.3	○	68.8		
	상주시	14.8		65.9		
	성주군	18.1		66.3		
	안동시	13.9		64.9		
	영덕군	11.3		64.7		
	영양군	13.8		71.6		○
	영주시	17.0		66.8		
	영천시	15.1		64.6		
	울릉군	18.9		70.9		○
	울진군	15.4		63.4		
	의성군	9.3	○	63.6		
	청도군	21.8		68.4		
청송군	13.9		70.8		○	
경남	거창군	15.2		68.9		
	고성군	15.9		60.4		
	남해군	14.1		65.1		
	밀양시	20.8		66.8		
	산청군	19.3		68.7		
	의령군	15.2		69.6		

지역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립도	10% 미만	20% 이상	자주도	50% 미만	70% 이상
창녕군	19.6			66.8		
하동군	14.3			64.0		
함안군	27.5		○	66.8		
함양군	18.5			70.1		○
합천군	9.7	○		62.3		
전국평균	50.1		-	74.1		

* 주1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2023년 기준 세입과목개편 전 수치임.

* 주2 :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산술평균 값의 결과치 수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우려가 있어 제시하지 않음.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3, 2024.10.15.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재정자주도(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891&conn_path=I3, 2024.10.15. 인출)

(3) 지역 내 취약계층

재정 여건에 이어 인구감소지역 내 취약계층의 비율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 그리고 다문화가구의 비율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비율이 전반적으로 비해당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6.86%)은 비해당 지역(4.58%)에 비해 2.28%p,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 비율(3.41%)은 비해당 지역(1.97%)에 비해 1.44%p, 다문화가구의 비율(2.05%)은 비해당 지역(1.81%)에 비해 0.24%p 높은 수준이다.

비해당 지역과의 비교가 아닌, 89개 인구감소지역 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보인다. 가령 인구감소지역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분류해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비율의 경우 38개 지역,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권자 비율은 34개 지역, 다문화가구 비율은 4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 그리고 전북지역은 공통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과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 비율이 모두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여기에 전북지역은 전남지역과 함께 다문화가구 비율에 있어 대부분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특성도 있다. 대구지역의 군위군이 제외된다고 할지라도 부산광역시의 3개 자치구(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광역시의 2개의 자치구(남구, 서구), 그리고 전북도의 2개 지역(무주군, 장수군)을 제외한 지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로 상징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인 것이다. 한편 개별 자치단체 수준에서 살펴보면, 충남의 부여군과 경북의 고령군이 눈에 띄는데, 이들 지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 다문화가구 비율이 모두가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인구감소지역, 그 중에서도 정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 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공동으로 접근할 사안에 대한 판별 근거와 더불어 개별지역에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초 정보 또는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표 II-5.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 비율

(단위: %)

지역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		다문화가구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6.86)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3.41)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2.05)
부산	동구	11.90	○	3.69	○	1.44	
	서구	10.18	○	3.58	○	1.07	
	영도구	12.22	○	4.02	○	1.29	
대구	군위군	5.19		2.71		1.56	
	남구	11.21	○	3.94	○	0.95	
	서구	10.00	○	3.41	○	1.80	
인천	강화군	6.52		2.27		1.41	
	옹진군	3.64		2.83		0.93	
경기	가평군	6.90	○	2.20		2.84	○
	연천군	6.68		2.90		1.89	
강원	고성군	5.72		3.37		2.01	
	삼척시	6.45		3.01		1.36	
	양구군	5.37		2.33		6.44	○
	양양군	6.32		2.89		3.74	○
	영월군	5.02		2.83		1.53	
	정선군	5.21		2.88		2.11	○
	철원군	4.80		2.57		2.02	
	태백시	7.18	○	3.76	○	1.61	
	평창군	3.65		2.13		0.96	
	홍천군	4.38		1.59		0.65	
	화천군	5.26		2.63		2.06	○
	횡성군	4.39		1.81		0.97	
	충북	괴산군	6.21		2.83		1.86
단양군		6.38		2.26		1.80	
보은군		6.65		3.11		2.65	○
영동군		6.01		2.67		2.15	○

지역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		다문화가구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6.86)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3.41)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2.05)	
	옥천군	6.49	3.44	○	2.45	○	
	제천시	7.01	3.07		1.70		
충남	공주시	5.74	2.44		2.16	○	
	금산군	6.20	3.79	○	2.75	○	
	논산시	8.07	○	2.96	2.35	○	
	보령시	6.60		2.56	1.96		
	부여군	7.08	○	4.20	○	2.15	○
	서천군	6.37		3.38		1.73	
	예산군	5.05		2.14		2.24	○
	청양군	4.56		2.36		2.47	○
	태안군	4.75		2.29		1.71	
전북	고창군	7.35	○	5.40	○	2.40	○
	김제시	10.35	○	4.76	○	2.28	○
	남원시	9.16	○	3.54	○	2.33	○
	무주군	6.37		3.77	○	2.36	○
	부안군	7.17	○	4.24	○	2.23	○
	순창군	7.23	○	3.71	○	2.93	○
	임실군	8.23	○	5.39	○	2.51	○
	장수군	6.61		3.74	○	3.00	○
	정읍시	8.72	○	4.28	○	2.38	○
전남	진안군	6.97	○	3.70	○	2.87	○
	강진군	7.48	○	3.98	○	2.15	○
	고흥군	8.05	○	4.34	○	2.04	
	곡성군	7.07	○	3.03		2.26	○
	구례군	6.72		3.37		2.26	○
	담양군	5.52		2.63		2.28	○
	보성군	7.61	○	4.70	○	2.08	○
	신안군	6.18		4.02	○	2.02	
	영광군	6.47		3.46	○	2.33	○
	영암군	4.27		2.84		3.69	○
	완도군	7.03	○	7.55	○	2.18	○
	장성군	5.67		2.93		2.93	○
	장흥군	8.09	○	4.61	○	2.36	○
	진도군	7.85	○	6.03	○	2.67	○
	함평군	6.69		2.89		2.48	○
	경북	해남군	7.17	○	3.56	○	2.55
화순군		5.66		2.81		2.36	○
고령군		7.39	○	3.64	○	2.07	○
문경시		5.06		2.59		1.80	
봉화군		6.16		4.03	○	2.14	○
상주시		5.89		3.05		1.94	
	성주군	5.73		2.44		1.88	

지역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		다문화가구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6.86)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3.41)	비율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음 (≥2.05)
안동시	안동시	7.28	○	2.73	○	1.41
	영덕군	8.31	○	5.64	○	1.69
	영양군	7.68	○	3.54	○	2.52
	영주시	7.61	○	3.12	○	1.55
	영천시	7.75	○	3.24	○	1.93
	울릉군	3.81		3.72	○	0.67
	울진군	7.04	○	4.70	○	1.40
	의성군	7.15	○	3.18		1.58
	청도군	5.69		3.02		1.57
	청송군	6.58		3.25		1.92
경남	거창군	6.21		3.10		1.72
	고성군	7.08	○	3.12		2.02
	남해군	6.37		4.10		1.47
	밀양시	6.80		2.92		1.70
	산청군	6.41		2.97		1.73
	의령군	7.62	○	2.86		1.87
	창녕군	6.71		2.97		2.12
	하동군	6.95	○	3.19		1.80
	함안군	5.90		2.61		2.45
	합양군	7.12	○	3.36		2.13
평균	합천군	6.19		2.29		1.61
	인구감소지역	6.86		3.41		2.05
	비인구감소지역	4.58		1.97		1.81
전국	5.46		2.53		1.91	

* 주1):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는 2022년 12월 기준 수치임.
* 주2): 다문화가구 수, 전국 인구 수, 전국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수치임.
*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업 시군구별 수급권자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62448/fileData.do, 2024.2.20.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월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52&tblId=DT_452001_A001&conn_path=l2, 2024.2.19.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 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l2, 2024.2.19. 인출)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2024.05.12,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연도 끝자리 0, 5), 시군구(그 외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IN1502&conn_path=l2, 2024.5.9. 인출)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2024.05.12, 가구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l2, 2024.5.9. 인출)

2.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동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은 크게 2021년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를 전·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정·고시 이전 시기는 통합공모사업이 2017년부터 연이어 지원되었고, 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선포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고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이어졌음.
-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시행과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⁵⁾과 배분 기준을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행정 및 재정의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원의 범위를 규제 특례까지 확대하고 있음.

1)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이전 시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대안 모색 및 관련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발전해 왔으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체계성을 갖추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로 말미암은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정책 동향을 살필 때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보다 정책 발전의 흐름과 추진되는 정책들의 성격 차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이전 시기, 그중에서도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 인식의 공유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의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2017년부터 그 이후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2017년에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발전 정책이 당면한 문제를 세 가지(국토공간정책, 지역산업정책, 인구사회정책)로 파악하였고, 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과 인구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초점이 있었다. 이 시기에 정책 추진을 위한 「(가칭) 인구 및 지역 활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 구현의 필요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었는데, 이때 마련된 방안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발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7.3.3).

이 시기에 추진된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9개 인구급감 지역⁵⁾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5) 20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공모사업 선정 지역: 강원 평창군, 충북 음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고창군, 전북

통합 지원 시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에는 총예산 147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에 대상 지역을 9개에서 11개 지역으로, 예산도 3억 원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행정자치부, 2017.6.29.; 2018.4.17.), 이후 이 사업의 확대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3년차인 2019년에는 4~5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장년의 정착과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모사업이 총예산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고, 2020년에는 청년정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방점을 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총예산 16억 원 규모로 실시되었다(행정자치부, 2019.4.29.; 2020.3.5.).

한편 2018년 2월 1일에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선포식을 통해 발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사람, 공간, 산업 부문의 3대 전략과 9개의 핵심과제가 담겼는데, 이 중 공간 부문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감소지역으로'이며, 이 과제는 네 가지 사항(①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②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 ③균형발전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벨트' 지정, ④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구형수·배유진·윤세진·강동우·조성호, 2018, pp.89-90).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021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이루어졌다(행정안전부, 2021.10.18.).

2)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이후 시기

앞선 흐름에 이어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연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8월에는 2022년과 2023년 기준 기금 배분을 결정하였다. 그 사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6월에 제정되었고, 12월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인구'⁶⁾에 대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었다(행정안전부, 2022.2.8.; 2022.5.29.;

정읍시,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합천군(행정자치부, 2017.6.29.)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생활인구"란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2022.8.16.; 2022.12.20.).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범부처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생활인구’에 대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다(행정안전부, 2023.5.17.; 2023.5.29.; 2023.8.3.; 2023.12.18.).

이어 2024년부터 전반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공모사업이 확대·강화되었고,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수립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 담긴 세 가지(①세컨드홈 활성화. ②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③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는 2023년에 수립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언급되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최진섭, 2024, p. 6; 관계부처합동, 2024.4.15.). 또한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6월에 개정되었으며, 7월에는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행정안전부, 2024.6.4.; 2024.7.18.).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17. 검색 및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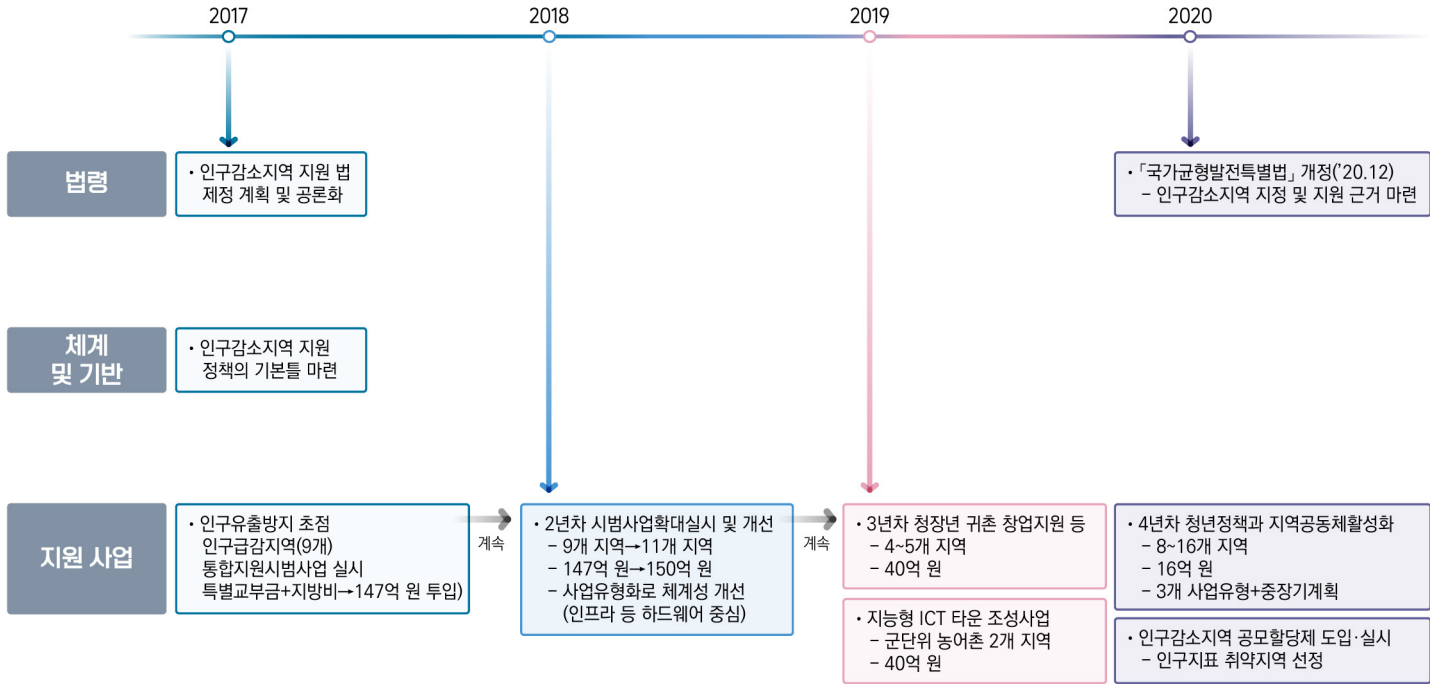


그림 II-2.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발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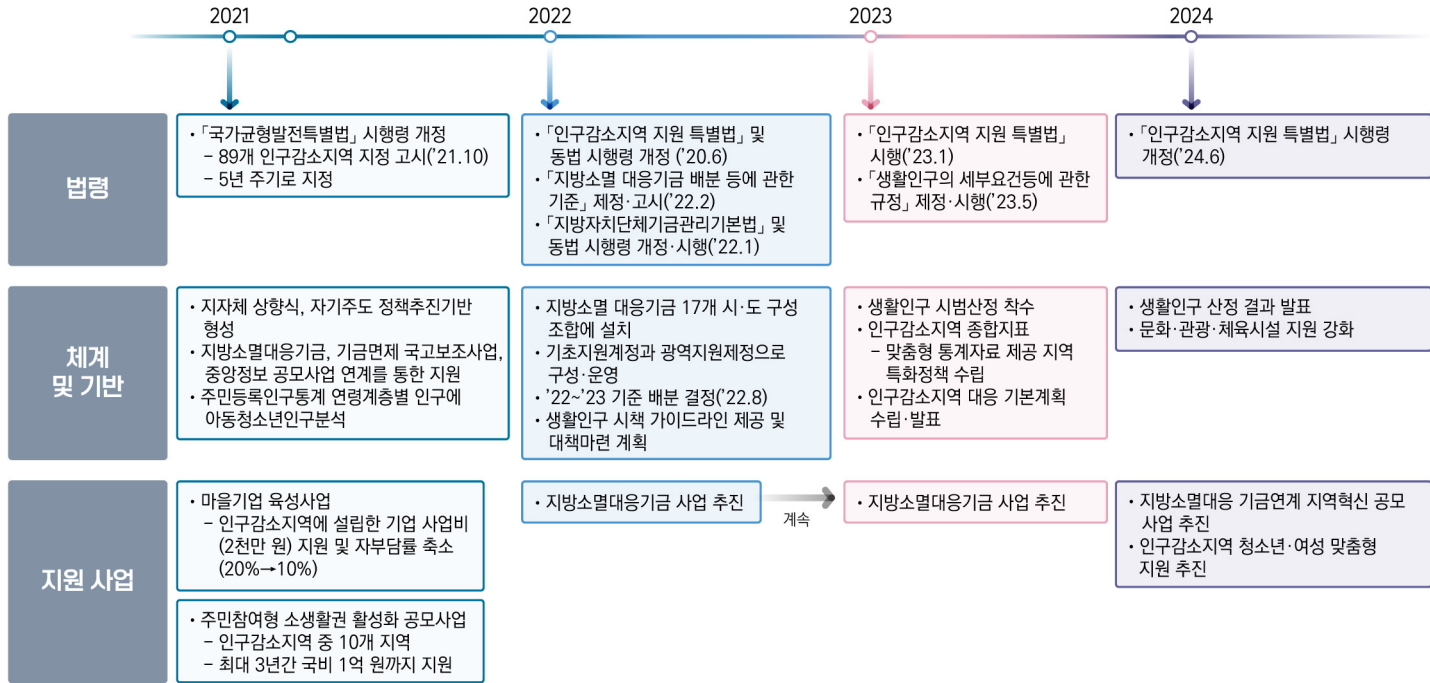


그림 II-3.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발전 동향

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현황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 현황을 2023년 청소년정책 시행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총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의 규모는 89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며, 자체 사업의 내용은 대체로 관계 법률에서 지자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의 사업들이 다수이기는 하나, 바우처 또는 교통비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개별 지원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청소년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를 2022년과 2023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3개 지역만이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은 압도적으로 시설 조성 및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에 쏠려 있음.

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예산 및 자체 사업

(1) 청소년정책 총예산 및 자체 예산 비중

앞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어떠한 흐름과 맥락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정책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의 현황을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청소년정책 지자체 시행계획' 및 '지자체 실적보고서'의 예산 및 사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정책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정책예산을 통해 파악하는 것만큼 명확한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총예산과 총예산에서의 지자체 자체 사업예산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2항7)에 따라 지자체가 여성가족부로 가장 최근에 제출한 2023년 시행계획과 실적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문서로 기술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재작성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의 과정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이 예산 규모나 사업 내용 측면 모두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 총예산부터 살펴보면, 표 II-6에 제시된 바와 같이,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청소년정책 총예산은 38억 8천4백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총예산 금액은 연간 1억 미만 수준부터 240억 원대까지 예산 금액의 격차가 매우 크다.

7)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0.12. 검색).

작은 섬인 경북 울릉군을 제외하면 충북 보은군이 1억 4천6백만 원 정도로 가장 적고, 경남 고성군이 245억 3천7백만 원으로 가장 많다. 고성군 이외 연간 1백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이 7곳(대구 서구, 충남 공주, 예산, 청양, 경북 상주, 강원 철원, 화천) 있는데, 강원 철원군의 경우 연간 221억 원을 초과하며, 강원 화천군과 충남 청양군의 경우도 170~180억 원 수준이다.

총예산에는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고예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자체 내 청소년정책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예산 중 자체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산출된 인구감소지역 평균 자체 예산은 25억 2천2백만 원 수준이다.

자체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으로 204억 7천2백만 원 정도 되지만, 도서지역인 인천 옹진군의 경우 총예산 5억8천4백만 원에서 0.1%만이 자체 예산으로 53만 원에 불과하다. 옹진군이나 울릉군을 제외한다면 총예산이 가장 적었던 충북 보은군이 자체 예산 또한 연간 5천2백만 원 정도로 가장 적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자체 사업예산이 10억 미만인 지역은 34개이다.

한편, 총예산 중 자체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 60.23% 수준으로 낮지 않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1개 지역은 자체 사업예산이 청소년정책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고,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21개 지역이 80% 이상으로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7개 지역은 자체 사업예산이 20% 미만인데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을 제외하면 5개 지역(인천 강화군(19.1%), 강원 삼척시(16.3%), 전북 진안군(12.8%), 전남 보성군(16.1%), 경남 남해군(5.3%))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의 자체 예산 규모가 크다면 자체 사업예산 비중이 적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체 사업예산이 20% 미만인 지역들은 자체 사업예산 금액도 많지 않아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표 II-6. 2023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총예산 및 자체 사업예산 비중

(단위: 백만 원, %)

지역 구분	2023년도 지자체 청소년정책 예산					
	총예산 금액	총예산 중 자체 사업예산		총예산 중 자체 사업예산 비중		
		자체 예산 금액	10억 원 미만	비율	80% 이상	20% 미만
부산	동구	1,064.01	348.76	○	32.8	
	서구	3,126.86	1,372.39		43.9	
	영도구	1,750.10	1,020.80		58.3	
대구	군위군	3,547.10	3,473.06		97.9	○
	남구	1,324.21	319.11	○	24.1	
	서구	14,886.08	7,079.71		47.6	
인천	강화군	1,360.70	259.70	○	19.1	○
	옹진군	584.12	0.53	○	0.1	○
경기	가평군	5,613.94	5,127.06		91.3	○
	연천군	5,339.68	1,693.48		31.7	
강원	고성군	1,536.73	1,273.23		82.9	○
	삼척시	2,286.14	372.97	○	16.3	○
	양구군	2,265.45	2,037.98		90.0	○
	양양군	547.57	512.87	○	93.7	○
	영월군	2,039.38	1,413.51		69.3	
	정선군	6,424.28	5,620.90		87.5	○
	철원군	22,155.09	20,472.97		92.4	○
	태백시	1,816.00	1,480.00		81.5	○
	평창군	7,481.60	5,964.33		79.7	
	홍천군	7,045.00	2,337.64		33.2	
	화천군	17,918.90	13,367.66		74.6	
충북	황성군	4,569.85	1,448.80		31.7	
	괴산군	2,605.35	1,420.36		54.5	
	단양군	1,019.80	655.40	○	64.3	
	보은군	146.80	52.90	○	36.0	
	영동군	1,380.88	1,055.12		76.4	○
	옥천군	3,594.00	3,270.00		91.0	○
충남	제천시	4,952.08	3,841.66		77.6	
	공주시	10,980.41	6,633.97		60.4	
	금산군	1,846.82	485.32	○	26.3	
	논산시	8,286.33	7,740.90		93.4	○
	보령시	1,528.00	1,220.00		79.8	
	부여군	3,831.24	3,193.19		83.3	○
	서천군	3,267.75	2,537.58		77.7	
	예산군	15,500.76	8,699.01		56.1	
전북	청양군	17,151.90	15,740.27		91.8	○
	태안군	1,161.37	544.38	○	46.9	
	고창군	6,337.68	5,902.19		93.1	○
	김제시	2,464.55	1,868.55		75.8	
	남원시	2,314.30	1,776.50		76.8	
	무주군	1,802.95	1,011.94		56.1	

지역 구분		2023년도 지자체 청소년정책 예산					
		총예산 금액	총예산 중 자체 사업예산		총예산 중 자체 사업예산 비중		
			자체 예산 금액	10억 원 미만	비율	80% 이상	20% 미만
전남	부안군	3,811.16	3,597.86		94.4	○	
	순창군	1,502.34	1,176.93		78.3		
	임실군	4,733.44	3,172.09		67.0		
	장수군	525.10	402.54	○	76.7		
	정읍시	315.40	147.30	○	46.7		
	진안군	1,852.35	237.56	○	12.8		○
전남	강진군	1,023.29	686.33	○	67.1		
	고흥군	587.35	394.04	○	67.1		
	곡성군	9,127.72	8,375.52		91.8	○	
	구례군	806.30	545.61	○	67.7		
	담양군	1,473.22	1,024.19		69.5		
	보성군	3,235.52	520.84	○	16.1		○
	신안군	1,430.71	1,160.77		81.1	○	
	영광군	1,534.85	402.54	○	26.2		
	영암군	1,420.53	828.14	○	58.3		
	완도군	1,049.36	783.02	○	74.6		
	장성군	2,406.27	2,055.30		85.4	○	
	장흥군	2,128.90	962.40	○	45.2		
	진도군	4,310.14	2,279.84		52.9		
	함평군	934.59	341.62	○	36.6		
경북	해남군	4,658.91	1,417.03		30.4		
	화순군	3,868.80	1,313.05		33.9		
	고령군	521.07	328.67	○	63.1		
	문경시	4,862.79	3,927.61		80.8	○	
	봉화군	1,011.41	602.13	○	59.5		
	상주시	11,542.96	4,923.93		42.7		
	성주군	3,562.00	1,023.00		28.7		
	안동시	3,357.94	1,919.97		57.2		
	영덕군	1,379.00	677.00	○	49.1		
	영양군	1,427.87	1,217.52		85.3	○	
	영주시	1,800.31	1,256.43		69.8		
	영천시	2,420.53	1,537.57		63.5		
	울릉군	144.29	3.33	○	2.3		○
	울진군	1,925.79	963.62	○	50.0		
경남	의성군	1,347.30	1,080.40		80.2	○	
	청도군	643.30	172.00	○	26.7		
	청송군	1,025.43	816.60	○	79.6		
	거창군	3,088.45	2,570.04		83.2	○	
	고성군	24,537.11	14,075.30		57.4		
	남해군	7,826.40	416.40	○	5.3		○
	밀양시	1,698.81	1,346.61		79.3		
	신창군	1,177.46	810.44	○	68.8		
경남	의령군	1,407.19	315.39	○	22.4		
	창녕군	3,390.48	2,609.35		77.0		

지역 구분	2023년도 지자체 청소년정책 예산					
	총예산 금액	총예산 중 자체 사업예산		총예산 중 자체 사업예산 비중		
		자체 예산 금액	10억 원 미만	비율	80% 이상	20% 미만
하동군	1,538.52	862.24	○	56.0		
함안군	3,501.51	2,532.48		72.3		
함양군	2,369.63	1,754.80		74.1		
합천군	643.31	320.08	○	49.8		
인구감소지역 평균	3,884.75	2,522.86	-	60.23		-

* 자료 : 여성가족부(2024a). 2023년 지자체 실적보고서 예산 부문 내부 자료.

(2) 자체 사업 내용

① 자체 사업 수 및 사업 내용

앞서 청소년정책의 규모 측면에서 총예산과 자체 사업예산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 사업을 표 II-7과 같이 살펴보았다.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계획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기본 특성으로 인해 89개 지자체별 추진되는 사업의 수나 내용이 천차만별하다. 사업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기준이 있다면 89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 또한 청소년정책의 규모 측면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분리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세어 자체 사업의 양만을 ‘자체 사업 수’로 파악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정책 추진 내용에 적지 않은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법률(「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⁸⁾)에서 규정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유무, 그리고 시설 운영에 따라 제공 서비스로 인해 사업의 개수나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외 행사나 캠페인 등의 사업이나 청소년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청소년 보호법」⁹⁾제5조)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각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9)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에 의거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활동단이나 청소년참여기구의 운영 여부에 따라서도 자체 사업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청소년정책 법률에 따르는 사항의 이행 여부에 있을 뿐,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에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위험 대응을 위한 지역 청소년의 정주성 강화 또는 유출 완화를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사업들은 일정한 틀이나 내용 분류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얼핏 보면 지역마다 필요성이 인식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기획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청소년 정책 관련 법률(「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자체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의 사업이며, 이행 여부나 이행 형태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나,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들은 아직 청소년정책 영역 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표 II-7. 2023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자체 사업 수 및 내용

(단위: 개)

지역 구분	자체 사업 수	사업 내용
부산	동구	2 교육축제, 보호 캠페인
	서구	6 창의융합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예술 멘토링, 합창단, 유해환경 단속,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영도구	12 어울마당, 유해환경 단속,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체육대회, 진화도시 운영, 권리교육, 오케스트라 운영, 합창단 운영, 멘토링, 여학연수, 스피치대회, 국제교류
대구	군위군	3 수련원 운영, 유해환경 개선활동, 체험프로그램 운영
	남구	2 청소년활동, 성년의날 축하서한문 발송
인천	서구	5 프로그램 운영 지원, 수련관 안전공사, 학교폭력 예방 사업, 교육발전사업
	강화군	6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교복지원, 교통비 지원, 수련시설 운영, 범죄예방 및 계도, 동아리대회 개최
경기	옹진군	5 공부방 운영, 문화의집 운영, 유해환경 지도 및 포상, 육성위원회 운영
	가평군	10 수련시설 안전점검, 학교폭력 예방, 미디어 과의존 예방, 청소년시설 지원, 문화의집 운영, 장학관 운영, 교정체험 활동,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경제교육, 동아리 운영
	연천군	2 청소년재단 지원, 성년의날 카드 발송
강원	고성군	7 동아리 활동, 직업체험, 학교연계 프로그램, 축제, 교육문화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악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 구분	자체 사업 수	사업 내용	
충청	4	지원, 유해환경 단속	
	4	국제교류, 예술제 운영, 공부방 운영, 인성교육	
	6	유해환경 단속, 유해환경 신고 포상,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단체 지원, 위생용품 지원	
	4	수련관 운영, 체험활동 운영, 문화행사 운영, 보호활동	
	25	선진지 견학, 수련관 운영, 피티세, 공연단, 사진전, 문화해설사, 청소년활동, 응급처치교육, 문화축제, 주말학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한마음축제, 보고대회, 어린이날 행사, 유해환경 신고 포상, 국제교류, 운영위원회, 동아리 활동, 문화의집 운영, 자매도시 교류, 상담복지센터 운영	
	6	수련관 운영,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시설 보강, 상담복지센터 운영, 어울마당 지원, 유해환경 단속	
	1	문화의집 운영	
	5	재능발전, 상담복지센터 운영, 문화의집 운영, 영어교실 운영	
	23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육성, 수련시설 운영, 교류사업, 학습환경 개선, 공부방 지원, 유해환경 개선,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운영, 부모교육 운영, 인성교육 운영, 특강, 진로캠프, 동아리 육성, 참여가,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집 동아리 운영, 직업인턴제, 상담복지센터 운영, 안전망 운영, 동반자 활동, 보조금 사업	
	5	수련관 운영, 야영장 운영, 선도활동, 공부방 운영, 문화의집 운영	
충북	7	한마음축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토크콘서트, 참여위원회, 독서실 운영	
	6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 방과후 지원, 청소년축제, 육성캠프,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담사업 운영, 방과후활동 지원, 위생용품 지원, 건강증진비 지원, 한마음예술제 지원, 경찰소년단 지원, 효문화장려사업 지원, 응급처치대회 지원, 청소년축제 지원, 농구대회 지원, 운영위원회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지도위원 지원, 문화예술공연 지원, 문화탐방 지원	
	18	유해환경 개선,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공간 운영, 자립지원, 축제운영, 한마음 축제, 경찰소년단, 바우처,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물놀이, 비전교육, 학습동아리, 수련시설 프로그램, 문화체험, 진로체험, 입학축하금, 오지겨주 학생 택시 지원, 교통비 지원, 취업역량 강화 지원	
	20	유해환경 개선,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공간 운영, 자립지원, 축제운영, 한마음 축제, 경찰소년단, 바우처,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물놀이, 비전교육, 학습동아리, 수련시설 프로그램, 문화체험, 진로체험, 입학축하금, 오지겨주 학생 택시 지원, 교통비 지원, 취업역량 강화 지원	
	2	다문화가정 장학금, 다문화가정 대입 장학금	
	9	근로보호교육, 문화예술 교육 지원, 정책제안대회, 진로직업박람회, 문화기획단, 공모사업,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5	문화제, 상담복지센터 운영, 유해환경 신고 포상, 백일장	
	14	특별지원, 자립지원, 급식지원, 안심 귀갓길, 정책참여, 창의교실, 시 로봇교육, 드론축구단, 한마음축제, 청소년주도사업, 수련관 운영, 문화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생용품 지원	
	5	수련관 운영, 문화의집 운영, 축제, 수련시설 보강, 자살위기 청소년 지원	
	13	국제교류, 문화의집 운영 및 소식지 발간, 신문발간사업, 축제 지원, 문화의집 운영, 급식지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유해환경 단속, 바우처 지원, 물놀이장 지원, 학습지원, 힐링공간 조성	
충남	7	수련관 운영, 참여기구 운영, 수련활동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처우개선비 지원, 청소년자킴이,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10	수련관 운영, 유스호스텔 운영, 문화의집 운영, 문화센터 운영, 문화축제 운영, 교류사업 운영, 선도육성사업, 유해환경 개선, 스카우트 활성화	
	3	특성화 사업, 행사 지원, 위생용품 지원	
	13	청소년시설 보강, 수련관 운영, 어린이날 행사, 합창단, 문화교류 사업, 문화의집 운영, 활동 지원, 스포츠 공간 조성,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통놀이행사, 성년의날 행사, 유해환경 신고 포상, 범죄예방 활동 지원	
	4	수련관 운영, 문화의집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동아리 지원	
	10	농구대회, 예능경연대회, 유해환경 감시단, 선도활동 지원, 문화지원사업, 정서함양 프로그	
	전북	3	특성화 사업, 행사 지원, 위생용품 지원
		13	청소년시설 보강, 수련관 운영, 어린이날 행사, 합창단, 문화교류 사업, 문화의집 운영, 활동 지원, 스포츠 공간 조성,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통놀이행사, 성년의날 행사, 유해환경 신고 포상, 범죄예방 활동 지원
		4	수련관 운영, 문화의집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동아리 지원
		10	농구대회, 예능경연대회, 유해환경 감시단, 선도활동 지원, 문화지원사업, 정서함양 프로그

지역 구분	자체 사업 수	사업 내용	
충청권	6	랩 운영,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건강지원, 학교폭력예방사업 드론축구 프로그램, 동아리 육성, 교류캠프 추진, 학교밖청소년 지원, 보호활동, 수련관 운영	
	1	유해환경 단속	
	4	문화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위생용품 지원, 바우처 지원	
	2	체력 강화, 학교폭력 예방	
	11	활동인증프로그램, 중국어, 문화축제, 실내악단, 실용음악 아카데미, 역사문화교류, 급식지원, 농촌나눔 프로젝트, 봉사동아리, 드림카드 지원	
전남	2	저소득청소년 지원, 역사문화탐방	
	1	문화의집 운영	
	5	예절교실, 문화의집 운영, 문화의집 시설유지, 아영장 시설유지, 바우처 지원	
	8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마당, 동아리 운영, 방학체험 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 안전교육, 사회단체 지원,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2	문화의집 운영, 문화의집 분소 운영, 상담복지센터 지원, 교류캠프, 페스티벌, 어울림마당, 학교밖청소년 지원, 진로박람회, 독립운동기념일 지원, 수련원 운영,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9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지원, 플리마켓 운영,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축제, 농구대회, 역사캠프, 4차산업 기술교육	
	4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교육, 문화의집 운영, 우수프로그램	
	10	수련관 운영, 문화의집 운영, 수련캠프 운영, 현장체험 활동 지원, 축제 운영, 운영위원회, 학습문화 프로그램, 성년의날 축하문 발송, 노동인권 보호사업, 폭력예방 캠페인	
	3	어울림마당, 범죄예방 및 상담보호, 수련시설 보강	
	2	문화의집 운영, 한마당 운영	
	14	교류행사, 체험활동 지원, 선도보호 활동,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예절교실, 축구대회,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해환경 감시단, 카페 운영, 한마당 축제, 방역용품 지원, 문화의집 운영, 문화센터 운영, 노동인권교육	
	경북	10	디지털 프로그램, 정보교육, 진로교육 활성화, 국제교류 프로그램, 문화예술 활성화, 스포츠체험 활성화,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명륜 교실 운영,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2	위기청소년 지원, 유해환경 개선활동
5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집 운영,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단체 지원, 동아리 지원	
1		유해환경 개선활동	
3		동아리 지원, 어울림마당,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21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 아영장 운영, 공감스쿨 운영,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유해환경 개선활동, 선도활동, 공연 운영, 가요제, 동아리 활성화 사업 지원, 아나바다 장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담복지센터 캠프, 자원봉사단, 멘토링, 정책청안대회,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놀이터 운영, 권리교육, 홍보단 운영	
4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운영위원회,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유해환경 개선활동	
8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행사 지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토코콘서트 프로그램 운영, 부모 프로그램 운영	
5		범죄예방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술 프로그램 운영, 축제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6		어울림마당, 유해환경 지도, 위기청소년 지원, 직업연계프로그램 운영, 성취포상제 운영, 동아리 운영	
3		어울림마당, 유해환경 개선활동, 수련관 운영	
경남		5	수련관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집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행사지원
		5	청소년센터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바우처 지원

지역 구분	자체 사업 수	사업 내용
남해군	7	축제,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학숙 운영, 영어캠프 운영, 코딩 캠프, 아간교통 자원, 교육지구 운영
밀양시	5	유해환경 단속,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산업시찰, 체험활동
산청군	1	청소년수련관 운영
의령군	3	국제교류, 어울마당, 문화의집 운영
창녕군	15	청소년수련관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집 운영, 역사 문화체험, 나라사랑 프로그램, 생태 탐방 프로그램, 어울마당,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한마당축제, 하계캠프, 오케스트라 운영,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미디어플랫폼 구축, 복지프로그램 운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하동군	6	문화의집 운영, 수련관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 교류행사, 한마음축제, 포럼 개최
함안군	4	한마음축제, 수련관 운영, 부모교육, 문화의집 운영
함양군	6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문화체험, 성교육, 한마음축제, 인시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합천군	3	문화의집 운영, 예능경연대회 개최, 육성재단 협력사업

* 자료 : 여성가족부(2023b). 2023년 지자체 시행계획 1권-3권(<https://www.ypec.re.kr>, 2024.3.5. 검색 및 출력). 여성가족부(2024a). 2023년 지자체 실적보고서 예산 부문 내부 자료.

② 자체 사업 분류 및 재범주화

이어 표 II-7에 나열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자체 사업을 여기에서는 표 II-8과 같이 사업의 성격과 형태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재범주화 하였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의 성격을 한눈에 파악함과 동시에 앞의 표 II-7에서 쉽게 보이지 않았던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험 대응의 맥락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사업은 없는지, 반복된 검토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체 사업은 여섯가지 항목(①기관 및 시설(센터) 운영, ② 프로그램 운영, ③행사 운영(대회, 축제, 캠프 등), ④교육 또는 멘토링, 진로직업체험 등, ⑤유해환경 단속 및 포상 등, ⑥(취약계층) 청소년 개별 지원)으로 분류되었고, 기존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이행되는 ①~⑤에 위치하는 사업 이외 ⑥지역 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작은 사업들 몇 가지가 발견되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위생용품지원'만을 보고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 사업만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가령 '교복지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여전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경북 고령군, 전남 담양군 등)하는 지역도 있으나, 몇 개의 인구감소지역을 포함(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등)한 다수의 지역에서는 관내 거주한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료로 교복을 제공(경남교육청)한다(정부24, 2024.10.12. 검색; 고령군청, 담양군청, 부산 동구청, 강화군청, 김제시청, 영광군청 누리집, 2024.10.12. 검색).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약자를 위한 일명 ‘100원택시’ 또는 ‘행복택시’ 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도 기존의 청소년정책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행되는 사업이 아닌, 지역의 특성화 상황을 고려한 지역 정주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인천 강화군, 경남 함안군)나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교생(경북 영주시)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농어촌학생(강원도 인제군)이나 거주지와 학교의 거리가 3km이상인 경우(강원 양구군)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며,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내륙지역의 경우 관내 중·고등학생(충북 보은군, 영동군)을 지원한다(정부24, 2024.10.12. 검색; 강화군청, 함안군청, 양구군청, 영주시청, 인제군청 누리집, 2024.10.12. 검색).

한편 바우처의 경우, 지역별로 지원 연령대(전남 진도군, 경남 고성군: 13세~18세, 전북 김제시: 15세~18세)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역화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월 3만원~7만원의 금액(진도군: 월 5만원, 고성군: 13세~15세-5만원, 16세~18세-7만원, 김제시: 15세-3만원, 16세~18세-5만원)를 문구점, 서점, 이·미용실, 학원, 안경점, 체육시설이나 영화관, 독서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진도군, 고성군, 김제시 누리집, 2024.10.12. 검색).

표 II-8. 인구감소지역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자체 사업 내용 분류

구분	기관 및 시설 (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 (대회 축제 캠프 등)	교육 또는 멘토링, (진로직업)체험	유해환경 단속 및 포상 등	(취약계층) 청소년 개별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관 운영 - 수련원 운영 - 문화의집 운영 - 센터 운영 - 청소년체 지원 - 수련관 안전기 능보강공사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및 도시 간 교류 - 오케스트라 -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운영위원회 - 참여기구 운영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공부방 운영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대회 - 진로직업박람회 - 문화제 - 백일장 및 사생대회 - 한마음축제 - 어울마당 - 토크콘서트 - 응급처치경연 대회 지원 - 농구대회, 배구 한마당 등 체육 대회 지원 - 성년의날 축하 카드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교육 - 근로보호교육 - AI, STEAM 교육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 청소년 체험활동 - 사회적경제 교육 -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 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범죄 사전 예방 및 순찰 계도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 - 청소년 유해업 소 지도단속 - 청소년 보호 캠페인 - 청소년선도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 지원 - 교통비 지원 - 야간교통 지원 - 바우처 지원 - 교복 지원

* 주 : 여성가족부(2023b), 2023년 지자체 시행계획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범주화하여 재구성.
 * 자료 : 여성가족부(2023b), 2023년 지자체 시행계획 1권-3권(<https://www.ypec.re.kr>, 2024.3.5. 검색 및 출력).

2)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소년정책사업

(1) 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2023년)으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 사업

① 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2023년)으로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앞서 '2023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청소년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2022년 도입되고 배분된 2022년~2023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료 사용의 제한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하고 자료화하지는 못하였고, 나라경제연구소가 공개한 사업 목록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사업을 발췌하였기에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사업 목록만으로도 본 연구 단계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주요 사항, 즉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에 연간 1조 규모의 기금을 배분되는 예산을 사용하여 청소년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몇 개의 사업이 추진되는지, 그리고 추진되는 사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어떠한 성격의 사업인가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다지 무리가 없었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담긴 자체 사업 검토를 통해 도출된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 안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이나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는 못하다. 여전히 기존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 중심으로 자체 사업이 운영되고, 일부 지역에서 교통비나 바우처 지원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몇몇 지역에서 발견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배분받은 기금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청소년을 고려한 사업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금으로 청소년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는가부터 살펴보면, 89개 인구소멸지역 중 단 13곳만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고려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후기청소년이 경우 청년정책 사업에도 그 대상자나 수혜자가 될 수 있기에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살펴보면 청소년정책 사업 추진하는 지역보다 많은 48곳이다.

표 II-9. 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2023년) 활용 청소년정책 사업 추진 지역

구분	청소년		청년	
	지역명	지역 수	지역명	지역 수
대구	군위군, 남구	2	서구	1
경기	-		연천군	1
강원	삼척시, 평창군	2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3
충북	단양군, 영동군	2	괴산군, 제천시	2
충남	청양군	1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청양군	6
전북	김제시	1	고창군,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9
전남	영광군, 영암군, 해남군	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13
경북	문경시	1	고령군, 문경시,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의성군	6
경남	하동군	1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7
	계	13		48

* 주 : 2022~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나라살림연구소, 2023.10.24.)의 내용을 재구성함.

*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2023.10.24.). 2022~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www.narasallim.net/report/525>, 2024.5.2. 검색)

② 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2023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 사업

기금으로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확인한 데 이어 13곳의 인구소멸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시설 조성” 사업이 압도적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구 남구의 ‘청소년 미래교육 프로젝트’와 충남 청양군의 ‘청양키즈 육성’, 강원 삼척시의 ‘대학 및 고교연계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모두 시설 조성 또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에 쏠려 있다. 이는 사업 기반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지역을 지원했던 각종 공모사업이 대체로 인프라나 시설 조성과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되었던 흐름이 있고, 기금 배분 초기 시점이다 보니 지역 거주 청소년에 대한 파악이나 정책대상자로서의 고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책과제가 발굴되지 못한 탓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0.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23년) 사업 중 청소년정책 사업

지역 구분	사업 개수	사업명		
대구	군위군	1	[2022~2023년] 군위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남구	1	[2023년] 남구 청소년 미래교육 프로젝트	
강원	삼척시	1	[2022~2023년] 대학 및 고교연계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평창군	1	[2022년] HAPPY700 평창 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	
충북	단양군	1	[2022~2023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영동군	1	[2022년]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 사업	
충남	청양군	1	[2022~2023년] 청양군의 미래, 청양키즈 육성	
전북	김제시	3	[2022년]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 [2023년] 대울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 [2022~2023년]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영광군	1	[2022년]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영암군	1	[2022~2023년] 창의력 만렙 ICT기반 청소년 과학체험공간 조성
전남	해남군	2	[2022년]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명심당 건립 [2023년] 땅끝 청소년 상담소 건립	
		문경시	1	[2022~2023년]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구축
경남	하동군	1	[2022년]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총합	15			

* 주 : 2022-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나라살림연구소, 2023.10.24.)의 내용을 재구성함.
 *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2023.10.24.), 2022-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www.narasallim.net/report/525>, 2024.5.2. 검색)

이러한 경향은 비단 청소년정책 사업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목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청년사업의 경우 청소년사업에 비해 사업의 목적 범위가 ①청년일자리(창농-어업-스마트팜 단지 조성,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거리 또는 단지 조성), ②주거지원(주택단지 조성, 임대 또는 공유하우스), ③청년지원 거점센터 건립 또는 마을 조성 등으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것일 뿐, 시설 조성과 하드웨어 건립으로 요약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서의 청소년이나 청년대상 사업목록에 담긴 내용을 훑어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 및 이후에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안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연계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고스란히 2022년과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도 나타난다. 즉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고민의 흔적조차 없이 시설 조성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과제로 담기지 못하였음이 사업목록을 통해 확인된다.

표 II-11. 청년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022~2023년)

지역 구분	사업 개수	사업명	
대구	서구	1	[2022~2023년] 청년 친환경 기업환경 조성
경기	연천군	1	[2022~2023년]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
	양양군	1	[2023년] 청년들이 꿈꾸는 파도시 양양군: 서평메카도시 조성사업
강원	영월군	1	[2022~2023년] 청년창업 상상허브
	정선군	1	[2022~2023년] 청년마을 조성 및 정선형 청년, 일자리 케어
충북	괴산군	1	[2022~2023년]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제천시	1	[2022~2023년] 청년 지원 거점 청년모아 조성
충남	공주시	1	[2022~2023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논산시	1	[2022~2023년] 논산 산단 청년행복주택 조성
	보령시	2	[2023년] 청년 희망 스마트팜 단지 조성 [2022~2023년] 보령-태안 청년 주거 및 워케이션
충청	부여군	1	[2022~2023년] 백마강 123사비 청년 공예마을 활성화 사업
	예산군	2	[2022~2023년]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청년마을활동가 제도
전북	청양군	1	[2022~2023년] 청년&주거취약계층 보금자리 주거공간 조성
	고창군	2	[2022~2023년] 신흠부부 및 청춘농농 보금자리 조성, 청춘농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
	김제시	4	[2022년] 청년공시생 유입을 위한 김제형 노랑진 공사사관학교 운영 [2023년] 귀촌청년 동지(게스트하우스) 조성, 김제청년농 온오프라인 판로체계 구축 [2022~2023년] 청년인재 유입 스마트팜농 육성
	무주군	1	[2022~2023년]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부안군	1	[2023년] 청춘 실험실
	순창군	6	[2022~2023년] 맞춤형 청년일자리 확대, 맞춤형 청년주거공간 확대, 맞춤형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가족) 지역탐색 기반 확충, 순창 청년허브 구축, 청년가족 생애주기서비스 고도화
	임실군	1	[2022년]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특화거리 조성
	장수군	1	[2022~2023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정읍시	2	[2023년] 청년일자리와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2022~2023년] 청년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진안군	1	[2022~2023년] 청년행복 주거플랫폼 구축
전남	강진군	1	[2023년] 꽃보다 청춘, 강진에서 티움
	고흥군	1	[2022~2023년] 청년공공임대 주택 건립
	곡성군	1	[2023년]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담양군	1	[2022~2023년] 청년이 그린 마을조성
	보성군	1	[2022년] 청년농업인임대형스마트팜단지
	신안군	4	[2022년]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신인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 [2023년] 섬 폐교를 활용한 청, 장년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청년농부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 시설 원예 단지 조성,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신인을 위한 어선 구입 임대사업
	영광군	2	[2023년] 청년 스타강사 양성,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완도군	1	[2022~2023년] 활력을 찾는 완성 청년마을 조성
	장성군	1	[2022~2023년] 로컬푸드 청년잡고(Job Go)
	장흥군	1	[2022~2023년]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설립
경북	진도군	1	[2022~2023년]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년인구 거점, 청솔(청년 슬비치) 타운 조성
	함평군	1	[2022~2023년] 청년 일자리 마련 인프라 구축
	해남군	1	[2022~2023년] 청년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사업
경북	고령군	1	[2022~2023년] 청년 희망이음 클러스터

지역 구분	사업 개수	사업명
경남	문경시	3 [2022년] 청년 정착활성화를 위한 공유하우스 운영 [2023년] 경북청년 거버넌스: 경북에서 가치살자 [2022~2023년] 청년예술가 아지트 조성
	안동시	1 [2022~2023년] 미래선도산업 육성 청년기업지역생태계 조성
	영덕군	1 [2022~2023년] 청년을 품어 안은 고택, 「靑·풍·고·청춘집합뜰」 조성
	영주시	1 [2023년] 청춘활력 도시 조성
	의성군	4 [2022년] <금수장 2호>청춘색별맨션 [2023년] 도시청년 로컬 라이프 랩(Local Life Lab) 플랫폼, 경북 연합 청년거버넌스 “경북에서 가치살자” [2022~2023년] 의성love청춘 공작소
	거창군	1 [2022년] 청년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젝트
	밀양시	1 [2022~2023년] 나너내일센터(청년행복누림센터) 조성
	산청군	1 [2022~2023년]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
	창녕군	1 [2022~2023년] 창녕 청년예찬 청년활동활성화 지원
	하동군	1 [2023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함양군	1 [2022~2023년]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합천군	3 [2022~2023년] 수제형 로컬푸드청년창업 육성,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총합	71

* 주 : 2022~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나라살림연구소, 2023.10.24.)의 내용을 재구성함.
 *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2023.10.24.). 2022~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www.narasallim.net/report/525>, 2024.5.2. 검색)

4.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은 예산 규모 측면에서는 89개 지역 간 격차가 크지만, 예산에 비해 사업 내용 측면에서 차이는 결과적으로 크지 않음.
- 몇몇 지역에서 바우처나 교통비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13개의 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 사업이 지역 청소년지원을 위한 틀 안에서 연계성 있게 추진되는 것은 아님.
- 본 장에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제3장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의 규모와 연령대별 비중, 그리고 이들 정보를 기초로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본 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개념과 지역 선정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어떠한 과정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해 왔는지, 즉 정책 발전의 동향을 2021년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과 후로 나누고 시간 흐름과 정책지원의 맥락을 따라가며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에 앞서 89개 지역의 특성을 지역의 성격과 재정 여건, 그리고 취약계층의 비율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89개 지역 중 69개 지역이 농촌지역임을 확인하고 낮은 수준의 재정 여건과 함께 비해당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 또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역 단위에서 부산, 대구, 전북지역의 인구감소지역들이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과 차상위 및 한 부모가족 비율이 높고, 기초 단위에서 충남 부여군과 경북 고령군이 기초생활수급대상과 차상위는 물론, 다문화가구 비율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만으로도 광역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지역과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 가장 우선으로 나서야 할 지역이 어디인가를 파악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2023년에 추진된 청소년정책을 총예산과 자체 사업예산 금액, 그리고 자체 사업예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공통된 사실 이외, 청소년정책 측면에서는 89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체 사업예산의 규모가 연간 1억도 채 되지 않는 지역부터 2백억 원을 상회 하는 규모의 지역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이지만, 예산에 비해 사업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관계 법률(「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자체 이행 사항으로 규정된 범위 내의 것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행 여부나 이행의 형태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바우처(전남 진도군, 경남 고성군, 전북 김제시)나 교통비 지원(인천 강화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강원 양구군, 경남 함안군, 경북 영주시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청소년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많지는 않으나 13개 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시설 조성 및 건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연계성이 낮아 지역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의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본 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인구의 규모를 인구수와 연령대별 비중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9세~24세 청소년 인구의 수와 연령대별 비중 정보를 기초로 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3장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 분석

- 1. 청소년 인구 규모 및 연령대별 구성비 비교
- 2. 청소년인구 중심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석 : Cluster Analysis
- 3. 소결

1. 청소년 인구 규모 및 연령대별 구성비 비교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 9세~24세 청소년인구의 규모는 평균 6천268명 정도 이고, 이는 비해당지역 청소년인구 평균 규모의 1/7 수준이며, 인구감소지역과 비해당지역 간의 인구규모의 격차는 지역의 총인구수보다 청소년인구수에서 보다 심화되어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중 청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안동시, 청소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제천시이며, 청소년인구가 지역 총인구의 10% 미만인 지역은 21곳으로 경북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함.
- 지역인구의 자연감소와 사회적감소의 동시 영향으로 3가지 연령대(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모두에서 청소년인구수가 1천 명 미만인 지역 6곳 발견됨.

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인구 규모

(1) 청소년인구수 및 비율

앞선 제2장에서 살펴본 지역 특성에 이어 여기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총인구와 연령대별 인구 규모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인구는 청소년 인구수와 지역의 총인구수에서 청소년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고, 89개 지역 간 청소년인구 규모와 인구 비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인구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수부터 확인하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수는 평균 5만 3천859명 가량되며, 이 수치는 비해당지역(28만 8천4백7명) 총인구 평균 규모의 1/5 수준이다.

이들 지역의 9세~24세 청소년 총인구는 평균 6천268명으로 비해당지역(4만 5천345

* 이 장의 1.과 3.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분석·집필하였고, 2.는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 박사가 함께 분석·집필하였음.

명) 청소년인구 규모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총인구를 기준으로 비례지역과 비교했을 때보다 청소년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더 큰 격차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인구가 지역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1.16%이고, 비례지역(15.42%)의 경우와 비교 시 4.26%p 차이를 보인다. 지역에 청소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군위군으로 총인구의 6.34% 수준이다¹¹⁾. 경북 의성군(6.95%)도 군위군과 같이 6%대의 비율을 보이는 지역이다. 이 같은 차이는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청소년 연령대에서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89개 지역의 청소년인구 규모를 지역 간 비교해보면,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북 안동시(2만 1천434명)이고, 그다음으로는 충북 제천시(1만 9천7백9명)이다. 반대로 청소년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816명)이고, 그다음으로 적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1천3백92명)이다. 울릉군과 같은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의 경우 2천3백2명의 청소년이 있고 이 수치는 지역 총인구의 11.3%로 인구감소지역 평균 청소년인구 비율 수치(11.16%)보다 조금 높다.

청소년인구 비율측면에서 도서 지역인 인천 옹진군보다도 낮은, 즉 총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두 22곳이다. 이들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대구 군위군을 제외한 5개 광역(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에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다. 충북 3곳(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전북 1곳(임실군), 전남 4곳(고흥군, 보성군, 신안군, 함평군), 경북 9곳(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4곳(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이 청소년인구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이다.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수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다는 것은 이들 지역이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임을 가늠케 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광역단위별로 갖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부산과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 자치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군위군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인구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고, 강원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인구가 많아도 9천여 명 규모인데, 총인구수가 많지 않아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한다. 충북의 경우, 청소년인구수가 89개 지역 중 두 번째로 많은 제천시를 제외하면 3천~5천여 명 량의 청소년인구 규모의 지역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곳은 청소년인구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11)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자로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음(대구광역시 누리집, 2024.10.13. 검색).

또한 경북은 청소년인구 2천 명대부터 1만4천여 명대까지 크고 작은 청소년인구수를 갖는 지역들이 모여 있고, 청소년인구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가장 많은 분포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2천여 명대의 청소년인구수를 갖는 지역과 1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의 전략은 같을 수가 없을 것이기에 경북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시, 청소년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유사한 기초자치단체들을 묶어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 내용과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인구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지역명	총 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 비율	청소년 인구 비율 10% 미만
부산	동구	87,792	8,833	10.06	
	서구	104,089	13,462	12.93	
	영도구	106,548	11,946	11.21	
대구	군위군	22,988	1,457	6.34	○
	남구	139,187	17,012	12.22	
	서구	164,088	17,784	10.84	
인천	강화군	69,005	6,985	10.12	
	옹진군	20,377	2,302	11.30	
경기	가평군	62,302	7,334	11.77	
	연천군	41,584	5,153	12.39	
강원	고성군	27,305	2,940	10.77	
	삼척시	62,651	9,162	14.62	
	양구군	21,056	3,067	14.57	
	양양군	27,710	2,870	10.36	
	영월군	37,332	4,309	11.54	
	정선군	34,202	3,696	10.81	
	철원군	41,448	5,753	13.88	
	태백시	38,702	5,308	13.72	
	평창군	40,659	4,387	10.79	
	홍천군	67,309	7,606	11.30	
	화천군	23,007	3,094	13.45	
	횡성군	46,359	5,176	11.17	
충북	괴산군	36,590	3,062	8.37	○
	단양군	27,701	2,704	9.76	○
	보은군	31,010	3,078	9.93	○
	영동군	44,195	4,912	11.11	
	옥천군	48,891	5,891	12.05	
	제천시	130,194	19,709	15.14	
충남	공주시	102,104	14,548	14.25	
	금산군	50,093	6,121	12.22	
	논산시	110,423	14,382	13.02	

구분	지역명	총 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 비율	청소년 인구 비율 10% 미만
	보령시	95,772	12,147	12.68	
	부여군	61,046	6,674	10.93	
	서천군	49,116	4,996	10.17	
	예산군	78,354	8,882	11.34	
	청양군	30,168	3,419	11.33	
전북	태안군	60,784	6,433	10.58	
	고창군	51,750	5,972	11.54	
	김제시	81,430	9,637	11.83	
	남원시	76,781	10,418	13.57	
	무주군	23,251	2,675	11.50	
	부안군	49,187	5,534	11.25	
	순창군	26,764	3,325	12.42	
	임실군	25,956	2,379	9.17	○
	장수군	20,983	2,372	11.30	
	정읍시	103,620	14,049	13.56	
전남	진안군	24,465	2,523	10.31	
	강진군	32,722	3,624	11.08	
	고흥군	61,113	5,487	8.98	○
	곡성군	26,905	2,766	10.28	
	구례군	24,314	2,635	10.84	
	담양군	45,373	5,009	11.04	
	보성군	37,686	3,691	9.79	○
	신안군	38,037	3,316	8.72	○
	영광군	51,750	6,377	12.32	
	영암군	52,350	6,866	13.12	
	완도군	46,641	5,253	11.26	
	장성군	42,543	4,981	11.71	
	장흥군	35,046	3,963	11.31	
	진도군	28,979	3,297	11.38	
	함평군	30,601	3,048	9.96	○
경북	해남군	64,575	7,595	11.76	
	화순군	61,254	8,654	14.13	
	고령군	30,139	2,927	9.71	○
	문경시	68,755	8,449	12.29	
	봉화군	29,603	2,684	9.07	○
	상주시	93,858	11,521	12.27	
	성주군	42,086	3,477	8.26	○
	안동시	152,935	21,434	14.02	
	영덕군	34,055	2,958	8.69	○
	영양군	15,661	1,392	8.89	○
	영주시	100,199	14,204	14.18	
	영천시	100,212	10,738	10.72	
	울릉군	9,077	816	8.99	○
울진군	46,669	5,407	11.59		
의성군	50,086	3,482	6.95	○	

구분	지역명	총 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 비율	청소년 인구 비율 10% 미만
경남	청도군	41,316	3,384	8.19	○
	청송군	24,019	1,809	7.53	○
	거창군	60,047	8,777	14.62	
	고성군	49,468	5,905	11.94	
	남해군	40,780	4,175	10.24	
	밀양시	102,084	11,715	11.48	
	산청군	33,752	3,013	8.93	○
	의령군	25,475	2,180	8.56	○
	창녕군	57,083	5,747	10.07	
	하동군	41,606	3,881	9.33	○
	합안군	60,203	8,189	13.60	
	합양군	36,945	4,140	11.21	
	합천군	41,203	3,461	8.40	○
인구감소지역 평균		53,859.92	6,268.60	11.16	
인구감소 비해당지역 평균		288,407.94	45,345.37	15.42	-
전국 평균		204,574.51	31,378.17	15.34	

* 주 : 인구는 2023년 기준 수치임.

* 자료 :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https://jumin.mois.go.kr/>, 2024.2.14. 인출).

(2) 청소년인구수 순위 비교

앞서 인구감소지역이 총인구수와 청소년인구수, 그리고 청소년인구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한 데 이어, 여기에서는 상대적 순위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수와 비율의 순위를 비교하는 것은 89개 지역 간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정책 과제를 발굴하거나 유사한 지역 간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 청소년인구수와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기초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자료로써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서구이다. 총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역시의 자치구인 만큼 청소년인구도 적지 않다. 청소년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의 순위도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순위는 53위에 불과하다. 총인구수가 아닌 청소년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인구수 기준 2위인 경북 안동시가 1위이지만, 청소년인구비율은 8위이다. 청소년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소년인구수 기준 2위인 충북 제천시가 1위이다.

이처럼 청소년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가 높은 지역은 이 수치가 반영된 총인구수도

상대적으로 많지만, 다른 연령대 인구도 많은 탓에 청소년인구비율의 순위는 그다지 높은 순위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 경북 울릉군의 경우 총인구수 청소년인구수는 89위에 해당하지만, 청소년인구비율은 89개 지역 중 76위에 해당한다. 이는 지역의 청소년인구수가 갖는 상대적 위치 또는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는데 있어 청소년인구수와 비율이 동시에 요구됨을 의미한다.

표 Ⅲ-2.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인구수 순위 비교

(단위: 명, %)

구분	지역명	총 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 비율	
		인구	순위	인구	순위	비율	순위
부산	동구	87,792	15	8,833	19	10.06	67
	서구	104,089	7	13,462	9	12.93	17
	영도구	106,548	6	11,946	11	11.21	46
대구	군위군	22,988	84	1,457	87	6.34	89
	남구	139,187	3	17,012	4	12.22	24
	서구	164,088	1	17,784	3	10.84	53
인천	강화군	69,005	19	6,985	27	10.12	65
	옹진군	20,377	87	2,302	84	11.30	43
경기	가평군	62,302	24	7,334	26	11.77	29
	연천군	41,584	49	5,153	44	12.39	20
	고성군	27,305	74	2,940	73	10.77	57
강원	삼척시	62,651	23	9,162	17	14.62	2
	양구군	21,056	85	3,067	68	14.57	4
	양양군	27,710	72	2,870	75	10.36	60
	영월군	37,332	58	4,309	50	11.54	33
	정선군	34,202	62	3,696	55	10.81	55
	철원군	41,448	50	5,753	36	13.88	9
	태백시	38,702	55	5,308	41	13.72	10
	평창군	40,659	54	4,387	49	10.79	56
	홍천군	67,309	21	7,606	24	11.30	42
	화천군	23,007	83	3,094	66	13.45	14
충북	횡성군	46,359	43	5,176	43	11.17	48
	괴산군	36,590	60	3,062	69	8.37	84
	단양군	27,701	73	2,704	77	9.76	71
	보은군	31,010	66	3,078	67	9.93	69
	영동군	44,195	45	4,912	48	11.11	49
	옥천군	48,891	40	5,891	35	12.05	26
충남	제천시	130,194	4	19,709	2	15.14	1
	공주시	102,104	9	14,548	5	14.25	5
	금산군	50,093	35	6,121	32	12.22	25
	논산시	110,423	5	14,382	6	13.02	16
	보령시	95,772	13	12,147	10	12.68	18
	부여군	61,046	27	6,674	29	10.93	52
	서천군	49,116	39	4,996	46	10.17	64
예산군	78,354	17	8,882	18	11.34	38	

구분	지역명	총 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 비율		
		인구	순위	인구	순위	비율	순위	
	청양군	30,168	68	3,419	61	11.33	39	
	태안군	60,784	28	6,433	30	10.58	59	
전북	고창군	51,750	33	5,972	33	11.54	34	
	김제시	81,430	16	9,637	16	11.83	28	
	남원시	76,781	18	10,418	15	13.57	12	
	무주군	23,251	82	2,675	79	11.50	35	
	부안군	49,187	38	5,534	38	11.25	45	
	순창군	26,764	76	3,325	63	12.42	19	
	임실군	25,956	77	2,379	82	9.17	74	
	장수군	20,983	86	2,372	83	11.30	41	
	정읍시	103,620	8	14,049	8	13.56	13	
	진안군	24,465	79	2,523	81	10.31	61	
전남	강진군	32,722	65	3,624	57	11.08	50	
	고흥군	61,113	26	5,487	39	8.98	77	
	곡성군	26,905	75	2,766	76	10.28	62	
	구례군	24,314	80	2,635	80	10.84	54	
	담양군	45,373	44	5,009	45	11.04	51	
	보성군	37,686	57	3,691	56	9.79	70	
	신안군	38,037	56	3,316	64	8.72	80	
	영광군	51,750	34	6,377	31	12.32	21	
	영암군	52,350	32	6,866	28	13.12	15	
	완도군	46,641	42	5,253	42	11.26	44	
	장성군	42,543	46	4,981	47	11.71	31	
	장흥군	35,046	61	3,963	53	11.31	40	
	진도군	28,979	71	3,297	65	11.38	37	
	함평군	30,601	67	3,048	70	9.96	68	
	해남군	64,575	22	7,595	25	11.76	30	
	화순군	61,254	25	8,654	21	14.13	7	
	경북	고령군	30,139	69	2,927	74	9.71	72
		문경시	68,755	20	8,449	22	12.29	22
봉화군		29,603	70	2,684	78	9.07	75	
상주시		93,858	14	11,521	13	12.27	23	
성주군		42,086	47	3,477	59	8.26	85	
안동시		152,935	2	21,434	1	14.02	8	
영덕군		34,055	63	2,958	72	8.69	81	
영양군		15,661	88	1,392	88	8.89	79	
영주시		100,199	12	14,204	7	14.18	6	
영천시		100,212	11	10,738	14	10.72	58	
울릉군		9,077	89	816	89	8.99	76	
울진군		46,669	41	5,407	40	11.59	32	
의성군		50,086	36	3,482	58	6.95	88	
청도군		41,316	51	3,384	62	8.19	86	
청송군		24,019	81	1,809	86	7.53	87	
경남	거창군	60,047	30	8,777	20	14.62	3	
	고성군	49,468	37	5,905	34	11.94	27	
	남해군	40,780	53	4,175	51	10.24	63	
	밀양시	102,084	10	11,715	12	11.48	36	
	산청군	33,752	64	3,013	71	8.93	78	

구분	지역명	총 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 비율	
		인구	순위	인구	순위	비율	순위
	의령군	25,475	78	2,180	85	8.56	82
	창녕군	57,083	31	5,747	37	10.07	66
	하동군	41,606	48	3,881	54	9.33	73
	함안군	60,203	29	8,189	23	13.60	11
	함양군	36,945	59	4,140	52	11.21	47
	합천군	41,203	52	3,461	60	8.40	83

* 주 : 인구는 2023년 기준 수치임.

* 자료 :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https://jumin.mois.go.kr/>, 2024.2.14. 인출).

2) 연령대별 청소년 인구 구성비 비교

(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연령대별 인구수 및 비율

앞서 청소년인구 전체 연령대인 9세~24세 청소년인구수를 총량 측면에서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3개의 연령대, 즉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로 나누어 연령대별 인구수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인구수나 비율의 많고 적음에 대한 자료가 기초적인 정보라 한다면, 어떤 연령대에 청소년인구가 많고 적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역에 어떠한 내용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고 적절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보다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연령대별 평균 인구수를 살펴보면, 9세~12세 1천363명, 13세~18세 2천293명, 19세~24세 2천611명 정도이다. 비해당지역의 연령대별 평균과 비교해 보면, 9세~12세 연령대는 1/8 수준이고 13세~18세와 19세~24세 연령대는 1/7 수준으로 적다. 9세~12세 연령대가 더 적은 것은 저출산이라는 자연 감소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그에 따라 전체 청소년(9세~24세) 인구 대비 9세~12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85%로 가장 적고, 13세~18세 37.04%, 19세~24세 41.11%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9세~12세 청소년인구가 1천 명도 안 되는 지역들이 다수인데, 강원이 12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전북이 10개 지역 중 5개, 전남이 16개 지역 중 8개, 경북이 15개 지역 중 9개, 경남이 11개 지역 중 6개 등 절반 이상이 해당한다. 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농어촌지역이 다수인 이들 지역에서 초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인구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빚어지는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 등 사회적 감소의

결과를 동시에 갖는 지역들도 발견된다. 가령 13세~18세 및 19세~24세 연령대에도 청소년수가 1천 명 미만인 지역이 있다면, 저출산의 자연 감소가 20년 전부터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사회적 이동이 결합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7곳(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전북 임실군, 장수군, 경남 의령군) 정도 발견된다. 이들 지역은 매우 적은 청소년인구로 인해 청소년정책이 위축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지만, 적은 대상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표 Ⅲ-3. 연령대별 청소년인구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지역명	인구수				연령대별 구성 비율			
		전체 청소년	9~12세	13~18세	19~24세	총 인구 대비 전체 청소년	전체 청소년 대비 9~12세	전체 청소년 대비 13~18세	전체 청소년 대비 19~24세
부산	동구	8,833	1,787	2,782	4,264	10.06	20.23	31.50	48.27
	서구	13,462	2,752	4,112	6,598	12.93	20.44	30.55	49.01
	영도구	11,946	2,539	3,993	5,414	11.21	21.25	33.43	45.32
대구	군위군	1,457	309	540	608	6.34	21.21	37.06	41.73
	남구	17,012	3,044	5,016	8,952	12.22	17.89	29.49	52.62
	서구	17,784	3,692	5,714	8,378	10.84	20.76	32.13	47.11
인천	강화군	6,985	1,608	2,701	2,676	10.12	23.02	38.67	38.31
	옹진군	2,302	348	585	1,369	11.30	15.12	25.41	59.47
경기	가평군	7,334	1,595	2,632	3,107	11.77	21.75	35.89	42.36
	연천군	5,153	1,082	1,701	2,370	12.39	21.00	33.01	45.99
강원	고성군	2,940	644	985	1,361	10.77	21.90	31.80	46.29
	삼척시	9,162	1,663	2,728	4,771	14.62	18.15	29.78	52.07
	양구군	3,067	655	1,149	1,253	14.57	21.68	37.46	40.85
	양양군	2,870	650	1,012	1,208	10.36	22.65	35.26	42.09
	영월군	4,309	841	1,591	1,877	11.54	19.52	36.92	43.56
	정선군	3,696	812	1,395	1,489	10.81	21.97	37.74	40.29
	철원군	5,753	1,235	2,007	2,511	13.88	21.47	34.89	43.65
	태백시	5,308	1,226	2,113	1,969	13.72	23.10	39.81	37.09
	평창군	4,387	920	1,611	1,856	10.79	20.97	36.72	42.31
	홍천군	7,606	1,677	2,794	3,135	11.30	22.05	36.73	41.22
	화천군	3,094	660	950	1,484	13.45	21.33	30.70	47.96
	횡성군	5,176	1,035	2,212	1,929	11.17	20.00	42.74	37.27
	과산군	3,062	682	1,060	1,320	8.37	22.27	34.62	43.11
	충북	단양군	2,704	594	1,067	1,043	9.76	21.97	39.46
보은군		3,078	682	1,153	1,243	9.93	22.16	37.46	40.38
영동군		4,912	1,051	1,786	2,075	11.11	21.40	36.36	42.24
옥천군		5,891	1,322	2,198	2,371	12.05	22.44	37.31	40.25
제천시		19,709	4,046	6,545	9,118	15.14	20.53	33.21	46.26

구분	지역명	인구수				연령대별 구성 비율			
		전체 청소년	9~12세	13~18세	19~24세	총 인구 대비 전체 청소년	전체 청소년 대비 9~12세	전체 청소년 대비 13~18세	전체 청소년 대비 19~24세
충남	공주시	14,548	2,800	4,683	7,065	14.25	19.25	32.19	48.56
	금산군	6,121	1,302	2,672	2,147	12.22	21.27	43.65	35.08
	논산시	14,382	3,321	5,462	5,599	13.02	23.09	37.98	38.93
	보령시	12,147	2,878	4,637	4,632	12.68	23.69	38.17	38.13
	부여군	6,674	1,455	2,535	2,684	10.93	21.80	37.98	40.22
	서천군	4,996	1,155	1,877	1,964	10.17	23.12	37.57	39.31
	예산군	8,882	2,006	3,410	3,466	11.34	22.59	38.39	39.02
	청양군	3,419	636	1,101	1,682	11.33	18.60	32.20	49.20
전북	태안군	6,433	1,474	2,466	2,493	10.58	22.91	38.33	38.75
	고창군	5,972	1,357	2,453	2,162	11.54	22.72	41.08	36.20
	김제시	9,637	2,118	3,535	3,984	11.83	21.98	36.68	41.34
	남원시	10,418	2,300	4,136	3,982	13.57	22.08	39.70	38.22
	무주군	2,675	604	1,066	1,005	11.50	22.58	39.85	37.57
	부안군	5,534	1,259	1,996	2,279	11.25	22.75	36.07	41.18
	순창군	3,325	645	1,334	1,346	12.42	19.40	40.12	40.48
	임실군	2,379	513	888	973	9.17	21.56	37.54	40.90
	정수군	2,372	579	937	856	11.30	24.41	39.50	36.09
	장읍시	14,049	3,187	5,277	5,585	13.56	22.68	37.56	39.75
전남	진안군	2,523	519	983	1,021	10.31	20.57	38.96	40.47
	강진군	3,624	790	1,413	1,421	11.08	21.80	38.99	39.21
	고흥군	5,487	1,170	2,101	2,216	8.98	21.32	38.29	40.39
	곡성군	2,766	558	1,013	1,195	10.28	20.17	36.62	43.20
	구례군	2,635	594	994	1,047	10.84	22.54	37.72	39.73
	담양군	5,009	1,085	1,809	2,115	11.04	21.66	36.11	42.22
	보성군	3,691	807	1,418	1,466	9.79	21.86	38.42	39.72
	신안군	3,316	752	1,136	1,428	8.72	22.68	34.26	43.06
	영광군	6,377	1,402	2,432	2,543	12.32	21.99	38.14	39.88
	영암군	6,866	1,545	2,447	2,874	13.12	22.50	35.64	41.86
	완도군	5,253	1,358	1,977	1,918	11.26	25.85	37.64	36.51
	장성군	4,981	1,183	1,794	2,004	11.71	23.75	36.02	40.23
	장흥군	3,963	936	1,442	1,585	11.31	23.62	36.39	39.99
	진도군	3,297	769	1,210	1,318	11.38	23.32	36.70	39.98
경북	함평군	3,048	644	1,138	1,266	9.96	21.13	37.34	41.54
	해남군	7,595	1,714	2,899	2,982	11.76	22.57	38.17	39.26
	화순군	8,654	1,772	3,144	3,738	14.13	20.48	36.33	43.19
	고령군	2,927	610	1,124	1,193	9.71	20.84	38.40	40.76
	문경시	8,449	1,886	3,171	3,392	12.29	22.32	37.53	40.15
	봉화군	2,684	590	1,097	997	9.07	21.98	40.87	37.15
	상주시	11,521	2,492	4,612	4,417	12.27	21.63	40.03	38.34
	성주군	3,477	760	1,321	1,396	8.26	21.86	37.99	40.15
	안동시	21,434	4,955	7,707	8,772	14.02	23.12	35.96	40.93
	영덕군	2,958	714	1,123	1,121	8.69	24.14	37.96	37.90

구분	지역명	인구수				연령대별 구성 비율			
		전체 청소년	9~12세	13~18세	19~24세	총 인구 대비 전체 청소년	전체 청소년 대비 9~12세	전체 청소년 대비 13~18세	전체 청소년 대비 19~24세
경북	영양군	1,392	309	564	519	8.89	22.20	40.52	37.28
	영주시	14,204	3,109	5,352	5,743	14.18	21.89	37.68	40.43
	영천시	10,738	2,282	3,942	4,514	10.72	21.25	36.71	42.04
	울릉군	816	188	256	372	8.99	23.04	31.37	45.59
	울진군	5,407	1,270	1,993	2,144	11.59	23.49	36.86	39.65
	의성군	3,482	749	1,323	1,410	6.95	21.51	38.00	40.49
	청도군	3,384	732	1,339	1,313	8.19	21.63	39.57	38.80
	청송군	1,809	423	623	763	7.53	23.38	34.44	42.18
	거창군	8,777	1,941	3,590	3,246	14.62	22.11	40.90	36.98
	고성군	5,905	1,369	2,533	2,003	11.94	23.18	42.90	33.92
경남	남해군	4,175	899	1,601	1,675	10.24	21.53	38.35	40.12
	밀양시	11,715	2,674	4,535	4,506	11.48	22.83	38.71	38.46
	산청군	3,013	566	1,241	1,186	8.93	19.45	41.19	39.36
	의령군	2,180	495	804	881	8.56	22.71	36.88	40.41
	창녕군	5,747	1,410	2,360	1,977	10.07	24.53	41.06	34.40
	하동군	3,881	823	1,514	1,544	9.33	21.21	39.01	39.78
	함안군	8,189	2,061	3,441	2,687	13.60	25.17	42.02	32.81
	함양군	4,140	910	1,718	1,512	11.21	21.98	41.50	36.52
	합천군	3,461	798	1,314	1,349	8.40	23.06	37.97	38.98
	인구감소지역 평균	6,288.60	1,363.85	2,298.26	2,611.48	11.16	21.85	37.04	41.11
인구감소 비해당 지역 평균	4,345.37	1,062.13	1,654.54	1,688.70	15.42	23.43	34.85	41.73	
전국 평균	31,381.7	7,338.65	11,007.33	13,082.18	15.34	23.39	35.08	41.53	

* 주 : 인구수는 2023년 기준 수치임.

* 자료 :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https://jumin.mois.go.kr/>, 2024.2.14. 인출).

(2) 청소년 연령대별 인구수 순위 비교

앞에서 청소년인구수의 상대적 순위 비교를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령대별 청소년인구수 순위도 살펴보았다. 총인구수와 청소년인구수, 그리고 청소년인구 비율을 비교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청소년인구 수 내에서의 연령대별 비교이다 보니 하나의 연령대에서의 순위가 다른 연령대에서의 순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차이가 난다면 19세~24세 연령대의 순위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9세~12세 청소년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안동시이고, 이 지역은 13세~18세 청소년인구수도 1순위이지만, 19세~24세 청소년인구는 3위이다. 또 9세~12세 청소년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충북 제천시도 13세~18세

청소년인구도 89개 지역 중 두 번째로 많지만, 19세~24세 청소년인구수는 가장 많은 1순위 지역이다. 이는 제천시에 대학이 소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낮은 순위의 지역도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 순위에 차이가 거의 없다. 청소년인구수가 가장 적었던 경북 울릉군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적은 청소년 수를 보유하고, 대구 군위군의 경우 9세~12세와 13세~18세 연령대는 두 번째로 적고, 19세~24세 연령대는 세 번째로 적은 87위이다.

표 III-4.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 연령대별 인구수 순위 비교

(단위: 명)

구분	지역명	9-12세		13-18세		19-24세		
		인구	순위	인구	순위	인구	순위	
부산	동구	1,787	21	2,782	24	4,264	16	
	서구	2,752	10	4,112	13	6,598	6	
	영도구	2,539	12	3,993	14	5,414	10	
대구	군위군	309	88	540	88	608	87	
	남구	3,044	7	5,016	7	8,952	2	
	서구	3,692	3	5,714	3	8,378	4	
인천	강화군	1,608	26	2,701	26	2,676	29	
	옹진군	348	86	585	86	1,369	63	
경기	가평군	1,595	27	2,632	28	3,107	24	
	연천군	1,082	46	1,701	49	2,370	34	
강원	고성군	644	71	935	82	1,361	64	
	삼척시	1,663	25	2,728	25	4,771	11	
	양구군	665	67	1,149	66	1,253	71	
	양양군	650	69	1,012	77	1,208	73	
	영월군	841	53	1,591	52	1,877	49	
	정선군	812	55	1,395	57	1,489	56	
	철원군	1,235	40	2,007	40	2,511	31	
	태백시	1,226	41	2,113	38	1,969	45	
	평창군	920	50	1,611	50	1,856	50	
	홍천군	1,677	24	2,794	23	3,135	23	
	화천군	660	68	950	80	1,484	57	
	횡성군	1,035	48	2,212	36	1,929	47	
	충북	괴산군	682	65	1,060	75	1,320	67
		단양군	594	77	1,067	73	1,043	79
보은군		682	66	1,153	65	1,243	72	
영동군		1,051	47	1,786	47	2,075	41	
옥천군		1,322	36	2,198	37	2,371	33	
제천시		4,046	2	6,545	2	9,118	1	
충남	공주시	2,800	9	4,683	8	7,065	5	
	금산군	1,302	37	2,672	27	2,147	38	
	논산시	3,321	4	5,462	4	5,599	8	

구분	지역명	9-12세		13-18세		19-24세	
		인구	순위	인구	순위	인구	순위
	보령시	2,878	8	4,637	9	4,632	12
	부여군	1,455	30	2,535	29	2,684	28
	서천군	1,155	44	1,877	44	1,964	46
	예산군	2,006	18	3,410	19	3,466	20
	청양군	636	73	1,101	71	1,682	51
	태안군	1,474	29	2,466	31	2,493	32
전북	고창군	1,357	35	2,453	32	2,162	37
	김제시	2,118	16	3,535	17	3,984	17
	남원시	2,300	14	4,136	12	3,982	18
	무주군	604	75	1,066	74	1,005	81
	부안군	1,259	39	1,996	41	2,279	35
	순창군	645	70	1,334	59	1,346	66
	임실군	513	83	893	83	973	83
	장수군	579	80	937	81	856	85
	정읍시	3,187	5	5,277	6	5,585	9
	진안군	519	82	983	79	1,021	80
전남	강진군	790	58	1,413	56	1,421	60
	고흥군	1,170	43	2,101	39	2,216	36
	곡성군	558	81	1,013	76	1,195	74
	구례군	594	76	994	78	1,047	78
	담양군	1,085	45	1,809	45	2,115	40
	보성군	807	56	1,418	55	1,466	58
	신안군	752	61	1,136	68	1,428	59
	영광군	1,402	32	2,432	34	2,543	30
	영암군	1,545	28	2,447	33	2,874	26
	완도군	1,358	34	1,977	43	1,918	48
	장성군	1,183	42	1,794	46	2,004	42
	장흥군	936	49	1,442	54	1,585	53
	진도군	769	59	1,210	64	1,318	68
	함평군	644	72	1,138	67	1,266	70
	경북	해남군	1,714	23	2,899	22	2,982
화순군		1,772	22	3,144	21	3,738	19
고령군		610	74	1,124	69	1,193	75
문경시		1,886	20	3,171	20	3,392	21
봉화군		590	78	1,097	72	997	82
상주시		2,492	13	4,612	10	4,417	15
성주군		760	60	1,321	61	1,396	62
안동시		4,955	1	7,707	1	8,772	3
영덕군		714	64	1,123	70	1,121	77
영양군		309	87	564	87	519	88
	영주시	3,109	6	5,352	5	5,743	7
	영천시	2,282	15	3,942	15	4,514	13
	울릉군	188	89	256	89	372	89
	울진군	1,270	38	1,993	42	2,144	39
	의성군	749	62	1,323	60	1,410	61
	청도군	732	63	1,339	58	1,313	69
	청송군	423	85	623	85	763	86

구분	지역명	9-12세		13-18세		19-24세	
		인구	순위	인구	순위	인구	순위
경남	거창군	1,941	19	3,590	16	3,246	22
	고성군	1,369	33	2,533	30	2,003	43
	남해군	899	52	1,601	51	1,675	52
	밀양시	2,674	11	4,535	11	4,506	14
	산청군	586	79	1,241	63	1,186	76
	의령군	495	84	804	84	881	84
	창녕군	1,410	31	2,360	35	1,977	44
	하동군	823	54	1,514	53	1,544	54
	함안군	2,061	17	3,441	18	2,687	27
	함양군	910	51	1,718	48	1,512	55
합천군	798	57	1,314	62	1,349	65	

* 주 : 인구는 2023년 기준 수치임.
* 자료 :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https://jumin.mois.go.kr/>, 2024.2.14. 인출).

2. 청소년인구 중심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석 : Cluster Analysis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청소년인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석을 이들 지역의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과제 도출과 다음 단계에서 추진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욕구조사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함.
- 지역의 성격(농촌, 도농복합도시, 도시) 더미 변수와 지역의 총인구수 및 청소년인구수와 비율 변수를 실증분석의 변수로 투입하고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5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음.

1)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석의 목적 및 방법

(1) 분석 목적

앞서 행정통계인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9세~24세 청소년인구 규모와 비율, 그리고 3가지 연령대별 청소년인구 규모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청소년인구수가 1천여 명 미만인 지역부터 1만5천여 명 이상의 지역까지 청소년인구수의 격차가 크지만, 동시에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지역 간 유사성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 규모와 비율, 그리고 앞선

제2장에서 지역 특성 중 하나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성격(농촌, 도농복합도시, 도시) 정보를 더하여 청소년인구를 중심으로 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고시된 이래,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분석한 실증 연구가 드물고, 청소년인구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몇 개의 군집으로 묶어 내는 체계적 실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소년인구중심의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실증 분석한 것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89개 지역을 각각 접근하는 것보다 청소년인구 규모 및 연령대별 비율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지역들을 묶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과제 도출의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육구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표본추출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인구 규모 및 지역 성격의 유사성에 기반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군집 도출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분석 방법 및 과정

청소년인구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묶이는 군집을 찾는 것이며, 이것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관측치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성이 있는 집단은 묶고 상이한 것은 분리·구분하는 분석 방법인데, 주로 유클리디언 거리를 많이 사용한다. 몇 개의 군집으로 유사성이 있는 것을 묶을 것인지, 즉 군집의 수(k)를 사전에 정하는지에 따라 군집분석의 방법이 구분된다. 군집의 수를 사전에 정하면 k-평균(비계층적) 군집분석, 군집 수를 정하지 않으면 위계적(비계층적) 군집분석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연구 등에는 k-평균 군집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위계적 군집분석은 탐색적 용도로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k-평균 군집분석에서는 최종으로 최적의 군집의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이후 발표된 유형화 관련 실증연구(정주원·이아라(2022) 및 노재인과 정주원(2021)의 연구)들에서는 군집수 결정을 위해 공통으로 엘보(elbow) 방법을 사용하였다.

엘보방법에서는 군집간 분산(BSS: Between cluster Sum of Squares)과 전체 분산

(TSS: Total Sum of Squares)의 비율을 고려하는데, 군집 간 분산과 전체 분산 비율 (Ratio=BSS/TSS)의 한계비용 또는 군집 내 분산(WSS: Within Sum of Squares, 각 군집 내 관측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척도)의 한계비용이 줄어드는 지점을 최적 군집의 개수로 본다(Makles, 2012). 둘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도 같은 결과를 얻으므로 본 연구에는 WSS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η^2 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분산(TSS)에서 군집내 분산(WSS)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R^2 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분산 비율의 증가분이 줄어드는 지점을 최적 클러스터 개수로 본다(Hastie, Tibshirani, & Friedman, 2009; Makles, 2012; 노재인·정주원, 2021, p.60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WSS와 η^2 을 산출하여 최적의 군집수 결정에 사용하였다.

$$WSS = \sum_{j=1}^k \sum_{i \in c_j} d(x_i, c_j)^2$$

$$\eta_k^2 = 1 - \frac{WSS(k)}{WSS(1)} = \frac{WSS(K)}{TSS} \quad \forall k \in K$$

앞서 분석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집분석을 실시 함에 있어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최종으로 표 III-5와 같이 지역의 도농 정보, 인구 관련 정보들이 사용되었다. 도농 정보는 농촌, 도농복합도시, 도시 각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미변수로 생성하고, 인구수 관련 정보들은 표준화하여 활용하였다.

임의의 시작점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난수생성 시드를 생성한 후 k는 20으로 설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WSS와 η^2 을 산출하였다(표 III-6, 그림 III-1). 최적의 군집수 결정에는 단순히 WSS와 η^2 의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WSS와 η^2 의 감소분을 고려함과 동시에 k수에 따른 군집들이 인구감소 지역의 도농과 인구 관련 정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히 유형화되었는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였고, 그 결과 최적의 군집 수가 5개로 결정되었다.

표 III-5. 군집분석에 사용한 지역 특성 및 인구 정보

구분	정보	출처	분석에 사용한 정보
지역정보	도농구분	행정안전부 (2022.7.7).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농촌 더미
			도농복합도시 더미
			도시 더미
인구수	총 인구수 및 전체 청소년 총 인구수	행정안전부 누리집, 2023년 기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지역의 총 인구수
			9~24세 청소년 인구수
			지역 총 인구 대비 9~24세 청소년 인구 비율
			9~24세 청소년 인구 대비 9~12세 인구 비율
			9~24세 청소년 인구 대비 13~18세 인구 비율
9~24세 청소년 인구 대비 19~24세 인구 비율			

* 자료 :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https://jumin.mois.go.kr/>, 2024.2.14. 인출).

표 III-6. 산출된 k별 WSS와 η^2

k	WSS	η^2
1	560.899	0.000
2	385.356	0.313
3	299.884	0.465
4	250.118	0.554
5	209.339	0.627
6	177.520	0.684
7	170.190	0.697
8	152.749	0.728
9	145.311	0.741
10	124.660	0.778
11	120.484	0.785
12	123.386	0.780
13	106.050	0.811
14	97.893	0.825
15	95.354	0.830
16	93.208	0.834
17	78.730	0.860
18	78.142	0.861
19	73.445	0.869
20	70.888	0.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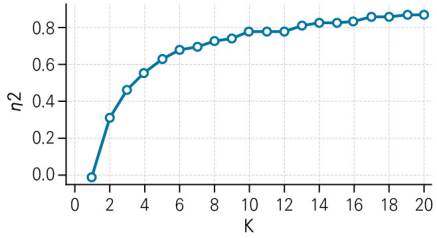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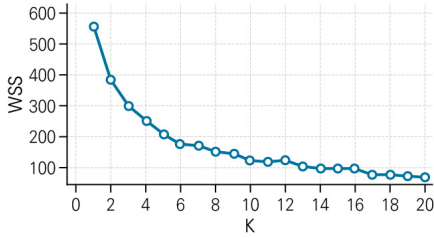


그림 III-1. k별 WSS와 n^2 그래프

2) 분석 결과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도농 정보와 인구수 정보를 이용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5개 군집 유형에 앞서, 군집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III-7과 같다.

표 III-7. 군집분석 변수의 기초 통계량

(단위: 명, %)

	지역 성격 더미(dummy)			총인구수	청소년 (9세~24세) 인구수	청소년 (9세~24세) 인구 비율	연령대별 청소년 인구 비율		
	농촌	도농 복합	도시				9~12세	13~18세	19~24세
평균	0.78	0.16	0.07	53,859.92	6,268.60	11.16	21.85	37.04	41.11
표준 편차	0.42	0.37	0.25	31,753.24	4,343.49	1.86	1.58	3.23	4.21

* 주 : 청소년(9세~24세)인구 비율은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 인구수, 연령대별 청소년인구비율은 9세~24세 청소년인구수 대비 각 연령대 청소년인구수의 비율

이어 군집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류의 결과, 즉 표 III-8과 표 III-9에 제시된 바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1 지역은 인구수가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적지만, 청소년 인구 비율(11.86%), 특히 9~12세(22.53%)와 13~18세(38.51%)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으로, 주로 '군' 단위가 포함된다. 총 35개 지역이 해당하며,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은데, 장흥군, 영암군, 해남군 등이 포함된다.

군집2 지역은 인구수가 많고 청소년 인구 비율(12.69%), 특히 9~12세(22.41%)와

13~18세(37.88%)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도시로, 광역 도의 '시' 단위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총 11개 지역이 해당하며, 경북(5곳)이 가장 많고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 등이 포함된다.

군집3 지역은 인구수가 적지만 청소년 인구의 비율(11.40%), 특히 19~24세 인구 비율(48.29%)이 높은 농촌지역으로, 광역 도나 광역시의 '군' 단위를 포함한다. 이 군집에 속하는 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강원이 3곳으로 가장 많으며 영월군, 고성군, 화천군 등이 포함된다.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과 같은 섬 지역도 포함된다.

군집4 지역은 인구수가 적고 청소년 인구 비율(9.18%)도 낮지만, 13~18세 인구 비율(37.81%)만은 높은 농촌지역으로, 도나 광역시의 '군' 단위가 포함된다. 이 군집에 속하는 지역은 총 28개 지역이며, 경북이 8곳으로 가장 많다.

군집5 지역은 인구수가 많고 청소년 인구 비율(12.66%), 특히 19~24세 인구 비율(48.65%)이 높은 도시와 도농복합도시 지역으로, 도의 '군' 단위와 광역시의 '구' 단위를 포함한다. 이 군집에는 총 8개 지역이 속하며, 광역시인 부산과 대구의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된다.

표 III-8. 군집별 도농 및 인구수 평균

(단위: 명, %)

	지역 성격 더미(dummy)			총인구수	청소년 (9세~24세) 인구수	청소년 (9세~24세) 인구 비율	연령대별 청소년 인구 비율		
	농촌	도농 복합	도시				9~12세	13~18세	19~24세
군집1 (n=35)	0.97	0.00	0.03	48064.09	5680.00	11.86	22.53	38.51	38.97
군집2 (n=11)	0.00	1.00	0.00	98733.55	12608.55	12.69	22.41	37.88	39.70
군집3 (n=7)	1.00	0.00	0.00	26978.57	3147.57	11.40	20.07	31.63	48.29
군집4 (n=28)	1.00	0.00	0.00	33561.36	3068.64	9.18	21.80	37.81	40.39
군집5 (n=8)	0.00	0.38	0.63	112081.60	14057.00	12.66	19.81	31.53	48.65

* 주1 : 청소년(9세~24세)인구 비율은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 인구수, 연령대별 청소년인구비율은 9세~24세 청소년인구수 대비 각 연령대 청소년인구수의 비율

* 주2 : 음영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값이 큰 것을 의미함.

각 광역 단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군집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4개 군집에 분포되어 있고, 농촌지역이 다수인 지역 중 경북지역의 경우 군집4 지역, 전남지역은

군집1 지역에 집중분포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1 지역과 군집4 지역의 차이가 있다면, 9세~12세 연령대의 포함 여부인데, 이 차이는 9세~24세 청소년인구수 대비 9세~12세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군집4 지역(21.80%)보다 군집1 지역(22.53%)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²⁾.

표 III-9. 군집별 89개 인구감소지역 배치

구분	군집1 농촌, 9세-18세 비중높은 35개 지역	군집2 도농복합, 9세-18세 비중 높은 11개 지역	군집3 농촌, 19세-24세 비중 높은 7개 지역	군집4 농촌, 13세-18세 비중 높은 28개 지역	군집5 도농복합 및 도시, 19세-24세 비중 높은 8개 지역	계
강원	홍천군, 철원군, 횡성군, 양구군, 태백시		영월군, 고성군, 화천군	정선군, 평창군, 양양군	삼척시	
	5	0	3	3	1	12
경기	가평군		연천군			
	1	0	1	0	0	2
경남	창녕군, 고성군, 함안군, 합양군, 거창군	밀양시		합천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5	1	0	5	0	11
경북	울진군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 영천시	울릉군	봉화군, 고령군,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양양군, 청송군		
	1	5	1	8	0	15
대구				군위군	서구, 남구	
	0	0	0	1	2	3
부산					영도구, 동구, 서구	
	0	0	0	0	3	3
인천	강화군		옹진군			
	1	0	1	0	0	2
전남	장흥군, 영암군, 해남군, 완도군, 담양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 화순군, 장성군			보성군, 함평군, 구례군, 고흥군, 신안군, 곡성군		
	10	0	0	6	0	16
전북	장수군, 부안군, 고창	남원시, 정읍시, 김		진안군, 임실군		

12) 군집별 2023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군집1(0.972)이 군집4(0.958)보다 다소 높음(KOSIS, 2024.9.25. 검색).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계
	농촌, 9세-18세 비중 높은 35개 지역	도농복합, 9세-18세 비중 높은 11개 지역	농촌, 19세-24세 비중 높은 7개 지역	농촌, 13세-18세 비중 높은 28개 지역	도농복합 및 도시, 19세-24세 비중 높은 8개 지역	
충남	군, 순창군, 무주군 5	제시 3	0	2	0	10
	금산군, 태안군, 서천군, 예산군, 부여군 5	논산시, 보령시 2	청양군 1	0	공주시 1	9
충북	영동군, 옥천군 2	0	0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3	제천시 1	6
	계 35	11	7	28	8	89

3.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89개 인구감소지역 간 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내에서도 지자체 간 청소년인구 규모의 격차가 상당하는 사실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청소년인구 규모의 격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구수 및 연령대별 구성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를 묶고, 그들 그룹에서 필요한 요소를 각기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가능케 함.
- 본 장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분류 틀과 5개의 군집별 지역 분류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본 장에 이어 다음 장에서는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특성을 비해당지역 청소년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2차 자료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생활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의 청소년인구의 규모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의 성격과 지역 인구의 규모 그리고 청소년인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중심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5개의 군집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수는 비해당지역의 1/5 수준이고, 청소년인구수는 이보다 더 적은 1/7 수준으로 이는 전국의 지역 간 인구 규모의 격차가 총인구

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청소년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더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 연령대에서 지역 간 인구 규모의 격차가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 규모는 1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울릉군부터 2만 1천 명을 초과하는 안동시까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의 격차도 적지 않으며 그러한 청소년인구 규모의 격차는 광역 단위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청소년 인구 규모의 격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구수 및 연령대별 구성이 유사한 기초지자체를 묶고, 그들 그룹에서 필요한 요소를 각기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가능케 한다.

89개 지역을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본 장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의 틀을 도출하였고, 5개의 군집(①농촌지역이며 9세~18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35개 지역, ②도농복합지역이며 9세~18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11개 지역, ③농촌지역이며 상대적으로 19세~24세 비중이 높은 7개 지역, ④농촌지역이며 13세~18세 비중이 높은 지역, ⑤도농복합 및 도시지역이며 19세~24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지역)으로 분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분류 결과를 활용한다면, 중앙정부 및 광역 단위에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제2장에 이어 본 장에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특성과 지역의 청소년인구 규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제4장에서는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의 특성을 비해당지역 청소년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2차 자료 분석만으로 파악될 수 없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청소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생활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세~24세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 분석

- 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과
非해당지역 청소년의 특성 비교 :
2차 자료 분석
- 2.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청소년기 성장 경험 :
19세~24세 후기청소년 FGI
- 3. 소결

4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 분석*

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과 non-해당지역 청소년의 특성 비교 : 2차 자료 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의 규모 및 비율을 살펴본 데 이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파악함.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비해당지역 청소년과의 상대적 비교와 차이 검증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상생활만족도나 활동 경험의 양적 수준, 자존감과 같은 정서 및 의식 특성의 수준이 비해당지역 청소년에 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이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5가지 군집 중 분석 내용에 따라 비해당지역 청소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군집이 확인됨.
- 군집3 지역의 청소년들은 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고, 군집4는 일상에서의 무기력감 수준이 가장 높으며, 활동경험 수와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의 양적인 경험은 군집1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또한 군집2는 자존감이나 대인관계역량, 진로성숙도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군집5의 경우 19세~24세 연령대에서 일상 스트레스가 비해당지역보다 높음.

1) 분석 목적 및 방법

(1) 분석 목적

앞선 제2장과 제3장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특성과 89개 지역 내 청소년인구 규모 및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비해당지역 청소년의 특성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을 이해하는 단계가 연구 전 과정에 있어 필요한

* 이 장의 1.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 박사가 함께 분석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2. 는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분석· 집필하였음.

과정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앞서 제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증 근거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 방향과 전략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 욕구조사가 요구되고, 부족한 선행연구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욕구조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각 단계를 진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대략적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이나 공통된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욕구조사 내용의 설계 방향과 구성의 기준 마련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해당지역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준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준거 또는 상대적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2차 자료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에 의거, 3년 주기로 전국 5천 가구의 주 양육자 및 9세~24세 청소년 총 7,423명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154013호)이다.

이 자료에는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전반의 실태(여성가족부, 2023.12, pp.3-6)를 측정된 내용이 담겨 있어 본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에 가장 적절한 자료로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다만, 전국 단위의 표본 가구의 수가 5천 가구에 불과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표본이 그다지 많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2차 자료가 부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밝힌다.

분석을 위해 먼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표본의 거주지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표본 매칭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작업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1개 지역의 453명의 응답 표본이 있음을 확인과 동시에 이들 표본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확정하였다.

분석자료가 확정된 후,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비해당지역 청소년의 가구 특성을 비롯한 생활 및 의식·태도를 측정된 문항의 응답 값을 산출하였는데,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문항에 따라 응답 대상 연령대에 차이가 있어, 9세~24세 청소년 모두가 응답한 문항과 9세~18세 청소년만이 응답한 문항, 그리고 9세~12세를 제외한 13세~24세 청소년

년만이 응답한 문항이 혼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연령대에 맞추어 값을 산출하였으며 방대한 자료 중 비교의 의미가 있는 핵심 사항을 추려내어**** 비 해당지역 청소년 응답값과 비교하였다.

비교의 방식은 우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표본을 제3장에서 도출된 5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각 군집별 응답값과 비 해당지역 청소년의 응답값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의 응답값이 동분산인 경우 F-test로, 이분산인 경우는 Welch's F-test로 검증하였다.

2) 주요 분석 결과

(1) 일상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

① 일상생활만족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은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부터 살펴보았다.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0점~10점 척도로 측정(여성가족부, 2023.12., p.363)하였는데,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구감소 비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만족도 평균 점수에 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더 높다.

전체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일상생활만족도(7.78점)는 비 해당지역(7.35점)보다 높고,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이와 같은 경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인구감소지역 군집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전체 수준에서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 다른 결과라는 것은 군집에 따라 비 해당지역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 지역도 있고,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군집3의 경우 9세~12세 연령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8.04점)보다도 더 높은 수준(8.35점)을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19세~24세 연령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군집3 지역(7.56점)이 비 해당지역(7.27점) 보다 높다.

**** 제2장에서 살펴본 행정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구 특성과 비교·분석 후 차이 없는 사항 우선 제외

표 IV-1.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점)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이분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Welch's F
9-12세	7.60 (1.11)	8.04 (1.26)	8.39 (1.59)	7.31 (0.73)	8.35 (0.28)	7.74 (0.69)	7.98 (0.86)	11.96***
13-18세	7.28 (1.08)	7.61 (1.37)	7.78 (1.33)	7.54 (1.07)	5.85 (1.68)	7.46 (1.49)	8.12 (1.10)	7.02***
19-24세	7.27 (1.00)	7.82 (1.2)	8.20 (1.15)	7.31 (0.75)	7.56 (0.83)	7.84 (1.29)	7.69 (1.44)	5.58***
전체	7.35 (1.06)	7.78 (1.29)	8.07 (1.35)	7.42 (0.91)	6.74 (1.67)	7.70 (1.28)	7.91 (1.21)	11.99***

* 주1 : 제3장의 2에서 분석된 청소년인구 중심 89개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석 결과
 (군집1: 35개) 농촌, 9세-18세 인구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지역
 (군집2: 11개) 도농복합, 9세-18세 인구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지역
 (군집3: 7개) 농촌, 19세-24세 인구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지역
 (군집4: 28개) 농촌, 13세-18세 인구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지역
 (군집5: 8개) 도농복합 및 도시, 19세-24세 인구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지역
 * 주2 : 총 6개 집단(인구감소 비해당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5개 군집) 차이 검증, 동분산 여부 확인 후 동분산은 F-test, 이분산은 Welch's F-test로 검증
 * 주3 : ***p<.001
 * 주4 : 측정 척도 0점-10점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전반적인 일상생활만족도에 이어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3 지역이 12개 항목 모두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군집 간 비교에서는 물론, 비해당지역보다도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군집3 지역은 앞선 제3장에서 분석된 군집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이면서 19세~24세 청소년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7개(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강원 영월군, 화천군, 고성군, 충남 청양군, 경북 울릉군) 지역이 해당한다.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이 전체를 통틀어 일상생활 12개 항목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낮다.

한편, 군집3과 같이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보다 낮은 군집2의 경우 비해당지역의 평균과 비교했을 시,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군집3과 군집2 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만족도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보다 낮으며, 군집1과 군집4 그리고 군집5 지역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비해당지역보다 높은 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IV-2. 일상생활 12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이분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Welch's F
가족과의 관계	7.69 (1.27)	8.07 (1.54)	8.27 (1.64)	7.88 (1.17)	6.52 (2.13)	8.28 (1.48)	8.19 (1.32)	7.39***
내가 사는 집	7.40 (1.42)	7.85 (1.65)	8.10 (1.79)	7.54 (1.23)	6.53 (2.02)	8.00 (1.25)	8.01 (1.62)	6.72***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7.38 (1.39)	7.84 (1.62)	8.13 (1.79)	7.40 (1.29)	6.69 (1.84)	7.88 (1.70)	8.04 (1.27)	9.74***
친구들과의 관계	7.60 (1.3)	8.06 (1.43)	8.34 (1.56)	7.74 (1.20)	6.98 (1.77)	8.07 (1.62)	8.13 (0.99)	10.69***
내가 다니는 학교	7.34 (1.38)	7.77 (1.57)	8.09 (1.69)	7.37 (1.15)	6.31 (2.15)	7.82 (1.26)	7.92 (1.45)	7.19***
나의 외모	7.03 (1.48)	7.51 (1.72)	7.68 (1.87)	7.15 (1.44)	6.81 (1.81)	7.55 (1.58)	7.73 (1.67)	7.39***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6.74 (1.71)	7.29 (1.86)	7.81 (1.91)	6.69 (1.47)	6.31 (1.84)	6.88 (1.91)	7.39 (1.83)	10.84***
나의 건강	7.83 (1.37)	8.15 (1.42)	8.34 (1.61)	7.87 (1.15)	7.43 (1.48)	8.16 (1.62)	8.27 (1.1)	5.85***
나의 미래	7.28 (1.4)	7.73 (1.57)	7.85 (1.83)	7.52 (1.11)	6.87 (1.53)	7.45 (1.69)	8.09 (1.26)	9.16***
나의 자유 시간	7.36 (1.43)	7.73 (1.64)	8.04 (1.69)	7.26 (1.40)	6.63 (1.97)	7.31 (2.04)	8.10 (1.18)	14.79***
우리 동네	7.28 (1.36)	7.58 (1.62)	7.94 (1.76)	7.30 (0.98)	6.79 (1.74)	7.28 (1.81)	7.55 (1.63)	6.47***
생활에서의 안전	7.27 (1.36)	7.80 (1.57)	8.33 (1.41)	7.36 (1.34)	6.73 (1.53)	7.89 (1.72)	7.52 (1.68)	18.39***

* 주1, 주2, 주3, 주4 : 표 IV-1과 동일함.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②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일상생활만족도에 이어 여기에서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살펴보았다.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는 19세~24세 연령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경험의 빈도를 4점 척도(①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②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③가끔 경험했다, ④자주 경험했다)로 측정함(여성가족부, 2023.12., p.365)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점수는 앞에서 살펴본 일상생활만족도는 달리, 비해당지역

19세~24세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2.89점)가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점수(2.73점)보다 높다. 그러나 5개 인구감소지역 군집 모두에서 비해당지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군집5 지역의 경우 비해당지역보다도 더 높은 점수(2.93점)이다.

표 IV-3.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단위: 점)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동분산	이분산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test	Welch's F
9-12세	2.52 (0.66)	2.53 (0.72)	2.56 (0.76)	2.52 (0.63)	2.86 (0.38)	2.76 (0.69)	2.36 (0.79)	0.67	-
13-18세	2.87 (0.60)	2.89 (0.67)	2.94 (0.69)	2.78 (0.67)	3.33 (0.49)	2.89 (0.68)	2.74 (0.65)	2.38	-
19-24세	2.89 (0.55)	2.73 (0.70)	2.65 (0.82)	2.67 (0.54)	2.21 (0.47)	2.83 (0.83)	2.93 (0.52)	-	2.40*
전체	2.80 (0.62)	2.75 (0.71)	2.75 (0.77)	2.70 (0.62)	2.95 (0.66)	2.84 (0.75)	2.74 (0.66)	1.22	-
2.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를 느낀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test	Welch's F
9-12세	1.70 (0.77)	1.99 (0.92)	1.97 (0.91)	1.59 (0.76)	2.59 (0.79)	1.77 (0.90)	2.29 (0.98)	6.16***	-
13-18세	1.93 (0.80)	2.23 (0.85)	2.30 (0.89)	1.95 (0.78)	2.79 (0.42)	2.46 (0.86)	2.14 (0.89)	-	17.74***
19-24세	1.82 (0.74)	1.93 (0.84)	1.99 (0.95)	1.89 (0.77)	2.00 (0.00)	1.81 (0.62)	1.93 (0.90)	0.49	-
전체	1.83 (0.77)	2.07 (0.87)	2.11 (0.92)	1.87 (0.78)	2.54 (0.56)	2.01 (0.79)	2.09 (0.92)	-	13.77***

* 주1, 주2 : 표 IV-1의 주1, 주2와 동일함.

* 주3 : ***p<.001, **p<.01, *p<.05

* 주4 : 측정 척도 빈도 4점(①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②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③가끔 경험했다, ④자주 경험했다)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함께 측정한 무기력감의 경우, 전체 수준과 2가지 연령대(9세~12세, 13세~18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점수가 비해당지역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수준에서 볼 때, 군집3 지역의 무기력 상태 점수(2.54점)가 가장 높고, 비해당지역 점수(1.83점)가 가장 낮다. 연령대별로 9세~12세의 경우, 군집3 지역(2.59점)이 가장 높고, 군집2 지역(1.59점)이

비해당지역(1.70점)보다도 더 낮다. 13세~18세의 경우도 군집3 지역(2.79점)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석자료에 89개 중 41개 자료만이 매칭된 한계가 있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농촌지역으로 13세~18세 청소년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28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4의 경우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무기력감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활동 경험

① 참여 활동의 개수

일상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이어 여기에서는 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활동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9가지 활동(①문화/예술, ②과학/정보, ③모험/개척, ④자원봉사, ⑤직업/진로, ⑥국제교류, ⑦건강/보건, ⑧자기(인성)계발, ⑨환경보존) 중 참여한 경험 유무로 측정된(여성가족부, 2023.12, p.372) 값을 참여 해본 활동의 평균 개수로 산출하여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평균 개수가 비해당지역 청소년보다 더 많고, 전체 수준 및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표 IV-4. 참여 활동 개수

(단위: 개)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이분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Welch's F
9-12세	1.57 (1.68)	2.33 (2.19)	2.77 (2.48)	2.41 (1.72)	1.11 (2.61)	3.33 (1.96)	1.45 (1.61)	4.35**
13-18세	1.77 (1.81)	2.97 (2.61)	3.82 (2.48)	2.91 (2.51)	3.52 (2.02)	2.71 (3.20)	1.27 (2.19)	15.08***
전체	1.69 (1.76)	2.76 (2.50)	3.44 (2.52)	2.78 (2.32)	2.95 (2.35)	2.89 (2.85)	1.34 (1.98)	17.71***

* 주1, 주2 : 표 IV-1의 주1, 주2와 동일함.

* 주3 : ***p<.001, **p<.01

* 주4 : 최근 1년 동안 9가지 활동(①문화/예술, ②과학/정보, ③모험/개척, ④자원봉사, ⑤직업/진로, ⑥국제교류, ⑦건강/보건, ⑧자기(인성)계발, ⑨환경보존) 중 참여한 경험 유무로 측정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한 가지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성은 전체 수준에서도 9세~12세 및 13세~18세 연령대 모두에서 군집5 지역의 경우 비해당지역의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전체 수준에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은 2.76개이고, 비해당지역의 평균은 1.69개이나 군집5 지역의 평균은 1.34개에 불과하다. 9세~12세의 경우 군집5 지역이 아닌 군집3 지역(1.11개)이 더 낮은 수치를 보이기는 하나, 13세~18세 연령대와 전체 수준에서는 군집5 지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한편, 군집1 지역은 전반적으로 참여 활동 개수가 많은 지역인데, 특히 전체(3.44개) 및 13세~18세 연령대(3.82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② 진로교육 경험

이어 진로교육의 경험을 청소년들이 경험해 본 진로교육의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의 종류가 비해당지역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진로교육의 경험을 5가지(①수업 중 진로탐색, ②진로심리검사, ③진로체험, ④진로상담, ⑤창업 체험하기)의 경험 유무로 측정(여성가족부, 2023.12, p.375) 하였다. 이를 다시 교육 유형의 개수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전체 수준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이 경험한 진로교육의 유형은 1.97개로 비해당지역 청소년의 경험 1.23개 보다 많다. 군집 간 비교해 보면, 전체 수준과 13세~18세 연령대에서는 군집5 지역의 경우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9세~12세 연령대에서는 군집3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군집1 지역이 전체 수준과 연령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표 IV-5. 경험해 본 진로 교육의 수

(단위: 개)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이분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Welch's F
9-12세	0.79 (1.16)	1.31 (1.57)	1.54 (1.70)	1.27 (1.65)	0.14 (0.38)	0.88 (1.01)	1.26 (1.43)	4.91**
13-18세	1.53 (1.52)	2.29 (1.86)	3.13 (1.75)	2.16 (1.79)	2.60 (1.65)	1.71 (1.53)	0.92 (1.44)	17.02***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이분산
전체	1.23 (1.43)	1.97 (1.83)	2.56 (1.89)	1.92 (1.79)	2.02 (1.79)	1.46 (1.42)	1.05 (1.44)	15.71***

* 주1, 주2 : 표 IV-1의 주1, 주2와 동일함.

* 주3 : ***p<.001, **p<.01

* 주4 : 진로교육 5가지 ①수업 중 진로탐색, ②진로심리검사, ③진로체험, ④진로상담, ⑤창업 체험하기) 경험 유무로 측정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③ 진로체험활동 경험

진로교육과 함께 비교한 진로체험활동 경험에서도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경험 수준이 전체 수준과 각 연령대에서도 모두 높다.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경험해 본 진로체험활동을 4가지(①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②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③산업체 실시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④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유무로 측정한(여성가족부, 2023.12, p.375) 것을 평균 내어 비교한 것인데, 이들 경험에 한정하여 비교한다면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경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군집 간 비교를 해보면, 전체 수준에서 군집1 지역(1.80개)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1.24개)보다 높고, 특히 19세~24세 연령대(2.17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군집4 지역의 경우 전체와 연령대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령대별로 볼 때, 13세~18세 연령대에서는 군집4 지역(0.48개)보다 군집5 지역(0.41개)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19세~24세 연령대에서는 군집3 지역(0.63개) 또한 낮은 수준이다.

표 IV-6. 진로체험활동 경험

(단위: 개)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이분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Welch's F
13-18세	0.52 (0.85)	1.07 (1.23)	1.46 (1.32)	1.23 (1.32)	0.87 (0.85)	0.48 (1.00)	0.41 (0.69)	13.59***
19-24세	0.85 (1.14)	1.43 (1.44)	2.17 (1.65)	1.11 (1.08)	0.63 (1.41)	0.54 (0.87)	1.13 (1.06)	6.81***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이분산	
전체	0.71 (1.04)	1.24 (1.35)	1.80 (1.52)	1.18 (1.22)	0.79 (1.00)	0.52 (0.90)	0.79 (0.97)	18.65***	

* 주1, 주2 : 표 IV-1의 주1, 주2와 동일함.
 * 주3 : ***p<.001
 * 주4 : 진로체험 활동 4가지(①진로박람회, ②진로 체험 프로그램, ③산업체 실시 취업관련 프로그램, ④대학 실시 학과(전공) 관련 프로그램) 경험의 유무로 측정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3) 정서 및 의식 특성

① 자존감

생활 및 경험 특성에 이어 여기에서는 정서 및 의식과 관련 세 가지 사항(자존감, 대인관계역량, 진로성숙도)을 비교하였다. 먼저 자존감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3가지 항목(①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②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③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으로 구성하고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여성가족부, 2023.12, p.366)한 것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차이 검증 결과, 13세~18세 연령대를 제외한 연령대와 전체 수준에서 비해당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체 및 19세~24세 연령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자존감 점수가 다소 높고, 9세~12세 연령대에서는 비해당지역의 청소년이 다소 높다. 5개의 군집을 포함하여 비교를 해보면, 전체 수준에서는 군집3 지역(2.88점)이 가장 낮고, 19세~24세 및 9세~12세 연령대에서는 군집2 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7. 자존감

(단위: 점)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동분산	이분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test	Welch's F
9~12세	3.12 (0.42)	3.09 (0.51)	3.20 (0.61)	2.91 (0.47)	3.29 (0.13)	3.18 (0.45)	2.99 (0.29)	-	4.44**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동분산	이분산
13-18세	3.06 (0.43)	3.03 (0.48)	3.09 (0.56)	2.98 (0.38)	2.59 (0.57)	3.05 (0.35)	3.13 (0.33)	-	2.19
19-24세	3.10 (0.42)	3.19 (0.42)	3.28 (0.44)	2.93 (0.30)	3.23 (0.31)	3.27 (0.42)	3.19 (0.44)	3.99**	-
전체	3.06 (0.42)	3.10 (0.47)	3.19 (0.53)	2.95 (0.37)	2.88 (0.56)	3.18 (0.40)	3.12 (0.38)	-	4.34**

* 주1, 주2 : 표 IV-1의 주1, 주2와 동일함.

* 주3 : **p<.01

* 주4 : 자존감 3가지 항목을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② 대인관계역량

자존감과 함께 측정된 대인관계역량의 경우,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3가지 항목(①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②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③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으로 구성된 것을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함(여성가족부, 2023.12, p.366) 것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전체 수준과 13세~18세 및 19세~24세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이 비해당지역 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다. 5개의 군집을 포함하여 비교해 보면, 전체 수준과 13세~18세 연령대에서는 군집3 지역(2.95점, 2.77점), 19세~24세 연령대에서는 군집2 지역(2.97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IV-8. 대인관계역량

(단위: 점)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동분산	이분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test	Welch's F
9-12세	3.12 (0.42)	3.15 (0.50)	3.20 (0.64)	3.00 (0.29)	3.15 (0.38)	3.37 (0.35)	3.14 (0.37)	-	2.32
13-18세	3.06 (0.43)	3.11 (0.45)	3.18 (0.52)	3.02 (0.35)	2.77 (0.46)	3.07 (0.4)	3.22 (0.39)	2.57*	-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동분산	이분산
19~24세	3.10 (0.42)	3.21 (0.46)	3.24 (0.50)	2.97 (0.39)	3.19 (0.19)	3.31 (0.45)	3.32 (0.42)	3.06**	-
전체	3.09 (0.42)	3.16 (0.47)	3.20 (0.54)	3.00 (0.35)	2.95 (0.43)	3.24 (0.43)	3.24 (0.4)	-	6.00***

* 주1, 주2 : 표 IV-1의 주1, 주2와 동일함.

* 주3 : ***p<.001, **p<.01, *p<.05

* 주4 : 대인관계역량 3가지 항목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③ 진로성숙도

이여 살펴본 진로성숙도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6가지 항목(①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②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③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④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⑤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⑥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으로 구성하고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함(여성가족부, 2023.12, p.376) 것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전체 및 모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차이가 검증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비해당지역 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다. 5개의 군집을 포함하여 비교해 보면, 전체 수준과 19세~24세 연령대, 그리고 9세~12세 연령대에서는 군집2 지역이 비해당지역의 점수보다 낮고, 13세~18세 연령대에서는 군집2 지역, 군집3 지역, 군집4 지역이 비해당지역보다 낮으며, 그중에서도 군집4 지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표 IV-9. 진로성숙도

(단위: 점)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동분산	이분산

	인구 감소 비해당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류 ^{주1}					차이 검증 ^{주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동분산	이분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test	Welch's F
9-12세	2.59 (0.49)	2.63 (0.55)	2.64 (0.62)	2.39 (0.34)	2.99 (0.68)	2.65 (0.46)	2.73 (0.48)	-	3.42*
13-18세	2.73 (0.46)	2.78 (0.46)	2.87 (0.40)	2.70 (0.49)	2.60 (0.51)	2.59 (0.49)	2.87 (0.45)	2.37*	-
19-24세	2.90 (0.42)	3.08 (0.41)	3.17 (0.36)	2.88 (0.50)	3.06 (0.22)	3.10 (0.38)	3.10 (0.41)	5.89***	-
전체	2.77 (0.47)	2.87 (0.49)	2.93 (0.49)	2.71 (0.50)	2.79 (0.52)	2.87 (0.49)	2.93 (0.46)	7.34***	-

* 주1, 주2 : 표 IV-1의 주1, 주2와 동일함.

* 주3 : ***p<.001, *p<.05

* 주4 : 진로성숙도 6가지 항목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

*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2.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청소년기 성장 경험 : 19세~24세 후기청소년 FGI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후기청소년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파악하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일상과 경험, 그리고 인식 등의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 단계에서 진행될 정책육구조사의 조사 도구를 마련하고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음.
-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섭외·선정 한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총 4개 그룹 11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진행되었음.
- 초점집단면접조사 자료의 전사 및 분류, 반복된 의미 범주화 과정을 거쳐 세 가지(①취약한 접근성, ② 부족하거나 한정된 기회와 정보, ③ 낮은 인구밀도, 밀착도 높은 지역사회) 틀에서의 의미를 도출하고 구조화하였음.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추진 목적 및 과정

(1) 초점집단면접조사 추진 배경 및 목적

앞선 제3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제2장과 제3장에서 행정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특성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인구의 규모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비해당지역 청소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한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2차 자료를 통해 대략적이거나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 있어 연계 고리로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생활 및 경험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하고,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정책육구조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가 있다면 개략적인 내용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 즉 실증 근거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 및 전략과제의 도출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 분석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본과 매칭되는 지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1개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표본의 수 또한 453명으로 충분하지 않아 대략적인 경향성에 초점을 두고 비 해당지역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차이점만을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생활 속에서의 경험과 의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후기청소년들의 생생한 경험을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통해 청취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후기청소년을 참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초·중·고 학창 시기와 고등학교 졸업한 현재 후기청소년 시기까지의 생활과 경험 등을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대 청소년보다는 후기청소년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성장과정에서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등 인식과 태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어, 현재의 10대 청소년보다 후기청소년들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초점집단면접조사 추진 과정

앞선 제1장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양적인 방법을 주된 연구 방법이지만 보조적으로 질적 방법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연구 방법이 구성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초점집단면접조사 설계에는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문헌자료 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발전 동향, 제2장 및 제3장에서 이루어진 행정통계자료의 분석 및 본 장의 앞서 이루어진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과 비 해당지역 청소년의 특성 비교

분석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연구 진행에 시간 및 예산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진행에 있어 중간 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연구 추진단계에서의 위치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19세 이상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점집단면접 조사는 크게 두 개 집단, 즉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하여 현재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 2개 그룹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하였고 현재는 서울 및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집단 2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집단구성으로 진행되는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육구조사의 내용 설계 및 측정 문항 등 조사 도구 개발의 기초자료가 되며, 동시에 연구의 종합분석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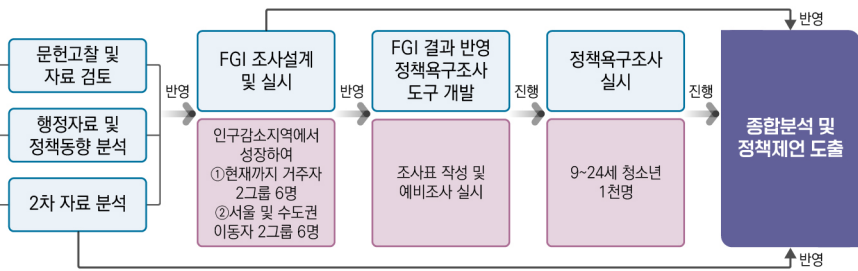


그림 IV-1. 연구 추진 단계에서의 FGI 위치 및 연계 활용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구성

(1)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섭외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집단은 총 4개 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성장하였다는 기본 특성이자 공통 특성을 갖고, 현재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집단 2그룹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는 2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기간과 예산 제약,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초점집단면접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그룹당 3명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4명이 초과하지 않도록 그룹별 참여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주제에 초점을 맞춘 면접조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방해되는 요인을 제외하고자 동일한 그룹에 서로 아는 사람이 없도록 출신 지역이 중복되거나 현재 소속이 동일한 참여자가 구성되지 않도록 하였고, 성별이나 연령이 쏠리지 않게 하는 등 참여자 구성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표 IV-10. FGI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섭외 기준

구분	그룹 구성 및 섭외 기준
그룹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개 그룹 ①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기(고교졸업시기까지) 성장, 현재 수도권 지역 거주자 2개 그룹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기 성장, 현재까지도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는 2개 그룹 • 한 그룹당 참여자 3명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4명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한 그룹에 참여자가 서로 아는 지인들로 구성 불가
섭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외 기준 ①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출신 지역 중복되지 않도록 섭외 ②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대학생이 다수일 수 있으나, 가능한 취업자 또는 취업준비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섭외 ③ 참여자의 성별이나 나이가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섭외 ④ 지인 관계인 복수의 참여자 섭외 불가

(2) 참여자 구성 및 특성

①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구성

앞서 기술한 섭외 기준에 따라 총 4개의 참여자 그룹에 구성된 참여자는 총 11명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기까지 성장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 2개 그룹 각각 3명씩 6명이고, 현재까지도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는 2개 그룹 총 5명이다.

먼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미 섭외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대의 쏠림이나 출신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섭외된 참여자들이기에, 남성과 여성이 각각 3명씩 동수이다. 참여자 모두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성장한 인구감소지역 모두 다르고, 최소 11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특성을 갖는다.

이어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섭외 원칙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참여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최종 여성 참여자가 다수 구성되었다. 이들은 현재 취업 준비 상태에 있거나 대학 수료 및 대학원생, 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다.

표 IV-11. FGI 참여자 구성

구분	참여자 표기	성별	연령	직업	인구감소지역 거주		현 거주지	
					성장 지역	거주 기간		
(인구감소지역에서 고교졸업까지 성장)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자	1그룹	1-A	남	22	대학생	강원 평창군	11년	서울
		1-B	여	22	대학생	전남 화순군	19년	서울
		1-C	여	24	대학원생	경북 안동시	19년	서울
	2그룹	2-A	남	24	대학생	경남 함안군	20년	서울
		2-B	여	22	대학생	인천 강화군	22년	서울
		2-C	남	19	대학생	부산 영도구	11년	서울
(인구감소지역에서 고교졸업까지 성장)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3그룹	3-A	여	23	취준생	전남 화순군	16년	전남 화순군
		3-B	여	21	취준생	전남 함평군	21년	전남 함평군
		3-C	남	24	대학 수료	전남 고흥군	19년	전남 고흥군
	4그룹	4-A	여	24	대학원생	경북 안동시 대구 군위군	5년	대구 남구
		4-B	여	23	회사원	대구 남구	20년	경북 성주군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내용 및 방법

(1) 조사 내용의 구성

최종 확정된 총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내용은 앞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문헌 고찰 및 정책자료 검토, 지역 행정통계, 그리고 앞서 제시된 2차 자료 분석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의 일상생활과 경험, 그리고 의식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인적정보가 파악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복 질문하지 않고, 면접조사에서는 초·중·고 시기에 어느 곳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이 조사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표 IV-12. FGI 주요 내용 구성

구분	내용
참여자 섭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4월 1일 기준, 나이가 몇 세인가요? • 성별과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 고등학교 졸업까지 거주하셨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로 어느 곳에서 자랐나요? • 주로 자란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나요? • 주로 자란 곳에서 나의 10대 시기를 돌이켜 볼 때, 어떤 점은 즐겁거나 좋았고 어떤 점은 불편하고 아쉬웠나요? • 초-중-고 10대 시기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또래 친구 중 출신 지역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인가요? • 10대시기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현재 성장 지역에 살고 있는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청소년 시기에 지역이나 정부에서 지원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 [현재 수도권 거주자] 현재 출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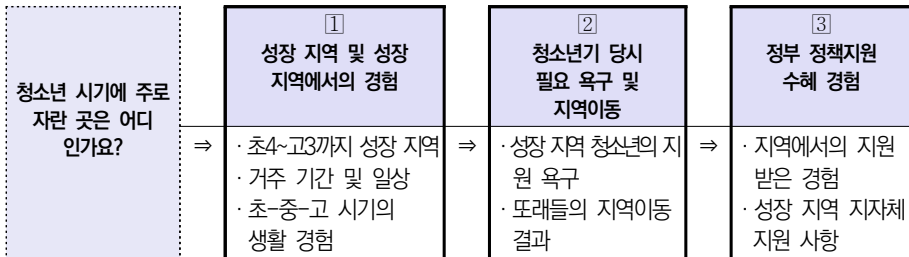


그림 IV-2. FGI 주요 질문 내용의 구성 및 진행의 흐름

(2) 초점집단면접조사 방법 및 IRB 심의

① 초점집단면접조사 방법

앞서 기술한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과정을 거쳐 참여자를 확정하고 그룹별 계획된 일정 및 장소에 맞추어 초점집단면접조사가 진행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하고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1그룹과 2그룹의 참여자들은 서울시에 안내된 면접조사 장소로 내방하였

고, 인구감소지역에 현재까지 거주하는 3그룹과 4그룹의 경우, 인근 광역시 내 정해진 면접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령 참여자 중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많은 3그룹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경북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많은 4그룹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조사 장소를 마련하고 참여자가 해당 장소로 내방하였다.

조사는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10일간 1그룹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내용 및 방법의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개의 그룹 모두 연구책임자가 참여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각 그룹당 9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또한 섭외의 과정뿐만 아니라 조사 일정 및 장소 연락 과정, 그리고 조사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언제든 참여 의사를 철회하고 참여 중에도 중단할 수 있다”의 사항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참여자들에게 안내되었고****, 이와 더불어 기록을 위해 필요한 면접조사 녹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접조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참여자 확정 후 조사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과정에 조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전에 안내하였고, 참석자 중 일부는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자료로 준비한 후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참여자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고 그에 따른 경험 내용을 전달해 주어 시간 제약하에서 효율적인 면접조사를 진행하는데 일조가 되었다.

면접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하나의 경험에만 머물지 않게 하거나 주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특정 참여자가 이야기를 주도하거나 한 명의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와 시간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의 말미, 면접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90분 동안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연구에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재차 설명하였다.

**** 4그룹의 참여자 1명이 면접조사 당일 다른 일정으로 불참을 알려왔음.

표 IV-13. 초점집단면접조사 방법

구분	내용
참여자 섭외 및 참여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 확정 • 전문조사업체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 후 참여 신청자가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단계적으로 필터링하고 예비 참여자를 포함하여 참여자 확정 - ① 신청자 목록화 → ②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 부합자 우선순위 부여 → ③ 부여된 우선 순위대로 연락하여 참여 의사 재확인 후 계획된 조사 일정 내 참여 가능성 타진 → ④ 확정 조사 일정 및 장소, 면접조사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⑤ 면접일 전 질문지 사전 전달 및 참석 일정 재안내 → ⑥ 확정 참여자 중 불참자 발생 시 예비 참여자로 대체 (당일 불참자의 경우 제외 하고 실시)
장소	• 안내된 면접조사 장소로 참여자 내방
기간	• 2024년 4월 8일~ 4월 17일(약 10일간)
조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개 그룹 모두 연구책임자가 참여자들과 자유롭게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 • 조사 내용 및 방법 측면에서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진행 과정과 동시에 내용 분석 가능
참여 횟수 및 시간	• 그룹별 1회, 각 면접조사 90분 내외로 진행
기록 및 녹취	• 조사 시작 전 참여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면담 내용 기록을 위한 녹취에 대해 동의를 구함.
진행자	연구진

②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조사 실시에 앞서 계획된 내용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음을 밝힌다(승인 번호: 202403-HR-고유-003, 통보일: 2024.04.04.).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자료의 분석

면접조사의 녹취된 내용은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전사되었고, 전사된 자료는 조사 내용으로 작성된 질문 내용과 함께 주제별로 나누어 분류되었다.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로 나누어 다시 분류되었고, 이후 분류된 내용에서 의미를 묶어 내는 범주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1차 분류된 내용과 주제별 분류, 의미 도출하여 범주화된 자료를 연구진이 반복해 읽으면서 재분류 및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3가지(①취약한 접근성, ②부족하거나 한정된 기회와 정보, ③낮은 인구밀도, 밀착도 높은 지역사회) 측면에서 도출된 의미를 구조화하였다.

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주요 결과

(1) 취약한 접근성

인구감소지역에서 자라난 후기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초점집단면접조사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3가지(①취약한 접근성, ②부족하거나 한정된 기회와 정보, ③낮은 인구밀도, 밀착도 높은 지역사회) 측면에서 의미가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먼저 취약한 접근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 생활을 위한 주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 또한 쉽지 않으며, 그러한 이유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떠난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인구의 사회적 이동, 즉 지역 인구 유출이 증가하는 것이기에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비롯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이제까지의 지원 정책이 인프라 조성 또는 시설 건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인구감소의 체감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후기청소년들은 취약한 생활 인프라와 그에 따른 접근성으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체감하였다고 말한다. 가장 쉽게 체감되는 현상이 바로 학교인데, 이들은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확연히 줄어드는 학생 수를 체감하였다고 보고한다.

“초등학교 때는 되게 많았는데 중고등학교가 확 줄어든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한 7반까지 있었고,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한 32명 그 정도 됐었는데, 중고등학교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 한 20명 후반?”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C)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올라가면서부터 많아야 20명, 27명 이렇게 갔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애들 수가 확 줄었어요.” (타지역 거주 2그룹, 참여자 2-B)

“중학교 때까지는 같이 입학했다가 고등학교 이후로 좀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140명이었으면 고등학교 때 거의 한 30명 가량이 외부로 나갔어요.” (타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C)

농촌지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시기에 이동이 두드러지는데, 이 시기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교육 이동 고민이 시작되거나 현실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양희준 외, 2022, p.45).

줄어든 학생 수를 체감하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은 다니던 학교가 통합되는 ‘학교 통폐합’ 경험이다. 특히 지역의 폐교가 1개 증가하면, 지역의 초·중·고 학생수는 적게는 79명 많게는 130명가량 줄어들고, 학부모 인구수도 111명 줄어들 만큼(이혜영, 2010, p.21) 학교의 폐교는 도시 구도심 지역의 인구 공동화와 농촌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초등학교 때는 8학년~9학급에 한 반당 30명 정도였고, 중학교도 9반~10반까지 해서 35명 정도 됐고, 고등학교는 6개 반인데 3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가 (없어지고) 몇 개 없으니까 다 몰리는 거죠.”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B)

“보통 초등학교 정도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로 넘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C)

“저희는 7명 정도 있었어요. 한 반에. 근데 세 학교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합쳤어요.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애들 수가 적어서 모아서 학교 하나 짓자 그렇게 3학년은 읍에서 나왔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B)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기에 체감하는 인구감소는 초·중·고 시절의 체감도에 비해 보다 더 강하게 인식된다. 그만큼 주변 또래 친구들의 사회적 이동, 즉 성장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떠나는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한 지역 인근의 광역시와 같은 큰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자리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열에 셋은 떠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 약간 큰 도시를 간다거나, 거주지 옮기는 거로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반 이상 옮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인근에 강릉을 간다거나 아니면 춘천 조금 더 멀리 가면 원주 이렇게 가는 추세예요.”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A)

“대학교 진학할 때 생각보다 서울로오는 많이 이동을 안 했고. 왜냐하면 돈도 돈이고 서울은 보통 좋은 대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저희는 안동에도 꽤 많이 있었고 아니면 대구로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되게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서울에 대학 안 간 친구들도 취업할 때 되니까 거의 다 수도권 또는 서울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일자리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C)

“서울로 오는 비율은 한두 명 정도인 것 같고 아니면 부산에 다른 대학들 있잖아요. 부경대나 부산대가 있는데 사실 그런 곳도 통학을 할 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타지역 거주 2그룹, 참여자 2-C)

“친했던 친구 중에는 한 명만 (성장 지역에) 남아 있어요. (...) 다 웬만하면 다 ‘시’로 가요. 되게 그냥 다양하게 다 이동한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C)

② 이동의 제약과 한정된 생활 공간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의 취약성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대중교통의 불편함 등으로 이동의 제약을 경험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공간적으로 갇힌 느낌 또는 한정된 공간에 가두어져 있는 것과 같이 느낌을 일상적으로 느낀다.

“저는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가 많지 않아가지고. 날 잡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동네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A)

“시내에 애들이 가면 노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찮아도 버스 타고 나갔는데 그 과정이 항상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버스가 잘 안 오고 해 가지고.”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C)

“그 한 지역에 사실은 좀 어찌 보면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래서 ‘OO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타지역 거주 2그룹, 참여자 2-B)

“시골 버스다 보니까 버스가 안 좋기도 안 좋고 시간이 전혀 일정하지 않았어요. 1시간에 한 번 오거나 심할 때는 2시간에 한 번 오거나 그래서 나가 있어도 계속 기다려야 되고.

정시 출발도 안 하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B)

자유롭지 못한 이동은 단순히 공간적 측면에서 생활이 한정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흔히들 초·중·고 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다닐 수 있는 곳이 어차피 집과 학교의 인근 정도로 인식하지만, 공간적 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편에 맞추어 생활이 종속된다는 사실이다. 가령 학교통합으로 도보로 이동하지 못하는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고 할 때, 부모님이 등·학교 시간에 맞추어 데리러 오거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그 시간에 맞추어야 하므로, 일상에서 생활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이 매우 부족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중학교는) 차로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같이 태워주시고 그랬어요.”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C)

“더 놀고 싶어도 이제 집이 좀 읍내에서 멀다 보니까 항상 부모님이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못 놀았어요. 많이.”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C)

“(방과후에) 저는 농협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거기 옆에 정자 같은데 앉아서 그냥 앉아 있다가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면 그때 부모님 차 타고 가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B)

한편, 지역의 생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서비스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도시지역에 흔한 사교육 시설은 인구감소지역에 매우 제한된 상태이거나 아예 없기도 하다. 쉽게 말해, 학원을 가려 해도 갈 학원이 없다.

“의령이라는 데가 학원도 주변에 없어 갖고 가려면 이제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나가야 하니까 학원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는 인강만 그냥 프리패스로 끊어서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타지역 거주 2그룹, 참여자 2-A)

“학원이 면에 하나인가 있었어요. 근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거의 다 거기 다녔는데 저는 딱히 학원은 안 다녔어요.” (인구감소지역 3그룹, 참여자 3-B)

“동네에도 학원이 있긴 있었는데, 더 좋은 학원을 가려면 버스 환승을 항상 해야했어서, 하나 타서 1시간 타고 환승해서 30분 더 타서 집에 돌아가고 밤늦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B)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학교의 교육적 이점은 학생 수가 적어 개별적 수업 지도가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다 보니 학생 개개인 수준별 세심한 개별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음악 악기 교육의 활성화와 개별 맞춤형 교육도 비교적 수월하다(양희준 외, 2022, p.104, p.108)는 점인데,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후기청소년들의 경험 속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포착된다. 특히 학교의 방과후교실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때는 미술이나 약간 꽃꽂이 이런 게 있었고. 저는 아마 미술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중학교 때도 막 요가 골프 이런 테니스 약간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 후 시간에 더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A)

“집에서 뭔가 놀 그런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일부러 되게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뭐 미술이나 요리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미술이랑 기타, 네일아트 뭐 이런 거 배우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A)

“저도 학교에 컴퓨터 수업이나 발레나 스포츠 댄스 뭐 이런 거.”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B)

(2) 부족하거나 한정된 기회와 정보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이동 제약이 연속선상에 놓이는 문제이자, 한정된 경험 공간이라는 특성에서 연계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에게 기회와 정보 또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동의 제약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간적으로 제약하고, 상대적으로 이동에 필요한 비용은 외부의 자원들과의 연계에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① 다양한 체험 및 경험 기회의 절대 부족

이동의 제약과 어려움으로 다양한 체험과 경험 기회가 부족하다면, 지역에서는 그 부족함을 상쇄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되고 있는가? 앞선 제2장에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상기해 본다면, 지역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의 정주 인구로서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이 우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후기청소년들의 경험 속에서도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부족했다는 기억이 가득하다. 지역의 정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은 이용자로서 환영받지 못하기도 하고, 지역 내 시설들이 어린 영유아나 성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다수이다 보니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을 원하는 것이다.

“문화센터 하나 있었어요. (...) 밑에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열람실도 있고 작게 헬스장이랑 이렇게 라운지 되는 공간이 있었는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 있다가 문화센터 그 라운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몰리니까 시끄럽고 이래버리니까 매번 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하라 하거나 그러시죠.”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B)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수련관이나 도서관 외에 하나는 더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싸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A)

“어른에 맞춰져 있는 혹은 엄청 어린이에게만 맞춰져 있는 그런 거라서 오히려 청소년 딱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시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A)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더불어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 모두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직접” 체험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에 직접 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을 원했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 수업이나 책, TV프로그램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의 “현장감” 때문이며,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느끼는 일명 감흥을 느껴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한 직접 체험은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김기홍, 2023, p.72).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직접 체험 및 경험 기회의 부족을 중요하게 꼽는 것은 10대 시기를 지나고 보니, 직접 해본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핸드폰이나 유튜브로 접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직접 해보는 게 더 좋은 경험이잖아요. (...) 제가 서울이나 이런 데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풍부하게 재밌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지역 거주 그룹, 참여자 2-C)

“직접 가서 보는 거랑 좀 집중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었죠. 한 10명 이내도 안 돼서 제가 갈 수 있는 활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A)

“뭔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교 외 공간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워낙에 부족했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와서도 대회 활동이나 이런 거 공모전 이런 걸 도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되게 많았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B)

② 제한된 진로·직업 정보 및 탐색 경험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와 이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경험 또한 부족하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정보의 양이 아닌, “다양성”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다.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 다양성의 문제가 정보의 내용 측면도 있지만, 정보 전달자의 다양성의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진로·직업 정보가 대체로 진학에 집중된 정보만 있을 뿐 그 외 다른 진로 경로를 탐색하거나 선택을 위한 정보는 부족했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직업보다는 유사한 업·직종의 한정된 성인을 주로 일상에서 접하게 되니, 특히 다양한 진로 경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따금 외부에서 초청된 이가 지역에 오지 않는 이상 정보 내용과 정보원의 한정된 범위를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보는 많아진 게 사실인데 지역에 있는 공교육 선생님들은 그 정보에 딱히 관심이 없으세요. (...) 단순히 대학을 진학하는 걸 목표로 어떻게든 이 학생을 대학 진학시켜야지 하는 생각이 좀 더 크세요.”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A)

“전 중고등학교 때 직업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정보가 드무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때 외부 대학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양한 전문가들 직업 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의 듣고 하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B)

“직업 정보를 탐색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로시간이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 진로박람회나 직업에 관해 설명 해주는 곳을 가지 않는 이상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게 좀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A)

탐색의 경험도 양적인 측면에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회의 시간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내용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진로·직업 체험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에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질적 수준이 낮은 진로 체험활동은 그저 “아까운 시간”으로 인식될 뿐이다.

“진로 같은 경우에는 과학관에 그냥 몇 시간 풀어놓고 그냥 언제까지 와라 이러고. 딱히 뭘 자세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가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 전교생이 항상 움직였거든요. (...) 이상한 민박 체험 같은 거 하고 진로 직업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딱히 신경을 안 써주셨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B)

“직업 체험의 기회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뭘 그런 체험을 할 기회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선생님들이 멀리 가지 말자. 그냥 근처에 가서 시간 대충 때우고 뭔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아깝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A)

“제가 중학교 때 그 직업 체험을 해보라고 하루 시간을 빼주는 그런 자유로운 날이 있어요. 멀리 가기가 힘들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 미용실, 동네 유치원 이런 데만 체험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타지역 거주 2그룹, 참여자 2-B)

한편,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는 지역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전문 컨설팅 기회가 주어는 것으로 보고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에서 지역 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입시와 관련된 유명 학원의 사교육 컨설팅이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일명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차별적 기회는 비단 입시 컨설팅에만 있지 않다. 해외 대학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나 과학 체험의 기회도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없지는 않으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수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사교육이나 컨설팅받을 기회가 잘 없으니까 어디 비상에 두냐 이런 데랑 콜라보 같은 걸 해서 거기 강사들이 내려와 강의도 해주시고 주말마다 컨설팅 해주시고 논술 수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대상이었거든요. 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런 친구들이 주말마다 특정 학교에 모여서 수업 듣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좋았긴 한데 (...) 조금 소수였던 것 같아서.”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C)

“고등학교 때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해외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하는 걸 갔었어요.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학교마다 인원수를 배정해서 가는 거였는데, 1차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봐서 걸러내고 2차로 ‘군’에서 주관하는 토익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발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소수였어요. 거기 가서 너무나도 좋았지만, 너무 소수여서 더 많이 갈 수 있었으면 더 어땠을까.”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B)

“중학교 때 영재 수업 이런 거를 좀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거. 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험 기회가 되게 다른 학생들보다는 많았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거를 당연히 뭐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의 전유물.”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B)

(3) 낮은 인구밀도, 밀착도 높은 지역사회

앞서 제시한 취약한 접근성과 부족하거나 한정된 정보 및 기회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후기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자라고 성장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갖는 것은 아니다. 좋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이나 비교를 통해 불행함을 느낄 필요 없이 청소년기를 보낸 것에 대해 자부심 또한 갖는다.

① 공기 좋은 자연환경과 느슨한 경쟁의 삶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성장한 지역에서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고 하였을 때 대다수가 ‘공기 좋은 자연환경’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였다. 참여자들은 성장 지역에 대한 좋은 기억은 모두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며, 10대 청소년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던 경험을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상기한다.

“(학교 다닐 때) 저는 나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C)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시간이 많았어요. 어릴 때 사진 보면 진짜, 베트남.” (타지역 거주 2그룹, 참여자 2-B)

“자유로운 시간. 초등학교 때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 일단 공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매연이나 그런 건 좀 덜했고, 산책길이 좀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산책하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A)

“저도 자연환경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한데요. 날씨 좋고 막 이런 거. 항상 운동장 가서 막 앉아 있는데 그것도 막 10대 시절 때 제일 좋은 기억이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B)

좋은 자연환경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준비 전까지는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고 경쟁이 없거나 느슨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도시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성적 스트레스와 선행 학습의 경쟁에 치이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성적에 딱히 연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공부하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막 그냥 날 좋으면 그냥 나가자고. 야외 수업도 하고 막 그러면서. (...) 그래서 애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없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B)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띄워주는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막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거나 경시하는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축구를 잘하는 친구는 축구를 잘하는 친구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별하지 않는 분위기가.” (인소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A)

“저희는 막 학구열이 막 박세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하교하고 나면 동네에서 놀면 되니까요. 그냥 아파트도 좀 구식 아파트거든요. 계단 이런 시설도 좀 넓게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애들이랑 수박 까먹고 놀고. 그렇게 동네에서 추억을 쌓을 경험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B)

② ‘비슷함’이라는 안정감 : 체감도 낮은 상대적 빈곤과 격차 인식

공기 좋은 자연환경도 좋지만, 함께 자란 또래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인구감소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참여자들이 성장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주변 또래 친구들이 비슷한 생활 수준, 즉 사회·경제적 배경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상대적 빈곤감이나 격차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회고한다.

“사실 성적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비교적 적고, 너무 부자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별로 없고, 다 비슷한 친구들끼리. 그래서 학교생활이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오면 정말 막 빈부 격차도 심하고.” (타지역 거주 1그룹, 참여자 1-C)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였던 친구들이 중학교 때 똑같이 입학하니까 더 끈끈한 친구 우정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C)

“애들이 아예 정말 동네 친구처럼 쪽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약간 그런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 정말 말 그대로 유치원 때부터 계속 보던 친구들이니까 좀 고향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확실히. 동네 사람들도 다 옆집에 누가 있고 어느 누가 어디 대학을 갔다더라. 이런 걸 다 아니까.” (타지역 거주 2그룹, 참여자 2-B)

그러나 친밀감 높고 서로서로 다 알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좁은 지역사회에서 너무 친밀하고 밀착도가 높아 반대로 불편한 점도 있기 마련이다.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좁은 사회의 밀착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편함 중

하나는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확인된다. 대체로 인구감소지역에 학교 수가 많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전학의 방법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다 보니 피해 사안에 대한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피해자가 알리지 못하고, 알린다 해도 낮은 사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학교급이 올라가도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폭력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강화된다.

“중학교 때부터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똑같고 이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위클래스라는 곳이 있던 있었는데 솔직히 해결은 못 했고 오히려 그쪽을 더 이용하면 소문이 쉽게 퍼지니까 더 왕따당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C)

“중학교 때는 저희 학년 애가 후배 애를 괴롭혔는데 좀 심하게.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작은 학교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화해하고 같이 다녀라 하며 조치를 아무 것도 안 취해주셨고. 그다음 어차피 다 지역사회라 부모님들끼리도 아시니까 이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같이 학교 다니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화해해라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B)

“이게 학교폭력의 이슈 자체에 대한 문제인 건지 그냥 지역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안에서 거의 이렇게 지내니까. (...)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진짜 딱 제한적이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뭐 조치하거나 이런 게 안 되겠구나 싶은 느낌은 받아요. (...) 애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하나, 여고 하나 이렇게 있어서 학교폭력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 다 서로서로 알기도 알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4그룹, 참여자 4-B)

좁은 지역사회의 친밀한 관계들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불편함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신고와 조치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지역 환경의 영향으로 일만 하고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접근과 달라야 하며, 차별성 있는 접근을 위한 출발점이자 이들 지역의 청소년 근로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가 좁다 보니까 여기서 신고할게요. 라고 말하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애 쓰지 마. 약간 블랙리스트처럼 애 이름 막 들고 명단 돌아서 쓰지 말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떼여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돈을 떼었다는 것 자체를.” (타지역 거주 2그룹, 참여자 2-C)

“식당이 되게 많거든요. 비빔밥 가게가 되게 많은데 (...) 축제하면 엄청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 딱히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애들은 용돈 받으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그냥 급한 대로 거기 가서 많이 일했던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B)

“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했을 때 6천 원대로, (...) 당시가 9천 원보다 아래였을 텐데 한 2천 원 이상은 더 적게 받았던 것 같아요. 1시간당. (...) 지금이었으면 신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서 했을 때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따로 신고는 안 했고 그냥 넘어갔어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3그룹, 참여자 3-A)

3.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2차 자료(‘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양적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이 특성을 비해당지역 청소년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자료의 제한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기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생활 경험과 경험 속에서 갖는 의식과 태도를 분석함.
- 양적인 2차 자료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만족도, 활동 경험, 정서적 특성이 비해당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인구감소지역 5개의 군집 유형과 비교해 보면 군집마다 정주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과 상대적 비교 속에서 갖는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남.
- 질적인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을 통해서도 인구감소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의 취약성이 단순히 성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욕구와 가능성 의지가 사라지고 무기력함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시행하는 선별적 청소년 지원 사업이 오히려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청소년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됨.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 규모 및 비율에 이어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비해당지역 청소년과의 상대적 비교 및 차이 검증에 위해 앞선 제3장에서 도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5가지 군집 유형을 비교의 틀로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전체 수준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비해당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일상생활만족도나 활동 경험의 양적 수준, 그리고 자존감과 대인관계역량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을 군집별로 나누어 비해당지역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면, 분석 내용에 따라 비해당지역 청소년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군집이 드러났다. 가령 군집3 지역의 청소년들은 일상생활만족도를 측정한 12개 항목에서 비해당지역 청소년을 포함하여 가장 낮고, 군집2 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존감이나 대인관계역량, 진로 성숙도와 같은 정서 및 의식 측면의 특성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군집3 지역의 청소년들은 일상에서의 무기력감의 수준이 가장 높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보다 비해당지역 청소년들이 높는데, 군집5 지역의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경우, 일상스트레스가 비해당지역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집1 지역의 청소년들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활동 경험이 전반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2차 자료 분석의 결과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비해당지역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갖는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면서 갖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에 이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장한 후기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일상과 경험, 그리고 경험 속에 나타난 의식과 인식은 분류와 범주화 과정을 거쳐 크게 세 가지 의미(①취약한 접근성, ②부족하거나 한정된 기회와 정보, ③낮은 인구밀도, 밀착도 높은 지역사회)로 도출되었다. 충분하지 않은 대중교통과 생활 기반 시설의 문제는 이동의 제약에 따른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 무언가 하고 싶은 욕구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쉽게 내려놓게 만들고, 한정된 공간에 갇힌 느낌으로 일상을 살아내게 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생활 인프라 문제의 영향이 2차 자료 비교 분석에서 군집3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유난히 높게 나타난 무기력감의 수치와 연계되지는 않는지, 이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단 대중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측면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간적 한계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진로나 진학에 대한 정보, 다양한 바깥세상에 대한 궁금함과 내가 직접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청소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회와 정보는 단순히 제공 여부에 있지 않고, “직접”에 방점이 있다. 또한 그 기회가 그것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회가 시험 성적이 좋은 일명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쏠릴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기회의 부족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이 같은 경험과 경험 속에서 인식되는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좋은 자연환경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었고, 성적에 대한 경쟁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학교급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청소년기 시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뿐만 아니라, 작은 지역사회에서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이웃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나치게 밀착도 높은 관계들이 얽힌 사회이다 보니, 학교 폭력 피해의 문제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작동되기 어려운 지역의 맥락이 함께 존재한다는 특성도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선별 지원을 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시행의 내용과 방법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제5장에서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육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 분석된 2차 자료 결과와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될 정책육구조사의 내용 설계와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 과제를 도출하기에 앞서 각 단계의 주요 사항을 종합 논의하는 과정에도 본 장에서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 ————— 제5장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지원 욕구 조사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기초분석
- 3. 소결

1. 조사 개요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육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의 군집을 표본 할당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1천 명 표본 확보를 목표로 각 군집에 200명의 표본을 동수 할당하였으며, 각 지역 할당표본 200명을 9세~18세 청소년과 9세~24세 청소년의 인구 비율(6:4)을 적용하여 배분함.
- 조사 내용은 문헌 및 정책 자료, 관련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 앞서 제4장에서 분석된 2차 자료 분석 및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크게 세 가지 영역(①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②일상생활 특성, ③지역문제 인식 및 정책육구)으로 구성하고 연령대를 초·중·고 10대 청소년과 19세~24세 후기청소년으로 나누어 연령대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감하여 문항을 작성함.
- 초·중·고생은 학교 기반으로 표본을 확보하고, 후기청소년은 통신사 가입자 지역과 연령을 확인한 후 발생한 문자 회신을 통해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최종 1,119명의 자료(초등학생 176명, 중학생 281명, 고등학생 224명, 후기청소년 438명)가 수집됨.

1) 조사 추진 및 표본 구성

(1) 조사 추진 과정

앞선 제4장의 말미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앞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비해당지역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인구감소청소년의 특성과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통해 파악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및 경험 등에 기초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육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육구조사에서는 앞서 제1장의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적 방법인 설문조사를 '주(dominant)'로 실시하고, 설문조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결과 해석

* 이 장의 1.과 3.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2.는 송현주 박사가 기초분석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의 구체성을 보완하기 위한 질적 개별면접조사를 ‘부(less dominant)’로 구성하여 실시하
 되, 개별면접조사의 결과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보조적인 자료로만 활용한다.

이 조사는 조사설계부터 설문조사 후속 개별면접조사까지 추진되었다. 먼저 조사의
 설계는 문헌 및 정책자료의 고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설문조사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앞서 제4장에서 분석한 2차 자료 분석의 결과와 초점집
 단면접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조사 내용 구성안을 설계하고, 검토 및 수정 과정을 반복하
 면서 조사 영역의 구성과 문항 개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본설계안을 작성하
 고 조사전문가의 자문과 여러 차례의 업무협의회의를 거쳐 표본설계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표본설계안에 따라 표본 할당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작성된 조사표 초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조사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작업 과정이 반복되었고, 최종 수정안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 정책육구조사 설문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설문 조사표에 따라 웹 기반 조사(web-based survey)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
 밅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웹 설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작동 과정을 테스트한 후 웹 설문
 또한 확정하였다. 확정된 웹 설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말미에 후속으로 이어지
 는 개별 면접조사 참여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희망자 풀을 구성한 후 연구진이 마련한
 참여자 선정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확정된 후 개별면접조사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 정책육구조사의 추진 과정을 하나의 그림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그림
 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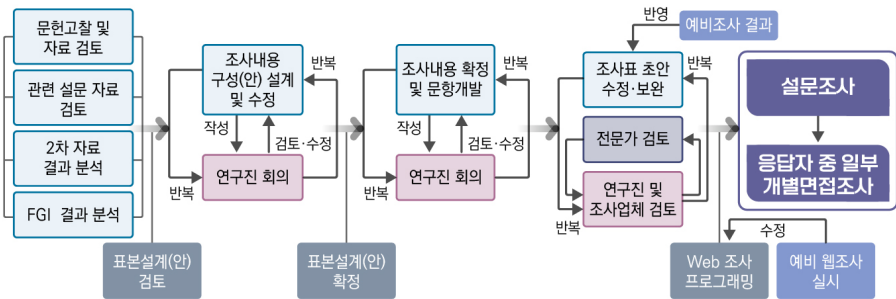


그림 V-1. 정책육구조사 추진 과정

(2) 표본 구성

앞서 제1장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정책육구조사 설문조사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1천 명을 응답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표본 수를 설정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 추출 틀이 부재하여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안으로 비확률표집방법 중 할당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할당표집은 기본적으로 제3장에서 도출된 5개의 군집 유형의 분류를 기본 틀로 하였다. 그리고 목표표본 1천 명을 5개의 군집으로 동수 할당하여 각 200명의 표본을 배분하였다. 각 군집에 배분된 200명의 표본은 9세~18세 청소년, 즉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24세 후기청소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연령대 인구 비례(6:4)를 적용하여 초·중·고생에 120명, 후기청소년 80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V-1. 표본 할당의 기본 틀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농촌, 9세~18세 비중높은 35개 지역	도농복합, 9세~18세 비중 높은 11개 지역	농촌, 19세~24세 비중 높은 7개 지역	농촌, 13세~18세 비중 높은 28개 지역	도농복합 및 도시, 19세~24세 비중 높 은 8개 지역
지역	<인천>강화군 <경기>가평군 <강원>태백시, 홍천군, 황성군, 철원군, 양구군 <충북>옥천군, 영동군 <충남>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울진군 <경남>함안군, 청녕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충남>보령시, 논산시 <전북>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밀양시	<인천>옹진군 <경기>연천군 <강원>영월군, 화천군, 고성군 <충남>청양군 <경북>울릉군	<대구>군위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진안군, 임실군 <전남>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부산>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서구, 남구 <강원>삼척시 <충북>제천시 <충남>공주시
89	35	11	7	28	8

표본의 연령대별 모집단과 표본의 수는 표 V-2 및 V-3과 같다. 먼저 초·중·고 청소년 표본은 표 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집단은 각 군집 지역의 2023년 기준 초·중·고 재학생 수 전체 목표 표본 1천 명 중 600명 표본을 초·중·고 이를 각 군집지역에 120명씩 동수 할당이 되었으며, 이 120명의 표본을 다시 학교급 연령대별로 나누어 초·중·고 학교 급별 표본 학생 수를 확정하였다.

앞서 제3장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 규모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저출산 영향에 따라 전반적으로 9세~12세 청소년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본 연구의 표본 수 배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표본이 가장 적다. 한편, 후기청소년의 모집단은 각 군집에 속하는 인구감소지역의 2023년 기준 19세~24세 인구수의 평균으로 산출된 수치이며, 표본 수는 5개 군집에 80명씩 총 400명이다.

표 V-2. 초·중·고 청소년 모집단 및 표본 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모집단	표본 수	모집단	표본 수	모집단	표본 수	모집단	표본 수
군집1	33,025	37	35,732	40	38,373	43	107,130	120
군집2	23,625	37	25,032	40	27,421	43	76,078	120
군집3	3,251	41	2,987	38	3,240	41	9,478	120
군집4	13,434	36	14,599	40	16,039	44	44,072	120
군집5	16,229	35	16,779	36	22,524	49	55,532	120
계	89,564	186	95,129	194	107,597	220	292,290	600

* 자료 : 모집단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2023년 행정구역별 연령별 학생 수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 (<https://kess.kedi.re.kr/index>, 2024.2.20. 인출)

표 V-3. 후기청소년 모집단 및 표본 수

(단위: 명)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계
모집단	25,448	15,440	12,035	6,612	16,736	76,271
표본수	80	80	80	80	80	400

* 자료 : 모집단 수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자료를 사용하여 산출(<https://jumin.mois.go.kr/>, 2024.2.14. 인출)

(3) 설문조사 후속 면접조사 참여자

앞서 정책육구조사 추진 과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해석을 함께 있어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응답 말미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개별 면접조사에 참여할 의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면접조사는 1:1 방식의 온라인 화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별도로 준비된 질문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측정하였던 정책육구 문항에 대해 참여자들의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사례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참여대상자 범위는 앞서 제4장에서 실시되었던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자, 즉 후기청소년과 생활 경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10명으로 설정하였다. 총 10명의 참여자들은 군집별 2명씩 배정하여 섭외하였고, 한 군집 내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고 성별이 같지 않은 참여자를 우선 구성하여 섭외하였다. 최종 참여자는 표 V-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V-4. 설문조사 후속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구분	거주지	학교급 및 학년	성별	취약계층 해당 여부	거주지 이사계획	지역이동 희망 여부	
군집1	A	충남 태안군	고2	남	×	×	×
	B	경기 가평군	고2	여	×	×	○
군집2	C	충남 논산시	고1	여	×	×	○
	D	경북 안동시	중3	남	조손	×	○
군집3	E	강원 영월군	중3	남	×	○	-
	F	경기 연천군	고2	여	한 부모, 다문화	×	○
군집4	G	전남 구례군	중2	여	다문화	×	○
	H	경북 의성군	고1	남	형제/자매	×	×
군집5	I	강원 삼척시	고1	남	×	○	-
	J	부산 영도구	고1	남	다문화	○	-

2) 조사 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

(1) 정책육구조사를 위한 3단계 과정

앞선 제1장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육구조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실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실증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실증자료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과정과 내용 구성의 체계성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정책욕구조사를 실행하는데 권고되는 사항들이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3단계 과정을 선행연구(Halow & Turner, 1993, p.197)의 틀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그림 V-2에 제시된 3단계의 틀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의 자료들이 그다음 단계에 반영되고 모이는 방식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책욕구조사의 내용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3단계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설명 가능한 탄탄한 이론이나 축적된 선행연구가 부재한 정책 연구에서는 자료를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모아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 결과들을 정책욕구조사를 통해 하나로 묶어 내고, 주요한 사항을 추려 설문 문항으로 개발·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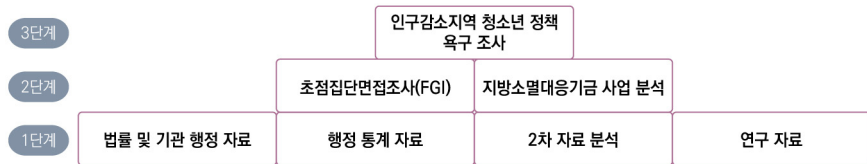


그림 V-2. 정책욕구조사 설계를 위한 3단계 과정

* 자료 : Harlow, K. S. & Turner, M. J. (1993). State units and convergence models_Needs assessment revisited. p.197, Figure 4.Planning information pyramid for needs assessment의 내용 참조하여 재구성

(2)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개발

앞선 1장과 2장에서의 문헌과 정책 동향자료의 고찰, 제2장과 제3장에서 행정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특성 및 청소년인구 규모와 비율, 그리고 제4장에서의 2차 자료 분석과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특성 파악 등의 자료들을 한데 모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책욕구조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측정 문항을

개발·작성하였다.

먼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개인의 생년월일의 인적정보는 조사 대상자가 되는지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웹 기반 설문조사 특성상 응답자 판별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 다른 인적정보는 조사 내용의 첫 번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개인 특성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영역에는 가구 특성(거주형태, 가족유형, 다문화 가정 여부)도 포함된다.

조사 내용을 구성하는 두 번째 영역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특성'으로 여기에는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자존감,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우울 및 불안) 특성과 일상에서의 생활 경험(통학 수단 및 방법, 통학시간, 통학 불편도) 및 인식(지역사회 인구감소, 성장환경, 학교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대응 인식, 지역 긍정 인식)관련 내용이 구성되었다. 이어 세 번째 영역으로는 지역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정책 욕구'로 지역 문제, 거주지 이동계획, 청소년을 위한 개선 사항을 구성하였고, 끝으로 후속 개별 면접조사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문항 등이 추가되었다.

표 V-5. 조사 내용의 구성

구분		구성 문항
응답 대상자 판별		① 거주 지역 89개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② 생년월 ③ 초·중·고 재학 여부에 따른 재학 교급, 학년, 비재학자 상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 특성	① 성별, ② 현 거주지역에서의 출생 여부 ③ 현 거주지에서의 총 거주 기간
	가구 특성	① 거주형태, ② 가족유형, ③ 다문화가정 여부
일상생활 특성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① 일상생활만족도 5개 항목(가족, 집, 친구, 학교*, 동네) * 19세-24세 학교만족도 응답 제외 ② 자존감, ③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④ 우울 및 불안 정도
	생활 경험 및 인식	① 통학 수단 및 방법, 통학 시간, 통학 불편 정도 * 19세-24세 통학/통근 등 ② 지역의 인구감소 특성 제감 6개 항목(초등 4개항목) ③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 인식 6개 항목 ④ 지역의 학교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대응 인식 ⑤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5개 항목
문제 인식 및 정책 욕구	지역 문제 인식	① 문제 인식 여부 및 주요 인식 문제 ② 개선 기대 여부 및 주요 개선 기대 사항
	거주지 이동 계획	①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및 시기 ② 계획 없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 및 시기

구분	구성 문항
지역 청소년을 위한 개선 요구 사항	① 10대 청소년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
후속 개별 면접조사 참여 의사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공유 동의	① 후속 설문조사 참여 희망 여부(* 중·고생 대상) ② 이름과 연락처

(3) 조사 문항 개발

① 조사 문항의 개발 및 확정 과정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한 데 이어 영역별 문항을 작성한 후, 조사표 초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 및 수정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먼저 전문가가 1차 검토는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문항 구성과 측정 척도의 적절성, 응답자를 고려했을 때 난이도 및 문항 수의 적정성이 검토되었다.

검토 결과 초안 구성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정도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두 번째 단계의 검토를 추진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검토에서는 세 가지 방식(①전문가 2차 검토, ②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의 검토, ③예비조사 실시)으로 검토 방식을 확장하고, 시간 제약을 고려하여 같은 기간에 시간 차를 짧게 두고 진행하였다. 전문가 2차 검토와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의 검토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문항 전반의 내용이 검토되었다면, 예비조사는 총 109명의 청소년(초·중고 청소년 51명, 후기청소년 58명)을 대상으로 웹 기반으로 구현된 온라인 설문 응답을 통해 검토된 내용을 양적인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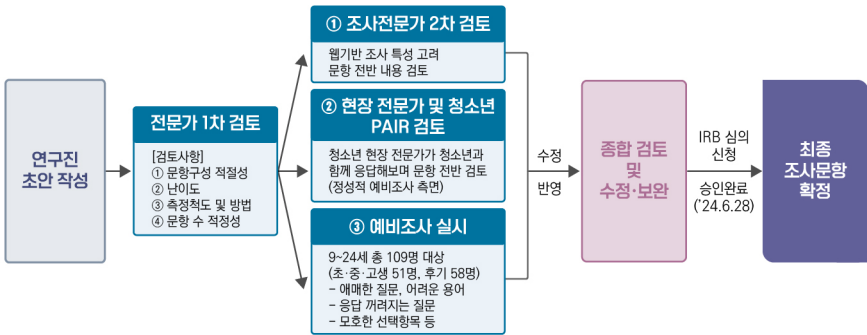


그림 V-3. 조사 문항 개발 과정

검토 방법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세 가지 사항(①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②애매하거나 모호한 선택 항목, ③응답 꺼려지는 문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검토 과정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문제 사항은 없었으나,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남짓 되는 응답자의 경우 주요 문항 전반에 적절히 응답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검토 과정에서 발견되어 조사 대상자 판별 시, 현재 거주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보완된 조사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심의와 승인(승인번호: 202403-HR-고유-003, 통보일: 2024.6.28.)을 거쳐 최종 조사표로 확정되었다.

②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최종 확정된 조사표의 문항은 주문항과 하위 문항을 모두 합하여 총 31개 문항이며, 이는 하나의 문항 내 여러 개의 세부 항목 각각을 응답해야 하는 문항이 적지 않고, 웹기반 온라인 조사로 자료가 수집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30문항 내외로 조정된 결과이다.

조사 문항의 작성은 표 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 문항 중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응답자 판별, 개인 및 가구 특성, 후속 개별면접조사 참여 의사)와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문항(생활 경험 및 인식, 지역 인식, 문제 인식 및 정책욕구)은 ‘연구진 작성’으로 표기하였고, 기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응답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발췌하여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의 경우(거주 형태, 생활 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는 해당 조사 자료를 출처 및 문항 작성의 근거로 기술하였다.

표 V-6.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응답 대상자 판별	현재 거주 지역	D1		연구진 작성
	생년 및 생월	D2		
	초·중·고재학 여부	D3		
	- 학교급 및 학년		D3-1, D3-2	
	- 비재학자 현재 상태		D3-3	
사회	개인특성	성별	Q1	연구진 작성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	현 거주지에서의 출생 여부	Q2	Q2-1	질병관리청(2024),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문79. 수정사용
		현 거주지에서의 총 거주 기간			
	거주형태	Q3			
	가족유형	Q4			
		다문화가정 여부 및 해당 부모	Q5	Q5-1	연구진 작성
일상 생활 특성	생활만족도 및 심마정 서 특성	일상생활만족도	Q6		여성가족부(2023.12),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문2. 일상생활만족 도 12개 항목 중 발체
		자존감	Q7		여성가족부(2023.12),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문13. 자존감 해당 항목 발체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Q8		여성가족부(2023.12),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문9. 의 1) 과 3) 항목 발체
		우울 정도	Q9		여성가족부(2023.12),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문1. 주관적웰빙 측 정 요소 중 우울과 불안 항목 발체 후 10점 척도 를 5점으로 수정
		불안 정도	Q10		
	생활 경험 및 인식	통학/통근 등 수단 및 방법	Q11		정책자료 검토 및 FGI결과 토대로 연구진 작성
		통학/통근 등 시간	Q12		
		통학/통근 등 불편 정도	Q13		
	지역 인식	지역 인구감소 특성 체감(6항목)	Q14		FGI결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 인식(6항목)	Q15		
		지역 학목과 부당행위 대응 인식	Q16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5항목)	Q17		
	문제 인식 및 정책 요구	문제 인식	생활문제 인식 여부 및 주요 문제	Q18	Q18-1
개선 희망 여부 및 주요 요구 사항			Q19	Q19-1	
이동계획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및 시기	Q20	Q20-1	
		계획 없지만 이동 희망 여부 및 시기		Q20-2, Q20-3	
개선 요구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사항	Q21			
후속 개별 면접조사 참여	참여 의사 유무		AG1		연구진 작성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기재		AG1-1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최종 조사표 확정 이후, 웹 기반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7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연령대에 맞춰 두 가지 방식(two-track approach), 즉 학교를 통한 초·중·고 청소년 대상자 수집과 통신사 DB를 활용한 후기청소년 대상자 수집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먼저 초·중·고 청소년들은 5개 군집 지역에 소재한 학교급별 학교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 학교에 협조 안내를 통해 선정·확정하였다. 조사 학교가 선정된 후 학교의 담당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조사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하였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웹 설문조사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는 달리, 후기청소년 대상 조사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조사할 수 있는 마땅한 틀(frame)이 없어 통신사 DB를 활용하였다. 우선 통신사 가입자 DB에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24세 가입자들을 선별하여 조사에 대해 안내와 링크를 송부하였다. 안내를 받은 가입자들이 웹 설문에 접속을 하면, 응답자 판별 문항을 통해 응답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확정 과정을 거치고, 확정된 대상자들이 이어지는 조사 내용에 응답을 완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수집된 자료는 응답 값의 논리적 오류 등이 있는지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해 점검·확인되었고, 최종 1,119명의 자료를 수집된 최종 자료로 확정하였다. 연령대별 최종 표본은 초·중·고 청소년 681명(초등학생 176명, 중학생 281명, 고등학생 224명), 후기청소년 43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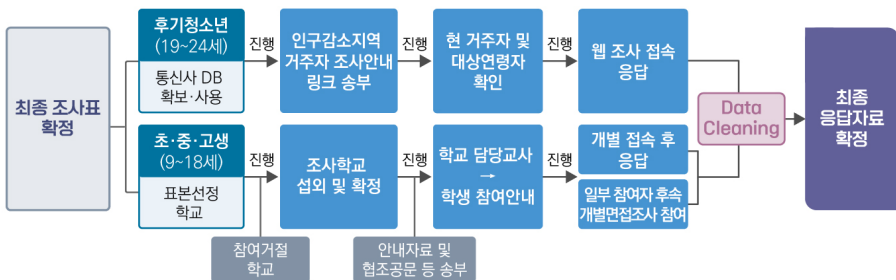


그림 V-4. 자료 수집 방법 및 과정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1,119명의 자료로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비롯하여 연령대별(초·중·고, 후기청소년) 및 5개의 군집 지역별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경험 특성, 그리고 지역 문제 인식 등의 차이를 기술통계 및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 문제의 유형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이동할 계획, 계획은 없으나 지역이동을 희망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특성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경험, 지역 문제 인식 등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한 조사의 주요 문항의 응답 값은 빈도 및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되었고, 연령대별 및 군집별 응답 값의 차이는 세 가지 검증 방법(χ^2 -test, t-test, GLM-test)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 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확인하고, 이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모델 분석이 이루어졌다.

실증모델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 즉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과제 도출에 있어 주요한 근거자료를 산출해 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중요한 실증모델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 문제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다항로짓 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과 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지, 그 여부의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항로짓 모델(Binary Logit Model)이다.

표 V-7.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과 연령대로 구분한 특성 비교 • 지역 군집 간 특성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제5장
일상생활 특성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 생활 경험 및 인식 •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및 차이 검증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χ^2-test, t-test, GLM-test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 문제 유형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 • 개선을 기대하는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항로짓모델 (Multinomial Logit Model) 	제6장
지역이동 계획 및 이동 희망여부 결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 이사계획 유무 영향 요인 •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이동 희망 여부 영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항로짓 모델 (Binary Logit Model) 	

2. 조사 결과 기초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응답자의 57.7%는 인구감소지역의 출생자이며, 군집2(69.7%)와 군집5(65.0%) 지역에 상대적으로 출생자 비율이 높고, 전체적으로 남성(48.9%)과 여성(51.1%)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후기청소년의 경우 여성(58.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상생활이나 생활 경험 및 의식에 있어 연령대별, 5개 군집 지역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① 거주지역 및 일상생활만족도 초·중·고 청소년이 후기청소년보다 높고, 군집5에서 가장 높음. 일상 스트레스와 무기력, 우울 및 불안감은 후기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군집4에서 가장 높음.
 - ② 전체의 87.5%가 지역의 인구감소를 체감, 후기청소년(92.7%)이 상대적으로 더 체감을 높음. 초·중·고 청소년의 28.2%가 인근 학교통합을 경험, 군집4(34.6%)와 군집5(48.3%)에서 평균을 크게 상회함.
 - ③ 5점 척도로 측정된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체 평균 3.11점,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4.05점으로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④ 전체 응답자의 49.6%가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1순위~3순위까지 복수 응답으로 측정한 인식된 문제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초·중·고 청소년은 '놀이와 활동공간의 부족'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 군집2와 군집3, 군집5의 후기청소년은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
 - ⑤ 전체의 32.9%, 후기청소년이 54.3%, 특히 군집3의 후기청소년 60.8%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이 있으며, 이사계획은 없어도 지역이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의 54.5%, 후기청소년 66.0%이고, 군집1(71.7%)과 군집5(74.4%)의 후기청소년 이동 희망 비율은 더 높아 향후 이들 지역의 청소년 유출은 높아질 가능성 있음.

1) 응답자 특성 분석

(1) 연령대별 응답자 특성 비교

앞서 자료수집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체 분석 대상자 수는 1,119명이고, 초·중·고 청소년은 681명(초등학생 176명, 중학생 281명, 고등학생 224명)이고, 19세 이상~24세 후기청소년은 438명이다. 당초에 목표로 설정했던 1천 명을 119명 초과하여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6:4의 연령대별 인구비례를 적용하였을 때의 초·중·고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의 비율이 흐트러짐 없이 유지된다.

성별에 대해서는 표본할당 시, 5:5의 기준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대략 5:5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남성 48.9%, 여성 51.1%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다만, 후기청소년에서는 여성(58.0%)의 비율이 남성(42.0%)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비율에 있어서는 반대로 남성(58.0%)이 여성(42.0%)의 비율보다 높다.

학년은 초등학생의 경우 6학년(43.8%), 중학생은 3학년(41.6%), 고등학생은 1학년(63.4%)의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년들에 비해 높다. 전체의 57.7%가 거주지역에

서 출생하다 보니,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져 후기청소년의 82.9%, 고등학생의 81.7%가 이에 해당한다. 후기청소년의 37.0%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26.2%는 취업자, 24.7%는 진학 또는 취업준비자이며, 12.1%는 쉬고 있거나 육아 등의 상태에 있다.

표 V-8. 연령대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특성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후기청소년	연령대 간 차이 검증 (χ^2 -test)
전체		1,119 (100.0)	176 (100.0)	281 (100.0)	224 (100.0)	438 (100.0)	
지역 군집	군집1	233(20.8)	18.2	15.7	20.5	25.4	65.930***
	군집2	221(19.8)	23.8	12.8	19.2	22.8	
	군집3	209(18.7)	30.7	24.9	15.2	11.6	
	군집4	213(19.0)	16.5	20.3	21.0	18.3	
	군집5	243(21.7)	10.8	26.3	24.1	21.9	
성별	남성	547(48.9)	52.3	50.2	58.0	42.0	16.790**
	여성	572(51.1)	47.7	49.8	42.0	58.0	
학년	1(초등4)	244(35.8)	20.4	23.5	63.4	-	131.949***
	2(초등5)	226(33.2)	35.8	34.9	29.0	-	
	3(초등6)	211(31.0)	43.8	41.6	7.6	-	
출생지 거주 여부	해당	646(57.7)	47.2	58.0	58.5	61.4	10.558*
	비해당	473(42.3)	52.8	42.0	41.5	38.6	
총 거주 기간	5년 미만	123(11.0)	18.8	6.4	8.0	12.3	88.177***
	5년~10년 미만	150(13.4)	22.7	23.5	10.3	4.8	
	10년 이상	846(75.6)	58.5	70.1	81.7	82.9	
현재 상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162(37.0)	-	-	-	37.0	-
	취업자	115(26.3)	-	-	-	26.2	
	진학 또는 취업 준비	108(24.7)	-	-	-	24.7	
	쉬고 있음/육아/기타	53(12.0)	-	-	-	12.1	
거주 형태	가족과 함께 거주	957(85.5)	98.3	93.6	73.2	81.5	79.759***
	하숙, 자취, 기숙사	147(13.1)	0.0	5.3	25.9	16.9	
	그 외	15(1.4)	1.7	1.1	0.9	1.6	
가족 구성	양부모	783(70.0)	79.0	73.3	67.0	65.8	58.961***
	한부모 및 조손	237(21.2)	19.3	24.2	25.0	18.0	
	1인 및 기타	99(8.8)	1.7	2.5	8.0	16.2	
다문화 가구	해당	123(11.0)	10.2	22.4	14.3	2.3	74.053***
	비해당	996(89.0)	89.8	77.6	85.7	97.7	

거주하는 형태는 85.5%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만, 고등학생의 25.9%, 후기청소년의 16.9%는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을 한다. 가족 구성도 70%는 양부모 가구이고, 21.2%는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인데, 중학생의 24.2%, 고등학생의 25.0%가 이에 해당하며, 후기청소년의 16.2%는 1인 가구 및 기타에 해당한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비율은 전체의 11.0% 정도 되는데, 중학생의 경우 이보다 높은 22.4%, 고등학생은 14.3%가 해당한다.

(2) 5개 군집별 특성 비교

앞서 연령대별 응답자 비교에 이어 여기에서는 5개 군집 지역별 특성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표본 할당 배분 시, 5개 군집에 목표표본 1천 명을 동수 할당하였으나, 목표표본을 초과하여 수집된 전체 응답자의 분포는 동수가 되지 않는다. 군집5 지역(243명)이 가장 많고, 군집3(209명) 지역이 가장 적다.

성별의 비율은 군집3 지역과 군집5 지역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각각 53.1%와 56.0%로 다소 높고, 군집2 지역은 여성이 비율이 62.0%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학교급의 경우 군집3 지역의 후기청소년 비율(24.4%)이 다른 군집 지역에 비해 낮는데, 이는 절대 인구수가 적은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 등 섬 지역 및 강원도 접경지역에 위치하는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신사 SKT 가입자로 한정된 대상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풀(pool)이 적은 탓으로 판단된다.

전체 평균 지역 출생자 비율은 군집2 지역(69.7%)이 가장 높아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도 81.9%나 된다. 군집3 지역의 경우, 출생자 비율(43.5%)이 가장 낮아 10년 이상 거주자 비율(65.1%)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군집별 후기청소년의 현재 상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비율은 군집5 지역(53.1%)에서 가장 높는데, 이 군집에 속한 지자체들이 부산과 대구광역시 자치구 5개와 관내 대학이 있는 공주시, 삼척시가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군집3(41.2%) 지역이 높는데 이는 인천 옹진군과 강원 화천군과 고성군 등 접경지역 직업 군인의 비율이 높은 측면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학 및 취업준비자는 군집2 지역(30.0%)이 상대적으로 높고, 쉬고 있거나 육아 등의 상태에 있는 비율은 군집1 지역(14.4%)의 비율이 다른 군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거주 형태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군집2 지역에서 하숙, 자취, 기숙사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20.8%)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이며, 가족 구성에서는 군집3(25.4%) 지역과 군집4 지역(26.8%)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은 농촌지역인 군집1 지역(13.7%)과 군집4 지역(13.1%)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 지역인 군집5 지역(5.8%)이 가장 낮다.

표 V-9. 5개 군집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특성	전체	지역 군집					군집 간 차이검증 (χ^2 -test)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전체	1,119 (100.0)	233 (100.0)	221 (100.0)	209 (100.0)	213 (100.0)	243 (100.0)		
성별	남성	547(48.9)	47.2	38.0	53.1	49.8	56.0	17.160
	여성	572(51.1)	52.8	62.0	46.9	50.2	44.0	***
학교급	초등학생	176(15.7)	13.7	19.0	25.8	13.6	7.8	65.930 ***
	중학생	281(25.1)	18.9	16.3	33.5	26.7	30.5	
	고등학생	224(20.0)	19.8	19.5	16.3	22.1	22.2	
	후기청소년	438(39.2)	47.6	45.2	24.4	37.6	39.5	
출생지 거주 여부	해당	646(57.7)	58.8	69.7	43.5	49.8	65.0	41.123
	비해당	473(42.3)	41.2	30.3	56.5	50.2	35.0	***
총 거주 기간	5년 미만	123(11.0)	8.1	5.9	17.7	11.3	12.3	24.770 ***
	5년~10년 미만	150(13.4)	11.6	12.2	17.2	11.7	14.4	
	10년 이상	846(75.6)	80.3	81.9	65.1	77.0	73.3	
현재 상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162(37.0)	33.4	36.0	21.6	33.8	53.1	26.011 **
	취업자	115(26.3)	23.4	23.0	41.2	35.0	17.7	
	진학/취업 준비	108(24.7)	28.8	30.0	23.5	21.2	17.7	
	쉬고 있음/육아/기타	53(12.0)	14.4	11.0	13.7	10.0	11.5	
거주 형태	가족과 함께 거주	957(85.5)	85.8	78.7	89.5	86.9	86.8	18.689 **
	하숙, 자취, 기숙사	147(13.1)	12.0	20.8	8.6	12.2	11.9	
	그 외	15(1.4)	2.2	0.5	1.9	0.9	1.3	
가족 구성	양부모	783(70.0)	73.0	71.5	66.0	66.7	72.0	17.269 **
	한부모 및 조손	237(21.2)	21.0	16.7	25.4	26.8	16.9	
	1인 및 기타	99(8.8)	6.0	11.8	8.6	6.5	11.1	
다문화 가구	해당	123(11.0)	13.7	10.9	12.0	13.1	5.8	9.800 **
	비해당	996(89.0)	86.3	89.1	88.0	86.9	94.2	

2)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일상생활 특성 분석

(1)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앞서 연령대 및 5개 군집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비교한 것에 이어 여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만족도 및 심리·정서적 측면의 특성을 연령대와 군집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하 제시한 차이 검증의 결과는 할애할 수 있는 보고서 지면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분석 결과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① 거주지 및 일상생활만족도

‘내가 사는 동네 및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매우 만족한다)로 측정된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3.64점 정도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초·중·고 청소년(3.94점)의 만족도가 후기청소년(3.18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5개 군집별로 비교해 보면, 군집5 지역(3.84점)과 군집3 지역(3.75점)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군집1(3.50점) 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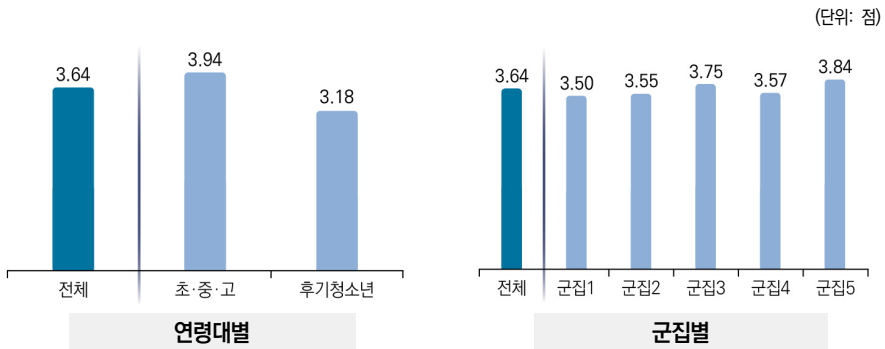


그림 V-5. 거주지역 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에 이어 ‘전반적인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점수도 동일한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전체 평균은 3.88점으로 거주지역 만족도(3.64점) 보다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청소년(4.11점)으로 후기청소년(3.51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군집별로 비교해 보면, 거주지역 만족도 결과와 같이, 군집3 지역이(3.98점)과 군집5 지역

(3.98점)이 평균보다 높고, 군집1 지역(3.77점)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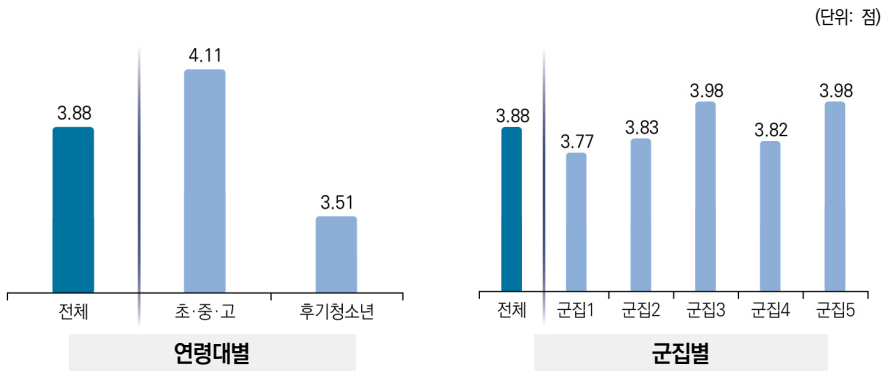


그림 V-6. 일상생활만족도

② 심리·정서 특성 : 일상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일상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나요?'라고 질문하고 경험의 빈도를 4점 척도(1. 그런 적 없다, 2. 한두번 경험했다, 3. 가끔 경험했다, 4. 자주 경험했다)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2.93점 정도이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후기청소년(2.9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군집별로 비교해 보면, 앞서 거주지역 만족도나 일상생활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던 군집1 지역(3.00점)의 스트레스 경험 빈도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던 군집5 지역(2.85점)이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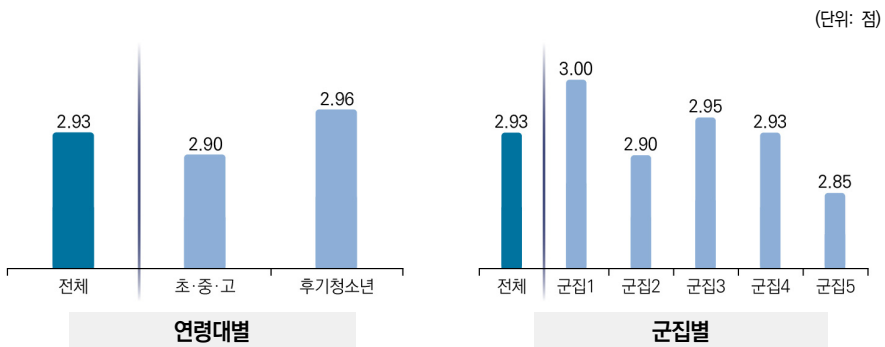


그림 V-7. 일상 스트레스

일상의 스트레스와 같은 방식으로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를 느낀다’를 측정한 일상에서의 무기력감의 경우도 전체 평균(2.58점)보다 후기청소년(2.71점)의 점수가 더 높다. 그러나 군집별 분석에서는 군집2 지역(2.67점)과 군집1 지역(2.66점)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군집2 지역의 무기력감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은 앞선 제4장의 2차 자료의 무기력감 분석의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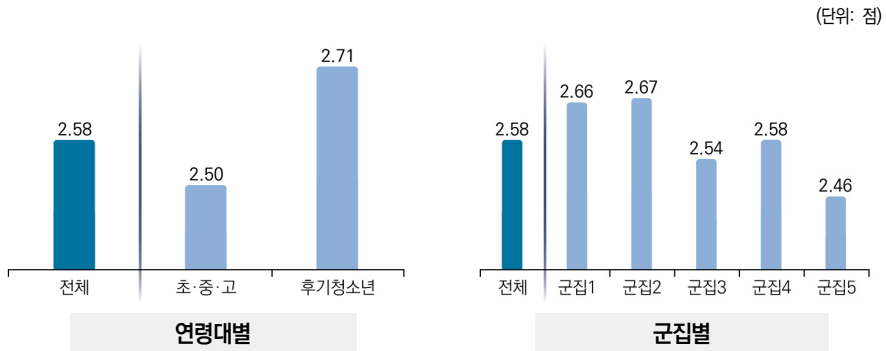


그림 V-8. 일상 무기력감

③ 심리·정서 특성 : 우울 및 불안감

이어 일상에서의 우울감을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나요?’라는 질문으로 측정하고, 5점 척도(1.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5.매우 우울했다)로 측정된 결과,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없고, 전체 평균(2.40점)보다 군집4 지역(2.54점)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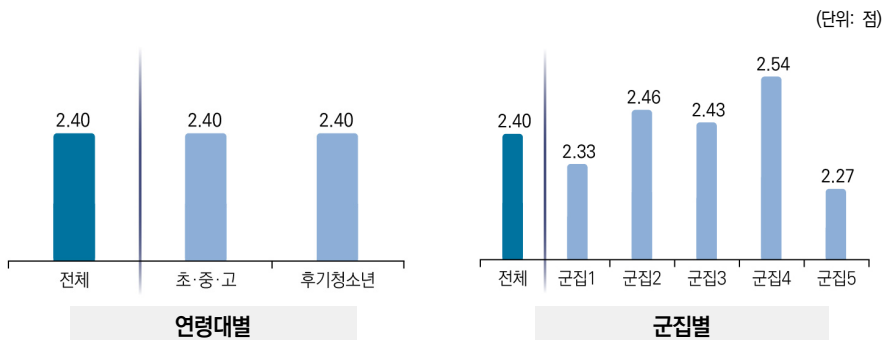


그림 V-9. 우울감

일상의 스트레스와 같은 방식으로 불안감을 측정된 결과, 후기청소년(2.40점)이 전체 평균(2.3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집별로 비교해보면, 군집4 지역(2.50점)과 군집2 지역(2.43점)이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군집2의 경우 앞서 분석된 우울감은 물론,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반면, 거주지 만족도나 일상생활만족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속한다. 이는 군집2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정서 측면에서 다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후기청소년이 초·중·고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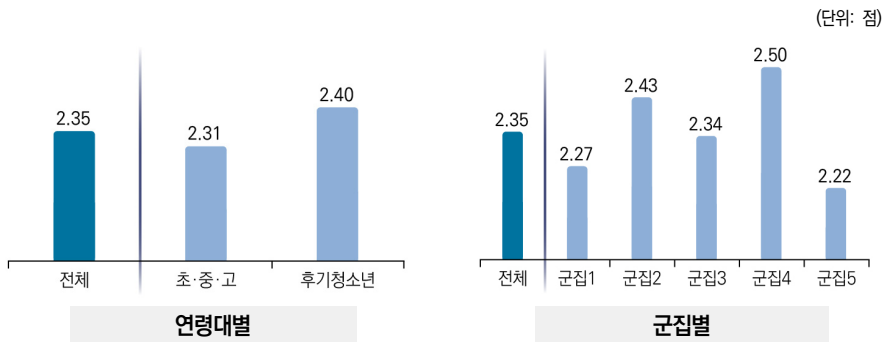


그림 V-10. 불안감

(2) 생활 경험 및 인식

① 통학/통근 수단 및 소요 시간, 불편 정도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에 이어 여기에서는 생활 경험 및 인식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였다. 앞서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취약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과 접근성의 문제가 생활의 경험 범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에, 통학 또는 통근 수단 및 소요 시간부터 분석하고 표 V-10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이동 수단은 전체 수준에서 걸거나(28.6%) 이웃의 차(24.8%)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 초·중·고 청소년은 학교스쿨버스(23.5%) 비율이 3순위가 되고 후기청소년은 대중교통(36.3%)이 1순위를 차지한다. 통학 소요 시간은 청소년은 10분 이내가 53.6%, 후기청소년은 절반가량(50.9%)이 10분~30분 이내 소요된다.

표 V-10. 통학/통근 이동 수단 및 소요시간

(단위: 명, %, 점)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 간 차이 검증 (χ^2 -test)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동수단 ^{주1)}	①	28.6	31.7	23.7	28.8	24.6	33.3	32.6	36.4	28.0	18.2	17.7	19.6	26.8	31.6	18.8	35.4	49.0	14.6
	②	2.2	2.2	2.3	3.0	2.5	3.6	1.4	1.7	1.0	2.4	1.9	3.9	2.8	3.8	1.3	1.6	1.4	2.1
	③	21.6	12.2	36.3	21.9	23.8	19.8	19.0	5.8	35.0	13.9	10.8	23.5	13.6	5.3	27.5	37.4	15.6	70.8
	④	14.3	23.5	0.0	6.0	11.5	0.0	10.4	19.0	0.0	31.6	41.8	0.0	19.2	30.8	0.0	6.6	10.9	0.0
	⑤	7.2	0.0	18.5	11.2	0.0	23.4	5.9	0.0	13.0	8.1	0.0	33.3	8.9	0.0	23.8	2.5	0.0	6.3
	⑥	24.8	29.1	18.3	27.9	36.1	18.9	30.3	36.4	23.0	25.4	27.8	17.6	26.8	26.3	27.5	14.8	21.1	5.2
	⑦	1.0	1.2	0.7	0.9	0.8	0.9	0.5	0.8	0.0	0.5	0.0	2.0	1.9	2.3	1.3	1.2	2.0	0.0
통학, 통근시 소요시간 ^{주2)}	①	40.2	53.6	19.4	41.6	56.6	25.2	38.5	52.9	21.0	43.5	51.3	19.6	42.3	57.9	16.3	35.8	50.3	13.5
	②	42.2	36.6	50.9	41.6	29.5	55.0	42.5	34.7	52.0	42.6	39.9	51.0	39.9	34.6	48.8	44.0	42.2	46.9
	③	12.5	7.2	20.8	12.0	11.5	12.6	15.8	9.1	24.0	10.0	7.0	19.6	8.5	3.0	17.5	15.6	6.1	30.2
	④	5.1	2.6	8.9	4.7	2.5	7.2	3.2	3.3	3.0	3.8	1.9	9.8	9.4	4.5	17.5	4.5	1.4	9.4

* 주1: ① 걸어서, ② 자전거로, ③ 대중교통으로, ④ 학교 스킨버스(초·중·고생), 내 차로(후기청소년), ⑤ 부모님의 차로, ⑥ 이웃의 차로, ⑦ 기타

* 주2: ① 10분 이내, ② 10분~30분 이내, ③ 30분~1시간 이내, ④ 1시간 이상, 초·중·고생의 경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후기청소년의 경우 '집에서부터 주로 이동하는 곳(학교/직장/학원 등)까지'로 측정하였음.

이어 통학이나 통근이 어느 정도 불편한가를 5점 척도(1. 전혀 불편하지 않다~5. 매우 불편하다)로 측정하고 연령대 및 군집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2.61점)에 비해 후기청소년이 통학/통근의 불편도(3.11점)가 높고, 군집별로는 농촌지역인 군집1 지역과 군집4 지역이 같은 2.69점으로 높다.

한편,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지역은 군집3 지역(2.47점)인데, 앞서 표 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3 지역의 초·중·고 청소년의 학교스쿨버스 이용률(41.8%)이 전체 평균(23.5%)보다 크게 높으며, 내 차를 이용하는 후기청소년의 비율(33.3%)도 전체 평균(18.5%)보다 높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통학/통근의 불편을 학교스쿨버스와 자차 이용으로 일정 부분 해소된 상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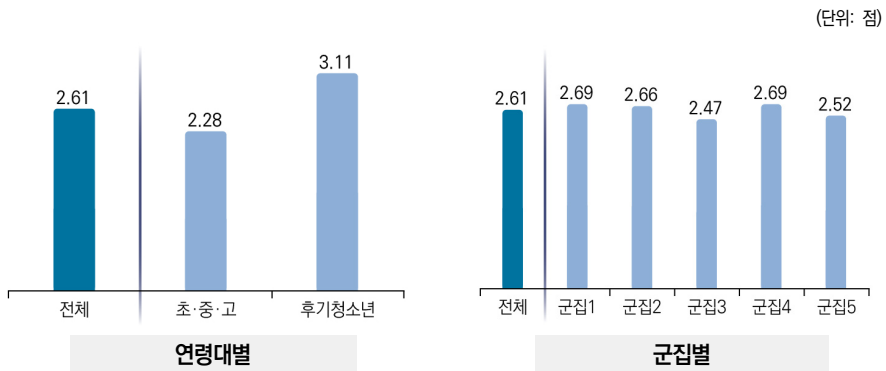


그림 V-11. 통학/통근 불편도

②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 관련 경험 및 인식

일상생활의 통학/통근에 이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체감하는지와 학교통합의 경험 여부를 분석하고, 표 V-11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청소년의 87.5%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생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고 응답하였고, 초·중·고 청소년(84.1%)보다 후기청소년(92.7%)의 체감도가 더 높다. 군집1(93.1%)은 전체 평균보다 높는데, 이 지역의 후기청소년의 체감도는 97.3%에 달해, 거의 모든 후기청소년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 학교통합의 경험은 전체 평균 23.9%이고, 군집4(32.9%) 지역과 군집5(36.2%) 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11.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 및 인근 학교과 통합 경험

(단위: %)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 간 차이 검증 (χ^2 -test)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 여부	①	87.5	84.1	92.7	93.1	89.3	97.3	88.2	83.5	94.0	85.2	82.9	92.2	87.8	83.5	95.0	83.1	82.3	84.4	12.163 **
	②	12.5	15.9	7.3	6.9	10.7	2.7	11.8	16.5	6.0	14.8	17.1	7.8	12.2	16.5	5.0	16.9	17.7	15.6	
인근 학교와 통합 경험 여부	①	23.9	28.2	17.1	13.3	13.9	12.6	17.2	20.7	13.0	19.1	20.9	13.7	32.9	34.6	30.0	36.2	48.3	17.7	56.832 ***
	②	72.6	71.8	73.7	82.4	86.1	78.4	79.6	79.3	80.0	75.1	79.1	62.7	65.7	65.4	66.3	60.5	51.7	74.0	
	③	3.6	-	9.1	4.3	-	9.0	3.2	-	7.0	5.7	-	23.5	1.4	-	3.8	3.3	-	8.3	

* 주1: 초·중·고생의 경우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후기청소년의 경우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사항 없음(현 지역에서 학교 다닌적 없음)으로 측정하였음.

* 주2: 초·중·고생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후기청소년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음.

③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6개 항목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에 이어 여기에서는 6가지 항목(①교육여건 부족, ②진학정보 부족, ③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④직접 체험활동 부족, ⑤문화시설 부족, ⑥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으로 구성된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연령대 및 군집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6개 항목의 전체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문화시설의 부족(3.11점)과 교육여건 부족(3.02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통의 수준을 넘고, 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2.79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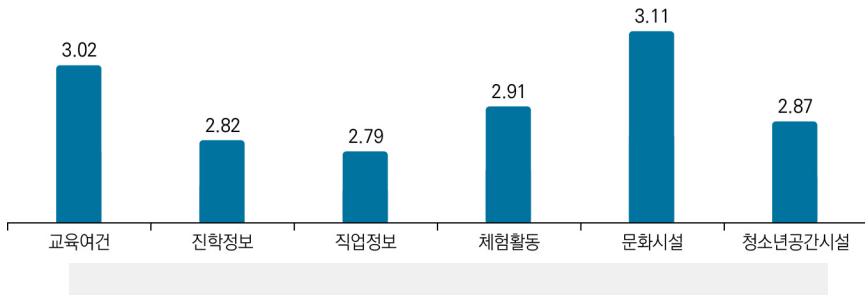


그림 V-12.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 6개 항목 비교

이어 6개 항목의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을 항목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먼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를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교육여건 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체 평균 점수는 3.02점 정도이다.

연령대별 비교를 해보면, 전체 평균에 비해 후기청소년의 부정적 인식(3.58점)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군집별 비교에서는 농촌지역인 군집4 지역(3.26점)과 군집1 지역(3.24점)이 교육여건 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역시 자치구들이 포함된 군집5 지역(2.61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일명 사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접근성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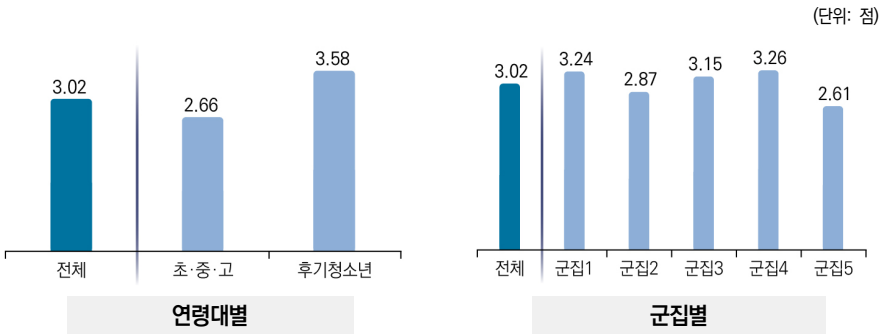


그림 V-13.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교육여건 부족

교육여건 부족에 이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로 측정된 진학정보 부족의 분석 결과, 교육여건 부족과 같은 경향성을 갖는 결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점수(2.93점)에 비해 후기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수준(3.56점)이 더 높고, 군집별로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군집1 지역(2.98점)과 군집4 지역(2.92점)의 부정적 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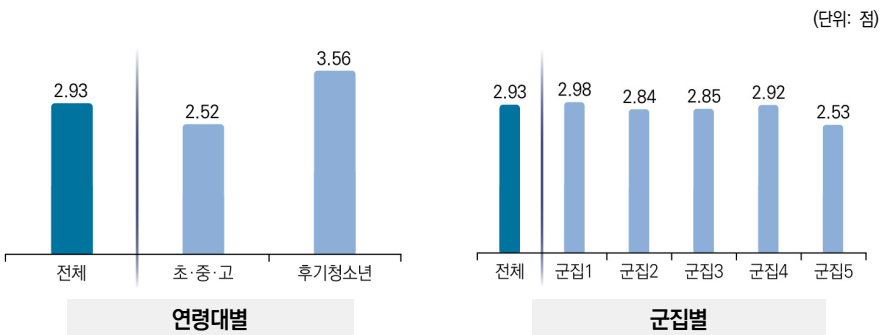


그림 V-14.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진학정보 부족

진학정보 부족에 이어 '진로 및 직업탐색 정보를 얻기 어렵다'를 동일한 5점 척도로 측정된 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의 분석 결과, 전체 평균 점수(2.79점)에 비해 후기청소년의 점수(3.39점)가 더 높다. 군집별 비교에서는 군집1 지역(2.96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군집5 지역(2.53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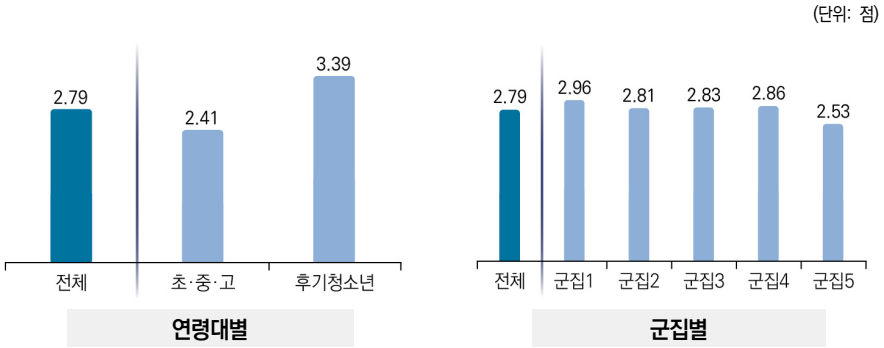


그림 V-15.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

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에 이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가 없다’를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2.91점)에 비해 후기청소년의 점수(3.68점)가 더 높다. 이는 제4장의 후기청소년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청취되고 분석된 바와 같이, 초·중·고 청소년에 비해 후기청소년이 지나는 10대 청소년기의 직접 체험활동 경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현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군집별 비교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군집1 지역(3.12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군집5 지역(2.53점)이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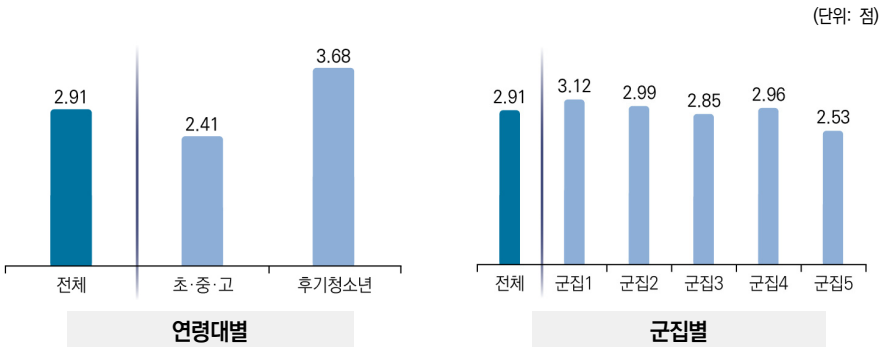


그림 V-16.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직접 체험활동 부족

직접 체험활동의 부족에 이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다’를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앞의 측정 항목들에 비해 평균 점수(3.11점)가 다소

높다. 연령대별 비교에서 후기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점수(3.82점)가 전체 평균보다 더 높고, 군집별 비교에서는 군집4 지역(3.32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 점수를 보이고, 군집5 지역(2.79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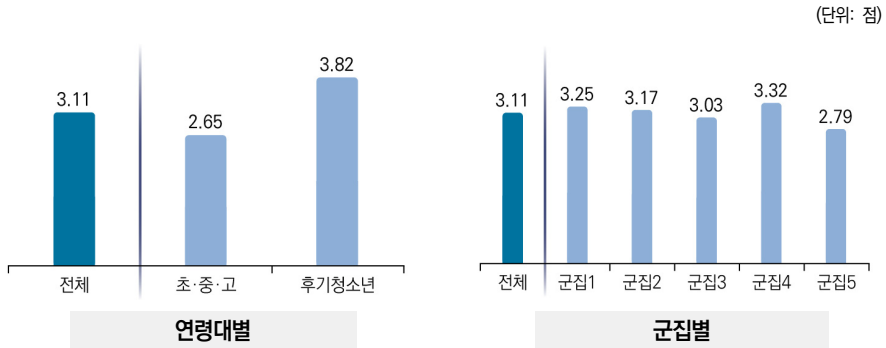


그림 V-17.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문화시설 부족

문화시설 부족에 이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를 앞의 항목들과 같은 5점 척도로 측정된 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의 분석 결과, 전체 평균 점수(2.87점)에 비해 후기청소년의 점수(3.36점)가 더 높다. 군집별 비교에서는 군집4 지역(3.08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군집2 지역(2.96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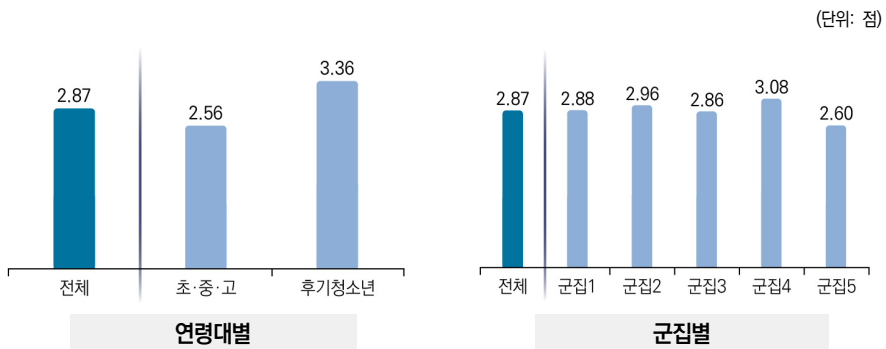


그림 V-18.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 : 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

④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5개 항목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6가지 항목의 부정적 인식 수준에 이어 여기에서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5가지 항목(①익숙하고 편안함, ②편한 이웃과 지인이 많음, ③경제 수준이 유사한 친구들이 많음, ④공기 맑고 자연환경이 좋음, ⑤거주지역에서의 혜택이 많음)으로 구성하고,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보다 5개 항목의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의 평균 점수가 더 높다. 각 항목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거주지역이 익숙하고 편안함(4.05점)과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좋음(4.01점)이 4점 이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거주지역에서의 혜택이 많음(3.36점)이 가장 낮다.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좋다는 의견은 제4장의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꼽았던 사항이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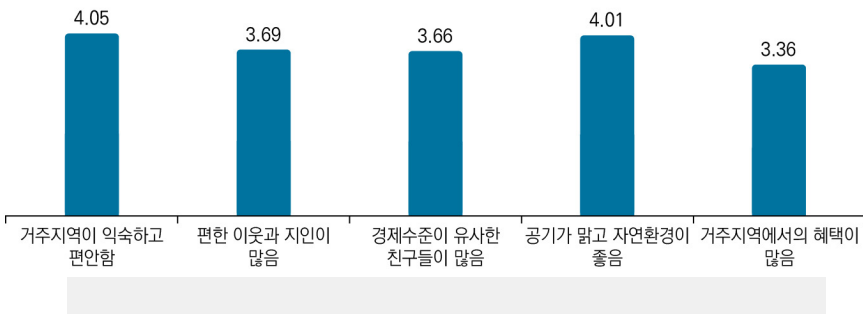


그림 V-19.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5개 항목 비교

이어 5개의 측정 항목별로 나누어 연령대 및 군집별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이어서 익숙하고 편안하다’로 측정한 거주지역의 익숙하고 편안함의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4.05점 정도로 높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초·중고 청소년(4.16점)이 후기청소년(3.88점)이나 전체 평균(4.05점)에 비해 높은 긍정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비교에서는 군집2 지역(4.11점)이 가장 높고, 군집3 지역(3.99점)이 가장 낮은 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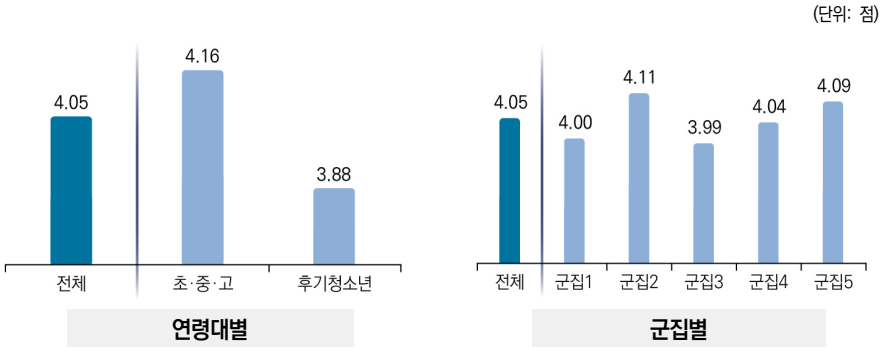


그림 V-20.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익숙하고 편안함

이어 '오래 알고 지낸 편한 이웃과 아는 사람들이 많다'를 동일한 5점 척도로 측정한 편한 이웃과 지인이 많음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3.69점으로 앞서 살펴본 익숙하고 편안함(4.05점)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연령대별 비교에서 초·중·고 청소년(3.91점)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군집별 비교에서는 군집4 지역(3.89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군집5 지역(3.51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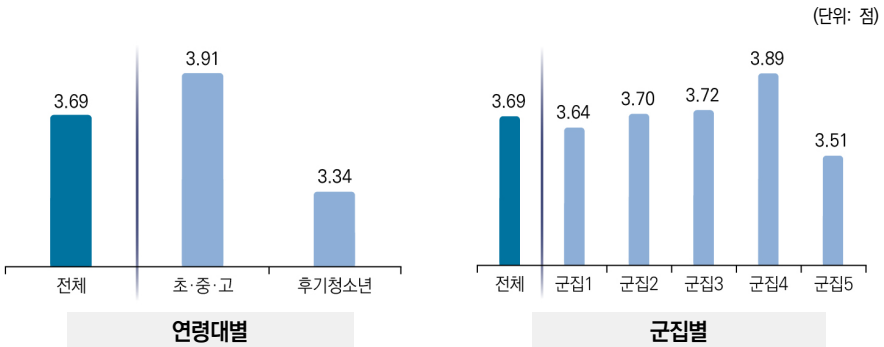


그림 V-21.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편한 이웃과 지인이 많음

다음으로 '나와 내 친구들은 대체로 사는 수준이 비슷하다'를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경제적으로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이 많음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3.66점이고, 연령대별 비교에서 초·중·고 청소년(3.77점)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군집별 비교에서

는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1점~2점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군집2 지역(3.62점)만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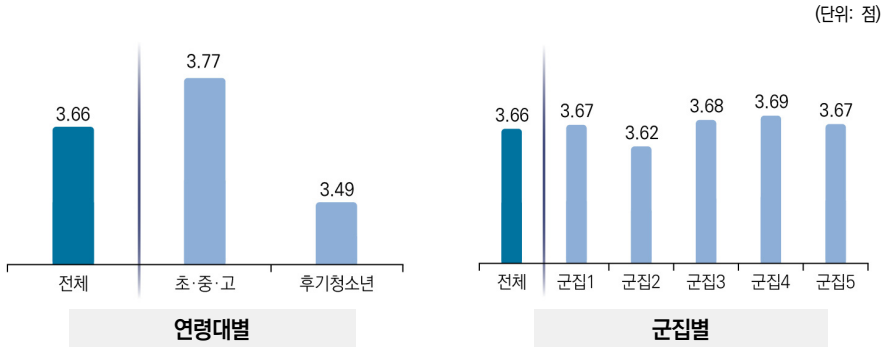


그림 V-22.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경제적으로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이 많음

이어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좋다'를 동일한 5점 척도로 측정한 공기 맑고 자연환경 좋음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 청소년(4.11점)이 전체 평균(4.01점)보다 높고, 군집 별 비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군집4 지역(4.28점)과 군집3 지역(4.17점)이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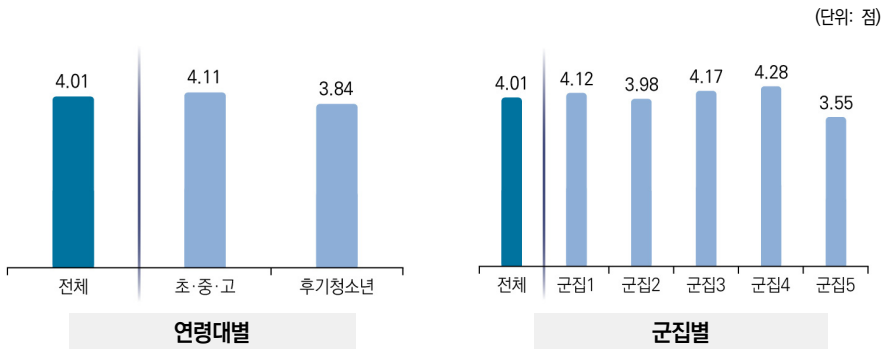


그림 V-23.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공기 맑고 자연환경 좋음

이어 '이 지역에 살고 있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를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앞선 4개의 항목과는 같이

초·중·고 청소년의 점수(3.71점)가 후기청소년의 점수(2.96점)에 비해 높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청소년이 인지하는 지원 혜택이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통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해당 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므로 초·중·고 청소년의 점수가 후기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군집별 비교에서는 군집4 지역과 군집3 지역이 3.64점으로 동일한 점수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군집1 지역(3.40점)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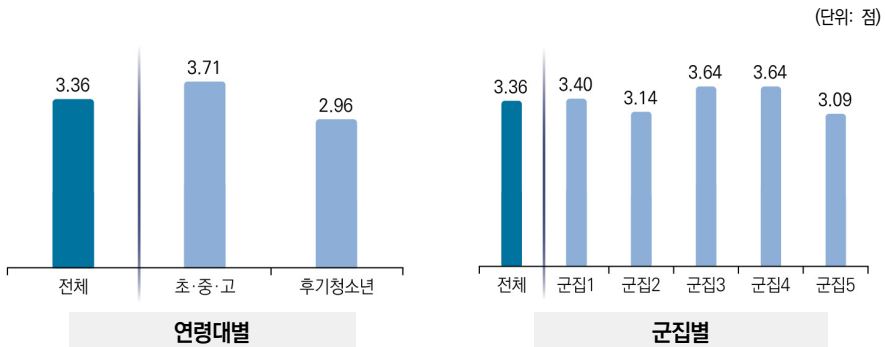


그림 V-24.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받을 수 있는 혜택 있음

(3) 지역 문제 인식 및 이동 계획

① 지역 문제 인식 여부 및 인식된 주요 문제

생활 경험 및 인식 특성에 이어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문제와 지역이동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지역문제 인식은 ‘현재 사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로 질문하고, 이어 인식되는 문제의 내용에 대해 초·중·고 청소년들은 9개(①불편한 대중교통, ②학교 수업 어려움, ③가족관계, ④친구 관계, ⑤방과 후 할 것 없는 환경, ⑥진로·직업 정보 부족, ⑦체험 경험의 부족, ⑧놀이와 활동공간 부족, ⑨기타), 후기청소년들은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2가지(⑩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 ⑪청년지원 인프라 부족)가 더 추가된 11개 항목 중 우선순위의 3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복수 응답 비율을 산출하였다.

지역 문제 인식 여부와 인식된 지역 문제의 내용이자 유형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V-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의

49.6%로 절반에 가까우며, 초·중고 청소년(36.6%)에 비해 후기청소년(69.9%)의 문제 인식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군집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군집1 지역(57.1%)과 군집4 지역(54.5%), 군집2(53.4%) 지역은 전체 평균(49.6%)보다 높고, 군집5 지역(35.0%)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인식된 지역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수준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①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61.4%)이다. 이 항목에 대한 초·중고 청소년의 응답률은 62.7%, 후기청소년의 60.5%이다. 군집별로는 군집5 지역(49.4%)을 제외한 군집1 지역부터 군집4 지역까지 모두 전체 평균을 상회 하는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초·중고 청소년에서 더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바로 '⑧놀이와 다양한 활동공간의 부족'이다. 이 항목을 지역 문제로 인식하는 초·중고 청소년 평균 비율이 75.1%에 이른다. 특히 군집4 지역(81.8%)과 군집1(76.8%) 지역에서는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다. 이 항목에 대한 후기 청소년의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5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중교통 인프라와 같은 인구감소지역 공통의 취약한 생활 기반의 문제 중심의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10대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즉 '⑧놀이와 다양한 활동공간의 부족'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후기청소년의 경우 전체 평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항목은 앞서 살펴본 전체 응답률과 다르지 않은 '①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60.5%)이다. 그러나 이 또한 군집별로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인 군집1 지역(66.2%)과 군집4 지역(70.5%)에서는 전체 후기청소년의 평균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지만, 군집2 지역과 군집3 지역, 군집5 지역에서는 다른 항목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 항목은 바로 '⑨내가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이다.

'⑨내가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 항목에 대한 군집2 지역(60.6%)의 응답률은 대중 교통 불편에 응답한 전체 후기청소년이 응답률과 같은 수준이다. 군집3 지역(62.2%)과 군집5 지역(65.0%)의 응답률은 군집2 지역(60.6%)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물론 전체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원하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후기청소년의 문제 인식 비율이 56.2%로 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기청소년 전체 수준에서만 보았을 때에는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기 쉬우나, 군집에 따라 일자리 문제를 더 우선으로 인식하는 후기청소년들이 많은 지역도 있는 것이다.

표 V-12. 지역 문제 인식 및 주요 인식 문제

(단위: %)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 간 차이 검증 (χ^2 -test)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제 유무	있음	49.6	36.6	69.9	57.1	45.9	69.4	53.4	38.8	71.0	49.3	41.8	72.5	54.5	41.4	76.3	35.0	17.0	62.5	29.289
	없음	50.4	63.4	30.1	42.9	54.1	30.6	46.6	61.2	29.0	50.7	58.2	27.5	45.5	58.6	23.8	65.0	83.0	37.5	***
인식된 문제 사항 (1+2+3 순위)	①	61.4	62.7	60.5	63.2	58.9	66.2	64.4	78.7	54.9	63.1	65.2	59.5	63.8	56.4	70.5	49.4	48.0	50.0	94.064 ***
	②	3.2	6.0	1.0	0.8	1.8	0.0	4.2	8.5	1.4	4.9	7.6	0.0	4.3	5.5	3.3	2.4	8.0	0.0	
	③	5.9	5.2	6.5	4.5	1.8	6.5	1.7	0.0	2.8	8.7	9.1	8.1	8.6	7.3	9.8	7.1	8.0	6.7	
	④	4.5	8.0	1.6	6.0	10.7	2.6	2.5	6.4	0.0	1.9	3.0	0.0	9.5	14.5	4.9	1.2	4.0	0.0	
	⑤	31.5	41.8	23.2	33.8	46.4	24.7	23.7	34.0	16.9	36.9	40.9	29.7	32.8	45.5	21.3	30.6	40.0	26.7	
	⑥	25.2	36.1	16.3	27.8	44.6	15.6	22.9	25.5	21.1	35.0	47.0	13.5	17.2	21.8	13.1	23.5	40.0	16.7	
	⑦	44.9	54.6	36.9	42.9	50.0	37.7	49.2	68.1	36.6	43.7	45.5	40.5	46.6	56.4	37.7	41.2	60.0	33.3	
	⑧	56.9	75.1	42.2	51.1	76.8	32.5	54.2	68.1	45.1	63.1	74.2	43.2	62.1	81.8	44.3	55.3	72.0	48.3	
	⑨	31.0	-	56.2	33.1	-	57.1	36.4	-	60.6	22.3	-	62.2	19.8	-	37.7	45.9	-	65.0	
	⑩	27.7	-	50.3	32.3	-	55.8	33.1	-	54.9	13.6	-	37.8	24.1	-	45.9	35.3	-	50.0	
	⑪	7.6	10.4	5.2	4.5	8.9	1.3	7.6	10.6	5.6	6.8	7.6	5.4	11.2	10.9	11.5	8.2	20.0	3.3	

* 주: [초·중·고생]의 경우, ① 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②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생활, ③ 가족 문제(가족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 등), ④ 친구와의 문제(친구와의 갈등 및 학교폭력 피해 등), ⑤ 방과 후 딱히 갈 곳도 할 것도 없는 환경, ⑥ 진학 또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 결정하는데 부족한 정보, ⑦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⑧ 놀이와 다양한 활동공간의 부족, ⑩ 기타로 구성, [후기청소년]의 경우 ① 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②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생활, ③ 가족 문제(가족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 등), ④ 친구와의 문제(친구와의 갈등 및 학교폭력 피해 등), ⑤ 방과 후 딱히 갈 곳도 할 것도 없는 환경, ⑥ 진학 또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 결정하는데 부족한 정보, ⑦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⑧ 놀이와 다양한 활동공간의 부족, ⑨ 내가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 ⑩ 청년을 위한 지원 인프라 부족, ⑪ 기타로 구성하였음.

②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

지역 문제 인식에 이어 여기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의 유무와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사계획은 ‘현재 사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나요?’로, 이동 희망은 ‘이사계획은 없지만, 언젠가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나요?’로 질문하고 유무와 여부로 측정하고, 표 V-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32.9% 정도이고, 후기청소년(54.3%)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군집별로 비교해 보면, 군집1 지역(38.2%)과 군집2(36.7%) 지역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다. 후기청소년만 본다면, 군집3 지역(60.8%)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군집2(58.0%) 지역과 군집5(55.2%) 지역에서도 후기청소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이들 지역의 후기청소년들이 단기간 내 이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단기간 내 이동의 아니지만, 향후 지역이동을 희망하는가를 지역이동 희망 여부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54.5%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준에서는 군집1(62.5%) 지역만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다. 후기청소년만 군집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 후기청소년(66.0%)보다 군집1 지역(71.7%)과 군집5 지역(74.4%)에서 후기청소년의 희망 비율이 높다. 앞서 이사계획 유무의 비율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초·중·고 청소년의 지역이동 희망 비율은 절반가량인 50.3%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군집1 지역(57.1%)에서는 전체 평균을 상회 하는 비율을 보이고, 군집2 지역(46.9%)과 군집5(44.4%) 지역은 평균보다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기간 내에는 군집3 지역의 후기청소년, 단기간 내는 아닐지라도 향후 군집1 지역과 군집5 지역의 후기청소년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후기청소년 인구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본 이들 지역 후기청소년이 지역 문제로 우선 인식하는 것들(군집1 지역-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군집3 지역과 군집5 지역-원하는 일자리 부족)에 주지하여 청소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3. 다른 지역 이사계획 유무 및 이동 희망 여부

(단위: %)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 간 차이 검증 (χ^2 -test)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전체	초·중 고생	후기 청소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이사																				
계획 유무	①	32.9	19.1	54.3	38.2	25.4	52.3	36.7	19.0	58.0	30.1	20.3	60.8	31.9	22.6	47.5	27.6	9.5	55.2	8.308*
	②	67.1	80.9	45.7	61.8	74.6	47.7	63.3	81.0	42.0	69.9	79.7	39.2	68.1	77.4	52.5	72.4	90.5	44.8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이동 희망																				
희망 여부	①	54.5	50.3	66.0	62.5	57.1	71.7	51.4	46.9	61.9	54.1	52.4	65.0	53.1	52.4	54.8	51.7	44.4	74.4	4.926*
	②	45.5	49.7	34.0	37.5	42.9	28.3	48.6	53.1	38.1	45.9	47.6	35.0	46.9	47.6	45.2	48.3	55.6	25.6	

3.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고찰되고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작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는 9세~24세 청소년을 두 개의 연령대(초·중·고 청소년, 후기청소년)로 나누어, 제3장에서 도출된 5개의 지역 군집의 틀에 기초하여 표본을 배분한 후 웹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육구 측정 문항의 양적 응답에 대한 구성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후속 개별면접조사를 보조적으로 실시함.
- 최종 분석자료는 총 1,119명(초·중·고 청소년:681명, 후기청소년: 438명)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내용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응답 내용을 파악하였고, 조사된 내용을 크게 세 가지(①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②생활 경험 및 의식, ③지역문제 의식 및 지역이동 계획)로 범주화하고, 연령대 및 군집별 차이를 검증(χ^2 -test, t-test, GLM-test)함.
- 기술통계 분석과 연령대 및 군집별 차이 검증을 통해 발견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거주지역 만족도나 일상생활만족도는 초·중·고 청소년이 후기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일상 스트레스나 무기력감, 우울 및 불안 같은 심리·정서 측면은 후기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②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체감하며, 초·중·고 청소년의 28.2%가 학교통합 경험, 광역시 자치구가 다수 포함된 군집5 지역의 학교통합 경험 비율은 평균을 크게 상회 하는 48.3% 수준임.
 - ③ 전체의 절반가량(49.6%)는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이 성장하는 환경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3.11점) 보다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4.05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④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주된 문제는 '불편한 대중교통'이지만, 연령대를 나누어보면, 초·중·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된 문제는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이고, 일부 군집 지역의 후기청소년들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을 가장 주된 문제로 응답함.
 - ⑤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2.9%로 낮지 않고, 이사계획은 없으나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4.5%로 절반 이상임.
- 이상과 같은 기초분석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제6장의 실증모델 분석의 선정과 분석 변수의 구성 및 투입 변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

본 장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고찰되고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육구조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조사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제3장에서 도출한 5개의 인구감소지역 군집 유형을 표본 할당의 틀로 활용하였고, 각 군집당 200명의 표본을 동수 할당하였으며, 9세~18세 초·중·고 청소년과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인구 비율(6:4)을 적용하여 두 개로 나눈 연령대별 표본을 각각 120명과 80명씩 배분하였다. 조사의 내용 설계는 문헌 고찰 및 자료 검토를 비롯하여 앞서 제4장에서 분석한 2차 자료 분석 결과 및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경험 속에서의 의식, 그리고 지역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지역 이동계획 및 희망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문항을 개발·작

성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초·중·고 청소년은 각 군집별 표본 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를 통해 안내받은 청소년들이 웹 기반 설문조사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후기 청소년은 통신사 DB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중 19세~24세 가입자에게 조사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안내받은 이들이 웹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1,119명의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이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여 응답 대상자 특성부터 시작하여 크게 세 가지(①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②생활 경험 및 의식, ③지역 문제 의식 및 지역이동 계획)로 범주화하여 기초통계 분석하고, 연령대 및 군집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 검증 결과, 분석된 내용에 따라 연령대는 물론 군집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동일 군집 지역 내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하여 선정된 지역이라는 공통점 하에서 군집과 연령대에 따라 다시 유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묶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하며, 89개 지역에 획일적 또는 단일한 정책적 접근으로는 시행되는 정책이 효과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연령대 및 군집별 차이 검증을 통해 초·중·고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의 정책 욕구에 차이가 있고, 군집별 특성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갖는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가령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초·중·고 청소년이 후기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우울 및 불안감과 같은 심리·정서 측면은 후기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별 비교 결과로는 군집4 지역(농촌지역이며 13세-18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28개 지역)의 청소년들이 심리·정서 측면을 측정된 내용들에서 공통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군집4 지역에 속하는 28개 지자체의 경우 다른 정책지원보다도 심리·정서 측면의 지원 정책을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 인구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청소년은 10명 중 9명에 가까우며, 후기청소년은 10명 중 9명 이상이 체감하고 있고, 초·중·고 청소년의 28.2%가 학교통합을 경험했다. 학교통합의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생활과 성장 과정에 대해 조망한 실증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었기에 단언할 수 없으나, 광역시의 자치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군집5 지역의 학교통합 경험 비율(48.3%)이 평균보다 높다는 결과는 이미 광역시에도 인구감소지역이 확장된 결과로 학교통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경험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거주하지만, 생활의 구성과 경험은 광역시 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대중교통과 생활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환경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3.11점)을 갖고, 전체의 절반가량은 49.6%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4.05점) 수준이 더 높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문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불편한 대중교통'이지만, 연령대를 나누어보면 초·중고 청소년은 '놀이와 활동공간의 부족'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또한 일부 군집의 후기청소년들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된 지역의 문제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을 갖는대거나 계획은 없지만 이동 희망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초분석만으로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미 이사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32.9%)이 낮지 않고, 절반 이상(54.5%)의 청소년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본 장의 기초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제6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한 주요 지역 문제의 유형을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획하고 희망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실증모델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6장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책육구 결정요인 분석

- 1.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 2. 전체 및 연령대별 정책 육구 결정요인 분석
- 3. 지역 군집별 정책 육구 결정요인 분석
- 4. 소결

1.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육구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두 가지 실증분석 모델, 즉 ①청소년이 인식한 지역 문제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델과 ②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및 이동 희망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이항로짓 모델(Binary Logit) 모델을 선정하고, 전체 응답자 대상을 기본으로 연령대 및 군집별로 나누어 분석함.
- 다항로짓 모델의 종속변수는 청소년들이 인식한 지역 문제를 재 범주화하여 구성하였고, 이항로짓 모델의 종속변수는 이사계획 유무와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이며, 설명변수들은 크게 네 가지 범주(①군집 유형과 정책육구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②사회·인구학적 특성, ③일상생활 특성, ④인식된 주요 문제)로 구조화되어 투입되었으며, 각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제시함.

1) 실증분석 모델의 선정

(1) 모델 선정의 과정

앞선 제5장에서 기초분석에 이어 여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 육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모델로 분석을 확장하였다.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서 본 장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정책 육구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일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 둘째, 현재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계획과 이동 희망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에서는 청소년의 어떠한 특성들이 지역 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에서는 어떠한 특성들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거나 향후 이동을 희망하는지를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모델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에 앞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아 선정하는 것이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 박사가 함께 분석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자 종속변수로 설정된 청소년이 인식한 주요 지역 문제의 유형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계획 유무 및 이동 희망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들은 모두 비선형으로 선형확률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프로빗 모델(Probit Model)이나 로짓 모델(Logit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빗 모델은 오차항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로짓 모델은 로지스틱 분포(평균이 0이고 0을 중심으로 대칭분포를 이룬다)를 가정한다. 이 두 모델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값은 크게 다르지 않고, 로짓 모델이 프로빗 모델에 비해 비교적 수학적 단순함을 가지는 것(양오석, 2013, p.174; Gujarati, 2016, p.204)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로짓 모델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종속변수, 즉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의 주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는 다항로짓 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선정하였다. 다항로짓 모델은 여러 개의 대안 또는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분석 모델은 개인들의 속성을 반영하는 설명변수가 다양한 값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Gujarati, 2016, p.226).

다항로짓 모델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x_i 는 설명변수이며, $0 < p_{ij} < 1$ 과

$$\sum_{j=1}^m \pi_j = 1 \text{ 이 확실히 성립한다. 모형을 식별하기 위해 범주 중 하나에 대해 } \beta_j \text{를}$$

0으로 설정하는데, 이를 기준 범주(base category)라고 하고, 다른 범주들의 계수는 이 기준 범주를 기준으로 해석한다(Cameron & Trivedi, 2017, p.660).

$$p_{ij} = \frac{\exp(x_i' \beta_j)}{\sum_{l=1}^m \exp(x_i' \beta_l)}, \quad j = 1, \dots, m$$

종속변수인 인식된 지역사회 문제의 기준 범주는 인식된 지역의 문제 유무에 관한 질문에 ‘없음’으로 응답한 집단이며, 지역 문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전체를 기준으로 세 가지(①불편한 대중교통, ②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③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이고, 연령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모델에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선택사항이 하나 더(④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 추가되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와 이사계획은 없지만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로는 이항로짓 모델(Binary Logit Model)을 선정하였다. 애초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와 함께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는 '이사계획 시기'도 측정하였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와 함께 '이동 희망 시기'를 측정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를 상위 레벨로, '이사계획 시기' 또는 '지역이동 희망 시기'를 하위 레벨로 설정한 내포형 로짓 모델(Nested Logit Model)이나 이사계획 '없음'을 기준 범주로 한 이사 시기의 다항로짓 모델 또한 검토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분석자료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모델 추정에 한계가 있어 최종 이항로짓 모델을 분석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항로짓 모델의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p_i = \Pr(y_i = 1|x) = \frac{e^{x'\beta}}{1 + e^{x'\beta}}$$

모델 분석은 전체 대상자 분석과 연령대별(초·중·고 청소년, 후기 청소년), 군집별(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연령대나 인구감소지역 군집별 청소년들의 정책 욕구의 결정요인과 각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실증모델 분석 변수의 구성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18)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및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이다.

먼저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는 청소년들이 현재 사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의 유무와 인식한 문제 중 1순위로 응답한 사항¹⁹⁾을 조합하여 재범주화 한 것이다.

18) 정책욕구조사에서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와 함께 개선 기대 사항을 별도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응답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여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만 분석 제시함.

19) 3순위까지 측정하였으나, 1~3순위 전체 응답 분포를 검토한 결과, 1순위에서 응답분포가 높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의

재범주화 된 것은 총 5가지로, ‘인식된 지역 문제없음’, ‘불편한 대중교통’,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학업 및 가족·친구 문제/진학·진로 정보 및 직접 체험 기회 부족’,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이고, 이들 5가지 범주 가운데 기준 범주이자 준거집단은 ‘인식된 지역 문제없음’을 선택한 이들로 설정하였다. 또한 5가지 범주 중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은 후기청소년 대상의 분석 모델에만 종속변수로 포함된다.

한편,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는 ‘없음’과 ‘있음’으로 구성하였으며, ‘없음’을 선택한 이들이 기준 범주이자 준거집단이 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는 ‘비희망’과 ‘희망’으로 구성되며, ‘비희망’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준거집단이 된다.

이상의 두 가지 실증분석 모델의 설명변수는 크게 ①인구감소 지역 군집, ②개인 및 가구 특성을 포함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③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과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을 포괄하는 일상생활 특성, ④인식된 지역의 주요 문제로 구성하였다. 이들 설명변수의 구체적인 구성과 변수의 투입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 군집은 앞선 제4장에서 89개 지역 청소년 인구통계 정보를 중심으로 군집 분석·도출된 5개 군집이다. 제4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군집1 지역은 농촌이면서 9~18세 연령대 비중이 높은 지역, 군집2 지역은 도농복합 도시이면서 9~18세 연령대 비중이 높은 지역, 군집3 지역은 농촌이면서 19~24세 연령대 비중이 높은 지역, 군집4 지역은 농촌이면서 13~18세 비중이 높은 지역, 군집5 지역은 도농복합 및 도시이면서 19~24세 연령대 비중이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군집은 가변수(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²⁰⁾) 형태로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 모델에 투입되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개인 특성은 성별(남, 여)과 거주지에서의 출생 여부(해당, 비해당)는 가변수 형태로 모든 분석 모델에 투입하였고, 학교급 및 연령대(1. 초등학교~4. 후기청소년)는 연속변수 형태로 전체 대상 모델 및 군집별 모델에 추가하였다. 가구 특성으로서 가족 유형(양부모, 한부모 및 조손, 1인 및 기타)과 다문화가정 여부(해당, 비해당)는 가변수 형태로 모든 분석 모델에 투입되었으며,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 하숙·자취·기숙사 등) 역시 가변수 형태로 후기청소년 분석 모델에만 추가되었다.

셋째, 일상생활 특성 중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인 거주지역 만족도(1.전혀

2. 3순위 응답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1순위 응답만 실증모델 분석에 사용하였음.

20) 항목 가운데 아래 바 ‘_’ 표시가 있는 항목은 가변수의 기준 집단을 의미함. 가변수로 측정되는 범주형 측정값은 모델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를 통해 사전에 해당 관측치 수를 파악하고 재범주화 하였음.

만족하지 않는다~5.매우 만족한다), 일상 스트레스 경험빈도(1.그런 적 없다, 2.한 두 번 경험, 3.가끔 경험, 4.자주 경험), 우울감(1.전혀 우울하지 않았다~5.매우 우울하다)은 모두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에 포함되는 통학/통근 수단 및 방법(대중교통, 스쿨버스, 자동차(부모님차 등, (후기) 내 차 등),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은 가변수 형태로 분석되었으며, 통학/통근 소요 시간(1.10분 이내, 2.10분~30분 이내, 3.30분~1시간 이내, 4.1시간 이상), 통학/통근 이동의 불편 정도(1.전혀 불편하지 않다~5.매우 불편하다)는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6개 항목(Cronbach's $\alpha=.914$)의 총합 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5개 항목의 총합 값을 산출하여 분석 변수로 사용하였다.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측정한 6개의 항목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측정한 5개의 세부 항목은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측정 척도가 아닌, 앞선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한 내용으로 측정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6개 항목(Cronbach's $\alpha=.914$)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 인식을 측정한 5개 항목(Cronbach's $\alpha=.749$) 모두 높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항목의 총합 값을 실증모델 분석에 투입하였다.

한편,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 모델에는 앞서 다항로짓 모델의 종속변수인 인식된 지역의 주요 문제 유형 변수들이 설명변수로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식된 지역 문제의 유무(있음, 없음)와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의 유형(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 문제 및 정보)이 가변수 형태로 투입되었다. 이들 변수의 투입은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인식된 지역 문제의 유형이 이사계획을 갖거나 향후 지역을 이동할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설명변수들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값이 검토되었고, 내생성(endogeneity)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그 결과, 설명변수로 포함이 고려되었던 4개 변수(총 거주기간, 일상생활만족도, 일상 무기력감, 불안감)

가 최종 설명변수에서 제외되었다. 가령, 총 거주기간은 연령대나 거주지역에서의 출생 여부와 상관(469) 및 내생성의 우려가 있었으며, 일상생활만족도는 거주지역만족도와 상대적으로 상관(663)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 무기력감은 일상 스트레스와 상대적으로 상관(642)이 높았고, 불안감은 우울감과 상관(748)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울감만 선택하고 불안감은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최종 선정된 설명변수들이 투입된 분석 모델의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 미만으로 설명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분석 변수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표 VI-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VI-1. 실증모델 분석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비고
종속 변수	1)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	- 준거집단 (0=인식된 지역 문제 없음) - 범주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1. 불편한 대중교통 2.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병과 후 할 것 같 곳 없는 환경,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3.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학업 및 가족·친구 문제, 진학/진로 정보 및 직접 체험 기회 부족) 4. [후기청소년 분석 모델에만]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부족	범주	다항 로짓 모델
	2)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1= 있음, (0=없음)	범주	이항 로짓 모델
	3)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	1= 희망, (0=비희망)		
설명 변수	㉠ 인구감소 지역 군집		4개 더미	공통
	- 89개 지역 청소년 인구 정보를 중심으로 군집 분석된 결과	1=군집1 : 농촌, 9세-18세 비중 높음 2=군집2 : 도농복합, 9세-18세 비중 높음 3=군집3 : 농촌, 19세-24세 비중 높음 4=군집4 : 농촌, 13세-18세 비중 높음 (0=군집5 : 도농복합 및 도시, 19세-24세 상대 비중 높은 지역)		
	㉡ 사회·인구학적 특성			
	- 개인 특성			
	성별	1= 남성, (0=여성)	더미	공통
	학교급 및 연령대	1=초등학생, 2=중학생, 3=고등학생	연속	

구분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비고
		4=후기청소년		
	거주지에서의 출생 여부	1= 해당, (0=비해당)	더미	
	- 가구 특성			
	거주 형태	1= 가족과 함께 (0=하숙, 자취, 기숙사 등)	더미	공통
	가족 유형	1= 양부모 (0=한부모 및 조손, 1인 및 기타)	더미	
	다문화가정 여부	1= 해당, (0=비해당)	더미	
	③ 일상생활 특성			
	-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거주지역 만족도	5점 척도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 매우 만족한다)	연속	공통
	일상 스트레스 경험 빈도	4점 척도 (1. 그런 적 없다, 2. 한두 번 경험 3. 가끔 경험, 4. 자주 경험)	연속	
	우울감	5점 척도 (1.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5. 매우 우울했다)	연속	
	-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통학/통근 수단 및 방법	1=대중교통 2=스쿨버스, 3=자동차(부모님차 등, 후기: 내차 등) (0=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3개 더미	공통
	통학/통근 소요 시간	1=10분 이내 2=10분~30분 이내 3=30분~1시간 이내 4=1시간 이상	연속	
	통학/통근 이동의 불편 정도	5점 척도 (1.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 ~ 5. 매우 불편하다)	연속	
	지역사회 인구감소 체감 경험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됨 ^{*)}	1=그렇다 (0=아니다)	더미	공통
	인근 학교와의 통합 경험 있음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6개 항목 총점: 30점)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연속	공통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5개 항목 총점: 25점)			
	④ 인식된 지역의 주요 문제			
	주요 지역 문제	1=불편한 대중교통 2=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3=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4=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후기청소년만] (0=인식된 지역 문제 없음)	3개/ 4개 (후기) 더미	로지 스틱 회귀 모델

주: 군집별 모델 분석에서는 '아니다' 응답 사례가 매우 적어 제외함.

2)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1) 전체 및 연령대별 기초통계량

실증모델 분석에 앞서 구성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모델 분석에 앞서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모델 분석의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오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변수값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을 때 결과에 대한 빠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먼저,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전체 대상자와 이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표 V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세 개의 종속변수 중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부터 살펴보면, 전체의 50.4%가 인식된 문제가 없는 집단이고, 이 비율은 초·중·고 청소년(63.44%)의 경우 더 높다. 이는 초·중·고 청소년 대상 모델에서는 준거집단이 많고, 반대로 후기청소년 모델에서는 준거집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된 지역 문제의 유형은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불편한 대중교통'(20.1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초·중·고 청소년은 '불편한 대중교통'(12.92%)보다는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14.54%)이 높다. 이와는 달리, 후기청소년은 '불편한 대중교통'(31.28%)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17.58%)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를 비교해 보면, 전체의 32.89%가 계획이 있고, 초·중·고 청소년(19.09%)은 이보다 낮고 후기청소년(54.34%)은 크게 높다. 이어 이사계획은 없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의 36.55%, 이사계획 비율이 낮았던 초·중·고 청소년(40.68%)이 후기청소년(30.14%)보다 높다.

종속변수에 이어 설명변수를 인구감소지역의 군집별 비중 비교부터 살펴보면, 전체의 21.72%가 준거 변수로 사용되는 군집5이다. 초·중·고 청소년 중 군집5(21.59%)에 해당하는 비율이나 후기청소년의 군집5(21.92%)도 유사하다. 다만, 초·중·고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군집3(23.20%)이고, 후기청소년은 군집1(25.34%)이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성별부터 살펴보면, 전체의 51.12%가 여성으로 성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초·중·고 청소년은 남성(53.3%)의 비율이 다소 높고, 후기청소년은 여성(57.9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대는 인구비례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초·중·고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의 비율이 6:4 정도인데,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중학생(25.11%)이 초등학생(15.73%)이나, 고등학생(20.0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또 다른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거주지에서 출생한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의 57.73%가 출생자이고, 초·중·고 청소년(55.36%)보다는 후기청소년(61.42%)이 해당 비율이 더 높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만, 하숙이나 자취, 기숙사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은 후기청소년(18.49%)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양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도 후기청소년(34.25%)이 전체(30.03%)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여부는 초·중·고 청소년(16.59%)의 비율이 후기청소년(2.28%)의 5배를 초과한다.

이어 일상생활 특성을 거주지역 만족도부터 비교해 보면, 5점 중 전체 평균 3.64점이고, 초·중·고 청소년(3.94점)이 후기청소년(3.18점)보다 높다. 그러나 일상스트레스 경험 빈도는 후기청소년(2.96점)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상에서 통학/통근 수단으로 전체의 33.24%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30.83%는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다. 초·중·고 청소년 중에는 스쿨버스(23.49%)를 이용하기도 한다. 통학/통근 시간은 10분~30분 이내가 전체의 42.18%이고, 통학/통근의 불편정도는 후기청소년(3.11점)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일상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의 체감도 후기청소년(92.69%)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학교 통합을 경험한 비율은 초·중·고 청소년(28.19%)이 높다.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후기청소년(21.40점)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은 초·중·고 청소년(18.70점)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VI-2.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 전체 및 연령대별

구분	변수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1)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	1,119	100.00	1.03	1.28	681	100.00	0.69	1.03	438	100.00	1.55	1.46
	0= 인식된 문제 없음	564	50.40			432	63.44			132	30.14		
	1= 불편한 대중교통	225	20.11			88	12.92			137	31.28		
	2=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141	12.60			99	14.54			42	9.59		
	3=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기회 부족	112	10.01			62	9.10			50	11.42		
	4=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부족	77	6.88							77	17.58		
	2)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1,119	100.00	0.33	0.47	681	100.00	0.19	0.39	438	100.00	0.54	0.50
	0= 없음	751	67.11			551	80.91			200	45.66		
	1= 있음	368	32.89			130	19.09			238	54.34		
	3)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	1,119	100.00	0.33	0.47	681	100.00	0.41	0.49	438	100.00	0.30	0.46
0= 비희망	710	63.45			404	59.32			306	69.86			
1= 희망	409	36.55			277	40.68			132	30.14			
① 인구 감소 지역 군집	0= 군집5	243	21.72			147	21.59			96	21.92		
	1= 군집1	233	20.82			122	17.91			111	25.34		
	2= 군집2	221	19.75			121	17.77			100	22.83		
	3= 군집3	209	18.68			158	23.20			51	11.64		
	4= 군집4	213	19.03			133	19.53			80	18.26		
② 사회 인구학적	성별	1,119	100.00	0.49	0.50	681	100.00	0.53	0.50	438	100.00	0.42	0.49
	0= 여성	572	51.12			318	46.7			254	57.99		
	1= 남성	547	48.88			363	53.3			184	42.01		
	학교급 및 연령대	1,119	100.00	2.83	1.11	681	100.00	2.07	0.76	438	100.00	4.00	0.00
	1= 초등학교	176	15.73			176	25.84						
2= 중학생	281	25.11			281	41.26							

구분	변수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③ 일상 생활 특 성	3= 고등학생	224	20.02			224	32.89						
	4= 후기청소년	438	39.14							438	100.00		
	거주지에서의 출생 여부	1,119	100.00	0.58	0.49	681	100.00	0.55	0.50	438	100.00	0.61	0.49
	0= 비해당	473	42.27			304	44.64			169	38.58		
	1= 해당	646	57.73			377	55.36			269	61.42		
	거주 형태	1,119	100.00	0.86	0.35	681	100.00	0.88	0.32	438	100.00	0.82	0.39
	0= 그 외(하숙, 자취, 기숙사 등)	162	14.48			81	11.89			81	18.49		
	1= 가족과 함께	957	85.52			600	88.11			357	81.51		
	가족 유형	1,119	100.00	0.70	0.01	681	100.0			438	100.00		
	0= 그 외(한부모, 조손, 1인 및 기타)	336	30.03			186	27.31			150	34.25		
	1= 양부모 가족	783	69.97			495	72.69			288	65.75		
	다문화가정 여부	1,119	100.00	0.11	0.31	681	100.00	0.17	0.37	438	100.00	0.02	0.15
	0= 비해당	996	89.01			568	83.41			428	97.72		
	1= 해당	123	10.99			113	16.59			10	2.28		
	거주지역 만족도(5점 척도)	1,119	100.00	3.64	1.12	681	100.00	3.94	1.06	438	100.00	3.18	1.06
	일상 스트레스 경험(4점 빈도)	1,119	100.00	2.93	0.88	681	100.00	2.90	0.93	438	100.00	2.96	0.80
	우울감(5점 척도)	1,119	100.00	2.40	1.14	681	100.00	2.40	1.16	438	100.00	2.40	1.11
	통학/통근 수단 및 방법	1,119	100.00	1.50	1.24	681	100.00	1.50	1.24	438	100.00	1.49	1.24
	0=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345	30.83			231	33.92			114	26.03		
	1= 대중교통	242	21.63			83	12.19			159	36.30		
2= 스쿨버스	160	14.30			160	23.49							
3= 자동차(부모님차 등, 후기: 내차 등)	372	33.24			207	30.40			165	37.67			
통학/통근 소요 시간	1,119	100.00	1.82	0.84	681	100.00	1.59	0.74	438	100.00	2.19	0.85	
1= 10분 이내	450	40.21			365	53.6			85	19.41			

구분	변수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2= 10분-30분 이내	472	42.18			249	36.56			223	50.91		
	3= 30분-1시간 이내	140	12.51			49	7.20			91	20.78		
	4= 1시간 이상	57	5.09			18	2.64			39	8.90		
	통학/통근 이동의 불편 정도(5점 척도)	1,119	100.00	2.61	1.25	681	100.00	2.28	1.19	438	100.00	3.11	1.17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됨	1,119	100.00	0.87	0.33	681	100.00	0.84	0.37	438	100.00	0.93	0.26
	0= 아니다	140	12.51			108	15.86			32	7.31		
	1= 그렇다	979	87.49			573	84.14			406	92.69		
	인근 학교와의 통합 경험 있음	1,119	100.0	0.24	0.43	681	100.00	0.28	0.45	438	100.00	0.17	0.38
	0= 아니다	852	76.14			489	71.81			363	82.88		
	1= 그렇다	267	23.86			192	28.19			75	17.12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1,119	100.00	17.63	6.46	681	100.00	15.20	5.93	438	100.00	21.40	5.34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1,119	100.00	18.24	3.53	681	100.00	18.70	3.66	438	100.00	17.51	3.21
	주요 지역 문제	1,119	100.00	1.50	0.01	681	100.00	1.63	0.02	438	100.00	1.30	0.02
	④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	0= 인식된 지역 문제 없음	564	50.40			432	63.44			132	30.14	
1= 불편한 대중교통	555	49.60			249	36.56			306	69.86			
2=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555	100.00			249	100.00			306	100.00			
3=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225	40.54			88	35.34			137	44.77			
4=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	141	25.41			99	39.76			42	13.73			

(2) 군집별 기초통계량

이어 같은 방식으로 군집별 기초통계량 비교해 보면, 표 V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종속변수 중 첫 번째 인식된 주요 문제부터 비교해 보면, 인식된 문제가 없다는 비율은 전체(50.40%) 대비 군집5 지역(65.02%)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이는 앞서 전체 및 연령대별 기초통계량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군집5 지역의 경우 준거집단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불편한 대중교통’을 주요 문제로 선택한 비율은 군집1 지역(26.61%)과 군집4 지역(23.47%)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은 군집3 지역(16.27%)과 군집4 지역(16.90%)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기회 부족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군집3 지역(10.53%)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후기청소년들이 선택한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은 군집1 지역(9.01%)과 군집2 지역(9.50%)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이 있는 비율과 이동 희망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이사계획은 군집2 지역(36.65%), 이동 희망은 군집1 지역(38.63%)과 군집3 지역(37.80%)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설명변수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성별부터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군집2 지역(61.9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군집5 지역(44.03%)에서 가장 낮다. 학교급 및 연령대의 경우 군집3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등학생과 후기청소년의 비율이 낮다. 거주지에서의 출생자 비율은 군집2 지역(69.68%)과 군집5 지역(65.02%)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 외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은 군집2 지역(21.27%)에서 가장 높다. 또한 한 부모와 조손 및 1인 가구 등의 형태는 군집3 지역(33.97%)과 군집4 지역(33.33%), 다문화가정은 군집1 지역(13.73%)과 군집4 지역(13.15%)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이어 일상생활 특성을 거주지역 만족도부터 비교해 보면, 군집5 지역(3.84점)이 가장 높은 점수이고, 일상 스트레스의 경험 빈도는 군집1 지역(3.0점), 우울감은 군집4 지역(2.54점)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통근/통학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도시 지역인 군집5 지역(37.45%)이 높고,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군집3 지역(31.58%)이 압도적으로 높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농촌지역인 군집1 지역(40.34%)과 군집4 지역(37.56%)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체로 30분 이내로 통학/통근 시간이 소요되나, 군집4 지역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율(9.39%)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학/통근 불편도(2.69점) 또한 높다.

한편, 인근 학교와 통합경험의 비율은 군집5 지역(36.21%)과 군집4 지역(32.86%)이 높고,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군집1 지역(18.54점)과 군집4 지역(18.49점)에 대한 긍정 인식은 군집4 지역(19.04점)이 가장 높다.

표 VI-3.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 군집별

구분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1)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	1,119 (100.0)	1.03 (1.28)	233 (100.0)	1.15 (0.09)	221 (100.0)	1.14 (0.09)	209 (100.0)	0.97 (0.08)	213 (100.0)	1.04 (0.08)	243 (100.0)	0.84 (0.09)
	0= 인식된 문제 없음	564 (50.40)		100 (42.92)		103 (46.61)		106 (50.72)		97 (45.54)		158 (65.02)	
	1= 불편한 대중교통	225 (20.1)		62 (26.61)		48 (21.72)		40 (19.14)		50 (23.47)		25 (10.29)	
	2=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141 (12.6)		27 (11.59)		26 (11.76)		34 (16.27)		36 (16.90)		18 (7.41)	
	3=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기회 부족	112 (10.01)		23 (9.87)		23 (10.41)		22 (10.53)		20 (9.39)		24 (9.88)	
	4=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부족	77 (6.88)		21 (9.01)		21 (9.50)		7 (3.35)		10 (4.69)		18 (7.41)	
	2)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1,119 (100.0)	0.33 (0.47)	233 (100.0)	0.38 (0.03)	221 (100.0)	0.37 (0.03)	209 (100.0)	0.30 (0.03)	213 (100.0)	0.32 (0.03)	243 (100.0)	0.28 (0.03)
	0= 없음	751 (67.11)		144 (61.80)		140 (63.35)		146 (69.86)		145 (68.08)		176 (72.43)	
	1= 있음	369 (32.89)		89 (38.20)		81 (36.65)		63 (30.14)		68 (31.92)		67 (27.57)	
	3) 다른 지역으로 이동 희망 여부	1,119 (100.0)	0.33 (0.47)	233 (100.0)	0.39 (0.03)	221 (100.0)	0.33 (0.03)	209 (100.0)	0.38 (0.03)	213 (100.0)	0.36 (0.03)	243 (100.0)	0.37 (0.03)
	0= 비희망	710 (63.45)		143 (61.37)		149 (67.42)		130 (62.20)		136 (63.85)		152 (62.55)	
	1= 희망	409 (36.55)		90 (38.63)		72 (32.58)		79 (37.80)		77 (36.15)		91 (37.45)	

구분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① 사회인 구학적 특성	성별	1,119 (100.0)	0.49 (0.50)	233 (100.0)	0.47 (0.03)	221 (100.0)	0.38 (0.03)	209 (100.0)	0.53 (0.03)	213 (100.0)	0.50 (.03)	243 (100.0)	0.56 (0.03)
	0= 여성	572 (51.12)		123 (52.79)		137 (61.99)		98 (46.89)		107 (50.23)		107 (44.03)	
	1= 남성	547 (48.88)		110 (47.21)		84 (38.01)		111 (53.11)		106 (49.77)		136 (55.97)	
	학교급 및 연령대	1,119 (100.0)	2.83 (1.11)	233 (100.0)	3.01 (0.07)	221 (100.0)	2.91 (0.08)	209 (100.0)	2.39 (0.08)	213 (100.0)	2.84 (0.07)	243 (100.0)	2.93 (0.06)
	1= 초등학교	176 (15.73)		32 (13.73)		42 (19.00)		54 (25.84)		29 (13.62)		19 (7.82)	
	2= 중학생	281 (25.11)		44 (18.88)		36 (16.29)		70 (33.49)		57 (26.76)		74 (30.45)	
	3= 고등학생	224 (20.02)		46 (19.74)		43 (19.46)		34 (16.27)		47 (22.07)		54 (22.22)	
	4= 후기청소년	438 (39.14)		111 (47.64)		100 (45.25)		51 (24.40)		80 (37.56)		96 (39.51)	
	거주지에서의 출생 여부	1,119 (100.0)	0.58 (0.49)	233 (100.0)	0.59 (0.03)	221 (100.0)	0.70 (0.03)	209 (100.0)	0.44 (0.03)	213 (100.0)	0.50 (0.03)	243 (100.0)	0.65 (0.03)
	0= 비해당	473 (42.27)		96 (41.20)		67 (30.32)		118 (56.46)		107 (50.23)		85 (34.98)	
	1= 해당	646 (57.73)		137 (58.80)		154 (69.68)		91 (43.54)		106 (49.77)		158 (65.02)	
	거주 형태	1,119 (100.0)	0.86 (0.35)	233 (100.0)	0.86 (0.02)	221 (100.0)	0.79 (0.03)	209 (100.0)	0.89 (0.02)	213 (100.0)	0.87 (0.02)	243 (100.0)	0.87 (0.02)
	0= 그 외(하숙, 자취, 기숙사 등)	162 (14.48)		33 (14.16)		47 (21.27)		22 (10.53)		28 (13.15)		32 (13.17)	

구분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② 일상 생활 특성	1= 가족과 함께	957 (85.52)		200 (85.84)		174 (78.73)		187 (89.47)		185 (86.85)		211 (86.83)	
	가족 유형	1,119 (100.0)	0.70 (0.01)	233 (100.0)	0.73 (0.03)	221 (100.0)	0.71 (0.03)	209 (100.0)	0.66 (0.03)	213 (100.0)	0.67 (0.03)	243 (100.0)	0.72 (0.03)
	0= 그 외(한부모, 조손, 1인 및 기타)	336 (30.03)		63 (27.04)		63 (28.51)		71 (33.97)		71 (33.33)		68 (27.98)	
	1= 양부모 가족	783 (69.97)		170 (72.96)		158 (71.49)		138 (66.03)		142 (66.67)		175 (72.02)	
	다문화가정 여부	(100.0)	0.11 (0.31)	233 (100.0)	0.14 (0.02)	221 (100.0)	0.11 (0.02)	209 (100.0)	0.12 (0.02)	213 (100.0)	0.13 (0.02)	243 (100.0)	0.06 (0.01)
	0= 비해당	(100.0)		201 (86.27)		197 (89.14)		184 (88.04)		185 (86.85)		229 (94.24)	
	1= 해당	123 (10.99)		32 (13.73)		24 (10.86)		25 (11.96)		28 (13.15)		14 (5.76)	
	거주지역 만족도(5점 척도)	1,119 (100.0)	3.64 (1.12)	233 (100.0)	3.50 (0.07)	221 (100.0)	3.55 (0.08)	209 (100.0)	3.75 (0.08)	213 (100.0)	0.57 (0.08)	243 (100.0)	3.84 (0.07)
	일상 스트레스 경험(4점 빈도)	1,119 (100.0)	2.93 (0.88)	233 (100.0)	3.00 (0.05)	221 (100.0)	2.90 (0.06)	209 (100.0)	2.95 (0.06)	213 (100.0)	2.93 (0.06)	243 (100.0)	2.85 (0.06)
	우울감(5점 척도)	1,119 (100.0)	2.40 (1.14)	233 (100.0)	2.33 (0.07)	221 (100.0)	2.46 (0.08)	209 (100.0)	2.43 (0.08)	213 (100.0)	2.54 (0.08)	243 (100.0)	2.27 (0.07)
통학/통근 수단 및 방법	1,119 (100.0)	1.50 (1.24)	233 (100.0)	1.55 (0.09)	221 (100.0)	1.50 (0.09)	209 (100.0)	1.79 (0.08)	213 (100.0)	1.65 (0.09)	243 (100.0)	1.07 (0.07)	
0=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345 (30.83)		74 (31.76)		75 (33.94)		43 (20.57)		63 (29.58)		90 (37.04)		
1= 대중교통	242 (21.63)		51 (21.89)		42 (19.00)		29 (13.88)		29 (13.62)		91 (37.45)		

구분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2= 스쿨버스	160 (14.30)		14 (6.01)		23 (10.41)		66 (31.58)		41 (19.25)		16 (6.58)	
	3= 자동차(부모님차 등, 후기: 내차 등)	372 (33.24)		94 (40.34)		81 (36.65)		71 (33.97)		80 (37.56)		46 (18.93)	
	통학/통근 소요 시간	1,119 (100.0)	1.82 (0.84)	233 (100.0)	1.80 (0.05)	221 (100.0)	1.84 (0.05)	209 (100.0)	1.74 (0.05)	213 (100.0)	1.85 (0.06)	243 (100.0)	1.89 (0.05)
	1= 10분 이내	450 (40.21)		97 (41.63)		85 (38.46)		91 (43.54)		90 (42.25)		87 (35.80)	
	2= 10분-30분 이내	472 (42.18)		97 (41.63)		94 (42.53)		89 (42.58)		85 (39.91)		107 (44.03)	
	3= 30분-1시간 이내	140 (12.51)		28 (12.02)		35 (15.84)		21 (10.05)		18 (8.45)		38 (15.64)	
	4= 1시간 이상	57 (5.09)		11 (4.72)		7 (3.17)		8 (3.83)		20 (9.39)		11 (4.53)	
	통학/통근 이동의 불편 정도(5점 척도)	1,119 (100.0)	2.61 (1.25)	233 (100.0)	2.69 (0.08)	221 (100.0)	2.66 (0.08)	209 (100.0)	2.47 (0.09)	213 (100.0)	2.69 (0.09)	243 (100.0)	2.52 (0.07)
	인근 학교와의 통합 경험 있음	1,119 (100.0)	0.24 (0.43)	233 (100.0)	0.13 (0.02)	221 (100.0)	0.17 (0.03)	209 (100.0)	0.19 (0.03)	213 (100.0)	0.33 (0.03)	243 (100.0)	0.36 (0.03)
	0= 아니다	852 (76.14)		202 (86.70)		183 (82.81)		169 (80.86)		143 (67.14)		155 (63.79)	
	1= 그렇다	267 (23.86)		31 (13.30)		38 (17.19)		40 (19.14)		70 (32.86)		88 (36.21)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1,119 (100.0)	17.63 (6.46)	233 (100.0)	18.54 (0.40)	221 (100.0)	17.70 (0.45)	209 (100.0)	17.77 (0.46)	213 (100.0)	18.49 (0.46)	243 (100.0)	15.81 (0.38)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1,119 (100.0)	18.24 (3.53)	233 (100.0)	18.36 (0.21)	221 (100.0)	17.95 (0.22)	209 (100.0)	18.26 (0.24)	213 (100.0)	19.04 (0.26)	243 (100.0)	17.66 (0.24)

구분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③ 인식된 주요 지역 문제	주요 지역 문제	1,119 (100.0)		233 (100.0)		221 (100.0)		209 (100.0)		213 (100.0)		243 (100.0)	
	0= 인식된 지역 문제 없음	564 (50.40)		100 (42.92)		103 (46.61)		106 (50.72)		97 (45.54)		158 (65.02)	
	1= 불편한 대중교통	555 (49.60)		133 (57.08)		118 (53.39)		103 (49.28)		116 (54.46)		85 (34.98)	
	2=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555 (100.0)		133 (100.0)		118 (100.0)		103 (100.0)		116 (100.0)		85 (100.0)	
	3=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225 (40.54)		62 (46.62)		48 (40.68)		40 (38.83)		50 (43.10)		25 (29.41)	
	4=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	141 (25.41)		27 (20.30)		26 (22.03)		34 (33.01)		36 (31.03)		18 (21.18)	

2. 전체 및 연령대별 정책 욕구 결정요인 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다항로짓 모델로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분석에서 거주지 만족도가 인식된 지역 문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지역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이와는 반대로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지역 문제 인식을 높이는 공동 요인으로 발견됨. 연령대별 분석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음.
 - ①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는 전체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군집 변수들이 지역 문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결과임. 이는 초·중·고 청소년들의 경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인식된 지역 문제가 다르기에 군집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 ②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는 전체 대상 분석이나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요인인 '일상 스트레스'가 후기청소년들의 지역 문제 인식에 인구감소 체감과 더불어 공통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인구감소지역 후기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면밀한 관찰 필요
- 이항로짓 모델로 이사계획 유무 및 다른 지역이동 희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학교급 및 연령대가 높고 인식된 지역 문제나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지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거주지 출생자와 다문화가정, 거주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적음.

1)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 : Multinomial Logit Model

(1) 전체 및 연령대별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

① 전체 대상자의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앞서 구성된 변수들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모델로 분석하였고, 분석의 결과를 표 VI-4와 같이 전체 대상 결과와 더불어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①불편한 대중교통, ②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③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로 범주화된 지역 문제 유형에 공통으로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시에 발견된다. 즉,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거주지 만족도는 세 가지 유형의 지역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이고,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지역 문제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쉽게 말해,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으면,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나 놀이 및 활동공간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으로 범주화된 각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작고, 청소년의 성장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 세 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이다.

인식된 지역 문제 유형별로 하나씩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불편한 대중교통’이 가장 우선되는 지역 문제라고 선택될 가능성은 군집1 지역과 군집2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학교급 및 연령대가 높을수록, 스쿨버스로 통학하는 경우, 통학/통근의 불편도가 높을수록, 지역의 인구감소를 체감하는 경우,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난 거주지 출생자와 앞서 기술한 거주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어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우선 선택되는 지역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에는 학교급 및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동차로 통학/통근을 하는 경우, 지역의 인구감소를 체감하는 경우,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거주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또한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이 가장 우선 선택되는 지역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에는 스쿨버스로 통학하고 학교통합의 경험이 있고,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거주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이와 같은 전체 대상자 분석의 결과를 종합 해보면, 거주지 만족도가 지역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공통 요인이고,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제 인식을 높이는 공통 요인이라는 발견 이외,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발견된다. 그중 첫 번째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인데, 이는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이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상쇄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를 체감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세 번째인데, 스쿨버스와 학교통합 경험의 변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스쿨버스로 통학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중교통 불편 지역 거주자일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 따라서 스쿨버스 통학자가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와 같은 생활 문제 및 진학과 진로 정보,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원거리 통학 초·중·고 청소년들, 특히 학교통합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생활 측면에서의

취약성과 함께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네 번째로는 투입된 군집 가변수 중 군집1 지역과 군집2 지역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된 결과는 군집1 지역과 군집2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해 다른 군집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이다. 이는 군집1 지역과 군집2 지역의 지자체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학교급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다는 결과이다. 이는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나 문제 인식이 비단 낮은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초·중·고 청소년의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전체 대상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결과와 같이 표 VI-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 전체 대상 또는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의 결과에 비해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은 군집 가변수의 영향이다. 즉, '불편한 대중교통' 및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가 지역의 문제로 우선 선택할 가능성에 군집 가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이다. '불편한 대중교통'에는 군집1 지역, 군집2 지역, 군집3 지역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에는 군집1 지역부터 군집4 지역까지 모두 준거집단인 군집5 지역에 비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1 지역의 경우,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이 지역의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군집 가변수의 영향은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군집 가변수의 영향이 초·중·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 문제 유형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비해 초·중·고 청소년 연령대의 정책 욕구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인구감소지역 초·중·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리 지역의 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군집 가변수 이외, 학교급 및 연령대와 거주지 출생은 거주지 만족도와 더불어 초·중·고 청소년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대상 분석 결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요인으로, 초·중·고 청소년 중에서 연령대가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활동공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주지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활동공간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이다.

③ 후기청소년의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에 이어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의 결과를 전체 대상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큰 차별성을 갖는 요인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일상 스트레스’인데, 네 가지 ①불편한 대중교통, ②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③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④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로 구분된 지역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에 공통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일상 스트레스’는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요인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후기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전체 대상 분석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 여부가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를 인식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도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이외 지역 문제를 인식하는데 인구감소 체감이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들이 어떠한 측면의 스트레스를 공통으로 갖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

한편,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는 자동차로 통학/통근하는 이들이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 통학/통근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가장 우선되는 지역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4. 전체 및 연령대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변수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 지원 인프라 부족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인구감소 지역 군집〉										
지역(군집5)_군집1	0.901(0.326)^{***}	0.238(0.367)	0.161(0.357)	1.795(0.573)^{***}	1.094(0.508)[*]	1.056(0.478)[*]	0.206(0.497)	-1.150(0.680)	-1.225(0.653)	-0.095(0.525)
지역(군집5)_군집2	0.782(0.335)[*]	0.380(0.368)	0.111(0.363)	1.650(0.568)^{***}	1.128(0.493)[*]	-0.226(0.559)	0.113(0.493)	-0.741(0.663)	0.013(0.556)	0.169(0.502)
지역(군집5)_군집3	0.540(0.356)	0.588(0.363)	0.026(0.375)	1.376(0.562)[*]	1.054(0.487)[*]	0.243(0.475)	-0.088(0.614)	0.087(0.710)	-0.766(0.734)	-0.125(0.660)
지역(군집5)_군집4	0.422(0.345)	0.458(0.359)	-0.289(0.382)	0.981(0.571)	1.008(0.483)[*]	-0.291(0.518)	0.383(0.570)	-0.121(0.715)	-0.328(0.665)	-0.082(0.622)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 특성〉										
성별(여성_남성)	-0.239(0.202)	-0.183(0.217)	-0.050(0.234)	-0.288(0.278)	-0.32(0.264)	-0.215(0.313)	0.378(0.328)	0.582(0.424)	0.574(0.397)	0.095(0.365)
학교급 및 연령대	0.499(0.135)^{***}	-0.331(0.131)[*]	0.219(0.143)	0.362(0.225)	-0.541(0.215)[*]	0.287(0.243)				
거주지 출생 여부(비해당_해당)	-0.558(0.207)^{***}	-0.416(0.224)	0.138(0.247)	-0.526(0.289)	-0.676(0.275)[*]	0.226(0.324)	-0.774(0.334)[*]	0.164(0.448)	0.012(0.421)	0.571(0.389)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거주 형태(그 외)_가족과 함께	0.021(0.288)	-0.043(0.326)	0.266(0.370)	-	-	-	0.529(0.450)	0.669(0.614)	1.075(0.633)	0.34(0.520)
가족 유형(그 외_양부모)	0.072(0.228)	-0.195(0.24)	0.235(0.273)	-0.060(0.298)	-0.245(0.286)	0.174(0.352)	0.109(0.375)	-0.326(0.488)	0.137(0.456)	0.424(0.419)
다문화가정 여부(비해당_해당)	0.159(0.314)	0.098(0.317)	0.183(0.357)	0.285(0.332)	0.130(0.340)	0.013(0.394)	-1.193(1.057)	-0.333(1.276)	0.01(1.042)	-0.057(1.020)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거주지역 만족도	-0.576(0.111)^{***}	-0.773(0.12)^{***}	-0.351(0.128)^{***}	-0.525(0.157)^{**}	-0.827(0.149)^{***}	-0.532(0.170)^{**}	-0.744(0.179)^{***}	-0.836(0.237)^{***}	-0.179(0.213)	-0.442(0.196)[*]
일상 스트레스	0.231(0.136)	0.005(0.139)	0.089(0.154)	0.078(0.177)	-0.23(0.165)	-0.059(0.198)	0.740(0.235)^{**}	0.710(0.316)^{**}	0.572(0.285)^{**}	1.043(0.264)^{***}
우울감	0.024(0.097)	0.034(0.104)	0.159(0.111)	0.023(0.128)	0.082(0.123)	0.186(0.144)	-0.039(0.164)	-0.096(0.213)	0.086(0.198)	-0.051(0.173)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변수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 지원 인프라 부족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통학/통근 수단 및 방법										
(걸어서 및 자전거로)_대중교통	0.149(0.288)	0.164(0.346)	-0.191(0.353)	-0.350(0.483)	-0.321(0.487)	-0.454(0.557)	0.769(0.434)	1.215(0.703)	0.137(0.538)	0.231(0.461)
(걸어서 및 자전거로)_스쿨버스	1.052(0.359)**	0.101(0.359)	0.955(0.396)*	0.845(0.397)*	-0.214(0.382)	1.204(0.459)**	-	-	-	-
(걸어서 및 자전거로)_자동차	0.100(0.256)	0.598(0.265)*	0.251(0.295)	0.174(0.361)	0.169(0.320)	0.364(0.409)	0.208(0.392)	1.775(0.622)**	0.384(0.482)	-0.059(0.423)
통학/통근 소요 시간	-0.126(0.135)	-0.015(0.151)	0.160(0.155)	-0.058(0.197)	0.052(0.194)	-0.049(0.222)	-0.465(0.218)*	-0.28(0.292)	0.244(0.255)	-0.202(0.235)
통학/통근 이동의 불편 정도	0.403(0.097)**	0.195(0.103)	-0.008(0.114)	0.316(0.130)*	0.326(0.125)**	0.084(0.148)	0.615(0.166)**	0.006(0.213)	-0.17(0.200)	0.151(0.179)
지역사회 인구감소 체감 경험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아니다)_그렇다	0.988(0.399)*	1.440(0.455)**	0.356(0.378)	0.426(0.434)	1.368(0.510)**	0.279(0.457)	2.576(0.859)**	2.666(1.160)*	0.816(0.726)	1.597(0.807)*
인근 학교와 통합(아니다)_그렇다	0.310(0.238)	-0.008(0.259)	0.554(0.265)*	0.669(0.305)*	0.010(0.315)	0.821(0.336)*	-0.306(0.408)	-0.017(0.512)	-0.114(0.490)	0.199(0.430)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0.131(0.021)**	0.092(0.021)**	0.152(0.024)**	0.118(0.027)**	0.099(0.024)**	0.141(0.030)**	0.124(0.036)**	0.054(0.046)	0.184(0.046)**	0.103(0.039)**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0.139(0.034)**	0.164(0.037)**	-0.010(0.039)	0.150(0.048)*	0.213(0.046)**	-0.007(0.051)	0.152(0.057)*	0.077(0.074)	0.003(0.068)	-0.027(0.062)
상수	-8.255(1.12)**	-4.235(1.137)**	-5.470(1.217)**	-7.609(1.448)**	-4.565(1.324)**	-4.271(1.485)**	-8.849(1.831)**	-6.013(2.372)**	-7.852(2.085)**	-6.177(1.943)**
N	1,042			681			438			
LR chi ²	504.14			281.11			252.500			
Pseudo R ²	0.2061			0.1963			0.1918			
Log likelihood	-970.8418			-575.6283			-532.1374			

주1)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 항목

주2) *** p<.001, ** p<.01, * p<.05

주3) 전체 대상자 1,042명 중 1순위 지역문제로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을 선택한 77명 제외된 수치임.

(2) 전체 및 연령대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이어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된 실증모델 분석 시, 함께 산출한 변수별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통해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각 지역 문제 유형별로 나누어 그림 VI-1~VI-3과 같이 제시하고, 전체 및 연령대별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인식된 지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영향력이 큰 요인을 파악하여 우선 대응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림 VI-1에 제시된 전체 대상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인식된 지역 문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가장 우선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스쿨버스통학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역의 인구감소를 체감, 군집1 지역 거주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 인구감소 체감 요인은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에는 ‘불편한 대중교통’과 같이 스쿨버스통학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한편, 지역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공통 요인인 거주지 만족도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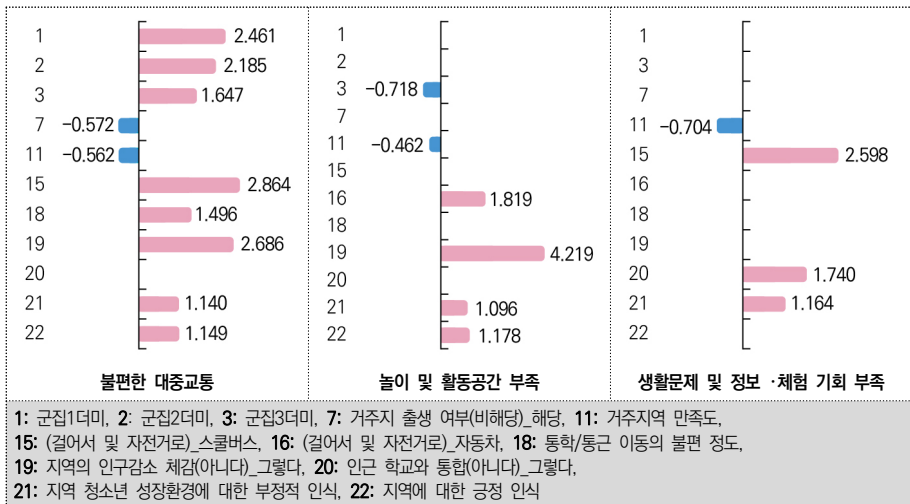


그림 VI-1.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 전체

이어 그림 VI-2에 제시된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 나타난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가장 우선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군집1 지역이다.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에서는 군집1~군집4의 영향력도 작지는 않으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구감소 체감 요인이다.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에는 스쿨버스통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다수의 청소년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우선 문제로 선택하지만, 스쿨버스통학으로 대리되는 원거리 통학 청소년들은 교통 문제나 놀이 공간보다도 생활 문제나 정보와 체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앞서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에서도 논의한 바가 영향력 크기 비교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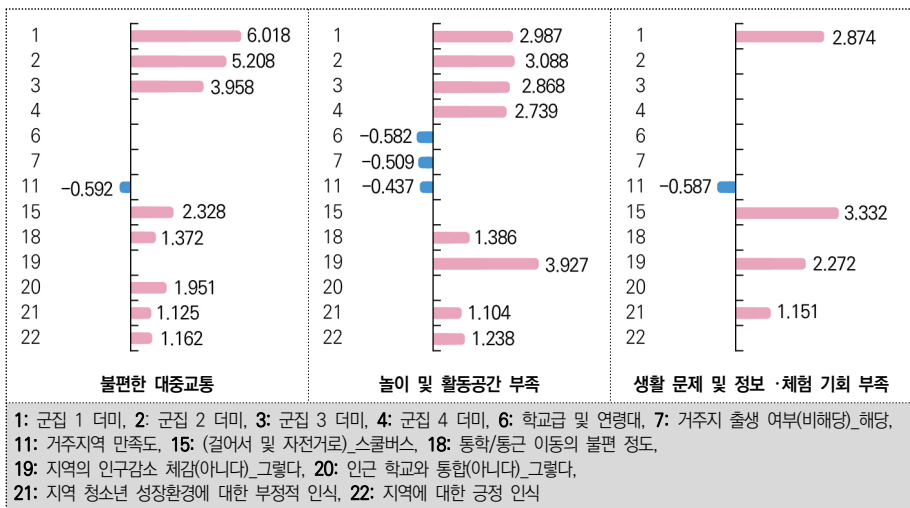


그림 VI-2.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 초·중·고

다음으로 그림 VI-3에 제시된 후기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 나타난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불편한 대중교통’과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가장 우선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 압도적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후기 청소년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일상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가된 범주로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도 인구감소 체감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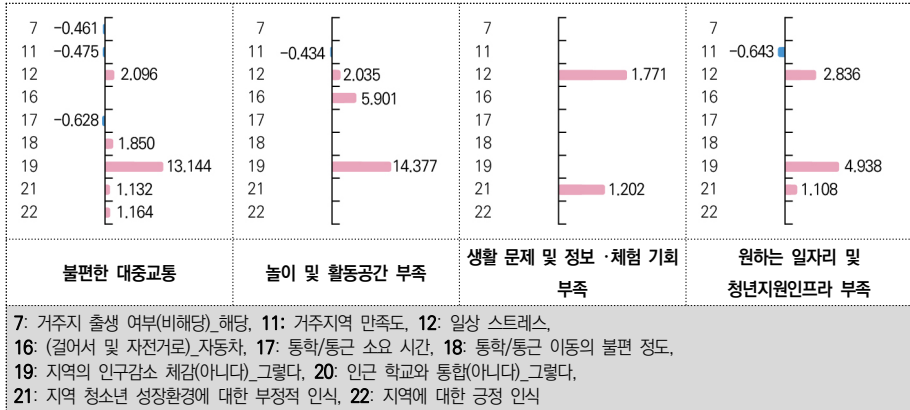


그림 VI-3.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 후기청소년

2) 다른 지역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 : Binary Logit Model

(1) 전체 및 연령대별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 결정요인

① 전체의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

앞서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 및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그 인식된 문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항로짓 모델로 분석하였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되었는데,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계획은 없지만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하는지이다.

먼저, 표 VI-5에 제시된 전체 대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의 유무와 향후 이동을 희망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같지 않다. 이는 단시일 내 지역에서 이동할 청소년들과 남아 있다가 추후 이동할 청소년들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높은가?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인식된 지역 문제가 있고 학교급 및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거주지 출생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고,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가장 우선 문제로 선택한 청소년들은 단기간 내 이사할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당장 이사계획은 없을지라도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데에는 다문화가정이나 통학/통근 불편도, 그리고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 우선 문제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통학 소요 시간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계획에는 인식된 지역 문제나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 등 지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간 내 이사계획은 없는 이들 중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나 통학/통근이 불편한 청소년들은 언젠가는 지역을 떠날 의향이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지에서 출생하고,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은 이들은 현재 이사계획도 없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초·중·고 청소년의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

같은 방식으로 초·중·고 청소년 대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사계획 유무를 결정하는 요인은 군집1 지역과 군집4 지역, 그리고 인식된 지역 문제가 있는 경우 이사할 가능성을 높이고, 거주지 출생자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이사할 가능성이 작다. 이는 농촌지역인 군집1 지역과 군집4 지역에서 이미 계획된 청소년인구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지역에서 출생한 토박이들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정주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주민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우선 될 수밖에 없다.

이어 이사계획은 없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스쿨버스 통학, 자동차 통학/통근, 학교급 및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통학 소요 시간이 길수록 이동할 가능성은 작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다른 지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현재 자동차로 통학/통근을 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통학 소요 시간이 긴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과는 이미 긴 통학 시간을 선택하고 수용한 것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후기청소년의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

이어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사계획 유무는 인식된 지역 문제가 있고,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사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거주지 만족도가 높으면 그 가능성은 작아진다. 초·중·고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청소년들이 이사계획이 있는 것이고,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이들이 이사계획이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사계획은 없지만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데에는 통학/통근 불편도가 높을수록 희망하고, 우울감 수준이 높을수록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통학이나 통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향후 지역을 떠나는 결정적인 사유가 불편한 교통에 있음을 의미하며, 우울감 수준이 높은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떠나고자 하는 희망조차 낮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VI-5. 다른 지역 이사계획 및 이동 희망 여부 결정요인

변수	이사계획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이동 희망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인구집소 지역 군집>						
지역(군집5)_군집1	0.348(0.233)	1.063(0.385)**	-0.217(0.347)	-0.081(0.205)	-0.217(0.283)	0.040(0.352)
지역(군집5)_군집2	0.327(0.236)	0.761(0.394)	-0.038(0.338)	-0.304(0.209)	-0.291(0.282)	-0.292(0.349)
지역(군집5)_군집3	0.222(0.256)	0.601(0.385)	0.161(0.423)	-0.161(0.217)	-0.131(0.270)	-0.496(0.440)
지역(군집5)_군집4	0.122(0.249)	0.797(0.379)*	-0.521(0.383)	-0.258(0.214)	-0.310(0.276)	-0.194(0.399)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 특성>						
성별(여성)_남성	-0.294(0.151)	-0.102(0.216)	-0.415(0.228)	0.025(0.134)	-0.164(0.173)	0.395(0.235)
학교급 및 연령대	0.411(0.095)***	0.132(0.164)	-	0.012(0.083)	0.431(0.137)**	-
거주지 출생 여부(비해당)_해당	-0.466(0.154)**	-0.64(0.219)**	-0.416(0.238)	0.006(0.137)	-0.013(0.176)	0.234(0.248)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거주 형태(그 외)_가족과 함께	-0.174(0.217)	-	-0.160(0.333)	-0.012(0.203)	-	-0.097(0.342)
가족 유형(그 외)_양부모	-0.075(0.169)	-0.252(0.227)	0.028(0.262)	0.03(0.151)	0.112(0.189)	-0.058(0.276)
다문화가정 여부(비해당)_해당	-0.776(0.286)**	-0.646(0.322)*	-0.658(0.735)	0.408(0.204)*	0.250(0.224)	0.469(0.692)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거주지역 만족도	-0.102(0.083)	0.017(0.122)	-0.310(0.125)*	-0.066(0.075)	-0.141(0.098)	0.128(0.128)

변수	이사계획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이동 희망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일상 스트레스	-0.090(0.099)	-0.074(0.132)	-0.156(0.165)	0.012(0.085)	-0.064(0.104)	0.204(0.167)
우울감	0.056(0.072)	0.051(0.100)	0.104(0.112)	-0.071(0.065)	-0.018(0.082)	-0.254(0.119)*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통학/통근 수단 및 방법						
(걸어서 및 자전거로)_대중교통	0.382(0.212)	-0.044(0.372)	0.429(0.304)	0.093(0.197)	0.313(0.295)	-0.090(0.314)
(걸어서 및 자전거로)_스쿨버스	0.214(0.281)	0.034(0.310)	-	0.371(0.225)	0.537(0.250)*	-
(걸어서 및 자전거로)_자동차	0.075(0.186)	-0.116(0.271)	0.025(0.278)	0.154(0.165)	0.460(0.217)*	0.050(0.289)
통학/통근 소요 시간	0.023(0.100)	0.067(0.149)	-0.143(0.149)	-0.190(0.092)*	-0.275(0.126)*	0.027(0.150)
통학/통근 이동의 불편 정도	-0.132(0.074)	-0.065(0.105)	-0.114(0.113)	0.172(0.065)**	0.089(0.082)	0.259(0.118)*
지역사회 인구감소 체감 경험						
지역의 인구감소체감(아니다)_그렇다	0.038(0.243)	-0.089(0.293)	0.390(0.445)	0.363(0.211)	0.464(0.247)	0.297(0.443)
인근 학교와 통합(아니다)_그렇다	-0.038(0.178)	-0.065(0.251)	0.269(0.286)	0.062(0.154)	0.067(0.193)	-0.166(0.301)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0.042(0.015)**	0.028(0.021)	0.050(0.025)*	-0.005(0.013)	0.005(0.016)	0.000(0.026)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0.055(0.024)*	-0.060(0.035)	0.000(0.039)	0.036(0.021)	0.025(0.028)	-0.032(0.040)
문제인식여부	0.840(0.196)***	0.698(0.309)*	0.655(0.311)*	-0.234(0.186)	0.265(0.265)	-0.596(0.320)
지역문제_놀이 및 활동공간부족	-0.549(0.240)*	-0.495(0.353)	-0.351(0.389)	0.754(0.221)**	0.492(0.309)	0.443(0.399)
지역문제_생활문제및정보·체험기회부족	-0.237(0.245)	-0.35(0.402)	0.308(0.377)	0.159(0.242)	-0.007(0.346)	-0.391(0.427)

변수	이사계획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이동 희망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전체	초·중·고	후기청소년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지역문제_일자리및청년지원인프라부족	-	-	0.371(0.328)	-	-	-0.226(0.352)
상수	-0.992(0.765)	-1.066(1.033)	0.587(1.168)	-1.268(0.676)	-1.560(0.825)	-1.440(1.193)
N	1,119	681	438	1,119	681	438
LR χ^2	235.22	51.59	68.72	42.73	59.25	28.80
Pseudo R ²	0.1659	0.0777	0.1138	0.0291	0.0644	0.0537
Log likelihood	-591.1317	-306.2068	-267.5878	-713.2825	-430.4989	-253.6662

주1)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 항목
주2) *** p<.001, ** p<.01, * p<.05

(2) 전체 및 연령대별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영향력

앞서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는 이사계획 유무 및 이사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역이동을 희망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그림 VI-4~VI-6과 같이 제시하고 비교하였다.

먼저, 그림 VI-4에 제시된 전체 대상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이사계획 유무와 지역이동 희망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사계획 유무에는 인식된 지역 문제의 유무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고, 다음으로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사계획 가능성을 낮추는 부(-)의 요인 두 가지, 즉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과 지역 문제로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지역의 여건과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될 수 있으며, 이사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일차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놀이 및 활동공간'의 제공이라는 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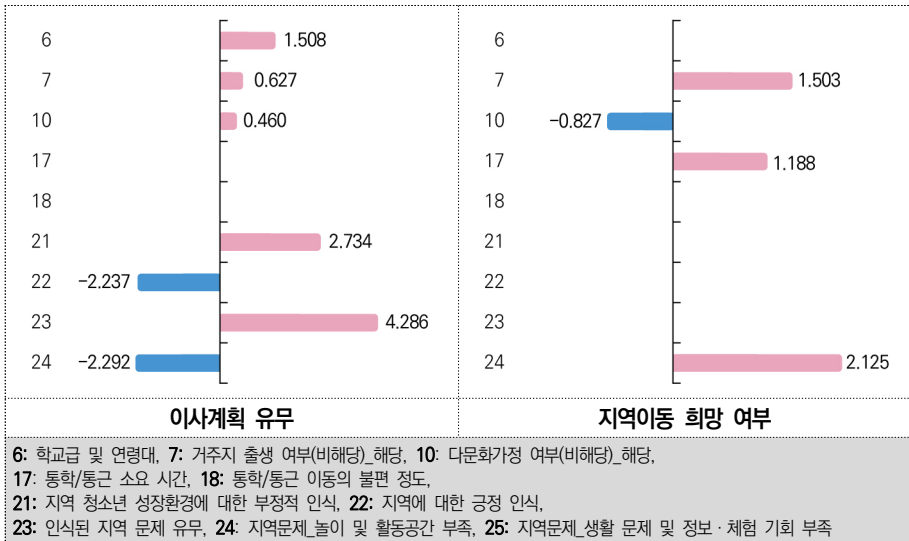


그림 VI-4.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영향력 : 전체

이어 그림 VI-5에 제시된 초·중·고 청소년의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사계획 유무에는 군집1 지역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지역이동 희망에는 스쿨버스통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가변수 군집1 지역이 이사계획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군집1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군집1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군집4 지역의 영향력이나 인식된 지역 문제가 있는 경우의 영향력도 작지 않다. 한편, 지역이동 희망 여부에 스쿨버스통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기는 하나, 학교급 및 연령대나 자동차로 통학/통근하는 경우의 영향력과 큰 차이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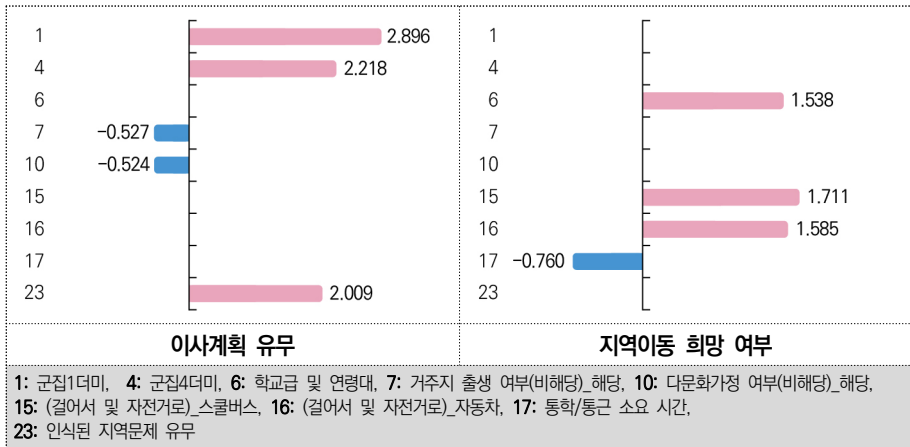


그림 VI-5.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영향력 : 초·중·고

다음으로 그림 VI-6에 제시된 후기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 나타난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모두 인식된 지역 문제로서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놀이 및 활동공간'으로 대리되는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기반 시설의 문제가 비단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후기청소년들이 이사를 계획하고 향후 지역을 떠날 의향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 이사계획에 미치는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향후 지역이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통학/통근 불편도의 영향력도 작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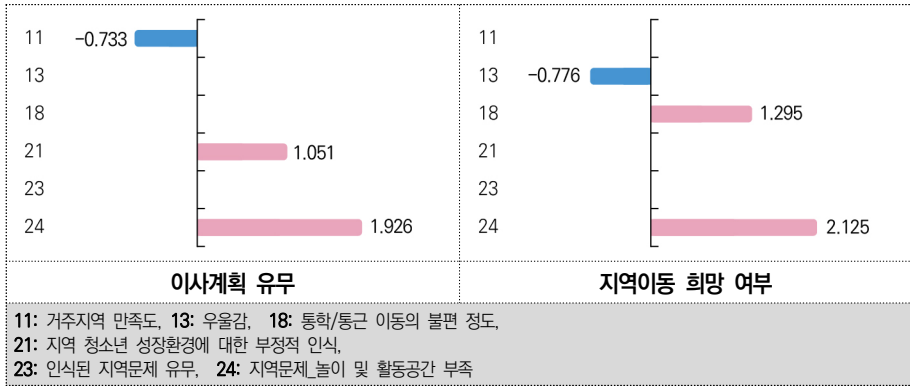


그림 VI-6.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영향력 : 후기청소년

3. 지역 군집별 정책 욕구 결정요인 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앞의 전체 및 연령대별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군집별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지트 모델로 분석한 결과, 제각기 다른 요인이 각 군집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지역 문제 인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군집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개 군집 모두에서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앞서 전체 대상 분석에서 학교통합 경험이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군집3 지역에서는 이 경험이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학교통합이라는 동일한 경험의 영향이 다르게 작동될 수 있음을 발견함.
- 다른 군집과는 달리, 군집5 지역에서는 가족의 유형이나 거주 형태가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이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를 인식하는데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나, 대도시 내 상대적으로 취약 가정 청소년들이 공간 부족과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의 부족을 지역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1) 군집별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 : Multinomial Logit Model

(1) 군집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비교

앞서 전체 및 연령대별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 분석에서와 같은 다항로지트 모델로 5개의 군집별 분석 결과를 표 VI-6과 같이 제시하였다. 군집별 분석에서는 각 군집의 표본 수가 200여 명으로 적어, 연령대별로 나누어 각 군집의 초·중·고 청소년과 후기청

소년의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비교를 위하여 전체 대상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고, 각 군집별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우선, 모든 군집에 공통 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딱 하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의 결정요인인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다. 이 요인은 군집1 지역부터 군집5 지역까지 모든 군집에서 동일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성장환경에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을 지역의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 이외 5개의 군집 지역에 공통된 결정요인은 보이지 않을 만큼 각 군집 지역마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각각이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문제가 발생하는 맥락에 따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지원 욕구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를 지역의 우선되는 문제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데, 복수의 군집 지역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령 군집1 지역과 군집3 지역에서는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우선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나, 군집4 지역과 군집5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군집3 지역과 군집4 지역, 군집5 지역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를 지역의 우선되는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군집1 지역과 군집2 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지역의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 외,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을 군집1 지역부터 살펴보면,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를 우선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통학/통근의 불편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거주지 출생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통학/통근의 불편도가 높으면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에서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난 이들이 그 불편함을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에는 지역의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에 대해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거주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에 대해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전체 분석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지역에 놀이 및 활동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군집2 지역에서는 앞서 기술된 요인들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밝혀지지 않은 요인들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우울감이나 스쿨버스트통학은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우선되는 문제로 인식하는데 정(+)의 영향이 있고, 통학 소요 시간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들 변수 영향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전체 대상 분석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한 가지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 우울감의 영향인데, 우울감이 높을수록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우선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일 사유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한정된 공간에 갇힌 느낌”이라고 하였던 내용과 정책욕구 설문조사의 후속으로 진행된 개별면접조사 중 한 명의 참여자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즉 “강아지가 목줄을 차고, 그 근처에만 돌아다니는 느낌”(군집1-A)이라는 이야기를 상기해 본다면, 거주지역의 환경에 따라 우울감이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인식에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집3 지역에서는 성별이 ‘불편한 대중교통’이 지역의 우선 문제로 인식되는데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을 비롯하여 강원도 접경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군집3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직업 군인이 후기청소년 응답자에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학교통합의 경험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근 학교와 통합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지역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군집4 지역에서는 학교통합의 경험이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통합이라는 같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지역의 문제 인식과는 각기 다른 매커니즘으로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설문조사 후속 개별 면접조사에 참여자의 경험, 즉 학교통합 이후 “한두 명을 제외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기숙사 안에 노래방 헬스장, 보드게임방 등을 비롯하여 함께 방과 후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다”(군집2-D)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교통합의 경험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지역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는가에 따라 이를 지역 문제로 인식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집4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일상 스트레스’가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우선 되는 문제로 인식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다. 이는 대중교통과 같은

기반 시설의 불편함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일상의 스트레스 수준이 군집4 지역에서 높아 그것이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원인과 전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앞선 제5장의 기초통계분석의 군집 간 차이 검증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집4 지역의 청소년들이 심리·정서 측면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다른 군집 지역에 비해 낫다는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이 지역에 청소년들의 일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데에는 이들이 갖는 일상의 스트레스 수준이 결정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군집5 지역에서는 ‘놀이 및 활동공간의 부족’과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인식에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들이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형태이다.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는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과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에 정(+의 영향 요인이고, 가족 형태(양부모 가족)는 이들 문제에 부(-의 영향 요인이다. 다시 말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군집5 지역의 청소년들은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과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을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지역의 우선 되는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은 한 부모나 조손가족, 또는 1인 가구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과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 형태나 거주 형태와 같은 특성이 지역 문제 인식의 결정요인이 된다는 결과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다수 포함하는 도시지역인 군집5 지역에서 주목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VI-6. 군집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팅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팅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팅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팅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팅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팅 기회 부족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 특성〉																		
성별(여성)_남성	-0.239 (0.202)	-0.183 (0.217)	-0.050 (0.234)	0.048 (0.428)	0.212 (0.546)	0.163 (0.54)	0.548 (0.594)	-0.574 (0.562)	-0.492 (0.644)	-1.172 (0.490)*	-0.171 (0.484)	0.815 (0.581)	0.031 (0.499)	0.499 (0.534)	-0.499 (0.623)	-0.906 (0.659)	-0.730 (0.640)	-0.656 (0.569)
학교급 및 연령대	0.499 (0.135)**	-0.331 (0.131)*	0.219 (0.143)	0.446 (0.261)	-0.365 (0.319)	-0.376 (0.291)	0.660 (0.388)	-0.495 (0.291)	0.592 (0.424)	0.406 (0.316)	-0.351 (0.304)	0.168 (0.337)	0.501 (0.380)	0.380 (0.378)	1.115 (0.635)	2.035 (0.630)**	0.505 (0.500)	0.651 (0.438)
거주지 출생 여부(비해당)_해당	-0.558 (0.207)**	-0.416 (0.224)	0.138 (0.247)	-1.104 (0.435)*	-0.621 (0.562)	0.186 (0.562)	0.094 (0.608)	0.093 (0.583)	0.074 (0.680)	-0.372 (0.515)	-0.298 (0.538)	0.820 (0.590)	-0.974 (0.507)	0.507 (0.574)*	0.709 (0.672)	-0.079 (0.678)	0.323 (0.706)	-0.563 (0.571)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거주 형태(그 외)_가족과 함께	0.021 (0.288)	-0.043 (0.326)	0.266 (0.370)	0.833 (0.626)	-0.142 (0.725)	-0.025 (0.837)	-0.165 (0.827)	-0.319 (0.818)	-1.168 (0.870)	-0.742 (0.916)	0.548 (0.991)	1.303 (1.351)	-0.445 (0.747)	0.747 (0.775)	-1.298 (0.987)	1.005 (0.997)	2.469 (1.168)*	3.773 (1.360)**
가족 유형(그 외)_양부모	0.072 (0.228)	-0.195 (0.24)	0.235 (0.273)	-0.158 (0.457)	-0.523 (0.573)	0.025 (0.631)	0.175 (0.657)	-0.284 (0.614)	0.919 (0.760)	0.632 (0.606)	-0.031 (0.582)	0.346 (0.660)	0.715 (0.554)	0.554 (0.579)	1.067 (0.796)	-0.419 (0.779)	-1.574 (0.719)*	-1.378 (0.627)*
다문화가정 여부(비해당)_해당	0.159 (0.314)	0.098 (0.317)	0.183 (0.357)	0.727 (0.603)	0.895 (0.645)	-0.29 (0.867)	0.892 (0.839)	-0.221 (0.852)	0.552 (0.966)	-0.479 (0.762)	-0.514 (0.895)	0.534 (0.748)	-0.344 (0.750)	0.750 (0.725)	0.150 (0.899)	-13.538 (1.988)	2.165 (1.179)	0.559 (1.240)
인상생활만족도 및 삼라장서 특성																		
거주지역 만족도	-0.576 (0.111)**	-0.773 (0.12)**	-0.351 (0.128)**	-0.346 (0.236)	-0.857 (0.308)**	-0.31 (0.314)	-1.148 (0.311)**	-0.781 (0.303)*	-0.492 (0.339)	-0.541 (0.280)	-0.564 (0.273)*	-0.087 (0.314)	-0.836 (0.277)**	0.277 (0.329)**	-0.695 (0.392)	-0.819 (0.358)*	-1.043 (0.360)**	-0.487 (0.315)
일상 스트레스	0.231 (0.136)	0.005 (0.139)	0.089 (0.154)	-0.026 (0.298)	0.613 (0.398)	0.071 (0.388)	0.105 (0.345)	-0.292 (0.314)	-0.356 (0.373)	0.205 (0.316)	-0.427 (0.299)	0.182 (0.386)	0.802 (0.351)*	0.351 (0.379)	-0.021 (0.446)	-0.183 (0.496)	0.624 (0.461)	0.675 (0.396)
우울감	0.024 (0.097)	0.034 (0.104)	0.159 (0.111)	0.017 (0.213)	-0.354 (0.273)	0.265 (0.265)	0.662 (0.256)*	0.335 (0.234)	0.344 (0.285)	-0.099 (0.213)	0.221 (0.228)	0.233 (0.259)	-0.330 (0.257)	0.257 (0.275)	0.076 (0.333)	0.221 (0.329)	-0.275 (0.341)	-0.329 (0.298)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널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널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널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널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널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채널 기회 부족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통학/통근 수단 및 방법																		
(걸어서 및 자전거로)_대중교통	0.149 (0.288)	0.164 (0.346)	-0.191 (0.353)	-0.989 (0.604)	-1.379 (0.809)	-0.625 (0.84)	1.498 (0.773)	0.389 (0.892)	0.455 (0.902)	-0.065 (0.811)	0.690 (0.922)	-0.753 (1.278)	1.381 (0.805)	0.805 (1.102)	-0.254 (1.170)	-1.598 (0.895)	0.436 (0.936)	-0.366 (0.849)
(걸어서 및 자전거로)_스쿨버스	1.052 (0.359)**	0.101 (0.359)	0.955 (0.396)*	0.320 (1.111)	-0.782 (1.357)	0.253 (1.141)	3.265 (1.052)**	-0.297 (1.081)	2.000 (1.338)	0.932 (0.687)	0.473 (0.817)	0.946 (0.818)	-0.374 (1.285)	1.285 (0.933)**	3.605 (1.578)*	-13.109 (1.887)	-15.668 (1.801)	-0.382 (1.372)
(걸어서 및 자전거로)_자동차	0.100 (0.256)	0.598 (0.265)*	0.251 (0.295)	-0.663 (0.505)	-0.193 (0.615)	-0.561 (0.644)	0.454 (0.683)	0.697 (0.572)	0.912 (0.700)	-0.737 (0.727)	1.164 (0.784)	0.656 (0.826)	1.102 (0.634)	0.634 (0.704)	0.149 (0.905)	0.302 (0.914)	1.560 (0.801)	0.246 (0.759)
통학/통근 소요 시간	-0.126 (0.135)	-0.015 (0.151)	0.160 (0.155)	0.096 (0.276)	0.024 (0.339)	-0.010 (0.377)	-1.294 (0.440)**	-0.154 (0.419)	-0.082 (0.448)	0.321 (0.332)	0.269 (0.356)	0.351 (0.380)	-0.171 (0.293)	0.293 (0.341)	-0.346 (0.416)	-0.434 (0.468)	-0.307 (0.519)	0.004 (0.430)
통학/통근 이동의 불편 정도	0.403 (0.097)**	0.195 (0.103)	-0.008 (0.114)	0.521 (0.208)*	0.646 (0.245)**	-0.059 (0.259)	0.640 (0.274)*	0.053 (0.271)	-0.059 (0.289)	0.308 (0.250)	0.369 (0.244)	0.172 (0.276)	0.322 (0.245)	0.245 (0.264)	-0.110 (0.331)	0.913 (0.317)**	0.056 (0.313)	0.361 (0.276)
지역사회 인구감소 체감 경험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이 아니다_그렇다	0.988 (0.399)*	1.440 (0.455)**	0.356 (0.378)	-	-	-	-	-	-	-	-	-	-	-	-	-	-	-
인근 학교와 통합(아니다)_그렇다	0.310 (0.238)	-0.008 (0.259)	0.554 (0.265)*	0.145 (0.592)	0.062 (0.771)	0.716 (0.661)	1.131 (0.722)	1.267 (0.692)	0.325 (0.879)	-0.570 (0.649)	-2.353 (0.933)*	-0.297 (0.711)	0.640 (0.531)	0.531 (0.591)*	1.262 (0.718)	0.609 (0.730)	-0.631 (0.818)	1.41 (0.620)*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0.131 (0.021)**	0.092 (0.021)**	0.152 (0.024)**	0.134 (0.045)**	-0.002 (0.056)	0.198 (0.060)**	0.196 (0.057)**	0.091 (0.051)	0.214 (0.061)**	0.126 (0.050)*	0.154 (0.049)**	0.113 (0.057)*	0.101 (0.052)	0.052 (0.054)*	0.206 (0.069)**	0.111 (0.066)	0.138 (0.070)*	0.184 (0.065)**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0.139 (0.034)**	0.164 (0.037)**	-0.010 (0.039)	0.098 (0.074)	0.213 (0.092)*	0.097 (0.097)	0.361 (0.108)**	0.161 (0.102)	0.029 (0.117)	0.128 (0.085)	0.286 (0.092)**	-0.115 (0.101)	0.121 (0.077)	0.077 (0.084)	-0.043 (0.099)	0.159 (0.113)	0.214 (0.109)	0.014 (0.091)
상수	-8.255 (1.12)**	-4.235 (1.137)**	-5.470 (1.217)**	-6.163 (2.373)**	-3.152 (2.610)	-5.350 (3.064)	-11.901 (3.05)**	-13.112 (2.523)	-5.883 (3.197)	-5.365 (2.426)	-7.457 (2.667)**	-6.586 (2.995)*	-6.037 (2.655)**	2.655 (2.731)	-5.947 (3.541)	-11.482 (3.663)**	-7.952 (3.559)**	-9.666 (3.295)**

변수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생활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인식된 문제 없음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N	1,042			212			200			202			203			225		
LR χ^2	504.14			110.87			150.10			121.91			170.19			144.98		
Pseudo R ²	0.2061			0.2148			0.3132			0.2514			0.3400			0.3452		
Log likelihood	-970.8418			-202.6565			-164.5927			-181.5369			-165.2156			-137.4731		

주1) 변수의 ()는 준거집단, 뒤는 더미 항목

주2) *** p<.001, ** p<.01, * p<.05

주3) 전체 대상자 1,042명은 1,119명 중 1순위 지역문제로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을 선택한 77명 제외된 수치임.

각 군집에서도 해당 수치 제외되었음(군집1-21명, 군집2-21명, 군집3-7명, 군집4-10명, 군집5-18명)

(2) 군집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앞서 전체 및 연령대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는 군집별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그림 VI-7~VI-9와 같이 제시하고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제시한 전체 결과는 앞에서 기술되었기에 군집별 결과만을 해석하였고, 인식된 지역 문제의 유형 세 가지를 각각 따로 떼어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였다.

먼저 그림 VI-7에는 '불편한 대중교통'의 결정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군집별로 비교한 것이다. 군집1 지역의 경우, 통학/통근의 불편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군집2 지역은 스쿨버스통학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군집3 지역은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영향력을 보이고, 군집4 지역은 일상 스트레스가, 군집5는 학교급 및 연령대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에서도 군집마다 각기 다른 요인들이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 그림 VI-8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군집1 지역은 통학/통근의 불편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군집2 지역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역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군집3 지역에서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력도 작지는 않다. 군집4 지역의 경우 스쿨버스통학의 영향력이, 군집5 지역은 거주 형태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다음으로 그림 VI-9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영향 요인이 하나 또는 두 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으나, 군집1 지역, 군집2 지역, 군집3 지역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의 영향력 크기는 비교해 보면, 군집2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다소 크다. 군집4 지역은 스쿨버스통학, 군집5는 거주 형태의 영향력이 다른 결정요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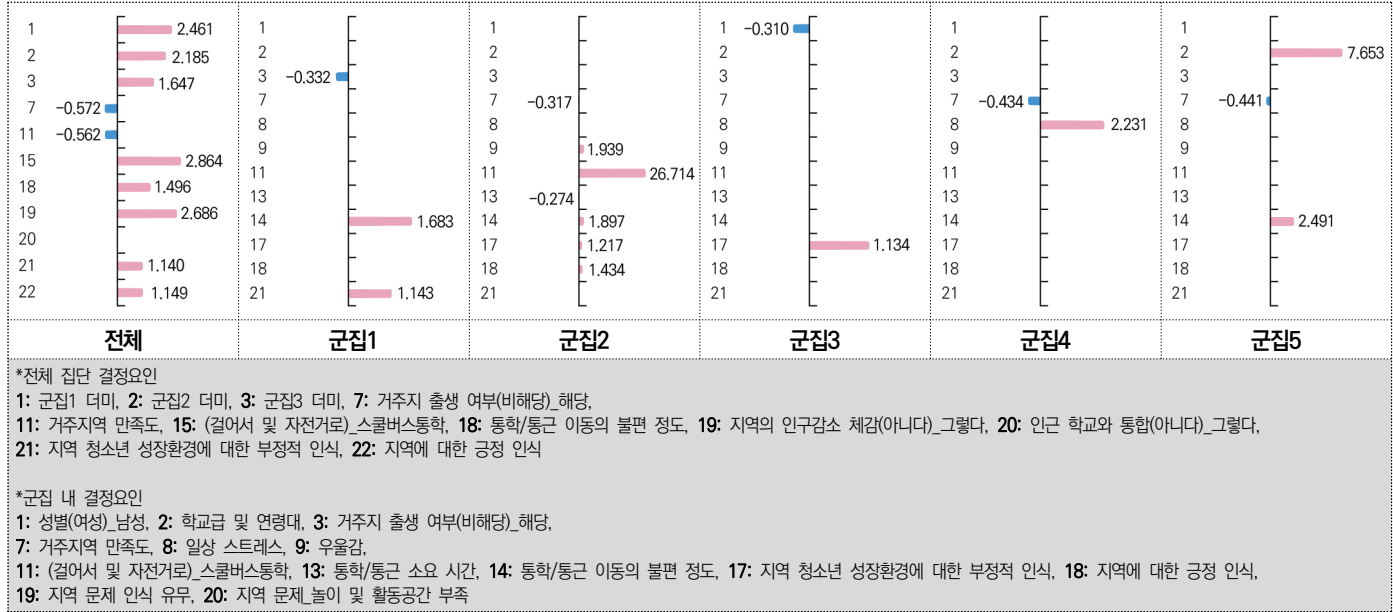


그림 VI-7. 군집별 인식된 지역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불편한 대중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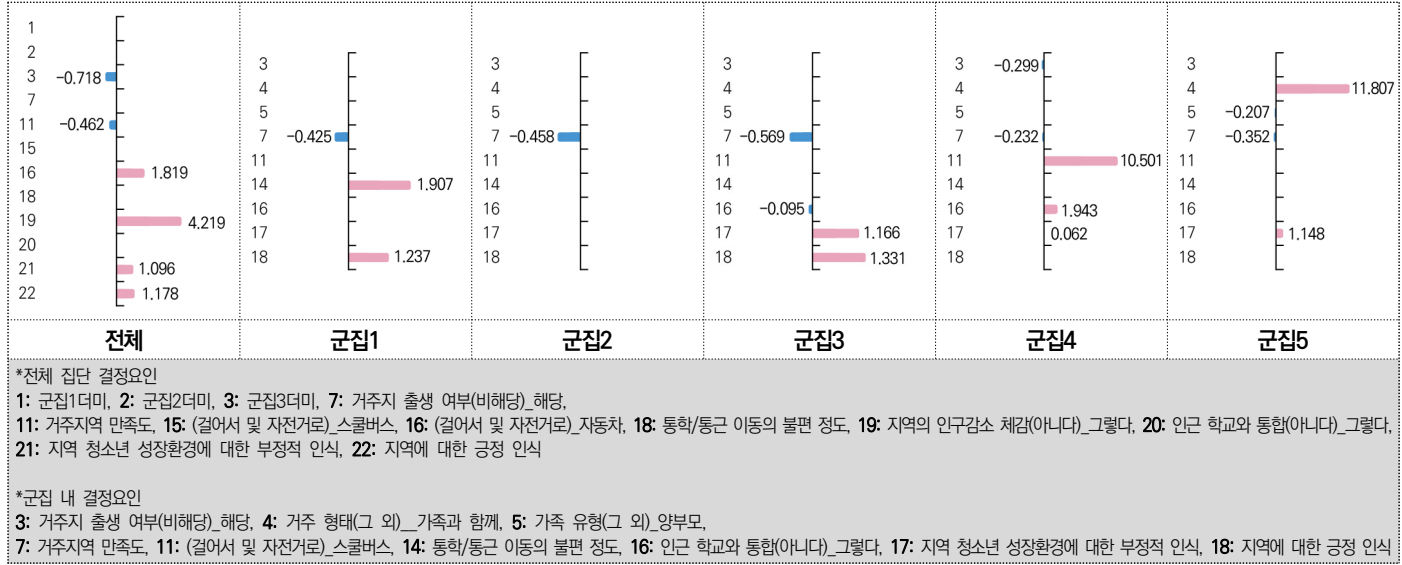


그림 VI-8. 군집별 인식된 지역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그림 VI-9. 군집별 인식된 지역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2) 군집별 다른 지역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 : Binary Logit Model

(1) 군집별 다른 지역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의 결정요인 비교

앞서 분석한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 및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그리고 이사계획은 없지만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하는지의 결정요인을 이항로짓 모델로 분석하였다. 5개의 군집별 이사계획 및 이동 희망 여부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표 VI-7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군집1 지역의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부터 살펴보면, 학교급 및 연령대, 스쿨버스통학, 인식된 지역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인식된 주된 지역 문제가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인 경우가 다른 지역이동 희망에 정(+)¹⁾의 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은 단기 또는 향후 지역의 청소년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교급이 높고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과 현재 스쿨버스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청소년, 그리고 지역 문제를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단기간 내 이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이사계획은 없을지라도 생활 문제와 정보·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이다.

군집2 지역은 군집1 지역과 다른 요인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계획과 지역이동 희망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계획에는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¹⁾의 요인이고, 다문화 가정과 일상 스트레스의 수준은 부(-)¹⁾의 요인이다. 이는 지역의 성장환경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단기간 내 이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정과 일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이사계획 없이 정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지역에 남아 정주하는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군집2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 청소년에 대한 기본 이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현재 이사계획은 없지만, 다른 지역이동을 희망하므로 이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정주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부(-)¹⁾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 있는데, 성별로 남성의 경우 향후 지역이동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군집3 지역은 학교급 및 연령대가 이사계획에 정(+)¹⁾의 요인이고, 거주지 출생이 부(-)¹⁾의 결정요인이다. 즉, 학교급 및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사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거주지 출생자의 경우 이사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작은 것이다. 이사계획은 없지만 향후 지역이동

을 희망하는 데에는 통학/통근 불편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4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통학/통근만이 이사계획 유무에 정(+)의 결정요인이 되고, 이 요인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희망에도 자동차 통학/통근과 함께 정(+)의 요인이 된다. 다른 지역이동 희망에 거주 형태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나, 군집4 지역의 특성은 통학/통근의 문제, 결국 교통 문제가 단기간 내 이사를 통한 지역이동과 향후 발생할 지역 청소년인구 유출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군집5 지역의 경우 이사계획 유무나 향후 지역이동 희망에 모두 정(+)의 영향 요인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사계획 유무에는 대중교통 통학/통근과 인식된 지역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 형태가 결정요인이 되고, 다른 지역이동 희망에는 일상 스트레스와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결정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군집5 지역의 단기간 내 이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인식된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이사 결정, 대중교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지역이동을 희망하는 데에는 현재 거주지역에서 충족되지 않는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VI-7. 군집별 다른 지역 이사계획 및 이동 희망 여부 결정요인

변수	이사계획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이동 희망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인구감소 지역 군집>												
지역(군집5)_군집1	0.348 (0.233)						-0.081 (0.205)					
지역(군집5)_군집2	0.327 (0.236)						-0.304 (0.209)					
지역(군집5)_군집3	0.222 (0.256)						-0.161 (0.217)					
지역(군집5)_군집4	0.122 (0.249)						-0.258 (0.214)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 특성>												
성별(여성)_남성	-0.294 (0.151)	-0.152 (0.319)	0.048 (0.383)	-0.438 (0.394)	-0.751 (0.357)	0.820 (0.349)	0.025 (0.134)	0.214 (0.304)	-0.720 (0.366)*	0.308 (0.329)	0.267 (0.320)	0.030 (0.311)
학교급 및 연령대	0.411 (0.095)**	0.619 (0.211)**	0.389 (0.224)	0.504 (0.222)*	0.156 (0.256)	1.861 (0.625)	0.012 (0.083)	-0.157 (0.180)	0.234 (0.209)	-0.069 (0.202)	-0.144 (0.238)	0.323 (0.236)
거주지 출생 여부(비해당)_해당	-0.466 (0.154)**	-0.495 (0.330)	-0.653 (0.398)	-1.133 (0.428)**	0.303 (0.369)	0.430 (0.191)	0.006 (0.137)	0.172 (0.315)	-0.271 (0.377)	0.183 (0.336)	-0.761 (0.333)	0.414 (0.321)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거주 형태(그 외)_가족과 함께	-0.174 (0.217)	0.412 (0.472)	-0.634 (0.518)	-0.166 (0.674)	0.047 (0.537)	1.118 (0.764)	-0.012 (0.203)	0.570 (0.470)	-0.118 (0.474)	0.447 (0.673)	-0.700 (0.483)*	0.033 (0.545)
가족 유형(그 외)_양부모	-0.075 (0.169)	-0.083 (0.359)	0.374 (0.440)	-0.04 (0.448)	-0.006 (0.381)	0.376 (0.179)*	0.03 (0.151)	-0.263 (0.344)	-0.471 (0.382)	0.588 (0.389)	-0.152 (0.348)	0.597 (0.387)
다문화가정 여부(비해당)_해당	-0.776 (0.286)**	-0.430 (0.533)	-1.722 (0.751)*	-0.912 (0.721)	-0.852 (0.611)	0.817 (0.881)	0.408 (0.204)*	0.210 (0.429)	1.045 (0.526)*	0.266 (0.488)	0.672 (0.452)	-0.111 (0.628)

변수	이사계획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이동 희망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거주지역 만족도	-0.102 (0.083)	0.068 (0.181)	-0.238 (0.202)	0.046 (0.206)	-0.324 (0.207)	0.779 (0.190)	-0.066 (0.075)	-0.224 (0.173)	-0.102 (0.190)	-0.211 (0.188)	-0.090 (0.189)	0.120 (0.176)
일상 스트레스	-0.090 (0.099)	0.055 (0.225)	-0.491 (0.235)*	0.216 (0.235)	0.118 (0.257)	0.705 (0.203)	0.012 (0.085)	-0.139 (0.214)	0.114 (0.207)	-0.188 (0.206)	-0.284 (0.214)	0.441 (0.203)*
우울감	0.056 (0.072)	0.064 (0.160)	0.041 (0.171)	0.148 (0.17)	0.062 (0.178)	1.091 (0.226)	-0.071 (0.065)	-0.214 (0.158)	0.095 (0.152)	-0.183 (0.152)	-0.045 (0.165)	-0.125 (0.155)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통학/통근 수단 및 방법												
(걸어서 및 자전거로)_대중교통	0.382 (0.212)	0.000 (0.481)	-0.691 (0.512)	1.151 (0.606)	0.193 (0.612)*	3.763 (2.053)*	0.093 (0.197)	0.053 (0.454)	0.478 (0.480)	-0.733 (0.599)	1.191 (0.591)*	-0.409 (0.412)
(걸어서 및 자전거로)_스쿨버스	0.214 (0.281)	1.781 (0.761)*	0.678 (0.735)	-0.42 (0.592)	-0.023 (0.622)	1.049 (1.513)	0.371 (0.225)	-0.949 (0.807)	0.501 (0.638)	0.214 (0.465)	0.845 (0.551)	0.871 (0.617)
(걸어서 및 자전거로)_자동차	0.075 (0.186)	0.100 (0.377)	-0.112 (0.419)	0.372 (0.505)	-0.538 (0.454)	2.050 (1.198)	0.154 (0.165)	0.189 (0.360)	0.102 (0.390)	-0.100 (0.457)	0.860 (0.438)*	0.315 (0.397)
통학/통근 소요 시간	0.023 (0.100)	0.017 (0.215)	0.378 (0.285)	0.187 (0.261)	-0.250 (0.228)	0.997 (0.285)	-0.190 (0.092)*	-0.122 (0.209)	-0.205 (0.273)	-0.304 (0.24)	-0.223 (0.212)	-0.416 (0.227)
통학/통근 이동의 불편 정도	-0.132 (0.074)	-0.123 (0.158)	-0.131 (0.188)	-0.178 (0.191)	-0.139 (0.185)	0.767 (0.163)	0.172 (0.065)**	0.181 (0.148)	0.056 (0.173)	0.380 (0.177)*	0.181 (0.164)	0.234 (0.150)
지역의 인구감소 체감(아니다)_그렇다	0.038 (0.243)						0.363 (0.211)					
인근 학교와 통합(아니다)_그렇다	-0.038 (0.178)	-0.024 (0.443)	0.251 (0.497)	0.425 (0.513)	-0.140 (0.397)	0.831 (0.393)	0.062 (0.154)	0.079 (0.423)	0.293 (0.447)	-0.620 (0.444)	0.231 (0.354)	0.015 (0.337)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0.042 (0.015)**	0.004 (0.034)	0.091 (0.037)*	0.056 (0.038)	0.057 (0.037)	1.051 (0.053)	-0.005 (0.013)	0.001 (0.032)	-0.041 (0.035)	-0.001 (0.033)	0.037 (0.033)	-0.010 (0.032)

변수	이사계획						(이사계획은 없으나) 다른 지역이동 희망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0.055 (0.024)*	-0.018 (0.055)	-0.059 (0.063)	-0.028 (0.062)	-0.081 (0.055)	0.933 (0.064)	0.036 (0.021)	0.047 (0.053)	0.058 (0.061)	0.096 (0.055)	0.087 (0.051)	-0.076 (0.045)
지역 문제인식 유무	0.840 (0.196)***	1.002 (0.39)*	0.694 (0.471)	-0.104 (0.533)	0.788 (0.494)	6.403 (3.819)**	-0.234 (0.186)	-0.430 (0.390)	0.019 (0.455)	0.204 (0.462)	-0.400 (0.465)	-0.947 (0.535)
지역문제_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0.549 (0.240)*	-1.326 (0.594)*	-0.951 (0.625)	-0.028 (0.596)	-0.652 (0.535)	0.944 (0.673)	0.754 (0.221)**	0.985 (0.509)	1.030 (0.551)	0.283 (0.517)	0.416 (0.503)	1.292 (0.649)*
지역문제_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0.237 (0.245)	-0.967 (0.553)	-0.434 (0.570)	0.675 (0.694)	-0.760 (0.642)	0.905 (0.592)	0.159 (0.242)	1.052 (0.522)*	-0.472 (0.614)	-0.498 (0.623)	0.246 (0.613)	0.603 (0.613)
상수	-0.992 (0.765)	-2.796 (1.806)	0.074 (1.658)	-3.116 (1.842)	0.837 (1.921)	0.616 (1.386)	-1.268 (0.676)	-0.014 (1.610)	-1.325 (1.580)	-1.718 (1.635)	-1.111 (1.643)	-1.800 (1.533)
N	1,119	233	221	209	213	243	1,119	233	221	209	213	243
LR chi ²	235.22	45.01	66.49	59.13	49.03	107.48	42.73	24.62	26.76	24.51	22.92	24.59
Pseudo R ²	0.1659	0.1452	0.2290	0.2311	0.1838	0.3756	0.0291	0.0792	0.0959	0.0884	0.0822	0.0765
Log likelihood	-591.1317	-132.4459	-111.9667	-98.3565	-108.8887	-89.3524	-713.2825	-143.1112	-126.1063	-126.3273	-127.8988	-148.4022

주1)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 항목

주2) *** p<.001, ** p<.01, * p<.05

(2) 군집별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여부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앞서 군집별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의 영향력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는 이사계획 유무 및 이사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역이동을 희망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그림 VI-10 및 그림 VI-11과 같이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비교하였다.

먼저, 그림 VI-10에 제시된 이사계획 유무를 결정하는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군집1 지역의 경우, 스쿨버스통학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인식된 지역 문제의 유무나 학교급 및 연령대의 영향력도 작은 것은 아니나, 스쿨버스통학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이들 요인의 영향력이 그래프상에서 수치보다 더 작게 보인다.

군집2 지역에서는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군집3 지역에서는 학교급 및 연령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데, 이는 섬과 접경지역이 다수 포함된 이 지역의 특성상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소년인구가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군집5 지역에서는 인식된 지역 문제 유무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갖는다.

이어 그림 VI-11에 제시된 이사계획은 없지만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을 결정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요인이 군집마다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 주요 요인만을 보아 한눈에 파악될 수 있게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군집1 지역의 다른 지역이동 희망에는 인식된 지역 문제로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만이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다. 군집5 지역에도 이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군집2 지역은 다문화가정 여부가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군집3 지역은 통학/통근 불편도, 군집4 지역은 거주지 출생 요인이 작은 부(-)의 영향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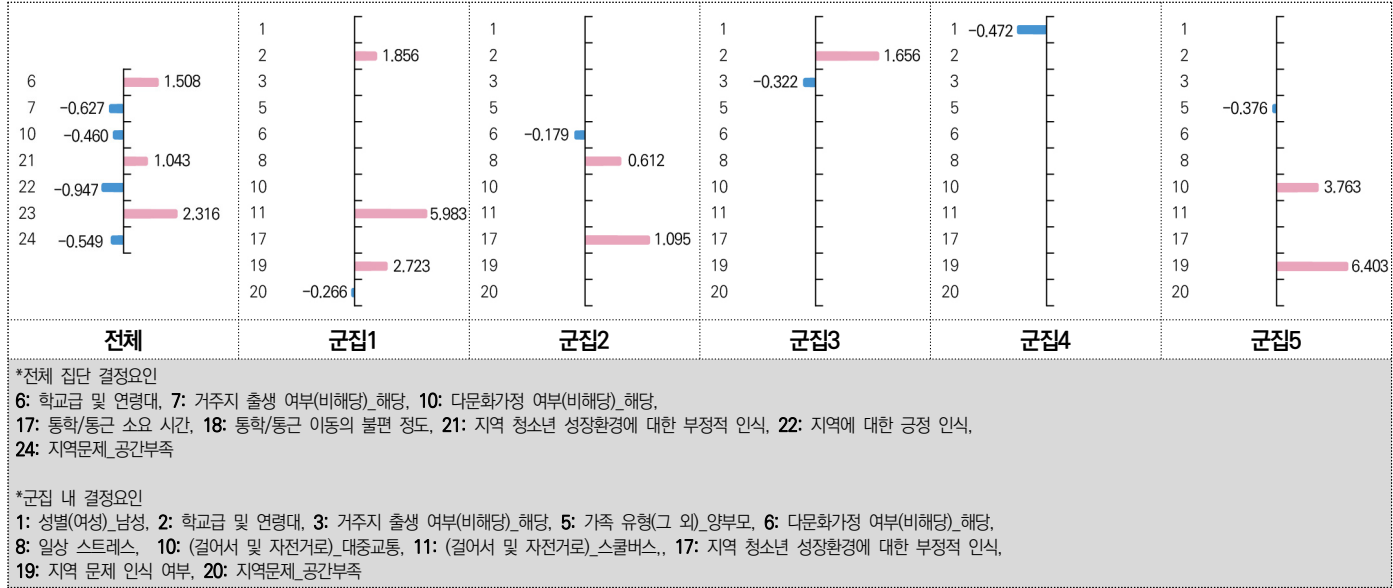


그림 VI-10. 군집별 이사계획 유무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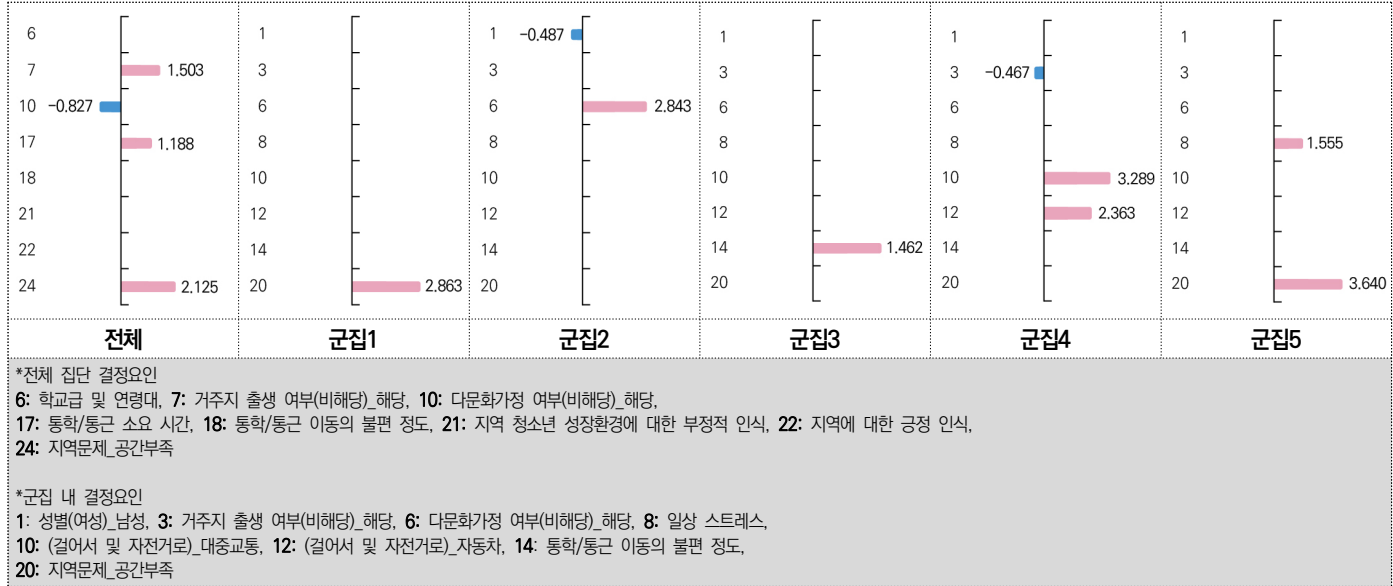


그림 VI-11. 군집별 지역이동 희망여부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4.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모델로 분석하고, 지역의 주된 문제로 청소년들에게 인식되는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가에 대한 실증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항로짓 모델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와 이사계획은 없지만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의 결정요인을 단계적으로 분석함.
- 다항로짓 모델로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음.
 - ① 전체 대상 분석에서는 거주지 만족도가 지역 문제 인식 가능성을 완화하는 공통 요인이며,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문제 인식을 높이는 공통 요인으로 발견됨.
 - ②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는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역 군집이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발견됨.
 - ③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는 전체 대상이나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던 일상 스트레스와 인구감소 체감이 인식된 문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정(+)의 요인으로 작용함.
 - ④ 군집별 분석에서는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개 군집 모두의 '생활 문제 및 정보-채널 기회 부족' 문제 인식에 정(+)의 영향 요인이 된다는 것 이외, 군집마다 각기 다른 결정요인을 가짐.
- 이항로짓 모델로 이사계획 유무 및 다른 지역이동 희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음.
 - ① 전체 대상 분석에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계획에는 인식된 지역 문제나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지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주요 결정요인이 됨.
 - ② 초중고 청소년 분석에서는 군집 지역과 인식된 지역 문제가 이사계획의 가능성이 높고, 거주지 출생과 다문화가정이 이사계획의 가능성이 작아 이들이 지역 청소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 ③ 후기청소년 분석에서는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이들이 이사계획의 가능성이 작고,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통학/통근하는 청소년이 향후 지역을 떠나는 사유는 불편한 교통이 주된 이유일 가능성이 높음.
 - ④ 군집별 공통된 요인 없이 지역에 따라 이사계획 유무 및 다른 지역이동 희망을 결정하는 요인이 상이하고, 인식된 지역 문제가 있는 경우 이사계획 가능성이 높고, 군집1 지역과 군집5 지역에서 인식된 지역의 문제 유형이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됨.
-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된 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분석 대상과 군집 지역에 따라 그리고 인식된 지역 문제와 이사계획 및 다른 지역이동 희망의 분석 모델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가지므로, 획일적인 정책 시행보다는 연령대 및 지역 특성에서 비롯되는 지자체마다의 욕구 기반 정책 수립이 요구됨.

본 장에서는 앞선 제5장의 기초분석에 이어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주된 문제의 결정요인과 이 요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즉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인 방법과 단계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모델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문제가 결국 이들이 국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정책욕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상에서 인식하는 지역의 문제가 쉽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정책욕

구보다 더 구체적이며 현실 밀착된 욕구의 표출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인식된 지역의 문제를 설문조사 문항으로 측정하고, 이를 실증모델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재범주화한 후, 인식된 문제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지 모델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한 지역의 주요 문제가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단기 또는 중장기 지역의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인구의 사회적 이동의 결정요인이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항로지 모델로 이사계획 유무와 이사계획은 없지만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의 요인을 단계적으로 이어 분석하였다.

단계적 실증모델 분석은 전체 대상자부터 시작하였고, 이어 연령대를 초·중·고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제3장에서 도출된 5개의 군집별로 두 가지 모델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발견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주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문제의 인식 가능성을 내용에 상관없이 완화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이들 공통 요인을 관리할 때, 즉 거주지 만족도를 높이고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낮아질 수 있게 한다면 지역에 대한 문제 인식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이 하나의 관리 지표가 될 수 있다.

둘째, 초·중·고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의 정책을 하나로 묶어 수립·시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초·중·고 청소년은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느냐, 즉 지역 군집에 따른 차이와 영향이 지역 문제 인식에 크게 다르다. 반면, 후기청소년은 군집 지역에 따른 영향이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질 만큼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초·중·고 청소년의 지역 문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과 후기청소년의 지역 문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각기 다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대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인식된 지역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영향 요인도 다르지만,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의 부족'을 지역의 우선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스쿨버스트학의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기에 또는 학교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기에 스쿨버스로 통학할 것이고, 이들이 대체로 대중교통과 같은 생활시설 기반의 문제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관계와 같은 생활 문제, 진학 및 진로 정보, 다양한 체험 기회의 부족을 일상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과 원거리 통학 청소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이항로짓 모델로 분석한 이사계획 유무 및 다른 지역이동 희망의 결정요인의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거주지역에서 출생하였거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를 지역에서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는 지역의 청소년정책이 이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두 가지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된 지역의 주된 문제로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이다. 이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생활 기반 환경과 인구감소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늘어갈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완충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머물며 성장하는 정주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놀이 및 활동공간'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이사계획 및 다른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를 통해 그에 대한 실증 근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실증결과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자 도구를 제안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실증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군집 지역에 따라 거주하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것은 결과가 격차의 의미를 내포하는 차이가 아닌, 오히려 다양성의 의미가 강한 다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군집에 공통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딱 하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뿐이다. 그와 같이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5개 군집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인식한 지역 문제에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 개인의 특성 및 생활환경의 맥락 등이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군집별 결정요인의 차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상태 또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어느 군집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 또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학교통합의 경험이 군집3 지역에서는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인식에 부(-)의 영향 요인이 되지만, 군집4 지역에서는 반대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군집별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군집 지역에 따라 거주 청소년의 취약성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제5장의 기초통계 및 차이 검증을 통해서도 군집 간의 상대적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하나, 취약성의 유무 정도로 단순 정보 수준이다. 그러나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서서는 명목상 수치의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이므로, 그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군집4 지역의 경우, 유독 심리·정서 특성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측정 점수가 낮았는데, 실증모델 분석에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인식된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에 일상 스트레스 수준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군집4 지역의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특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논의한 본 장의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는 다음 단계인 제7장에서 앞선 장들에서 고찰되고 분석된 사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과제 등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실증 근거로 활용하였다.

○ — 제7장 종합논의 및 정책 제언

- 1. 주요 결과의 요약 및 논의
- 2. 주요 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의 방향
- 3.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

1. 주요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앞선 제6장의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추진 과정과 추진된 연구의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하고, 연구추진의 각 단계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함.
-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를 크게 세 단계(①초분석 → ②실증모델 분석Ⅰ: 다항로지트 모델 → ③ 실증모델 분석Ⅱ: 이항로지트 모델)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주요 발견을 요약 제시함.

1) 연구추진 과정 및 단계별 요약

(1) 추진 과정의 흐름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논의에서 청소년이 고려되거나 정책 아젠다에 청소년정책 이슈가 연계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2020년 사상 첫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확인(행정안전부, 2021.1.4)된 이래,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와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같은 해 연 1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2023년 국가정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 인구 위기의 고조 속에서 정부의 대응이 발 빠르게 이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9세~24세 연령대 인구를 구성하는 청소년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과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려되지 않고 논외로 빠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이제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존재하나,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정책 논의에서 주목하지 않았다.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본 연구의 시작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정책 논의에서 청소년이 고려된다거나 청소년정책과 연계되지 못하는, 즉 정책 소외의 측면에 대한 문제 인식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역 간 인구 격차의 완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에 있어 청소년이 지역 인구 유출의 주된 연령층이고, 정주 청소년들이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으니 본 연구를 통해 실증 근거로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정책적 관심이 없었던 만큼 그간 집적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축적된 선행 실증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며, 인구감소와 관련된 일반 논의 이외 청소년에 초점을 둔 인구감소지역과 관련 논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제1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을 기본 틀로 하고, 시간 측면에서의 ‘순차적 통합방법 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와 패러다임 측면의 ‘주-부 혼합(dominant-less dominant design)’ 방식으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였다. 기존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성과 지역의 청소년 인구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한 단계씩 자료화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내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순차적 통합방법이다. 또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에 기초한 결론 도출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부가적으로 면접조사와 같은 질적 방법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주된 양적 방법과 보조적인 질적 방법을 혼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정책자료 검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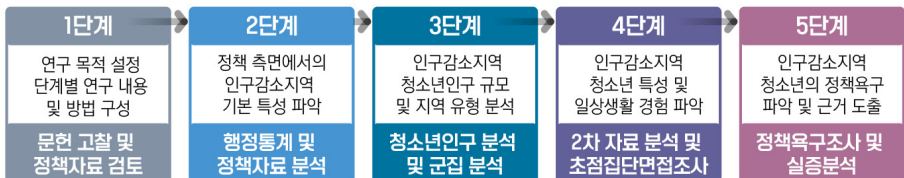


그림 VII-1. 연구추진 과정의 흐름

(2) 단계별 추진 내용 요약

① 1단계: 문헌 고찰 및 정책자료 검토를 통한 연구 설계

연구의 시작점이자 단계별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문헌 고찰과 그간의 정책자료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주제로 하는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시간 경과 속에서 문제 제기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확장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속에서 청소년인구에 대한 분석의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또한 제1장에 기술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논거의 정보 조각을 집적하였다.

문헌 고찰과 함께 정책자료의 검토가 초기 연구 설계 단계부터 이루어졌는데,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 즉 인구감소지역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전·후로 한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정과 흐름을 관련 법률 및 주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제2장에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개념 이해와 정책지원 발전 및 현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다음 단계에서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② 2단계: 행정통계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파악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21년 10월에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앞 단계에서 고찰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의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특성 세 가지(①지역 성격(도농), ②재정 여건, ③취약계층 비율)를 행정통계 자료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간 상대적 비교가 되는데, 이는 어느 지역이 더 취약한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유사성을 발견하고 묶어 내보고자 하는데 그 방점이 있다.

자료 분석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농촌지역이 절대다수(69개)이고,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세입으로 구성되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지라도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도 적지 않다. 취약계층의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살펴보면, 광역시(부산, 대구)의 자치구 지역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다. 도 지역에서는 전북지역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 비율과 다문화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많다. 이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비교해 보면, 충남 부여군과 경북 고령군이 세 가지 항목의 취약계층 비율이 모두 인구감소지역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분석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적인 특성 파악
• 분석 범위	지역 성격(도농), 재정 여건(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역 내 취약계층 비율(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 다문화가구)
• 분석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제공 각 데이터
• 주요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촌지역이 69개로 다수, 재정자립도 전반적으로 낮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재정자주도 또한 낮은 것은 아님. ② 광역시(부산, 대구)의 자치구 및 전북지역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수급자 비율이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수준보다 높은 공통점이 있음. 특히 전북지역은 다문화가구의 비율도 높음. ③ 기초 단위에서 충남 부여군과 경북 고령군이 세 가지의 취약계층 비율이 모두 인구감소지역 평균 수준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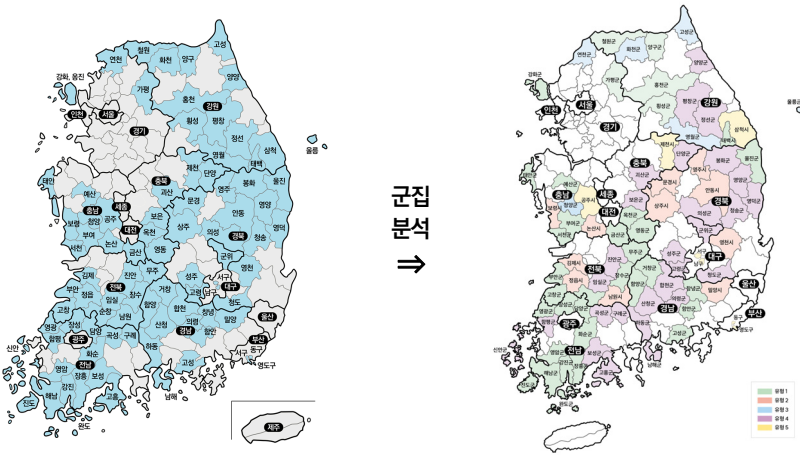
③ 3단계: 청소년인구 규모 파악 및 군집분석을 통한 지역 유형의 체계적 분류

2단계에서 파악한 인구감소지역의 기본 특성에 이어, 3단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인구 규모를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청소년인구 수 및 비율을 중심으로 89개 지역의 유형을 군집분석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평균 인구가 6천 268명이고, 이는 비해당지역 청소년의 1/7 수준에 불과하며, 청소년인구가 지역 총인구의 10% 미만인 지역도 22곳에 달한다는 사실도 파악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안동시, 청소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제천시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 분석 목적	인구 규모 분석: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 규모 및 비율 확인 지역 유형 분석: 청소년인구 정보를 중심으로 89개 지역을 유사 성격의 군집으로 묶어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효율적으로 도출 및 정책육구조사의 표본 할당의 틀 마련
• 분석 범위	89개 지역별 청소년인구수 및 비율, 연령대별 인구수 및 비율, 상대적 순위 k-평균 군집분석 방법 활용, 89개 지역 대상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 분석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 현황
• 주요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감소지역의 9세-24세 청소년인구 평균 6천 268명, 비해당지역의 1/7 수준, 비해당지역과 인구 규모 비교 시, 총인구수보다 청소년인구수에서 격차 심화 ② 청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경북 안동시, 청소년인구 비율 가장 높은 지역 충북 제천시, 청소년인구가 지역 총인구의 10% 미만인 지역 22곳으로 경북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 ③ 지역 특성으로 도농 대비와 지역의 총인구수, 청소년인구수 및 비율 변수로 군집 분석한 결과, 89개 지역을 5개의 유형으로 분류

89개 지역 대상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서는 총 5개의 군집 유형이 도출되었고, 그림 VII-2의 좌측에 제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우측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가지 색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군집 유형을 분류한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89개 지역 각각이 아닌 유사성이 있는 지역을 묶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단계에서 추진될 정책육구조사의 표본 추출의 틀이 없기에 이를 위한 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목적이다.



* 자료 : 행정안전부 누리집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4.9.23. 검색 및 인출)

그림 VII-2. 청소년인구 중심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5개 군집으로 유형화

④ 4단계: 2차 자료 분석 및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특성 파악
3단계의 청소년인구 규모 파악에 이어 4단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핵당지역 청소년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적 자료에 담기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생활 속에서의 경험·의식을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차 자료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가 사용되었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초·중·고 시기를 보낸 후기청소년 11명이 참여한 초점집단면접조사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2차 자료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만족도나 활동경험의 양적 수준, 자존감 등의 정서 특성이 비해당지역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 수준이 높으나, 5개 군집별로 나누어 비해당지역과 비교해 보면, 군집마다 각기 다른 비교 항목에서의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발견은 2차 자료가 갖는 한계, 즉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1개 지역만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의 의미를 활용할 수는 없고, 정책육구 조사의 방향과 내용 구성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한편,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인구감소지역의 문제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마저 사라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무기력함으로 연계될 수 있음이 포착되었다.

• 분석 목적	[2차 자료 분석] 비해당지역 청소년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특성 파악 [초점집단면접조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및 성장 경험·의식 특성 파악
• 분석 범위	[2차 자료 분석] 일상생활만족도, 활동경험, 정서 및 의식 특성 [초점집단면접조사] 일상생활, 경험 및 의식, 정책지원육구 등
• 분석 자료	[2차 자료 분석]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초점집단면접조사]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11명의 참여 후기청소년의 녹취 및 전사 자료
• 주요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차 자료 분석] 전반적으로 일상생활만족도나 활동경험의 양적 수준, 자존감과 같은 정서 특성이 비해당지역 청소년에 비해 인구감소청소년의 수준이 높음. 단, 비교 내용에 따라 군집마다 상대적 비교 속에서 갖는 각기 다른 취약성이 발견됨. ② [초점집단면접조사] 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의 취약성이 단순히 성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생활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욕구와 가능성의 의지마저 사라지고 무기력함으로 연계되고 있는 측면이 포착됨.

⑤ 5단계: 정책육구조사를 통한 연령대 및 지역 군집별 청소년 정책육구 파악

앞선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정책육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육구조사를 설계하고, 웹기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1,119명의 자료(초·중·고 청소년 681명, 후기청소년 438명)로 기초분석과 두 가지의 실증모델(다항로짓, 이항로짓)을 실시하였다.

기초분석에서는 기초통계 분석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특성을 연령대 및 군집별로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연령대별 청소년들과 군집마다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을 통해 드러나는 상대적 비교우위의 사항과 상대적 취약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된 문제로 우선 인식되는 사항을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하는지를 다항로짓 모델로 분석

하였고, 그러한 문제 인식이 청소년의 지역이동에 결정요인이 되는가를 이항로짓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청소년의 지역 문제 인식을 완화(거주지 만족도)하거나 강화(성장환경 부정 인식)하는 공통 요인이 확인되었고, 연령대 및 군집 지역에 따라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각기 다르며,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인식하는 그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실증 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거주지역 출생자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그리고 스쿨버스로 통학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지역이동의 가능성이 작고, 지역에 정주하는 초·중·고 청소년들이 지역의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놀이 및 활동공간의 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이어지는 ‘실증모델 분석의 주요 발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 분석 목적	청소년의 정책육구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실증분석을 통한 제안 정책의 근거 마련
• 분석 범위	축정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특성, 지역의 문제 인식, 거주지 이동계획 등
• 분석 자료	웹기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1,119명(초·중·고 청소년 681명, 후기청소년 438명)
• 주요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주지 만족도가 지역 문제의 인식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강화하는 요인 ② 연령대(초·중·고 청소년, 후기청소년) 및 군집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들이 청소년의 지역문제 인식을 결정하여 연령대별, 군집별 정책 수립이 요구됨. ③ 인식된 지역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단기간 내 이동, 즉 이사계획의 가능성을 높임. ④ 지역 출생자, 다문화가정, 스쿨버스타통학 청소년의 지역이동 가능성 작음. ⑤ 지역에 정주하는 초·중·고 청소년이 지역의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 꼽는 것은 ‘놀이 및 활동공간의 부족’.

2) 실증분석의 주요 발견

(1) 기초분석 차이 검증에서의 주요 발견

정책육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1,119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①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②생활 경험 및 인식, ③지역 문제 인식 및 이동 계획)로 범주화하고, 각 사항에 대해 연령대 및 군집별로 응답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령대별 차이보다는 군집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전체 및 연령대별 차이 검증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군집별 차이 검증의 결과는 이후 기술되는 각 군집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제시하였다.

차이 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 중 실증모델 분석에도 그 차이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사항들 중심으로 그림 VII-3과 같이 주요 발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면 첫째, 초·중·고 청소년이 후기청소년에 비해 거주지역 및 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고, 후기청소년은 일상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전체 대상자의 87.5%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체감한다. 인구감소를 체감하는 직접적인 경험 중 하나인 학교통합의 경험은 초·중·고 청소년의 평균 경험률이 28.2%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절반에 가까운 경험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군집별 결과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 셋째,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3.11점)보다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4.05점)이 더 높다.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이 지역의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에서 그러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6%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복수 응답 비율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지역의 문제로 응답한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불편한 대중교통'이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초·중·고 청소년의 경우 '놀이 및 활동공간의 부족'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차이가 있다.

(2) 전체 및 연령대별 실증모델 분석에서의 주요 발견

기초분석의 주요 발견과 함께 그림 VII-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및 연령대별 실증모델 분석 결과의 첫 번째 발견은 전체 인구감소지역 공통으로 거주지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지역 문제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오히려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공통 요인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경우 대체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비롯하여 생활인프라 및 좁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을 포괄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인구감소의 체감도 지역 문제(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의 부족,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의 인식 가능성을 높인다.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은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는 생활 인프라 중심으로 측정된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역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측정된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청소년들의 지역 문제 인식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세 번째로, 거주지 출생은 전체 수준에서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이지만, 초·중·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불편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인식의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특성이 연령대와 지역의 문제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매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대별(초·중·고 청소년, 후기청소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전체 대상자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견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발견이 초·중·고 청소년 분석에서 군집 지역이 문제 인식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스쿨버스터통학과 학교통합의 경험이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들 요인은 후기청소년 대상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초·중·고 청소년의 지역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 군집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학교통합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지가 공통 요인과는 별개로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후기청소년 분석에서는 초·중·고 청소년 분석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일상 스트레스가 모든 지역 문제 인식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발견된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포착되었고, 기초분석의 차이 검증에서도 후기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일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등 심리·정서 측면의 취약성은 단계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이것이 지역 문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 인식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후기청소년에게 있어서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만으로는 정책개입의 지점을 명확하게 짚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19세~24세 청소년이 갖는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의 실증자료가 후속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단계		주요 발견
정책 육구조사 및 기초 분석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 군집을 표본 할당의 틀로 활용, 표본 배분 후 초·중·고 청소년은 5개 군집의 학교 표본을 통해, 후기청소년은 통신사DB 활용해서 표본 확보 · 웹기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1,119명(초·중·고 청소년 681명, 후기청소년 438명) · 총 1,119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①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②생활 경험 및 인식, ③지역문제 인식 및 이동계획)의 응답 내용을 기초통계로 분석하고, 연령대 및 군집별로 응답의 차이를 검정통계 (χ^2-test, t-test, GLM-test)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함.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고 청소년이 후기청소년에 비해 거주지역 및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 높고, 후기청소년은 일상 스트레스, 무기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2 전체의 87.5%가 인구감소체감, 초·중·고 청소년의 28.2% 학교통합 유경험. 3 지역에 대한 긍정인식 수준(4.05점)이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3.11점)보다 더 높음. 4 전체의 49.6%가 지역의 문제를 인식, 가장 높은 복수 응답 비율의 문제는 '불편한 대중교통', 단, 초·중·고 청소년은 '놀이 및 활동공간의 부족' 응답률이 가장 높음. 5 전체의 32.9%, 후기청소년의 54.3% 이사계획 있고, 전체의 54.5% 향후 지역이동 희망함.
실증모델 분석 I: 다항로짓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인식한 지역 문제 유형 세 가지(①불편한 대중교통, ②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③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를 기본으로 하고, 후기청소년 분석모델의 경우 지역 문제 유형 추가(④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 모델(Multinomial Logit Model)로 분석. 모델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인식된 지역 문제가 없음'. · 분석 모델의 설명변수는 네 가지 범주(①군집 지역, ②사회인구학적 특성, ③일상생활 특성, ④인식된 주요 문제)로 구성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거주지 만족도가 지역 문제 인식의 완화 요인,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 인식은 강화 요인으로 작용 2 [전체] 인구감소 체감은 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후기청소년의 경우는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데 정(+의) 영향으로 작용 3 [전체]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은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상쇄하지 못하고, 연령대 상관없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4 [전체] 거주지 출생은 전체 대상에서 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이나, 초·중·고 청소년의 경우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가 아닌,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임. 5 [초·중·고] 지역 군집이 지역 문제 인식을 높이는 주요 요인 6 [초·중·고] 스쿨버스타통학과 학교통합 유경험은 '불편한 대중교통',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7 [초·중·고] 학교급 및 연령대는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에 부(-) 영향 요인 8 [후기] 일상스트레스가 4개 범주의 지역 문제 인식을 모두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9 [후기] 통학/통근 불편도는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에 정(+의) 영향, 소요 시간은 부(-) 영향 요인
실증모델 분석 II: 이항로짓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 및 이사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 모델(Binary Logit Model)로 분석 · 설명변수는 다항로짓 분석과 같이 네 가지 범주(①군집 지역, ②사회인구학적 특성, ③일상생활 특성, ④인식된 주요 문제)로 구성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으로 인식된 지역의 문제가 있고, 학교급 및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초·중·고 청소년은 스쿨버스타 자동차 통학의 경우 이사계획 가능성이 높음. → 청소년의 지역문제 인식 유무가 지역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에 주지할 필요 있음. 2 거주지 출생자, 다문화가정,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이 높고,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 후기청소년은 거주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사계획 가능성 작음.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결국 이사계획 가능성 낮은 정주민. 3 이사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지역이동 희망에 다문화가정이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를 현 거주지에서 자라더라도 향후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그림 Ⅲ-3. 실증분석 단계 및 주요 결과 : 전체 및 연령대별

(3) 군집별 실증분석에서의 주요 발견

① 군집1 지역 : 농촌, 9세~18세 비율 높은 35개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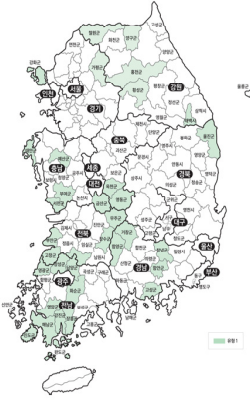
전체 및 연령대별 실증분석 결과와는 달리, 군집별 실증분석의 결과를 표 VII-1.~표 VII-5. 까지 5개의 군집을 따로 떼어 분석 내용 기준이 아닌, 군집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는 89개 인구감소지역 해당 지자체를 포함하여 인구감소지역 정책 현장 또는 지역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를 고려하여 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군집1 지역은 제3장의 군집분석의 결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면서 9세~18세 초·중·고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많은 35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초분석의 차이 검증을 통해 나타난 이 지역 청소년의 특성은 거주 지역 및 일상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으나, 일상 스트레스는 가장 높아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그 외 5개 군집 지역 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사항(통학/통근 불편도, 인구감소 체감 비율, 성장환경 부정 인식, 지역 문제 인식 비율, 다른 지역이동 희망 비율)이 다수 있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사항이다.

실증모형을 통해 나타난 군집1 지역의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을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편한 대중교통'에는 통학/통근 불편도와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이 문제 인식의 가능성을 높이고, 거주지 출생은 완화 요인이 된다. 통학/통근 불편도는 '놀이 및 활동 공간 부족' 문제의 인식 가능성에도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과 함께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를 인식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군집1 지역에서 청소년의 지역 문제 인식을 높이는 데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통학/통근 불편도와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데, 이 두 요인은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며, 인식된 지역 문제는 이사계획의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의 문제를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현재 이사계획이 없을지라도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잠재적 지역 유출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군집1지역은 통학/통근 불편도와 성장환경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1.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군집1

군집1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p>• 농촌, 9세-18세 비율 높음</p> 	<p>5개 군집 중 가장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스트레스 · 통학/통근 불편도 · 인구감소 체감 비율 · 성장환경 부정 인식 · 지역 문제 인식 비율 ·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 비율 <p>5개 군집 중 가장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만족도 · 일상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p>(+) 통학/통근 불편도, 성장환경 부정 인식 (-) 거주지 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p>(+) 통학/통근 불편도, 지역 긍정 인식 (-) 거주지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p>(+) 성장환경 부정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p>(+) 학교급 및 연령대, 스쿨버스통학, 인식된 지역 문제 있음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이동 희망 <p>(+)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p>	<p>인식된 지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통학/통근 불편도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통학/통근 불편도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p>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유무 - 스쿨버스통학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
<p>• 해당 35개 지자체</p>	<p>(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양구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p>			

② 군집2 지역 : 도농복합, 9세~18세 비율 높은 11개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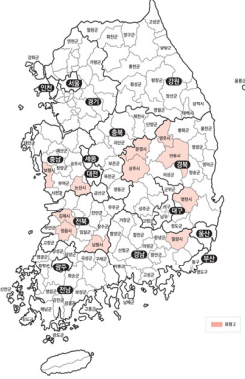
군집2 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9세~18세 초·중·고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1개 지역이 해당한다. 5개 군집 지역 간 차이 검증을 통해 나타난 이 지역 청소년의 특성으로 주목하는 것은 일상 무기력감 수준과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초·중·고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초·중·고 청소년의 연령대에서는 ‘불편한 대중교통’보다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은 세부 측정 항목에 따라 지역 환경이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응답 비율은 가장 높고, 경제적으로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이 많다는 항목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증모형을 통해 나타난 군집2 지역의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을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지 만족도가 ‘불편한 대중교통’과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인식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편한 대중교통’과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인식의 강화 요인이 된다. 이 성장환경의 부정 인식은 이사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집2 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식된 지역 문제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제각각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 또한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군집2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 문제를 완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수단보다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책 입안의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거주지 만족도가 ‘불편한 대중교통’과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 인식의 가능성을 완화하는 공통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군집2 지역이 인식된 지역 문제를 강화하는 요인에 대응하기보다 완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문화가정과 일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사계획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는 단기간 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라는 결과이다. 이는 군집2 지역에서 또는 군집2 지역 정주 청소년을 포함하는 정책 수립 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갖는 특성과 함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I-2.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 군집2

군집2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 9세~18세 비율 높음 	<p>5개 군집 중 가장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무기력감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익숙하고 편안함 ·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초·중·고 청소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p>(+) 우울감, 스쿨버스통학, 통학/통근 불편도, 성장환경 부정 인식, 지역 긍정 인식</p> <p>(-) 거주지 만족도, 통학 소요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p>(+) 성장환경 부정 인식</p> <p>(-) 다문화가정, 일상 스트레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이동 희망 	<p>인식된 지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스쿨버스통학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거주지역만족도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p>5개 군집 중 가장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경제적으로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 많음 	<p>(-) 거주지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p>(+) 성장환경 부정 인식</p>	<p>(+) 다문화가정</p> <p>(-) 남성</p>	<p>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유무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다문화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11개 지자체 	<p>(충남) 보령시, 논산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 밀양시</p>			

③ 군집3 지역 : 농촌, 19세~24세 비율 높은 7개 지자체

군집3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지역이 해당한다. 섬 지역과 접경 지역²²⁾이 다수 포함되는 특성을 갖는다. 5개 군집 지역 간 차이 검증을 통해 나타난 이 지역 청소년의 특성으로 주목하는 것은 통학/통근 불편도와 스쿨버스트용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이는 군집3 지역 내에서 거주지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른 군집 지역에 비해 넓지 않고 좁아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거주지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면,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측정 항목 중, '익숙하고 편안함'의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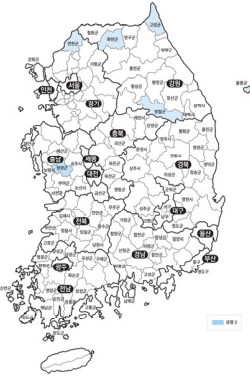
실증모델을 통해 나타난 군집3 지역의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지역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모든 유형의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군집3 지역의 전략적 대응은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것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 요인 이외 군집3 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통합 경험이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라는 결과이다. 이는 제6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통합이라는 같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지역에서 이후의 후속 대응을 어떠한 형태로 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지역 문제 인식을 높이는 강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군집3의 결과와 같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군집3 지역의 경우 학교통합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후속 면접조사에서 보고된 사례처럼²³⁾ 지원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학교급 및 연령대가 이사계획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사계획은 없을 지라도 향후 다른 지역이동을 희망하는데 통학/통근 불편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면, 군집3 지역은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이동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을 떠나는 이들이 어떠한 경험과 지역에 대한 감각(sense of place)을 가지며 성장하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0.24. 검색).

23) 학교통합 이후, “한두명을 제외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기숙사 안에 노래방, 헬스장, 보드게임방 등을 비롯하여 함께 방과 후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다”(후속 개별면접조사 참여자 군집2-D).

표 VII-3.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 군집3

군집3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19세~24세 비율 높음 	<p>5개 군집 중 가장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편한 대중교통 (+) 성장환경 부정 인식 (-) 남성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계획 있음 (+) 학교급 및 연령대 (-) 거주지 출생 다른 지역이동 희망 	<p>인식된 지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지역 성장환경 부정적 인식 수준
	<p>5개 군집 중 가장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학/통근 불편도 - 스쿨버스통학 비율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익숙하고 편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환경 부정 인식 지역 긍정 인식 (-) 거주지 만족도, 학교통합 유경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 성장환경 부정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통근 불편도 	<p>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계획 유무 - 학교급 및 연령대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통학/통근 불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7개 지자체 	<p>(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강원) 영월군, 화천군, 고성군, (충남) 청양군, (경북) 울릉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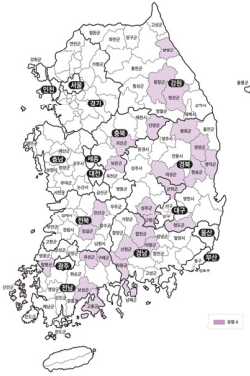
④ 군집4 지역 : 농촌, 13세~18세 비율 높은 28개 지자체

군집4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13세~18세 중·고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8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5개 군집 지역 간 차이 검증을 통해 나타난 이 지역 청소년의 특성은 우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사항이 없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것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가령 일상생활만족도나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측정 항목 중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가 긍정적인 측면의 것이고, 우울감과 불안감, 통학/통근 1시간 이상 비율,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초·중·고 청소년의 비율은 부정적인 측면의 것이다.

군집4 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 스트레스가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제6장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 지역 청소년들의 일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그것이 불편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집중되는지, 그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는 본 연구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기초분석 결과에서도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감이 5개 군집 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심리·정서 측면의 취약성이 어떠한 연계 고리로 불편한 대중교통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집4 지역에서는 스쿨버스트통학 및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과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의 문제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는 달리, 거주지 만족도는 '불편한 대중교통'과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의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공통 요인이 된다. 이처럼 군집4 지역에서 스쿨버스트통학은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과 같은 지역 문제 유형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다면, 군집4 지역은 강화 요인(일상 스트레스, 스쿨버스트통학, 성장환경 부정 인식)과 완화 요인(거주지 만족도) 모두를 고려한 청소년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논의한 군집2 지역과 같이, 무엇을 우선 전략으로 취할 것인지 선택하기보다, 동시에 다양한 전략의 수립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4.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 군집4

군집4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p>• 농촌, 13세~18세 비율 높음</p> 	<p>5개 군집 중 가장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만족도(공동) · 우울감 · 불안감 · 통학/통근 시간 1시간 이상 비율 · 성장환경 부정 인식 - 교육여건 부족, 문화시설 부족, 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공동)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초·중·고 청소년 비율 <p>5개 군집 중 가장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p>(+) 일상 스트레스 (-) 거주지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p>(+) 거주지 출생, 거주지 만족도, 스쿨버스통학, 학교통합유경험, 성장환경 부정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p>(+) 스쿨버스통학, 성장환경 부정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p>(+) 대중교통 통학/통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이동 희망 <p>(+) 대중교통 통학/통근, 자동차 통학/통근 (-)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p>	<p>인식된 지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일상 스트레스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 스쿨버스통학 ·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 문제 - 스쿨버스통학 <p>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유무 - 대중교통 통학/통근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거주지 출생
<p>• 해당 28개 지자체</p>	<p>(대구) 군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진안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p>			

⑤ 군집5 지역 : 도농복합, 19세~24세 비율 높은 8개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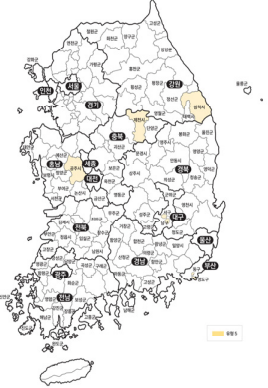
군집5 지역은 도농복합과 도시지역으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광역시의 자치구와 대학이 소재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후기청소년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해한다.

5개 군집 지역 간 차이 검증을 통해 나타난 이 지역 청소년의 특징은 대체로 부정적 항목의 수치가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거주지 및 일상생활만족도는 가장 높고, 일상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우울 및 불안감은 가장 낮다. 인구감소 체감 비율도 낮고,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역 문제를 인식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 가장 높은 것이 있다면,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후기청소년의 비율과 향후 다른 지역이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이에 해당한다.

군집5 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군집 지역의 실증모델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주 형태나 가족 형태가 인식된 지역 문제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요인들을 차지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의 문제 인식 가능성을 높이는 강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양부모가 있는 가족 형태는 이 두 가지 지역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광역시 자치구라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층위의 정주민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부모가 있는 청소년들이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의 청소년들에 비해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이나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할 수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가족 형태는 이사계획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의 청소년들에 비해 양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이사할 가능성이 높고, 대중교통 통학/통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인식된 지역 문제가 있을 때 이사계획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 요인의 영향력은 가장 크다. 결과적으로 군집5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한다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사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다른 지역이동을 희망하는 데에는 일상 스트레스와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의 문제 인식이 강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떠나고 싶으나 떠나지 못하고 군집5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일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고, '놀이 및 활동공간'을 원하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VII-5. 군집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군집5

군집5 지역	기초분석 차이 검증 결과	인식된 지역 문제 결정요인	이사계획 유무 및 지역이동 희망 결정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p>• 도농복합 및 도시, 19세~24세 비율 높음</p> 	<p>5개 군집 중 가장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만족도 · 일상생활만족도(공동) · 인구감소 체감 비율 · '원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인프라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후기청소년 비율 ·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p>(+) 학교급 및 연령대, 통학/통근 불편도 (-) 거주지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있음 <p>(+) 가족 형태(양부모 가족) 대중교통 통학/통근 인식된 지역 문제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이동 희망 	<p>인식된 지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 학교급 및 연령대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 · 생활 문제 및 정보·채움 기회 부족 문제 -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
	<p>5개 군집 중 가장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 우울 및 불안감 · 인구감소 체감 비율 · 성장환경 부정 인식 6개 항목 ·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 편한 이웃과 지인이 많음 · 지역 문제 인식 비율 	<p>(+)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 성장환경 부정 인식 (-) 가족 형태(양부모 가족), 거주지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문제 및 정보·채움 기회 부족 <p>(+) 거주 형태(가족과 함께), 학교통합 유경험, 성장환경 부정 인식 (-) 가족 형태(양부모 가족)</p>	<p>(+) 일상 스트레스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p>	<p>이사계획 및 향후 지역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계획 유무 - 인식된 지역 문제 유무 · 향후 지역이동 희망 여부 -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
<p>• 해당 8개 지자체</p>	<p>(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p>			

2. 주요 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의 방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앞서 논의된 실증분석 결과의 주요 발견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개입 지점과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함.
- 주요 정책적 함의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 개입의 세 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지원 측면에서의 청소년인구 포괄성 강화
 - ②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공통 목표 및 정책 지표 설정
 - ③ 인구감소지역 군집 지역 유형 및 지역 청소년의 연령대별 정책 수립강화

1)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지원 측면에서의 청소년인구 포괄성 강화

앞서 논의된 실증분석 결과의 주요 발견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현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개입 지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 개입의 지점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실증 근거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과제 도출이라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무엇보다도 도출된 정책 개입의 지점과 방향은 다음 단계에서 제안될 정책추진의 방향과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구성하고 제안하는데 연결고리이자 기본틀을 마련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과정으로서 도출된 정책 개입의 방향은 세 가지(①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지원 측면에서의 청소년인구 포괄성 강화, ②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공통 목표 및 정책 지표 설정, ③인구감소지역 군집 지역 유형 및 지역 청소년의 연령대별 정책 수립강화)로 압축하여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정책 개입의 방향은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청소년인구를 고려하고, 청소년인구를 포함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성 강화이다.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전체 수준에서 거주지역의 문제 인식의 유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그 영향력 또한 가장 큰 결과를 갖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 즉 사회적 이동의 주된 연령층으로서 청소년인구를 바라보고, 이들 청소년인구를 인구감소지역 선정과 지원 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1

- 이항로짓 분석의 방법으로 다른 지역 이사계획 유무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분석에서 '인식된 지역 문제 있음'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확인됨.
- 전체 대상 분석뿐만 아니라, 초·중·고 청소년 대상 분석, 군집별 분석에서 군집1 지역 및 군집5 지역에서 인식된 지역 문제의 영향력 확인됨.



정책 개입 방향 1

- 인구감소지역 선정 시, 청소년인구의 연령 범위가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구성 지표 보완
- 인구감소지역 사회적 인구 감소 및 증가에 9세~24세 청소년 연령대에 대한 통계 산출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에 청소년인구자료 확대 필요

2)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공통 목표 및 정책 지표 설정

두 번째 방향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89개 지자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책 지표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을 강화하고자 할 때,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향해, 그리고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때 공통의 목표와 정책 지표가 지속성을 갖는 정책추진을 위한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앞서 실증분석의 주요 발견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 문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공통 요인이다.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경우 반대로 강화 요인인데, 측정된 6개의 항목이 좁은 범위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지역을 포괄하는 지표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증 근거에 기반한 공통의 목표와 정책 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활용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2

- 실증모델 분석 결과, 거주지 만족도가 인식된 지역 문제 유형이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지역의 문제 인식을 완화하는 공통 요인임.
- 강화 요인으로 성장환경 부정 인식이 공통 요인이기는 하나, 지역의 교육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 포괄 지표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정책 개입 방향 2

- 89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등에서 청소년정책 목표 및 정책 지표로 활용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또는 지역 청소년정책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간 청소년정책 성과 평가 시 지표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3) 인구감소지역 군집 지역 유형 및 지역 청소년의 연령대별 정책 수립강화

세 번째 방향은 인구감소지역 지역 특성 및 유형, 그리고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대별 정책 수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6장의 실증분석의 결과와 앞서 주요 발견의 논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연령대 및 군집 지역별 인식된 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요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계획 유무와 향후 다른 지역이동 희망을 결정하는 요인도 초·중·고 청소년과 19세~24세 후기청소년에서 주요 요인이 다르고, 군집은 군집1 지역부터 군집5 지역까지 공통된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울 만큼 각기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실증모델 분석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 특성과 청소년 연령대별 정책욕구의 반영이 전제되지 않을 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증 근거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의 유형과 특성에 기반한 정책인지, 연령대별 거주지역 청소년의 특성 및 정책욕구가 차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3

- 실증모델 분석 결과, 지역 문제 인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연령대별로 매우 다른 것이 확인됨.
- 초·중·고생 연령 집단에서 지역 '군집'이 주요 영향 요인이고, 후기청소년은 '일상스트레스'가 공통 요인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임.
- 5개의 지역 군집에서도 각기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5개 지역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이 하나도 없음.



정책 개입 방향 3

- 정책 수립 시, 초·중·고생인 10대 초·중·고 청소년과 19세~24세 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필요 욕구에 따른 정책 사업 구체화 필요
- 연령대별 정책 접근을 달리하고, 동일 연령대 일지라도 지역별 청소년 인구 구성 및 욕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역 청소년 정책추진 강화 필요

3.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앞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개입의 방향에 기초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세 가지 추진 방향, 각 추진 방향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9개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음.
- 본 연구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 설정한 정책 목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거주지역 만족도 향상'이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 (①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제도 개선, ②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 재정립, ③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체계화)로 설정하였음.
- 정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 가지 정책추진 방향 각각에 대응하는 추진 전략 세 가지(①청소년인구 포괄성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계 법령 개정, ②지역 특성 및 청소년 욕구 기반 정책 수립으로 정주 청소년 지원 강화, ③근거 기반 체계적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및 단계적 확대)를 설정하고, 각 추진 전략하에서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97개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음.

1) 정책 목표 및 방향의 설정

(1) 정책 목표의 설정

정책 목표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거주지역 만족도 향상
--------------	---------------------------------------

앞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개입의 방향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세 가지 추진 방향, 각 추진 방향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9개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거주지역 만족도 향상”이다.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공통요인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인구를 고려하여 또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목표 또는 성과관리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2) 정책추진의 방향

정책 목표의 설정에 이어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세 가지, 즉 ①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제도 개선, ②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 재정립, ③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체계화로 설정하였다. 이 세 가지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반영되었는데,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거와 기준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의 측면, 세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공모사업의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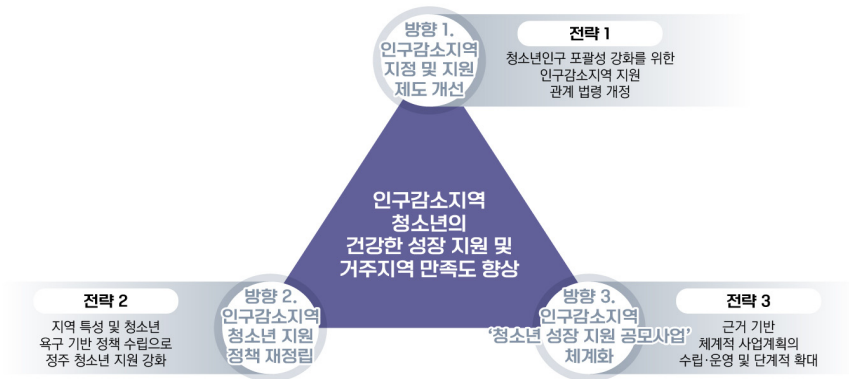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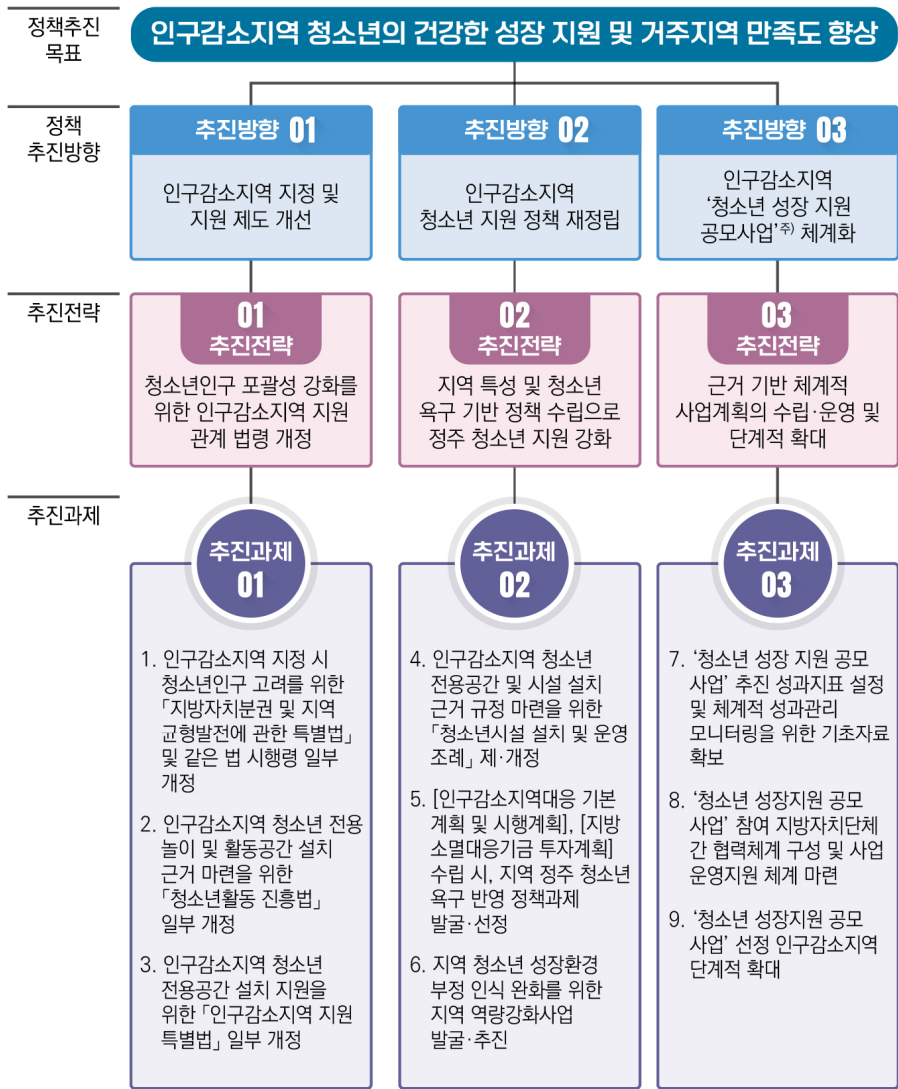


그림 VII-4. 정책추진의 3가지 방향 및 전략

2) 정책추진 방향에 따른 전략 및 과제의 구성

이와 같은 정책추진 방향의 설정에 이어 각 추진 방향에 대응하는 추진 전략 세 가지 또한 설정하였다. 먼저, ①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제도 개선 방향의 추진 전략으로는 a)청소년인구 포괄성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계 법령 개정이고, ②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 재정립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b)지역 특성 및 청소년 욕구 기반 정책 수립으로 정주 청소년 지원 강화, ③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체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c) 근거 기반 체계적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및 단계적 확대가 설정되었다. 또한 각 추진 전략하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총 9개를 그림 VII-5와 같이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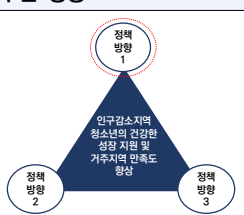
주) '청소년 성장지원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놀이 및 활동공간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2025년 신규 정책 사업임.

그림 VII-5. 정책 추진계획의 기본 체계(안)

3) 전략별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1) 추진 전략 1: 청소년 인구 고려 인구감소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및 관계 법령 개정

① 추진 과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청소년인구 고려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과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청소년인구 고려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정의 규정에서 기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19세 이하 청소년 인수로 개정 제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개정 제안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같은 내용 반영하여 개정 		■ 추진 방향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소관 부처 정부(→ 법제처) 또는 국회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사업 도입 () 추진 체계 정비 () 기타 () 	

• 주요 제안 내용

연구의 시작점에서 청소년정책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관련 국가 정책 아젠다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이슈와 밀착도 있게 연계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지표에 반영된 연령대 범위를 아래 그림 VII-6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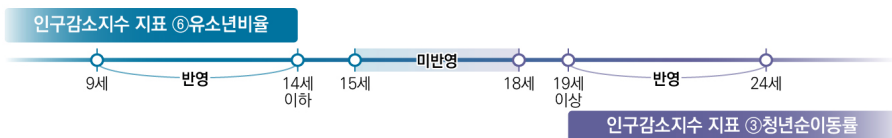


그림 VII-6. 인구감소지역 선정 8개 지표 반영 연령대 및 미포함 청소년 연령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실증모델 분석 결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인식된 지역의 문제 유형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인구의 유출이자 사회적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현실의 정책에서는 청소년인구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구가 인구감소와 관련한 국가 정책 아젠다에서 함께 논의되고,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청소년정책 영역에서만 아닌,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지역의 정책 이슈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법률, 즉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개정을 표 VII-6과 같이 제안한다.

표 VII-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p>제2조(정의)</p> <p>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p> <p>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p> <p>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4.1.17. 검색 및 인출).

② 추진 과제 2.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전용 놀이 및 활동공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

추진 과제 2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전용 놀이 및 활동공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규정에 3호를 신설하고,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 • 같은 법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추진 방향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32조의2 신설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법제처) 또는 국회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기타 () 	

• 주요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실증모델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청소년이 가장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5개 지역이 포함된 군집1 지역의 경우,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을 지역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단기간 내 이사계획의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 된다. 각 군집 지역에서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아보면, 거주지역 만족도가 높고(군집2), 지역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이 높고(군집3), 스쿨버스트통학하고(군집4),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군집5) 청소년들, 즉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떠나는 이들이 아닌, 지역에 남는 정주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유공간 또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불리는 일명 청소년 놀이 및 활동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²⁴⁾,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2025년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 중 하나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공간 마련에 있음을 고려하여²⁵⁾,

24)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국에서 103개의 자유공간 또는 전용공간이 운영되고 있음(2024.4.25. 정책실무협의회 논의 내용).

25) 여성가족부(2024b)의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지역(시·군·구) 모집 공고’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자유공간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됨(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107호, p.3)

인구감소지역에 청소년 전용 놀이 및 활동공간 설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3호 및 제32조의2 조항 신설을 표 VII-7과 같이 제안한다.²⁶⁾

표 VII-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이하생략) 나. 청소년수련원 : (이하생략) 다. 청소년문화의 집 : (이하생략) 라. 청소년특화시설 : (이하생략) 마. 청소년야영장 : (이하생략) 바. 유스호스텔 : (이하생략)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신설〉</p>	<p>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이하생략) 나. 청소년수련원 : (이하생략) 다. 청소년문화의 집 : (이하생략) 라. 청소년특화시설 : (이하생략) 마. 청소년야영장 : (이하생략) 바. 유스호스텔 : (이하생략)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3. 청소년전용놀이시설: 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청소년 자유공간 등 청소년의 자유로운 놀이와 휴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p>
<p>〈신설〉</p>	<p>제32조의2(청소년전용놀이시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놀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전용공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및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청소년 전용공간 및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청소년 전용공간 및 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4.1.17. 검색 및 인출).

26) 입법 및 법제 연구 전문가의 단계적 자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청소년전용 놀이시설’로 표기하여 제안함.

③ 추진 과제 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추진 과제 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의 개정을 통하여 앞서 제안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3호 신설로 정의할 수 있는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는 문화기반의 확충을 목적으로하는 특례조항으로서, 앞서 제안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의2 신설 내용과도 연계될 수 있음. 		■ 추진 방향
■ 근거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 비해당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정부 입법 또는 국회 입법 발의 → (법제처) → 국회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기타 ()

• 주요 제안 내용

앞서 제안한 추진과제2.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3호와 같은 법 제32조의2 신설 개정 사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조항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어 표 VII-8 과 같이 제25조제3항의 개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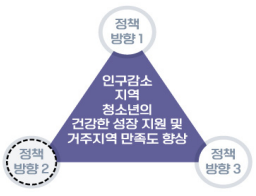
표 VII-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 시설 또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10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4.1.17. 검색 및 인출).

(2) 추진 전략2 : 지역 특성 및 청소년 욕구기반 정책 수립으로 정주 청소년 지원 강화

① 추진 과제 4.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전용공간 및 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개정

추진 과제 4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전용공간 및 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놀이 및 활동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과제2.에서 제안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주도하여 조례 제·개정 가능 기존 조례에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의 개념 및 운영 규정 조항 신설 기존 제정된 조례가 없을 시, '청소년전용놀이시설' 내용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추진 방향  <p>추진 방향 1: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거주지역 만족도 향상</p> <p>추진 방향 2: 정책 방향 2</p> <p>추진 방향 3: 정책 방향 3</p>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신설 제32조의2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개정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신규 사업 도입 () 추진 체계 정비 () 기타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해당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 부처 → 지자체 → 지방 의회 		

• 주요 제안 내용

앞서 추진 과제2. 및 추진 과제3.의 법률 개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법률 개정과는 상관없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 '놀이 및 활동공간'을 확충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수도권에서 청소년 자유공간 또는 전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중에는 법령의 근거 없이 현재 운영되는 곳도 있고, 딱히 근거 또는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 용시설'로 간주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단,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각 청소년시설 종류를 정의하고, 이 규정하에 각 목으로 '청소년놀터'²⁷⁾라는 청소년 자유공간의 정의 규정을 반영해 놓았다.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청소년시설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표 VII-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0곳이다. 49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놀이 및 활동공간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 제정부터 필요한 상태이다.

27)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마. 청소년놀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하여 북 카페, 미디어, 보드게임 등 자유로운 놀이를 제공하는 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9.26. 검색).

표 VII-9.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 제정·운영 현황

(2024. 10. 현재)

순번	조례명	지역명
1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가평군
2	강진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3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4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5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6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7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8	고흥군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9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10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괴산시
11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12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13	남원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14	논산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15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16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17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18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19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21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22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23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24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5	순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6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7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28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29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30	완도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31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32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33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34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35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36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7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38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39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40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2024.10.4. 검색 및 인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49개의 인구감소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진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40개의 지자체의 조례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놀이 및 활동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 조례(안)의 제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상위 법률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²⁸⁾ 따라서 기존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중인 지자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법률 신설 내용(「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3호, 제32조의2)을 표 VII-10과 같이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나은 상황이다.

표 VII-10.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① ~③ 생략 <신설>	제4조(업무) ① ~③ 생략 ④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전용놀이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자유로운 놀이를 위한 놀이공간 및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4.10.4. 검색 및 인출).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통일적인 조문 구조 및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례 개정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법률 개정안에 제안된 가칭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 중의 하나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3호 및 제32조의2

28)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조례 위임 사항은 ①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법률 제41조), ②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구성(같은 법 시행령 제2조), ③ 수련지구 내 금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8호)임.

신설만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40개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의 경우, ①청소년시설의 정의 내지 종류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을 추가하고, ②청소년시설의 기능 또는 업무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는 경우 ‘청소년전용놀이시설’의 기능 또는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법률 신설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밖에 관련 조례가 없는 49개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의 마련을 권장하고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전용놀이시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추진 과제 5.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지역 정주 청소년 욕구 반영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선정

추진 과제 5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지역 정주 청소년 욕구 반영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선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수립하고(제1항),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제3항)를 거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에 정주 청소년에 대한 의견 청취와 욕구가 반영된 정책과제 발굴·선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에도 지역의 정주 청소년의 욕구 반영된 정책과제 발굴·선정 		■ 추진 방향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개정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신규 사업 도입 () 추진 체계 정비 () 기타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 지자체 예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자체 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회 	

• 주요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제2장 정책동향 분석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2년부터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 원으로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정주민 지원과 생활인구 유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2장에서 분석된 2022년-2023년 기금을 활용한 사업목록을 보면, 그 사업의 성격이 시설 조성 사업에 쏠려 있다 할지라도 청소년정책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15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89개 지역 중 13곳에 불과하다.

앞선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에 정주하는 청소년들이 결국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이들 핵심 자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 계획된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의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이 소멸의 위험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선 장들에서 일본의 후쿠이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공모델의 시작점과 성공의 변곡점에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있었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치와 교육이 성공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고 이들의 정책욕구를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우선 지역의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어떠한 체계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청소년정책 자원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정책들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25%는 광역지원 계정으로, 75%는 기초지원계정으로 배분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다면, 자원의 연계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굴하는 사업에도 광역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공통 특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 과제의 발굴 및 선정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논의되고 실증모델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연령대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역 문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에 유념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선정, 그리고 기금 재정 등에 대한 투자사업의 발굴을 제안한다.

③ 추진 과제 6.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 부정 인식 완화를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 발굴·추진

추진 과제 6		지역 청소년 성장환경 부정 인식 완화를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 발굴·추진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6개 항목으로 측정된 지역의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지역 문제 인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됨. • 청소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양적인 측면의 경험 횟수가 아닌, “직접” 경험에 방점이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를 근거로 지역의 대학과 기업, 비영리단체, 주민자치회 등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시책 추진 제안 		■ 추진 방향 
■ 근거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 소요 지자체 예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기초지자체 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기타 ()

• 주요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와 앞선 논의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6개 항목(①교육 여건 부족, ②진학 정보 부족, ③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 ④직접 체험활동 부족, ⑤문화시설 부족, ⑥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으로 측정된 지역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지역 문제 인식의 가능성을 높이고 강화하는 공통 요인이다.

제4장에서 비 해당지역 청소년들과의 상대적 특성 비교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양적인 측면에서 활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보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욕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생생한 경험 속에서 파악되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휴대폰의 인터넷 접속만으로 넘쳐나는 정보가 있지 않느냐고 아주 쉽게 말하지만,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양”에 있지 않다. 그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것은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접”에 방점이 있다. 양적인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직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부족하다는 그 “직접” 체험과 경험을 채워주려고 할 때, 원거리에 있는 이들에게 지역의 방문을 청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이벤트에 가깝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역 자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실증모델 분석에서 학교통합의 경험과 스쿨버스통학을 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놀이 및 활동공간 부족’의 문제보다 ‘생활 문제 및 정보·체험 기회 부족’을 지역의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상기해 본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29)에서 규정하는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조항을 근거로 지역의 대학과 기업, 비영리단체, 주민자치회 등이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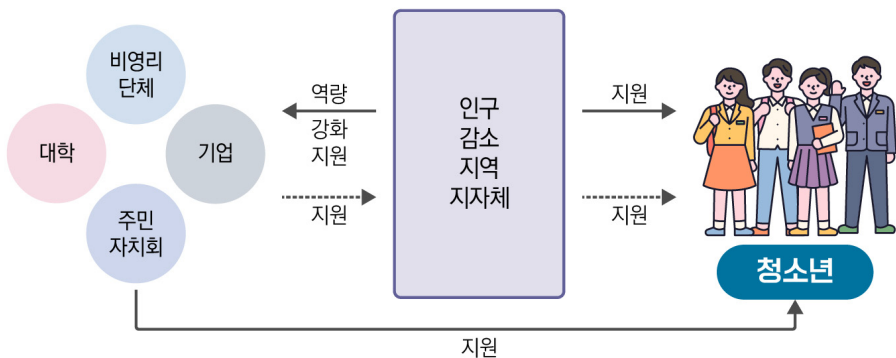


그림 Ⅶ-7.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 발굴·추진 체계(안)

지역의 대학 관련해서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0.17.검색).

System & Education)’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이전보다 커졌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확대로 규제 완화(행정안전부, 2024.7.18.)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지역의 자원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장환경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

(3) 추진 전략3 : 근거 기반 체계적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및 단계적 확대

① 추진 과제 7.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추진 성과지표 설정 및 체계적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추진 과제 7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추진 성과지표 설정 및 체계적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주무 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회, 여가부-행안부-기재부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규 예산 11억(국비 50%, 지방비 50%) 확보 • 2025년 청소년정책 신규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성과관리 지표 필요 제기 • 참여 지자체의 사업 단위는 물론, 중앙 단위에서의 성과관리 및 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체계적 분석 제안 		■ 추진 방향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2023a) 정책과제 5-2-③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기타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필요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 공모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 여성가족부 → 위탁 영역 등 		

• 주요 제안 내용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정책 실무협의회와 여성가족부-행안부-기획재정부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을 반영한 차년도 신규사업, 즉 2025년도 청소년정책 신규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이 총예산 11억(국비 50%: 지방비 50%; 1개소 당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향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의 확대·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준거 척도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개별 사업별 성과관리는 물론, 중앙 단위에서의 25년 성과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확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와 체계적인 분석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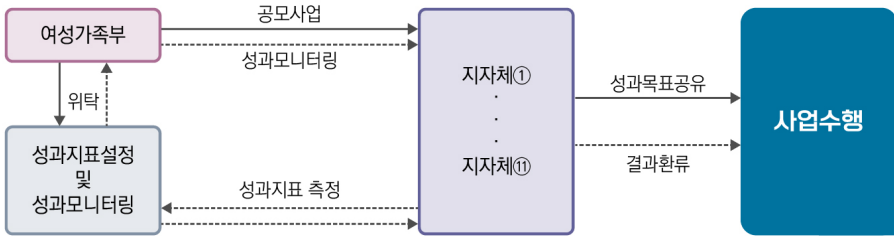


그림 Ⅶ-8. 공모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추진 체계(안)

② 추진 과제 8.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성 및 사업 운영지원 체계 마련

추진 과제 8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성 및 사업 운영지원 체계 마련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선정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거나, 참여 지자체의 군집 유형을 기준으로 한 협의체 운영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협력과 연대의 장을 제공 - 원활한 사업 운영의 촉매제 역할 기대 - 사업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지역 청소년정책에 대한 효능감 또한 중앙 단위의 사업 추진 성과로 관리 	■ 추진 방향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2023a) 정책과제 5-2-②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기타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 공모사업 운영지원 기구 → 공모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 	

• 주요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제3장 군집분석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청소년인구와 연령대별 비율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의 기본 성격(도농여부)과 총인구수를 더하여 유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5개의 군집 유형을 도출해 냈다. 이들 군집 간의 차이는 지역 청소년의 문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계획 유무 및 이사계획은 없지만 지역이동 희망을 결정하는 요인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공모 과정 중에 있는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에 본 연구에서 분류한 군집 지역 중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 지자체가 최종 참여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11개 지자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최종 선정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 유형별, 또는 지역 군집별로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하다거나 청소년인구 측면에서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묶어 그 과정에서 협력과 연대의 장이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사업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지역 청소년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얻는 것도 중앙단위에서는 사업 추진의 성과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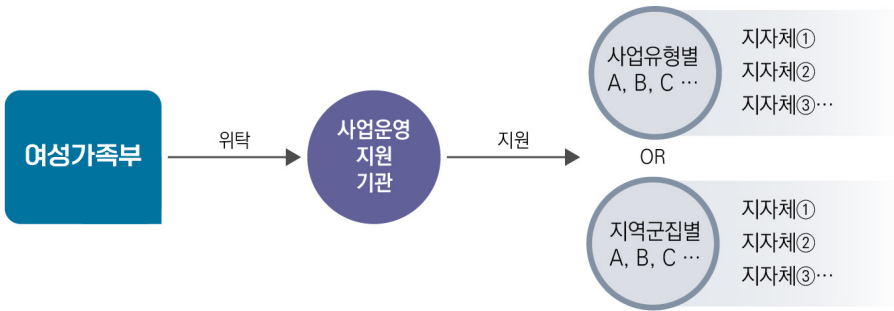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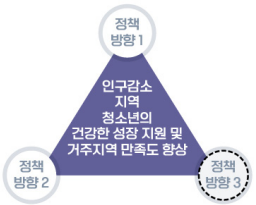


그림 Ⅶ-9. 공모사업 참여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성 및 사업 운영지원 체계

③ 추진 과제 9.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단계적 확대

추진 과제 9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단계적 확대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예산의 제약으로 11개 지역에 한정됨. • 인구감소지역이 총 89개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다소 적어 단계적으로 참여 지역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필요 • 확대 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 측면에서 지역의 취약한 특성이나 청소년들의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에 대응하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 주제' 제도 활용 필요 		■ 추진 방향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2023a) 정책과제 5-2-②, 5-2-③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와 행안부 협의 →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기타 (○) 	

• 주요 제안 내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은 총 11억 원이고, 1개 지역에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므로 참여 지자체는 11개 지역으로 한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이 총 89개 지역인 데 비해, 너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체계를 갖춘 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모사업의 형태이기는 하나,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책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공모사업 범주 내에서 추진 될 수 있기 위한 방편으로 단계적 지역 확대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 확대의 과정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각 지역이 갖는 취약성이나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취약한 특성(예: 후기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 군집4 지역의 우울 및 불안감)을 개선·보완 또는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지정 주제'의 활용을 제안한다.

표 VII-1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추진 과제 요약

추진 과제	과제 추진 유형	근거 법령	추진 기간 ^{*)}	소관 및 관계 부처
		①법령 제·개정 ②존 사업 보완·확대 ③신규 사업 도입 ④추진 체계 정비 ⑤기타	①있음 ②개정 필요 ③제정 필요 ④없음 ⑤정책계획 있음	①단기 ②중기 ③장기

1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제도 개선
 → [전략①] 청소년인구 포괄성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계 법령 개정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청소년인구 고려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①	②	②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2.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전용 놀이 및 활동공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	①	②	①	여성가족부
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①	②	①, ②	행정안전부

2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 재정립
 → [전략②] 지역 특성 및 청소년 욕구 기반 정책 수립으로 정주 청소년 지원 강화

4.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전용공간 및 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개정	①, ⑤	②, ③	①, ②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5.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지역 정주 청소년 욕구 반영 정책과제 발굴·선정	②	①	①, 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6. 지역 청소년 부정 인식 완화 및 지역 긍정인식 증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추진	②, ③	①	①, 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체계화
 → [전략③] 근거 기반 체계적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및 단계적 확대

7.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추진 성과지표 설정 및 체계적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③	①, ⑤	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8.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참여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성 및 사업 운영 지원 체계 마련	③, ④, ⑤	⑤	①	여성가족부
9.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단계적 확대	②, ⑤	①, ⑤	①, ②, ③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주: 단기(1~2년 이내), 중기(3~5년 내), 장기(5년 이상)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과 저서]

- 구형수, 배유진, 윤세진, 강동우, 조성호 (20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홍 (2023). **대한민국 소멸보고서**. 서울: 폐가수스.
- 노재인, 정주원 (2021). 인구특성에 따른 도시 유형과 행정서비스 구현 방안. **행정논총**, 59(3), 49-75.
-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서울: ㈜ 미래엔
- 양오석 (2013). **첫 눈에 반한 STATA. 경영학을 위한 STATA 활용법**. 서울: 지필미디어.
- 양희준, 박근영, 이재준, 허준, 박상욱 (2022). **지방소멸 시대의 농촌 교육,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 서울: 학이시습.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봄), 3-17.
- 이원도, 유수동, 김영룡 (202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37(1), 251-280.
- 이혜영 (2010). **소규모 학교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문현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7(1), 11-22.
- 장인수, 정찬우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 **GR연구논총**, 24(4), 1-26.
- 정주원, 이이라 (2022). 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한국행정연구**, 31(3), 61-87.
- 전영수 (2022).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서울: ㈜ 백도씨.
- _____ (2023).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서울: 라의눈.

- 최예술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 인구특성 분석**. WP 22-06, 세종: 국토연구원.
- 최진섭 (2024).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 *Tax Issue Paper*, 120, 1-17.
-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5). **(행복동네 후쿠이 리포트) 이토록 멋진 마을**. 김범수 옮김. 서울: 황소자리출판사.
- Cameron A. C., and Trivedi K. P. (2017). *Stata를 활용한 미시경제학*. 강창화·박창곤 역. 서울: 지필미디어 (원서출판: 2007).
- Gujarati, Damodar(2016). *예제를 통한 계량경제학*. 2판: 강달원, 김윤영, 제상영, 차경수, 홍찬식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11).
- Harlow, K. S. & Turner, M. J. (1993). State units and convergence models_Needs assessment revisited. *The Gerontologist*, 33(2), 190-199.
- Hastie, T, Tibshirani, R. J., & Friedman, J. (2009)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Datamining, inference and prediction*. 2nd ed. New York: Springer.
- Makles, A. (2012). Stata tip 110: How to get the optimal k-means cluster solution. *The Stata Journal*, 12(2), 347-351.
- McCann, P. (2023). "How Have Place-Based Policies Evolved to Date and What Are They For Now?", Background paper for the OECD-EC High-Level Expert Workshop Series on "Place-Based Policies for the Future", Workshop 1, 14 April 2023, <https://www.oecd.org/cfe/regionaldevelopment/place-based-policies-for-the-future.htm> (2024.09.12. 검색 및 출력).
- Tashakkori, A. & Teddie, C.저, 염시창 역. (2001).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서울: 학지사.

[국내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사회보장정보원_복지사업 시군구별 수급권자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62448/fileData.do>, 2024.2.20.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24.4.15.).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나라살림연구소 (2023.10.24.). 2022~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www.narasallim.net/report/525>, 2024.5.2. 인출

여성가족부 (2023a).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2023b). 2023년 지자체 시행계획 1권~3권, <https://www.ypec.re.kr>, 2024.3.5. 인출.

여성가족부 (2023.12).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https://www2.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9021&pWise=sub&pWiseSub=J2> 에서 2024.5.2. 인출

여성가족부 (2024a). 2023년 지자체 실적보고서 예산 부문 내부 자료.

여성가족부 (2024b).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지역(시.군.구) 모집 공고.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인구, 가구 및 주택, 읍면동(연도 끝자리 0, 5), 시군구(그 외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I2 에서 2024.5.9. 인출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 에서 2024.5.9. 인출

행정안전부 누리집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4.9.23. 검색 및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4.).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2058 에서 2024.10.1.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나선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7782 에서 2024.10.1.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2.8.).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제정 등-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98780&pageIndex=&startDate=2023-10-10&endDate=2024-10-10&srchWord=>에서 2024.10.1.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5.29.).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326> 에서 2024.10.1. 인출

행정안전부 (2022.07.07.).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https://www.mois.go.kr> 2024.3.23.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8.16.).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 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결정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4069 에서 2024.10.1.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2.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 등 규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50 에서 2024.5.2.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12.18.).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 16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5803 에서 2024.5.2.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1.1.).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6167 에서 2024.5.3.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1.10.).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 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15lsKvMK6B0kPxYlk8DOziw0.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6346 에서 2024.5.3.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6.4.).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6월 4일(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760651&tblKey=GMN> 에서 2024.9.12.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7.18.).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 소멸위기 극복.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drtTnwb5wvxSkkq-jAzPKWlj.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0964 에서 2024.9.3. 인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7.3.3.). 인구감소지역 활력드림(Dream), 구례 현장 토론회 개최 - 행정자치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발전 순회 토론회 개최.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812255&tblKey=GMN> 에서 2024.5.2. 인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7.6.29.). 인구감소지역 활력드림(Dream), 구례 현장 토론회 개최 - 행정자치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발전 순회 토론회 개최.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812255&tblKey=GMN> 에서 2024.5.2. 인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8.4.17.).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실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932 에서 2024.10.2. 인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9.4.29.).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71 에서 2024.10.1. 인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20.3.5.).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행안부, 4월3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128 에서 2024.10.1. 인출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舊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1호)

[참고 사이트]

강화군청 누리집, <https://www.ganghwa.go.kr/>, 2024.10.12. 검색.

고령군청 누리집, <https://www.goryeong.go.kr/>, 2024.10.12. 검색.

고성군청 누리집, <https://www.goseong.go.kr/index.goseong?contentsSid=2024>,
2024.10.12.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4.9.11., 2024.10.
12. 검색.

김제시청 누리집, <https://www.gimje.go.kr/>, 2024.10.12. 검색.

담양군청 누리집, <https://www.damyang.go.kr/>, 2024.10.12. 검색.

대구광역시 누리집, <https://www.daegu.go.kr/index.do>, 2024.10.13. 검색

부산동구청 누리집, <https://www.bsdonggu.go.kr/>, 2024.10.12. 검색.

양구군청 누리집, <https://www.yanggu.go.kr/>, 2024.10.12. 검색.

영광군청 누리집, <https://www.yeonggwang.go.kr/>, 2024.10.12. 검색.

영주시청 누리집, <https://yeongju.go.kr/>, 2024.10.12. 검색.

인제군청 누리집, <https://www.inje.go.kr/>, 2024.10.12. 검색.

정부24, <https://www.gov.kr>, 2024.10.12. 검색.

진도군청 누리집, <https://www.jindo.go.kr/intro.jsp>, 2024.10.12. 검색.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 <https://kess.kedi.re.kr/index>, 2024.2.20.
검색.

함안군청 누리집, <https://www.haman.go.kr/>, 2024.10.12. 검색.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2.14. 검색.

행정안전부 누리집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4.9.23. 검색.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enara> 2024.10.16 검색.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2024.10.16. 검색.

NAB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nabis.go.kr/main.do> 2024.10.11. 검색.

○ — 부록

1. 정책욕구조사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X) 보기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정책지원욕구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 복지, 활동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수행중인 2024년 고유과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9~24세 청소년 대상 정책지원욕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며,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06

※ 본 조사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 ㈜에스티아이

박재근 책임연구원 (02-785-9124, rabong2106@goodsti.com)

장희수 연구원 (02-785-9247, sweep21@goodsti.com)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선임연구위원 (044-415-2212, jkkim@nypi.re.kr)

김윤희 부연구위원 (044-415-2225, bboddc@nypi.re.kr)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을 완료하신 분께 다음과 같은 답례품을 지급합니다.

만19세~만24세 후기 청소년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 또는 5,000원 편의점 상품권 택1

- 예상 소요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다소 지루하더라도 차분하게 응답 바랍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개인정보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

다크 모드

나눔고덕 ▼

문의사항 보내기

문항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0. 응답 대상자 판별		
D1	현재 거주하는 곳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_____(시/도)_____(시/군/구)
D2	언제 태어났나요? 태어난 연도와 월을 선택해 주세요.	____년 ____월 (만 OO세)
D3	현재 사는 지역(○○시/군/구)에서 태어났나요?	1. 예 2. 아니오
D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에서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1. 2년 미만 (☞ 설문 종료) 2. 2년~5년 미만 3. 5년~10년 미만 4. 10년 이상
D5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1. 예 (☞ D5-1) 2. 아니오 (☞ D5-3)
D5-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D5-2	현재 몇 학년인가요?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D5-3	현재 '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것을 다음 중 선택해 주세요.	1.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음 2.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3. 내 사업(일)을 하고 있음 4. 가족이 하는 사업을 돕고 있음 5. 진학 준비를 하고 있음 6.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음 7. 육아 또는 가정일을 하고 있음 8. 쉬고 있음 9. 기타()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다음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Q1	1) 개인 특성	성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나요?	1. 남성 2. 여성
Q2	2) 가구 특성	현재 살고 있는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나요?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친척 집 또는 아는 사람 집에서 살고 있다 3. 하숙, 자취하고 있다 4.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5. 기타()
Q3		다음 중 <u>함께 살고 있는 사람</u> 모두를 선택해 주세요. *일 또는 학교로 주말에만 만나는 가족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세요.	1. 할아버지 2. 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5. 형제 또는 자매, 남매 6. 친구 또는 직장 동료 7. 나 혼자 8. 친척 9. 배우자 10. 자녀 11. 기타 ()
Q4		부모님 중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으로 한국에 오신 분이 있나요?	1. 있다 (☞ Q4-1) 2. 없다 (☞ Q5)
Q4-1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신 분은 누구인가요?	1. 아버지 2. 어머니

2. 일상생활 특성

다음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Q5	1) 일상생활만족도 및 심리·정서 특성	[학령기]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1) 가족과의 관계 2) 내가 사는 집 또는 공간 3) 친구들과의 관계 4) 내가 다니는 학교 5) 내가 사는 동네 및 지역 6) 전반적인 나의 일상생활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후기]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1) 가족과의 관계 2) 내가 사는 집 또는 공간 3) 친구들과의 관계 4) 내가 사는 동네 및 지역 5) 전반적인 나의 일상생활	
Q6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나는...)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7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나요? (나는...)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2)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를 느낀다.	1. 그런 적이 없다 2. 한두번 경험했다 3. 가끔 경험했다 4. 자주 경험했다
Q8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나요?	1.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2. 우울하지 않았다 3. 보통이었다 4. 우울했었다 5. 매우 우울했었다
Q9		어제, 어느 정도 불안했나요?	1.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2. 불안하지 않았다 3. 보통이었다 4. 불안했었다 5. 매우 불안했었다
Q10	2) 생활	[학령기]	1. 걸어서 2. 자전거로

2. 일상생활 특성

다음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에 갈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가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대중교통으로 4. 학교스쿨버스로 5. 부모님의 차로 6. 이웃의 차로 7. 기타()
		[후기] 이동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걸어서 2. 자전거로 3. 대중교통 버스로 4. 내 차로 5. 부모님의 차로 6. 이웃의 차로 7. 기타()
Q11	경험 및 인식	[학령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분 이내 2. 10분 ~ 30분 이내 3. 30분 ~ 1시간 이내 4. 1시간 이상
		[후기] 집에서부터 주로 이동하는 곳(학교/직장/학원 등)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12		[학령기] 통학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불편하지 않다 2. 불편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불편하다 5. 매우 불편하다
		[후기] 집에서부터 주로 이동하는 곳(학교/직장/학원 등)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하지는 않나요?	
Q13		[학령기] 다음 각 내용에 응답해 주세요.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 2) 내가 다니는 학교는 인근 학교와 통합된 적이 있다. 3)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이 있다. 4) 나는 학교에서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렵다. ----- (초등생은 1)~4) 항목만 질문 ----- 5)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입시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학생들이 있다. 6)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렇다 2. 아니다
		[후기]	1. 그렇다

2. 일상생활 특성

다음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p>다음 각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 2) 내가 다닌 학교는 인근 학교와 통합된 적이 있다. 3) 내가 다닌 학교에는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이 있다. 4) 나는 학교에서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려웠다. 5) 내가 다닌 학교에는 입시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학생들이 있었다. 6)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없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아니다 3. 해당사항 없음(현 지역에서 학교 다닌적 없음) → 2)~6)에만 제시)
Q14	<p>[학령기] 다음 각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p> <p>(내가 사는 곳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2)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3) 진로 및 직업탐색 정보를 얻기 어렵다. 4)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가 없다. 5)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다. 6)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p>[후기] 다음 각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p> <p>(내가 사는 곳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2)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3) 진로 및 직업탐색 정보를 얻기 어렵다. 4)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가 없다. 5)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다. 6)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해당사항 없음(현 지역에서 학교 다닌적 없음)
Q15	<p>[학령기] 다음 각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 (→ 초등 제외)</p> <p>(내가 사는 곳에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 피해가 계속되기 쉽고 문제해결이 어렵다. 2) 아르바이트생이 피해가 있어도 신고하기 어렵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일상생활 특성

다음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p>[후기]</p> <p>다음 각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p> <p>(내가 사는 곳에서는...)</p> <p>1) 학교폭력 피해가 계속되기 쉽고 문제해결이 어려웠다. 2) 아르바이트생이 피해가 있어도 신고하기 어렵다.</p>	<p>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해당사항 없음(현 지역에서 학교 다닌적 없음)</p>
Q16	3) 지역에 대한 인식	<p>다음 각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p> <p>(내가 사는 곳은...)</p> <p>1)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이어서 익숙하고 편안하다. 2) 오래 알고 지내 편한 이웃과 아는 사람들이 많다. 3) 나와 내 친구들은 대체로 사는 수준이 비슷하다. 4)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좋다. 5) 이 지역에 살고 있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 초등 제외) 6)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곳이다.</p>	<p>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p>

3. 문제 인식 및 정책 욕구

다음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Q17	1) 지역사회 문제 인식	현재 사는 지역(읍/시/군/구)에서 생활하면서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1. 있다 (☞ Q17-1) 2. 없다 (☞ Q18)
Q17-1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우선순위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 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2)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생활 3) 가족 문제(가족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 등) 4) 친구와의 문제(친구와의 갈등 및 학교폭력 피해 등) 5) 방과 후 딱히 갈 곳도 할 것도 없는 환경 6) 진학 또는 진로·직업을 선택·결정하는데 부족한 정보 7)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8) 놀이와 다양한 활동공간의 부족 9) 기타 () ----- 학령기 청소년 1)~9) ----- 후기청소년 아래와 같이 1)~11) 9) 내가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 10) 청년을 위한 지원 인프라 부족 11) 기타 ()
Q18		현재 사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나요?	1. 있다 (☞ Q18-1) 2. 없다 (☞ Q19)
Q18-1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우선순위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 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2)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생활 3) 가족 문제(가족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 등) 4) 친구와의 문제(친구와의 갈등 및 학교폭력 피해 등) 5) 방과 후 딱히 갈 곳도 할 것도 없는 환경 6) 진학 또는 진로·직업을 선택·결정하는데 부족한 정보 7)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8) 놀이와 다양한 활동공간의 부족 9) 기타 () ----- 학령기 청소년 1)~9) ----- 후기청소년 아래와 같이 1)~11) 9) 내가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 10) 청년을 위한 지원 인프라 부족

3. 문제 인식 및 정책 욕구

다음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11) 기타 ()
Q19	2) 거주지 이동 계획	현재 사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나요? *현재 사는 곳(○○시/군/구) 내에서의 이사할 계획은 “2. 없다”로 응답해 주세요.	1. 있다 (☞ Q19-1) 2. 없다 (☞ Q19-2)
Q19-1		다른 지역으로 언제쯤 이사할 계획인가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로 이사 계획	1. 1년 이내 2. 1년~3년 이내 3. 3년 이후
Q19-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 사는 지역에서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나요? *현재 사는 곳(○○시/군/구) 내에서의 이동은 “2. 없다”로 응답해 주세요.	1. 있다 (☞ Q19-3) 2. 없다 (초중고생 ☞ AG1) 후기청소년 ☞ Q20)
Q19-3		다른 지역으로 언제쯤 이동하고 싶나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로 이동	[초등생] 1. 초등학교 재학 중에 2. 중학교 진학할 때 3. 고등학교 진학할 때 4. 대학 진학할 때 5. 대학 졸업 후에 6. 기타 ()
			[고교생] 1. 고등학교 재학 중에 2. 대학 진학할 때 3. 대학 졸업 후에 4. 기타 ()
			[후기청소년] 1. 1년 이내 2. 1년~3년 이내

3. 문제 인식 및 정책 욕구

다음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3. 3년 이후 4. 기타 ()
Q20	3) 지역 청소년 위한 개선 사항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10대 청소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로 필요한 사항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 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및 교통인프라 개선 2) 학습지도 및 지원 3) 경제적 지원 4) 학교 공부 외 다양한 비교과활동 기회 제공 5) 진학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6)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7)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제공 8) 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곳을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9) 일상에서의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 10) 기타 ()

2. FGI질문지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과제명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세~24세 후기청소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거주 경험 및 성장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우리나라 89개 지역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성장한 경험과 이와 관련된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현재 거주 중인 19세~24세 6명, 89개 인구감소지역 출신이지만 현재 타 지역에 거주 중인 19~24세 6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 참여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감소지역 거주 경험 및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현재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면접조사 참여 대상자에게는 현금 8만 원이 제공되고, 참여를 위해 원거리 이동자의 경우 교통비 실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나이, 이메일, 거주지역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_____ , 전화번호 : _____
공동연구자 : _____ , 전화번호 : 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써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 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188

I. 참여자 구성 및 선정과정에서의 질문

1. 2024년 4월1일 기준, 나이가 몇 세 인가요?
2. 성별과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3. 고등학교 졸업시기까지 거주하셨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5.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II. FGI 면접조사 질문

1. 초등 4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로 어느 곳에서 자랐나요?
2. 주로 자란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나요?
3. 주로 자란 곳에서의 나의 10대시기를 돌아켜 볼 때, 어떤 점은 즐겁고 좋았고, 어떤 점은 불편하고 아쉬웠나요?
4. 초, 중, 고 10대시기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5. 청소년시기에 지역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6. 현재 지역출신으로 지원 받는 것이 있나요?
7. 또래 친구들 중 출신지역에 몇 명이나 남아 있나요? 다들 지역을 떠나고 싶어 했나요?
8. 10대시기를 돌아켜 볼 때, 현재 출신지역에서 살고 있는 초, 중, 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소멸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테두리 안으로 청소년들을 적극 포괄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단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실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을 기본 틀(frame)로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정책욕구를 조사하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문제 유형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과 이항로짓 모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문제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지역문제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의 청소년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강화 요인이 된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거주 지역의 영향이 초·중·고 청소년에게는 주요 결정요인이나, 후기청소년에서는 일상 스트레스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 군집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통요인 없이 각기 다른 요인들이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거주지역 만족도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3가지 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그리고 총 9가지의 추진 과제를 정책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정책강화, 정책방안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empiric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youth policies in depopulated areas that actively include youth in the policy framework to support the healthy growth of youth in depopulated areas and mitigate the risk of rural decline.

In order to secure empirical data for step-by-step and systematic policy formul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mixed methodology as the basic frame, investigating the policy desires of youth living in 89 depopulated areas and empiricall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types of local problems perceived by youth in depopulated areas.

Multinomial logit and binomial logit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types of local problems perceived by youth in depopulated areas, and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the place of residence mitigates youth's perception of local problems, whil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local environment for youth growth are a reinforcing factor.

When analyzing by age group, we found that where you live is a major determinant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ens, while daily stress is a major determinant for older teens. In addition, the 89 depopulated areas were categorized into

five clusters, and each cluster was analyzed separately, and the results showed that different factors played a differential role without common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ets the policy goal of “supporting the healthy growth of youth in depopulated areas and improving satisfaction with the area where they live” and proposes three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and a total of nine implementation tasks as policy measures.

Keywords: Depopulated areas, Youth Policy, Policy enforcement,
Policy Plan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 김승경·김지연·백해정·전현정·김성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김승경·김지연·백해정·전현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연구 I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교운·최홍일·이용해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분호·이자경·서지형
-------------	---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최용환·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관측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 황세영
-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워크숍 >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감명령 이해하기 (24.8.29.)
-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 포럼 >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 기타 자료집 >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 NYPI Bluenote 통계 >

-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인쇄 2024년 12월 24일

발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366-4 93330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66-4